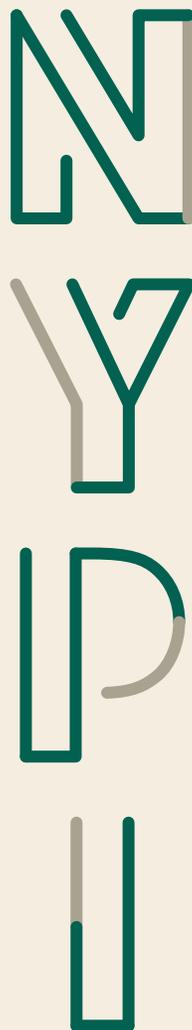


연구보고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연구보고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저 자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연구진 연구책임자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장윤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 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발달추이 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과학적 정책수립 및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종단연구이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2020년에는 두 개의 패널 코호트를 추적조사하고,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10여 년 간 추진된 국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점차 학습적, 심리적 측면에서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 1기에 비하여 2기 청소년들의 발달수준이 더 긍정적이라는 점, 따라서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가 다문화와 관련하여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었고, 이는 그 간의 정부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점 등이 결과로 도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집단 내에서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들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이 개발될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3가지 추진전략과 7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목적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발달추이 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과학적 정책수립 및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둘째, 연구를 통해 구축된 기초자료 및 정책현황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기여함.

- 2020년 중점 목표

첫째, 1, 2기 패널자료를 구축함.

둘째, 1, 2기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적응의 시기별 차이를 비교함

셋째, 2기 패널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집단 내 하위유형별 배경특성별 발달현황을 비교함

넷째, 그간의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함.

다섯째,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을 반영한 정책방안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기의 발달특성에 대한 해외 및 국내 선행연구를 분

석하고,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을 파악하고자 관련부처의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분석함.

●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은 총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추진함. 즉, i) 패널 설문지 검토, ii) 분석결과의 타당성 및 현장적합성 검토, iii)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논의, iv) 다문화청소년정책 평가, v)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추진함.

●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조사원과 1기 패널 조사대상으로 각각 실시함. 조사원 면접은 조사 현장의 경험을 통해 추후 조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였고, 1기 패널 대상 면접조사는 후기청소년기 대상으로 개발한 설문조사지의 타당성, 적절성, 문항이해도, 논리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였음.

● 설문조사

패널 설문조사는 두 개의 코호트를 대상으로 실시함. 1기는 고등학교 졸업 후 후기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추진되었고, 2기는 초등학교 5학년 대상의 조사로 2019년도에 신규로 구축한 패널의 2차 추적조사임.

● 기타

그 외 패널조사 진행을 위한 워크숍과 향후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추진함.

● 보고서 구성

표 i.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 구성

부	부별 제목	장별 제목
제 1부	연구개요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제 2부	패널조사 및 데이터 공개	IV. 패널조사 V. 패널관리 VI. 데이터 공개
제 3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 분석	VII. 다문화청소년 9년간(초4~고3) 발달추이: 1기 패널 분석 VIII. 2011년과 2019년 시기의 집단별 비교: 1, 2기 패널 비교 IX.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특성: 2기 패널 분석 X.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별 분석: 2기 패널 분석
제 4부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성 모색	XI.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 성과 및 한계 XII.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3. 주요결과

1) 9년간 발달추이 분석

- 다문화가정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 속함.
- 상급학교 진학시기마다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증가함
-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성취동기는 높아지고,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고, 사회적 위축은 증가함.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학교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한다는 응답률이 증가함.

-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증가하긴 하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2) 1, 2기 패널의 초 4 시기 비교 분석

- 2기의 삶의 만족도와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1기에 비하여 높음
- 1기에 비하여 2기의 경우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는 높고 방임적 양육태도는 낮음
- 1, 2기 모두 읍·면지역 거주자가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방임태도가 높음
- 학교 안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9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높아짐
-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뚜렷하게 감소함
- 1, 2기 모두 외국출신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지지 수준이 높음.
- 1, 2기 모두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희망교육수준 모두 높은 경향

3) 2기 패널의 하위유형별 분석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읍·면지역 거주비율이 높고, 부모 간 연령차가 가장 크고(어머니 연령은 가장 낮고 아버지 연령은 가장 높음), 가구원수가 가장 많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적고, 부모지지가 가장 낮음.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학교적응 전반에서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성적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높음. 그러나 방과후
학업관련 활동수준은 가장 낮으며, 최종 희망교육수준도 가장 낮음.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고 일상생활 스트레
스는 가장 높으며, 부모 양육태도 중 감독이 가장 낮고 방임은 높음.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건강, 배우자와의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자녀의 최종 희망교육수준도 가장 낮음.
-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고, 소득수준
이 가장 높은 반면,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도 높고 어머니와의 갈등수준이
가장 높으며, 형제자매와의 갈등수준도 가장 높음.
-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부모지지가 가장 높고, 감독수준이 가장 높으며,
교사지지도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수준도
높음, 또한 자신의 자아존중감은 가장 높고, 일상생활스트레스는 가장 낮으
며, 어머니와의 갈등이 가장 낮음.
- 한국 장기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가 모든 집단에서 70% 내외임.
-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차별경험 시 ‘그
냥 참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으며, 본국 정체성이 가장 높음.
- 부모 양육효능감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이 가장 낮음.
- 사교육비 수준을 전국 4학년 사교육비 평균과 비교해본 결과, 모든 하위집단
에서 교과목과 예체능 모두 전국기준보다 낮으며, 특히 예체능 사교육비는
더욱 낮음.
-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모든 집단에서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목이나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임.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거의 90%이며, 네 집단
모두 다문화인 것이 드러나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경우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음.

4) 2기 패널의 배경특성별 분석

-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지난학기 성적, 희망교육수준,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 부모지지, 친구지지 부모와의 활동수준이 높음.
- 어머니 교육수준이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인 경우보다 학교생활적응, 지난학기 성적, 희망교육수준, 삶의 만족도, 부모지지,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부모와의 활동수준이 높음.
- 아버지 교육수준이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인 경우보다 학교생활적응, 지난학기 성적, 희망교육수준,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부모와의 활동수준이 높음. 반면, 현재 걱정거리도 높음.
-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희망교육수준이 낮음
-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부모지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부모의 감독수준, 부모와의 활동수준이 낮고, 부모 방임은 가장 높음.
- 읍·면지역의 경우 어머니 연령수준은 가장 낮고, 아버지 연령수준은 가장 높음.

5)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성과와 한계 분석

- 성과
 -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양적확대 및 질적 발전
 - 다문화청소년의 실제 요구 반영도 증가

- 선별이 아닌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 인식 제고
- 다수자 역량개발의 필요성 인식 반영
- 집단의 다양성과 특성 반영
- 공교육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
-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반영
- 범부처 협업 및 지역 내 연계협력 중요성 인식 증가

● 한계

- 각 사업별 내실화 필요성
- 집단 내 배경특성의 다양성과 요구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필요
- 공급자 시각의 정책추진 여전히 존재
- 일회성, 단발성 사업 여전히 존재
- 주류집단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의 부족
- 다문화청소년이 아닌 다문화가족 자녀정책으로써의 정체성

● 시사점

- 그 간 많은 점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의 명칭에 비해 부실하거나 내실화가 필요한 정책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중앙 차원의 정책들이 읍·면지역 등으로 전달됨에 따라 정책소외가 발생하는 상황임.
-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체 다문화가족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지 않으며, 청소년 주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가족의 구성원의 위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다문화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별 요구가 반영된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정책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음.

4. 정책제언

● 추진전략 1: 다문화청소년 기초역량강화

- 정책과제 1-1.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 한국어교육의 대상특성별 체계적 운영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확대 운영
- 정책과제 1-2. 기초학습능력제고
 - 입학 전 기초학습능력 준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보급
 - 배움지도사 지원 대상 확대
 - 온라인 대학생 멘토링 사업 확대 및 내실화
- 정책과제 1-3. 심리적응능력 강화
 - 온라인 다문화청소년 상담 활성화
 - 상담통역 전문인력 양성
 - 인권침해 대응교육 및 매뉴얼 개발
 - 지역 내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사례 지원 시스템 홍보 및 강화

● 추진전략 2: 부모주도성 강화

- 정책과제 2-1. 부모교육 강화
 - 법무부 국제결혼이민자 대상 교육에 부모교육 의무화
 - 여성가족부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 이용 시 부모교육 의무화
 - 교육부 징검다리교육프로그램의 부모교육 의무화
 -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과정 개발 및 보급

○ 정책과제 2-2. 부모주도성 제고

- 다문화여성대학 참여자 대상 부모교육 강사 양성
- 지역사회 공동육아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
- 여성농업인센터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활성화

● 추진전략 3: 지역중심 정책시스템 강화

○ 정책과제 3-1. 농촌지역정책 강화

-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포함
-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
- 농어촌지역형 다재다능 프로그램 구성 및 보급
- 농어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개발 연구

○ 정책과제 3-2. 지역특성별 연계시스템 구축

- 지역특성별 다문화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

차 례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0-R13

1 부 연구개요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 2. 연구추진체계 7
- 3. 연구내용 7
- 4. 연구방법 10
- 5. 보고서 구성 16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청소년의 개념정의 21
- 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24
- 3.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32

III.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 1. 조사개요 49
- 2. 추진경과 52
- 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성과 및 의의 57

2 부 패널조사 및 데이터 공개

IV. 패널조사

- 1. 1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71
- 2. 2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102
- 3.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 128

V. 패널관리

- 1. 패널관리의 원칙 및 절차 137
- 2. 이탈패널 분석 142
- 3. 품질진단 153
- 4. 소결 155

VI. 데이터 공개

- 1. 데이터 공개의 원칙 159
- 2. 데이터 공개의 절차 162
- 3. 데이터 활용 실적 163

3 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 분석

VII. 다문화청소년 9년간(초4~고3) 발달추이: 1기 패널 분석

- 1. 분석개요 185
- 2. 분석결과 187
- 3. 소결 216

VIII. 2011년과 2019년 시기의 집단별 비교: 1, 2기 패널 비교

- 1. 분석개요 225
- 2. 분석결과 232
- 3. 소결 268

IX.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특성: 2기 패널 분석

1. 분석개요 277
2. 조사대상자 배경특성 282
3.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발달특성 304
4.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부모특성 344
5. 소결 383

X.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별 분석: 2기 패널 분석

1. 분석개요 389
2.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390
3.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397
4. 거주지 규모에 따른 차이 406
5. 요약 및 소결 412

4 부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성 모색

XI.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 성과 및 한계

1.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 421
2.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469

XII.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1.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도출과정 및 절차 479
2.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현황 분석결과 요약 및 결론 481
3.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491

참고문헌 519

부 록 545

ABSTRACT 549

표 목차

표 I-1.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현황	12
표 I-2. 면접조사 개요	13
표 I-3. 1기 패널 설문조사의 주요 요소별 내용	14
표 I-4. 2기 패널 설문조사의 주요 요소별 내용	15
표 I-5.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 구성	17
표 III-1. 2기 패널 구축 결과	55
표 III-2. 본 연구의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건수	59
표 III-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정책반영 결과	62
표 III-4. 본 연구결과 인용 언론게재 결과	63
표 IV-1. 지역별 조사 모집단 분포 현황	72
표 IV-2.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	73
표 IV-3.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7차(2011년) 조사영역	78
표 IV-4. 한국교육고용패널 II 3차(2019년) 조사대상별 조사영역 구성	80
표 IV-5. 한국교육고용패널 II 3차(2019년) 조사영역별 주요 조사내용	81
표 IV-6. 청년패널2007 11차(2017년_조사영역 별 조사대상 및 내용)	84
표 IV-7.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영역 및 주요내용	86
표 IV-8. 후기청소년 세대·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대상별 주요 조사영역	88
표 IV-9. 현행 청년정책 당사자 의견조사 주요 영역 및 내용	89
표 IV-10. 청년의 삶 실태조사 주요 영역 및 내용	90
표 IV-1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청소년 자녀 대상 주요 조사 영역 및 내용	91
표 IV-12. 조사대상유형구분 비교	93
표 IV-13. 주요 조사영역 비교	94
표 IV-1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1기 패널 설문지 문항 구성	96
표 IV-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1기 패널 진로유형별 조사영역	100
표 IV-16. 2기 패널 표본설계 내용	102
표 IV-17.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103

표 IV-18. 다문화가정 학생이 존재하는 초등학교 분포 - 초등학교 4학년 기준	105
표 IV-19. 다문화가정 유형별 시/도별 추가 표본배분	106
표 IV-20. 다문화가정 유형별 시/도별 표본 학교 수	107
표 IV-21. 2기 패널 구축 결과 요약	108
표 IV-22. 2기 패널 전국 시도별 구축 현황	108
표 IV-23. 2기 패널 문항 수 변경 사항	110
표 IV-24. 청소년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년~2020년) ·	111
표 IV-25.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년~2020년) ·	113
표 IV-26. 청소년용 설문지 문항 구성(2019년~2020년)	115
표 IV-27.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 문항 구성(2019년~2020년)	121
표 IV-28. 1기패널 연도별 설문조사(CAPI) 소요시간	130
표 IV-29. 2019년 패널별 설문조사(TAPI) 소요시간	130
표 IV-30. 연도별 조사기간	131
표 IV-31. 조사원 교육 일정	132
표 V-1. 패널 관리 방법 및 내용	137
표 V-2. 연구윤리교육 참여 현황(최근 4년간)	140
표 V-3.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지역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143
표 V-4.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	144
표 V-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현황 (2019년)	144
표 V-6.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현황 (전체)	145
표 V-7.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현황 (2019년)	146
표 V-8.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	147
표 V-9.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2019) ·	147
표 V-10.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이탈현황 (전체)	148
표 V-1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이탈현황 (2019)	148
표 V-1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	149
표 V-13.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현황(2019) ·	150
표 V-14.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패널 이탈 사유(전체)	150
표 V-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패널 이탈 사유(2019)	152

표 V-16. 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153
표 VI-1. 데이터 공개절차	163
표 VI-2. 데이터 활용 건수	164
표 VI-3. 연구 주제 건수	165
표 VII-1. 다문화청소년 9년간 발달추이 분석 영역(2011년~2019년) ·	186
표 VII-2. 월 평균 소득수준 변화추이	188
표 VII-3.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	189
표 VII-4.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	190
표 VII-5.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변화추이	191
표 VII-6.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변화추이	191
표 VII-7.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중복응답) 변화추이 ·····	193
표 VII-8.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 변화추이	195
표 VII-9.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변화추이	196
표 VII-10. 학교성적 수준 변화추이	197
표 VII-11.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추이	198
표 VII-12. 성취동기 변화추이	199
표 VII-13. 학업적 포부수준 변화추이	200
표 VII-14. 삶의 만족도 변화추이	201
표 VII-15. 신체만족도 변화추이	202
표 VII-16. 우울 변화추이	203
표 VII-17. 사회적 위축 변화추이	204
표 VII-18. 비행경험 변화추이	205
표 VII-19. 친한 친구의 수 변화추이	206
표 VII-20. 가족의 지지 변화추이	207
표 VII-21.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 변화추이 ·	208
표 VII-22. 국적에 대한 인식 변화추이	209
표 VII-23. 한국인정체성 변화추이	210
표 VII-24. 다문화수용성 변화추이	211
표 VII-25. 이중문화수용태도(전체) 변화추이	212
표 VII-26. 이중문화수용태도(한국문화) 변화추이	212
표 VII-27. 이중문화수용태도(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 변화추이 ·····	213
표 VII-28. 키 변화추이	214
표 VII-29. 몸무게 변화추이	215
표 VII-30.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추이	216
표 VII-31. 다문화청소년 9년간 변화추이 주요 분석결과	221

표 VIII-1. 1기 패널(2011년 조사)과 2기 패널(2019년 조사) 간 청소년 대상 조사변인 비교	226
표 VIII-2. 1기 패널(2011년)과 2기 패널(2019년) 비교분석 변인	229
표 VIII-3. 개인 및 가정 특성변인 패널 간 비교	234
표 VIII-4. 삶의 만족도 패널 간 비교	236
표 VIII-5. 친한 친구의 수 패널 간 비교	238
표 VIII-6. 학교성적(주관적 성취수준) 패널 간 비교	239
표 VIII-7. 성적 만족도 패널 간 비교	241
표 VIII-8. 희망교육수준 패널 간 비교	243
표 VIII-9.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패널 간 비교	245
표 VIII-10.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패널 간 비교	246
표 VIII-11. 친구의 지지 패널 간 비교	248
표 VIII-12.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패널 간 비교	249
표 VIII-13. 교사의 지지 패널 간 비교	252
표 VIII-14.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여부 패널 간 비교	253
표 VIII-15. 외국출신 부모와 의사소통 패널 간 비교	255
표 VIII-16. 국적에 대한 인식 패널 간 비교	258
표 VIII-17. 외국출신 부모나라 방문 여부 및 횟수 패널 간 비교	261
표 VIII-18. 문화적응 스트레스 패널 간 비교	263
표 VIII-19. 국가(한국인) 정체성 패널 간 비교	264
표 VIII-20. 이중문화 수용태도(한국문화) 패널 간 비교	266
표 VIII-21. 이중문화 수용태도(부모님 나라문화) 패널 간 비교	267
표 VIII-22. 영역별 패널 간 차이 비교	270
표 VIII-23. 영역별 개인 및 가정의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 비교	271
표 VIII-24. 1기 패널과 2기 패널 비교분석 주요결과	273
표 IX-1. 조사대상자 배경특성 조사항목	278
표 IX-2. 청소년 대상 조사결과 분석 영역	279
표 IX-3. 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분석 영역	281
표 IX-4. 조사참여자 수	282
표 IX-5. 분석포함 대상자 수	283
표 IX-6. 분석포함 대상자 성별	283
표 IX-7. 거주지 규모별 조사대상자 수	284
표 IX-8. 청소년의 현재국적	285
표 IX-9. 청소년의 체류자격(한국국적 미소지자)	286
표 IX-10. 부모님 중 외국출신자	287

표 IX-11. 부모 연령 분포	287
표 IX-12. 부모 연령의 평균비교	288
표 IX-13. 어머니 출신국	290
표 IX-14. 아버지 출신국	290
표 IX-15. 어머니 현재국적	292
표 IX-16. 아버지 현재국적	292
표 IX-17. 부모의 한국국적 비율의 변화	293
표 IX-18. 어머니 체류자격	294
표 IX-19. 아버지 체류자격	296
표 IX-20. 가구원수	297
표 IX-21. 부모 결혼상태	297
표 IX-22. 어머니 교육수준	298
표 IX-23. 아버지 교육수준	299
표 IX-24. 부모 교육수준의 평균비교	300
표 IX-25. 하위 유형별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300
표 IX-26. 주관적 가정형편	301
표 IX-27. 배경특성별 주요결과	303
표 IX-28. 학교생활적응	305
표 IX-29.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운 점	306
표 IX-30.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307
표 IX-31. 학교 공부 어려움 (1순위)	308
표 IX-32. 학업성취수준 및 성적에 대한 만족도	309
표 IX-33. 방과후 활동: 저녁식사 이전	310
표 IX-34. 방과후 활동: 저녁식사 이후	311
표 IX-35. 문화·스포츠·레저시설이용 비율	312
표 IX-36. 자아존중감, 사회적역량, 삶의만족도	313
표 IX-37. 스트레스 및 우울	313
표 IX-38. 현재 걱정거리	314
표 IX-39.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315
표 IX-40. 주관적 건강상태	315
표 IX-41. 키, 몸무게	316
표 IX-42. 희망교육수준의 빈도	317
표 IX-43. 최종 희망교육 수준의 평균	317
표 IX-44.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하고 싶은 곳	318
표 IX-45. 한국국적 취득 희망여부	318

표 IX-46. 한국거주 희망여부	319
표 IX-47. 한국거주 비희망 사유	319
표 IX-48. 부모양육태도	320
표 IX-49. 부모와의 활동정도	321
표 IX-50. 부모와 보내는 시간	322
표 IX-51. 방과후 보호자 부재여부	323
표 IX-52. 부모, 친구, 교사 지지	324
표 IX-53. 학교 내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	324
표 IX-54. 학교 안에서 도와주는 어른(중복응답)	325
표 IX-55.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	325
표 IX-56.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중복응답)	326
표 IX-57. 미래 관련 부모 및 가족 등 주변인들과의 대화	327
표 IX-58. 자신의 한국어 능력: 청소년	328
표 IX-59.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328
표 IX-60. 외국출신 부모와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아버지	329
표 IX-61. 외국출신 부모와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어머니	330
표 IX-62. 외국출신 부모나라의 언어교육	331
표 IX-63. 부모 나라 언어 능력	332
표 IX-64. 문화적응 스트레스	332
표 IX-65. 이중문화 수용태도	333
표 IX-66. 국가정체성	334
표 IX-67. 한국인 동일시	334
표 IX-68.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335
표 IX-69. 차별 경험 여부	336
표 IX-70. 차별하는 사람(중복응답)	336
표 IX-71. 차별경험 대처	336
표 IX-72.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발달특성 결과 요약	339
표 IX-73. 어머니 자아존중감, 전반적인 건강상태	345
표 IX-74. 걱정거리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여부	345
표 IX-75. 어머니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346
표 IX-76. 한국어 학습경험	347
표 IX-77. 한국어 학습방식(중복응답)	347
표 IX-78. 한국어 학습시기	348
표 IX-79. 현재 한국어 수준	349
표 IX-80. 주로 어울리는 사람	350

표 IX-81.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351
표 IX-82. 문화적응스트레스	351
표 IX-83. 문화적응 유형	352
표 IX-84. 차별경험 피해여부	353
표 IX-85. 차별경험장소	354
표 IX-86. 차별경험 시 대처방법	355
표 IX-87. 자녀와 대화시 사용언어	357
표 IX-88.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의 유형별 빈도	358
표 IX-89.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의 유형별 평균	358
표 IX-90. 자녀의 외국출신부모 모국어 능력	359
표 IX-91. 자녀의 외국출신부모 모국어 능력의 평균비교	360
표 IX-92. 자녀가 외국출신 부모 모국어를 못하는 주된 이유	361
표 IX-93. 초등학교 입학 전 주 양육자	362
표 IX-94. 자녀양육시 어려운 점	363
표 IX-95. 부모 양육효능감	364
표 IX-96. 자녀교육 관련 주 의사결정자	365
표 IX-97. 자녀의 학교문제나 숙제지도를 주로 하는 사람	366
표 IX-98. 자녀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자녀 학교생활 참여	367
표 IX-99. 사교육 참여 여부	368
표 IX-100. 1인당 사교육비	369
표 IX-101. 사교육비 부담 정도	369
표 IX-102. 희망하는 자녀교육 수준	370
표 IX-103.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370
표 IX-104. 대학교 이상 자녀 교육 희망 시 구체적 수준	371
표 IX-105. 희망하는 자녀의 대학진학 국가	372
표 IX-106. 향후 자녀 한국 거주 여부	372
표 IX-107. 향후 자녀 한국 거주 형태	373
표 IX-108. 향후 자녀 한국 거주 기간	374
표 IX-109. 특별지원의 필요성	375
표 IX-110. 다문화청소년지원 방식 선호도	375
표 IX-111. 선호하는 지원프로그램 제공 장소	376
표 IX-112. 지원경험 비율(있다 비율만)	377
표 IX-113. 서비스 지원 도움 정도	378
표 IX-114.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부모 특성	380
표 X-1.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별 비교분석 영역	390

표 X-2.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교 및 교육관련 요인	391
표 X-3.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응	393
표 X-4.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394
표 X-5.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394
표 X-6.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395
표 X-7.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신체발달 수준	395
표 X-8.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학력	396
표 X-9.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396
표 X-10.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와의 활동정도	396
표 X-11.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 및 교육관련 요인	398
표 X-12.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응	399
표 X-13.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399
표 X-14.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요인	400
표 X-15.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401
표 X-16.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키와 몸무게	401
표 X-17.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401
표 X-18.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와의 활동수준	402
표 X-19.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 및 교육관련 요인	403
표 X-20.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응	403
표 X-21.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404
표 X-22.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요인	405
표 X-23.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405
표 X-24.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키와 몸무게	405
표 X-25.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406
표 X-26.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와의 활동수준	406
표 X-27. 거주지 규모에 따른 학교 및 교육관련 요인	407
표 X-28. 거주지 규모에 따른 심리사회적응	408
표 X-29. 거주지 규모에 따른 사회적 지지	409
표 X-30. 거주지 규모에 따른 다문화요인	409
표 X-31. 거주지 규모에 따른 주관적 건강	410
표 X-32. 거주지 규모에 따른 신체발달	410
표 X-33.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	411
표 X-34. 거주지 규모에 따른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411
표 X-35.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412

표 X-36.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모와의 활동정도	412
표 X-37. 배경특성에 따른 차이	414
표 XI-1. 1~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변화과정	424
표 XI-2. 시기별 다문화가족정책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429
표 XI-3. 여성가족부 다문화청소년 관련 다문화가족정책 주요 사업 추진경과	430
표 XI-4. 다문화교육정책 변화과정	433
표 XI-5. 시기별 다문화교육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440
표 XI-6.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정책 주요 사업 추진경과	444
표 XI-7. 1~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변화과정	447
표 XI-8. 4~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변화과정	451
표 XI-9. 2018~2020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세부과제별 소요예산 ..	454
표 XI-10. 2018~2020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세부과제별 과제수 ..	456
표 XI-11. 2018~2020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소요예산	458
표 XI-12.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현황	460
표 XI-13. 다문화청소년정책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	463
표 XI-14.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개선방안 대한 전문가 의견	467
표 XI-15.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475
표 XII-1. 지역 주요 청소년관련 기관 및 주요 업무분장(안): 일반형 ..	515
표 XII-2. 지역 주요 청소년관련 기관 및 주요 업무분장(안): 농촌형 ..	517
표 XII-3. 정책과제별 추진로드맵	518

그림 목차

그림 I-1. 2020년도 연구 추진체계	7
그림 II-1.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분	24
그림 II-2.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2011~2019년)	26
그림 II-3. 외국인주민 자녀 유형 및 연령별 현황 (2016~2019년)	27
그림 II-4. 다문화 학생 현황 (2012~2020년)	29
그림 II-5. 유형별 다문화 학생 현황 변화 추이 (2012~2020년)	30
그림 II-6. 학교급 및 유형별 다문화 학생 수 비교 (2012, 2020년)	31
그림 III-1. 본 조사의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51
그림 III-2. 연차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연구주제	53
그림 III-3. 1차 코호트 패널조사 유지현황	54
그림 III-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조사모형	56
그림 IV-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1기 패널 설문문항 개발절차	74
그림 VI-1. 데이터 신청서 양식	161
그림 IX-1.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분	278
그림 XI-1. 2018~2020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예산: 전체	455
그림 XI-2. 2018~2020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예산: 자녀성장지원 영역	455
그림 XI-3. 2018~2020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과제수: 전체	457
그림 XI-4. 2018~2020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과제수: 자녀 성장지원 관련	457
그림 XII-1. 본 연구의 정책제언 도출 절차	480
그림 XII-2.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491
그림 XII-3.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494
그림 XII-4.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체계(안): 일반형	514
그림 XII-5.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체계(안): 농어촌형	516



제 1 부



연구개요

○ — 제 I 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 5. 보고서 구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과학적 정책수립 및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축한 기초자료 및 정책현황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수행된 종단 패널연구이다(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 2018: 5).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9년간 종단추적을 실시하였고, 2019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신규패널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그 간 추적한 1기 패널을 통해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왔다. 그 중 다문화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의 객관적 비교를 통해 제시하였고,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문제가 ‘다문화’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층’의 문제임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사회적 낙인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기 패널을 구축하던 시기와는 달리 국내 다문화지형에 많은 변화가

* | 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발생함에 따라 신규 패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1기 패널에 대한 지속적 추적을 통해서만 다문화청소년의 후기청소년기 및 청년기의 발달 및 성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동시에 새로이 2기 패널을 구축함으로써 변화된 한국사회의 다양한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과 적응현황을 파악하고자 새로운 패널을 구축하였다. 2기 패널은 1기 패널과의 비교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변화양상을 비교함과 동시에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과 성장을 파악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맨 앞에 기술한 바와 같고, 그 중 2020년의 목표는 1기, 2기 패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기, 2기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 적응의 시기별 차이를 비교하며, 2기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하위유형별 발달현황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1기 패널이 후기청소년기로 크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국내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변화과정을 검토 및 총정리하고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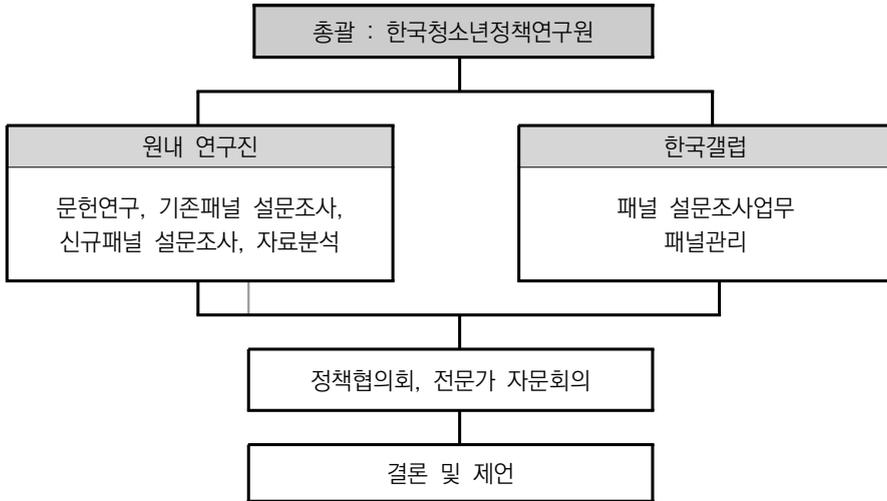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하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과학적 정책수립 및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구축한 기초자료 및 정책현황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
---------------	--

2020년 중점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패널 2020년도 패널조사 ■ 2기 패널 2020년도 패널조사 ■ 1, 2기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다문화청소년적응의 시기별 차이 비교 ■ 2기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하위 유형별 발달현황 비교 ■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성과 및 한계 분석 ■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을 반영한 정책방향 모색
-------------------	--

* 본 연구의 다문화청소년은 '본인 또는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이주의 배경을 지닌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출생지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출생자와 외국출생자를 모두 포함한다.

* 출처: 양계민 외(2018), p. 6 수정

2. 연구추진체계



* 출처: 양계민, 윤민중, 신현욱, 최홍일(2016: 11) 그림 1-3 수정

그림 1-1. 2020년도 연구 추진체계

3. 연구내용

1) 1기 패널 추적조사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첫 번째 연구과제는 1기 패널을 조사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 조사된 가구는 총 1,169가구이며 2020년은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기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후기 청소년기 진로와 관련된 문항을 구성하고 TAPI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이 때 현재의 거주지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거주지가 확대된 경우, 예를 들면, 군입대 또는 해외

유학 등 면대면 조사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2기 패널 추적조사

2기 패널조사는 2019년도에 구축한 총 2,224가구를 중심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9년 당시 4학년이었던 다문화청소년들이 5학년에 진학하게 되었다. 2020년은 1차 구축 후 2차년도로 넘어가는 시기로, 패널 유지 과정에서 탈락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패널 유지 방안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동일면접원 유지를 통한 라포형성, 전화관리 시 가구별 선물발송, 응답자 불편 최소화 방안 등 패널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3) 조사관리 및 데이터 공개

(1)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및 정기품질진단 개선과제 수행

본 연구는 2011년 조사를 시작하여 2013년 통계청 승인통계(승인번호: 제 402003호)가 되었고, 2014년과 2019년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받았다. 2019년 정기품질진단 결과 총점 97.6점(통계청, 2019.11)으로 통계 품질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를 추진 및 완료 하였다.

(2) 데이터 클리닝 및 8차 년도 데이터 공개작업

본 연구는 2018년에 1~6차년도 데이터를 공개하였으며, 2019년에 7차년도 데

이터가 추가 공개 되었다. 2020년에는 8차년도(2018년 조사) 데이터를 공개하였고 (2020년 12월 31일 기준), 데이터 공개에 앞서, 데이터 클리닝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존에 공개 된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 검토도 함께 진행하고, 설문지, 유저가이드, 코드북 등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수행하였다.

4) 다문화청소년 발달특성 분석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을 1기 패널과 2기 패널 데이터로 분석을 하였는데, 첫째는 1기 패널의 9년간 발달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는 1기 패널의 초4 당시 데이터와 2기 패널 초4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시기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셋째는 2기 패널의 하위 유형(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고, 넷째는 2기 패널의 배경특성(가정경제적 수준, 부모학력, 거주지 규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5)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분석

패널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것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10여 년간 추진되어온 국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과 변화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법무부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시행계획 등을 분석하였고, 현장전문가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 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 제시하였다.

6) 향후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안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 분석 및 다문화청소년의 정책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두 가지 영역과 관련하여 추진하였다. 첫째는 1기 청소년들이 발달단계 상 후기청소년기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후기청소년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여 조사문항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이고, 둘째는 지난 10년간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과 정책변화 및 정책의 성과 등을 위한 부분이었다.

2)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회의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패널 설문지 내용에 대한 검토 자문회의로 1기 패널의 설문문항을 새로이 구성함에 따른 조사문항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면대면 자문회의 및 서면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1기 패널 설문문항의 경우 이번 연도에 새로 구성하는 문항으로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 차례에 거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진하였다. 자문회의에 포함된 전문가는 다문화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 청년정책 전문가, 패널전문가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2기 패널의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인 관계로

주로 초등학교 교사와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존의 설문문항에 대한 개선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둘째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집하고자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즉, 본 연구의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들에 대한 해석과 타당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정책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는 2019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의 개선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 중인 문항 중 차별 인식을 심어줄 요소가 있는지, 심리적 특성에 관한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지 등 문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1기 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를 실시할 경우 응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논의하였고, 데이터 공개 일정의 타당성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도출한 정책과제(안)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전문가 대상 온라인 화상회의 및 서면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1-1.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현황

주제	일시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기 패널 설문지 검토	4.13	1	강○○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면대면
		2	허○○	○○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3	은○○	○○아동청소년센터 실장	
	4. 23	1	김○○	한국○○○정책연구원	면대면
		2	김○○	한국○○○정책연구원	
	4. 28 ~ 5.6	1	김○○	○○연구소 연구위원	서면
		2	오○○	○○도 외국인인권센터 소장	
		3	강○○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4	허○○	○○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5		김○○	한국○○연구원 연구위원		
6		김○○	한국○○연구원 연구위원		
7		유○○	한국○○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	이○○	한국○○연구원 팀장			
9	조○○	한국○○연구원 부연구위원			
2기 패널 설문지 검토	4.14	1	김○○	○○초등학교 교사	면대면
		2	김○○	○○초등학교 교사	
		3	이○○	○○초등학교 교사	
	4. 28 ~ 5. 6	1	한○○	○○초등학교 교감	서면
		2	이○○	○○초등학교 사회복지사	
		3	김○○	○○초등학교 교사	
		4	이○○	○○초등학교 교사	
		5	김○○	○○초등학교 교사	
		6	윤○○	○○초등학교 교사	
		7	임○○	○○초등학교 교사	
8	김○○	○○연구원			
9	은○○	○○아동청소년센터 실장			
10	김○○	○○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팀장			
분석결과 타당성 확인 및 정책제언	10. 16	1	강○○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면대면
		2	허○○	○○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3	정○○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4	도○○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5	이○○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정기품질 진단 개선과제	10. 28	1	이○○	한국○○연구원, 현재 패널 담당자	면대면
		2	이○○	한국○○○정책연구원, 전 패널 책임자	

주제	일시	연번	성명	소속	비고
정책개발	12.3	1	정○○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면
	~	2	도○○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2.7	3	조○○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2.4	1	강○○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온라인
2		신○○	중앙○○○○센터 본부장	화상회의	

3)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조사원과 1기 패널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였다. 첫째로 조사원 대상 면접조사는 2019년도 조사현장의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조사 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조사진행의 노하우를 파악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표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집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조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2020년 3월 26일, 2019년도 조사를 진행한 5명의 조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로는 1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0년 조사 설문지(초안)를 직접 작성하면서 문항내용의 타당성, 적절성, 문항에 대한 이해도, 설문지 진행의 논리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0년 5월 14일, 대학교 진학자 4명과 비진학자 6명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2. 면접조사 개요

대상자	일시	참석인원	내용
조사원	3. 26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준비과정의 어려운 점 ■ 조사 진행의 어려운 점 ■ 조사문항에 대한 내용 ■ 효과적인 조사방안
청소년	5. 14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문항의 적절성 ■ 조사문항의 개선점 ■ 조사방식(온라인, 면대면)에 대한 의견

4) 패널조사

패널조사는 두 개 코호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하였다.

(1) 1기 패널

우선 기존의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에서 2011년부터 추적 조사한 1기 패널에 대한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다문화청소년으로 현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20세이다. 1기 패널의 조사는 2019년도에 조사 완료된 1,169가구의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종단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방식으로 실시하였고, 군입대 등 면접원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3. 1기 패널 설문조사의 주요 요소별 내용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2019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2011년 당시 4학년)
표집틀	2011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표본수	9차년도 조사 완료된 1,169가구의 청소년 및 학부모
표집방법	기 구축된 패널 전수를 대상으로 10차년도 조사 실시
조사방법	가구 방문 면접조사
자료수집방법	태블릿을 통한 구조화된 조사표(TAPI)+인터넷 조사
조사시기	2020년 7월 ~ 12월

(2) 2기 패널

1기 패널과 더불어 올 해도 2019년에 구축된 2기 패널을 대상으로 2차년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2019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으로, 2020년 기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의 2,224 가구(국제결혼자녀,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종단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방식이였다.

표 1-4. 2기 패널 설문조사의 주요 요소별 내용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2019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표집틀	2019 교육부 교육통계의 전국 초4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표본수	2019년에 구축된 약 2,224가구(국제결혼자녀,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표집방법	기 구축된 패널 전수를 대상으로 2차년도 조사 실시
조사방법	가구 방문면접조사 및 온라인조사
자료수집방법	태블릿을 통한 구조화된 조사표(TAPI)
조사시기	2020년 7월 ~ 12월

5) 기타 연구방법

그 외 패널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원 대상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현재의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의 현황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의 형태로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 워크숍

회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패널조사 진행을 위한 조사원 워크숍	연구진, 조사업체, 조사원	7월
2회	정책분석 및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및 연구진	12월

5. 보고서 구성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는 총 4부의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종단 패널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과 방향, 조사개요 및 추진 경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1부에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과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부에서는 패널조사의 표본설계와 문항구성의 틀,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절차, IRB승인과 통계변경승인, 보안 및 안전관리 결과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패널관리의 원칙과 절차, 이탈패널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였으며, 데이터 공개의 원칙과 절차, 활용실적 등을 제시하였다. 3부에서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2020년 연구에서는 1기 패널의 9년간 발달추이를 비교하였고, 2011년과 2019년 초등학교 4학년 시기를 비교하였으며, 2기 패널의 하위 유형별 및 배경특성별 비교분석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과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 구성

부	부별 제목	장별 제목
제 1부	연구개요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제 2부	패널조사 및 데이터 공개	Ⅳ. 패널조사 Ⅴ. 패널관리 Ⅵ. 데이터 공개
제 3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 분석	Ⅶ. 다문화청소년 9년간(초4~고3) 발달추이: 1기 패널 분석 Ⅷ. 2011년과 2019년 시기의 집단별 비교: 1, 2기 패널 비교 Ⅸ.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특성: 2기 패널 분석 Ⅹ.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별 분석: 2기 패널 분석
제 4부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성 모색	Ⅺ.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 성과 및 한계 Ⅻ.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총괄 보고서 외에 별도로 1, 2기 패널의 기초분석보고서를 각각 별권으로 발간하였다.

○ ————— 제 II 장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청소년의 개념정의
- 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 3.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1. 다문화청소년의 개념정의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부처에서는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 사업이 수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조사 및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의 개념과 범위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 졌으며, 정부부처 및 현장에서 이들을 지칭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도 각기 다른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8a)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¹⁾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²⁾의 결혼이민자 또는 결혼귀화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부모 중 한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2008년 당시 ‘다문화가족’은 출생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 또는 결혼귀화자로 구성된 경우만으로 한정되었고, 2011년 4월 개정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포함되는 현재의 정의로 확대되었다.

* II 장은 장윤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1)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는 각각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임.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교육부, 2019)에서는 ‘다문화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다문화가정의 특성과 학생의 출생지에 따라 세 가지 유형(①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녀, ②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자녀, ③ 외국인가정의 자녀)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다르게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서는 그 대상을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뿐만 아니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다문화 학생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 학생’ 정의 및 유형 구분은 2012년에 발표된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2)’에서 시작된 것으로, 처음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교육인적자원부, 2006)이 발표된 2006년 당시에는 정책 대상을 ① 국제결혼가정 자녀, ② 외국인 근로자 자녀, ③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청소년으로 정의하였으나, 이후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7)’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08)’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로만 정의하였고 북한이탈 청소년은 제외 하였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8b)의 경우, 법적 근거가 되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서 정의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만24세 이하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이 포함된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다문화가족의 자녀’와 다문화교육정책의 ‘다문화 학생’ 비교할 때, 청소년정책의 ‘이주배경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보다 넓은 범위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역시 2004년 제정 당시에는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2012년 2월 1일 개정을 통해 비로소 관련 조항이 추가되었다.

본 연구의 1기 패널 1차 조사가 실시되었던 2011년 1단계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주노동자 집단과 새터민 가정 자녀를 제외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대상을 제한하였다(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18). 이때,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①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 ②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 ③ 한국인 아버지와 결혼한 어머니가 본국에서 입양형태로 입국한 아동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여기서 분화된 다양한 유형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확대하였다(양계민 외, 2011: 18). 1기 코호트의 3차 패널조사가 실시된 2013년에는 과제 명 변경과 함께 2단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3년도 연구부터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되었고, 그 범위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국민인 청소년에 한정시키지 않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의도적으로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양계민, 박주희, 2013: 28).

2017년도 연구부터 ‘다문화청소년’을 본인 또는 가족이 이주의 배경을 가지는 만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을 제외한 집단(양계민, 강경균, 2017: 21)으로 정의하여 연구 대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념화하였다. 2020년도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다문화청소년’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1기 패널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포함되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청소년을 추가하여 다양화된 최근 다문화청소년의 지형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포함한 2기 패널조사가 시작된 2018년도 3단계 연구에서 구분한 네 가지 유형의 다문화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2018년도 연구에서 정의된 네 가지 다문화청소년 유형은 본인의 출생지와 부모의 배경을 기준으로 아래의 [그림 II-1]과 같이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네 가지 유형의 다문화청소년 중,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과 ‘중도입국청소년’은 각각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에 상응되고,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는 교육부의 ‘외국인가정 자녀’로 통칭되는 집단에 해당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다문

화청소년은 교육부에서와 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는 않는다(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19: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설계 단계에서는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로 표집을 하였는데, 국내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고 있는 통계가 교육부의 다문화학생통계이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청소년 중 첫 해 년도에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연령을 모집단으로 정의하였기에 교육부 기준으로 표집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출생지 변인을 추가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범주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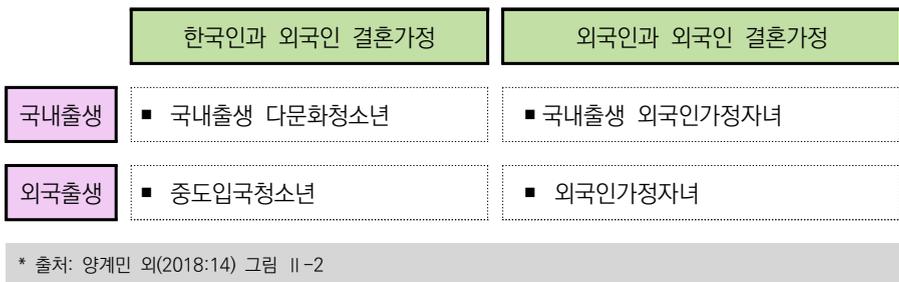


그림 11-1.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분

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다문화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과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 통계가 있다.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1기 패널이 구축된 2011년 이후부터 가장 최근에 공표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지형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은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부터 매년 공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청소년 관련 통계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자녀’로 조사 대상을 구분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정부부처의 정책 및 사업운영의 기본계획과 관련 법적근거에서 정의하는 다문화청소년의 개념과 범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변경·확대된 것처럼 해당 통계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범위와 유형에도 변화가 있었다.

가장 최근에 공표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서 ‘외국인주민 자녀’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로 정의되며, 이들을 자녀의 배경을 기준으로 ‘국내 출생 자녀’와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로 구분하였다(행정안전부, 2019).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 구분은 2016년 통계부터 사용되었고, 이전 통계에서는 자녀의 현재 부모 국적만을 고려하여 ‘외국인-한국인 부모3)’, ‘외국인 부모4)’, ‘한국인 부모5)’로 구분하여 공표하였다(행정안전부, 2016). 또한 외국인주민 자녀의 범위도 2014년까지는 ‘국적취득자 자녀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결혼이민자) 자녀’로 한정되었으나, 2015년부터 ‘국적취득자 자녀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결혼이민자) 자녀 + 한국인과 결혼한 그 밖의 외국인(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등) 자녀’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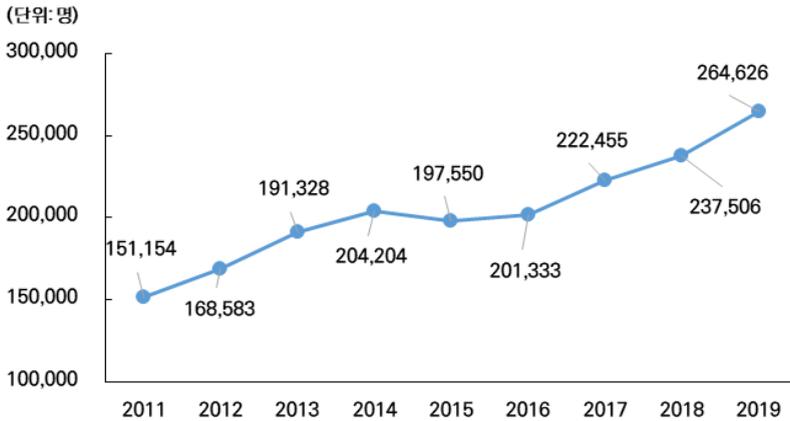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으로 파악되는 2011년부터 2019년 외국인주민 자녀의 현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유형구분 없이 만 18세 이하 전체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를 비교해보면, 2011년 151,154명에서

3) ‘외국인-한국인 부모’란 부모 중 한사람이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를 의미함.

4) ‘외국인 부모’란 부모가 모두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를 의미함.

5) ‘한국인 부모’란 출생 시부터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지만, 부 또는 모가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사람과 재혼하여 가족을 구성한 경우를 의미함.

2014년 204,204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197,550명으로 2014년에 비해 전체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9년 264,626명에 도달하였다.



* 출처: 행정안전부(2011~2014, 2016~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그림 II-2.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2011~2019년)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외국인주민 자녀를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와 ‘국내 출생 자녀’로 구분하고 유형별 연령의 규모를 함께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2016~2019년 동안 외국인주민 자녀의 유형 및 연령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국내출생 자녀의 비율은 매년 95.1~95.4%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연령 수준에 따라 두 유형의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만 13~18세에 해당하는 중고생의 경우,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의 비율이 10% 이상으로 다른 연령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 규모를 비교해보면, 만 6세 이하에 해당하는 미취학 아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 7~12세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만 13~18세의 중고생 순이었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초등학생의 수가 2016년

56,768명(국내출생 52,775명 + 귀화 및 외국국적 3,993명)에서 2019년 104,064명(국내출생 99,144명 + 귀화 및 외국국적 4,920)으로 크게 증가하여 학령기에 해당하는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3. 외국인주민 자녀 유형 및 연령별 현황 (2016~2019년)

2) 교육부 다문화학생 현황

2007년부터 교육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 통계'는 2012년부터 공표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 학생 통계'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 중 하나의 항목으로, 매년 4월 1일 기준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의 수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교육기본통계에서 사용하는 '다문화 학생'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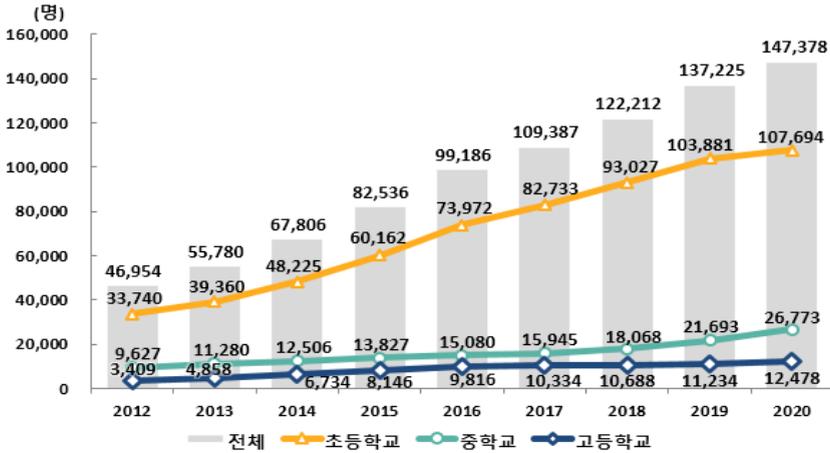
의 및 유형은 기본적으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과 동일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서(한국교육개발원, 2019)에 보다 상세한 ‘다문화 학생’ 유형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유형의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녀’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이고, 과거 부모 모두 한국인이었으나, 부모의 이혼 후 재혼으로 외국인 부(또는 모)가 생긴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유형인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자녀’는 (1)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한국국적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2)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 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녀, (3)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가 이혼 후 한국인과 재혼하여 국내로 입국한 자녀가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인 ‘외국인가정 자녀’는 부모 모두 외국인(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등)으로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로 정의된다.

다문화 학생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2020년까지 다문화 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4월 1일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147,378명으로 2012년 46,954명의 약 3배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학교 급의 다문화 학생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문화 학생의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2,626명에 불과하였던 외국인가정의 자녀는 2020년 24,453명으로 약 10배 정도 크게 증가하였고, 전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2년 5.6%에서 2020년 16.6%로 높아졌다.

2012년과 2020년의 학교급별 각 유형의 다문화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2020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외국인가정 자녀의 수가 2012년의 약 9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약 6배 정도 증가하였다. 2012년 대비 2020년의 중도입국자녀의 수는 초등학교급에 비해 중·고등학교급에서 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녀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다소 높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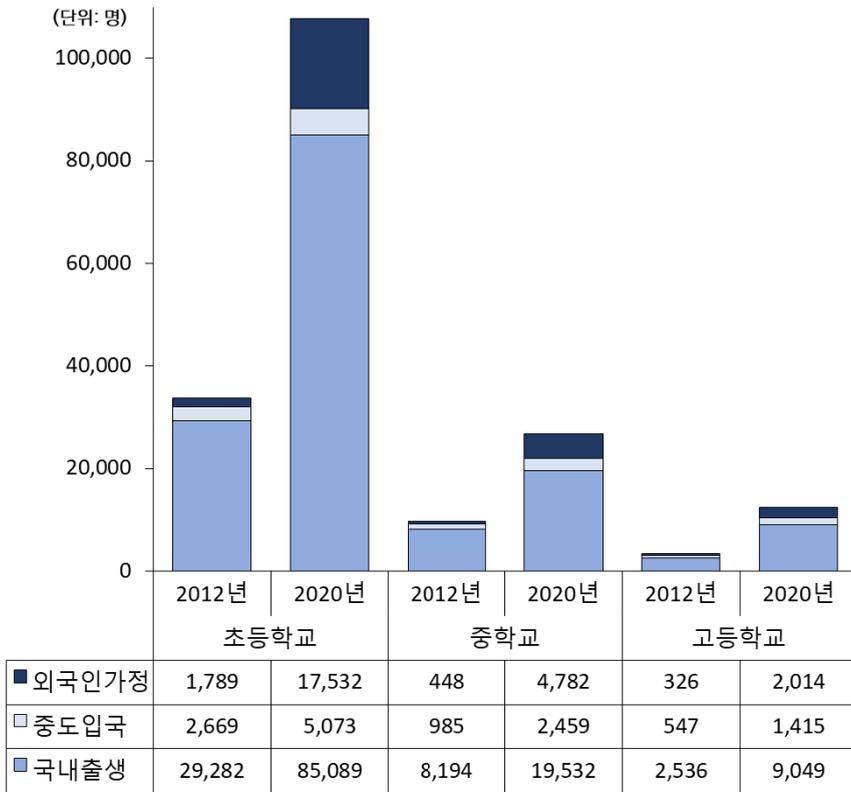
* 출처: 교육부(2020b: 5) 다문화 학생 수

그림 II-4. 다문화 학생 현황 (2012~2020년)



* 출처: 교육부(2020b: 5) 표 5. 다문화 학생 현황

그림 II-5. 유형별 다문화 학생 현황 변화 추이 (2012~2020년)



* 출처: 교육부(2020b: 5) 표 5. 다문화 학생 현황

그림 II-6. 학교급 및 유형별 다문화 학생 수 비교 (2012, 2020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과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 통계 모두 다문화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 두 통계에서 정의하는 다문화청소년의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른 다문화 지형의 다양화 경향 또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본 절에서는 이민 2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수행된 해외의 선행연구 중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의 발달과업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1기 패널 문항구성 및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문화청소년 발달의 영역별 선행연구는 이미 이전 년도 연구에서 모두 수차례 검토한 바 있고, 2020년 연구에서는 1기 패널 조사대상자들이 후기청소년기로 발달함에 따라 이들 집단의 주요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아직 후기청소년기에 이른 다문화청소년들의 주요이슈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지 않은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서유럽 국가에서는 이주민과 그들의 자녀, 즉 이민 2세대의 사회적응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후기청소년기에 이른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과업 중 주요 이슈인 고등교육의 기회 및 성취,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및 고용현황 등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해외의 선행연구를 분석 제시하고자 하였다.

1) 고등교육의 기회 및 성취

각 국가의 교육체계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9~24세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은 중등교육을 마치고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후기다문화청소년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의 기회와 성취수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주배경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소수인종 이민자 자녀의 경우, 중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는 해당 국가의 선주민 자녀에 비해 교육적 열망이

높고, 바칼로레아(Baccalaureate) 또는 아비투어(Abitur)와 같은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통과하는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risten, Reimer & Kogan, 2008; Vallet & Caille, 1999). Holmberg et al.(2018)의 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핀란드로 이주한 가정의 자녀들은 이주배경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직업에 대한 열망과 포부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이주민 자녀들이 자신의 이주배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이주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고, 학위를 취득하려는 열망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다(Heath, Rothon & Kilpi, 2008).

그러나 실제 고등교육을 이수한 다문화청소년의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구가 수행된 국가와 시기, 사용한 자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이주배경 집단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있는데, 1990년 독일 고등교육 정보시스템 자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 이주민의 고등교육 진학률(75.9%)은 동일 연령의 독일 청년(67.2%)에 비해 높았고, 이탈리아와 남유럽 국가에서 독일로 이주한 청년들의 고등교육 진학률도 모두 69%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Kristen, et al., 2008). 1999년 당시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르웨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단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한 청소년의 비율은 이주배경이 있는 집단이 약 33%로, 이주배경을 가지지 않는 노르웨이 청소년 집단(24.2%)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øren, 2011). 영국도 독일 및 노르웨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영국 대학 입학 시스템을 통해 1991년에서 2001년 사이에 수집된 자료에서도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 2세대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이주배경을 가지지 않은 백인

청소년들에 비해 높았다(Waters, Heath, Tran, & Boliver, 2013).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상반된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Gomensoro & Bolzman(2019)은 스위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의무교육 이수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을 추적 조사한 TREE(Transitions from Education to Employment)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스위스 다문화청소년의 교육 성과와 노동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2001년 당시 16세였던 스위스 거주 청소년들 가운데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경험이 있는 다문화청소년이 30세가 된 시기인 2014년의 교육이수 현황을 비교한 결과, 부모가 모두 스위스에서 태어난 이주배경을 가지지 않는 청소년 가운데 의무교육 이후 단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단 5%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스위스 이외의 국가에서 이주경험이 있는 부모님을 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의무교육까지만 이수한 비율이 부모출신 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 13~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출생국가에 따라 고등교육 이수율의 격차는 최대 35%p로 나타났다. 스위스 청소년의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 이주배경 유무에 따른 격차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Fibbi 등(2015)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된 바 있다(Fibbi, Wanner, Topgül, & Ugrina, 2015).

또한 2011년에 실시된 국제성인 역량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결과에 따르면 유럽의 5개 국가(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체코)에서도 이주경험 유무에 따라 교육수준의 차이가 있었는데,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민 2세대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이민 1세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선주민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iancola & Salmieri, 2018).

그런데, Rothon(2007)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중등교육 졸업시험(General Certification of Secondary Education examinations; GCSEs)에서 이주민 가정의 자녀가 선주민 가정의 자녀에 비해 낮은 성취수준을 보이나,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 변인을 통제한 뒤 출신 국가별 성취수준을 비교하면 일부 집단의 성취수준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이주배경의 유무만으로 교육성과의 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다문화청소년이 가지는 '이주배경'이라는 요인이 단순히 본인이나 부모의 출신국가 또는 인종의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주의 배경과 목적, 출생국가 등에 따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지는 이질적 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교육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부모의 출생국가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력수준, 가정의 경제수준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9년 미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이주민의 자녀 가운데 학사학위를 취득한 비율은 15%에 불과한 반면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주한 가정의 자녀는 72%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두 집단의 학위취득률 격차는 미국에 거주하는 전체 이민 2세대와 선주민의 평균 학사학위 취득률 차이보다 훨씬 크다(Baum & Flores, 2011). 또한 Waters 등(2013)의 연구결과에서도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이민 2세대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80.4%로 이주배경을 가지지 않은 미국 백인가정 자녀의 이수율 23%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가장 낮은 이수율을 보인 푸에르토리코 이민 2세대의 이수율은 5.6%로 같은 이주배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출신국가에 따라 이수율이 크게 차이를 알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1984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재학시기부터 이들의 성장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실시된 전환기 청소년 조사(Youth in Transition Survey; YITS)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이민 2세대의 대학진학비율이 이주배경이 없는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이주한 흑인 이민 2세대의 대학 진학률은 캐나다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nnie & Mueller, 2008). 캐나다에 거주하는 다양한 인종 간의 사회, 경제, 문화생활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2002년 인종 다양성 조사(Ethnic Diversity Survey, EDS)' 자료를 분석한 Abada, Hou와 Ram(2009)의 연구 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이민 2세대의 학사학위 취득률은 캐나다 출생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높았으나, 필리핀 이민 2세대와 흑인 집단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은 학위취득률을 보였다. 또한 프랑스를 제외한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의 이민 2세대는 캐나다 출생 일반 청소년들과 학위취득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2010년 이후 수행된 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었으며(Sweet, Anisef, Brown, Walters & Phythian, 2010; Rae, 2018; Chen & Hou, 2019),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이민 2세대의 높은 대학 진학률과 학사학위 취득률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한부모 가구 여부, 거주지 내 최저소득 가구의 비율과 출신 고등학교의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과 같은 가정 및 사회의 배경변인(Sweet et al., 2010)과 교육을 중시하는 아시아 국가 특유의 민족성으로 인한 강한 교육열망과 부모의 지지(Rae, 2018)가 제시되었다.

부모의 출신국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격차는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데, 스위스로 이주한 포르투갈과 터키출신 이주민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같은 동일 서유럽 국가에서 이주한 이주민 자녀의 고등교육 진학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직업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agana, Chevillard & Gauthier, 2014; Gomensoro & Bolzman, 2019), Waters 등 (2013)의 연구결과에서도 영국에 거주하는 이민 2세대의 학위 취득률이 출신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과 인도에서 이주한 가정의 자녀가 비교적 높은 학위 취득률을 보인 반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 이주한 가정의 자녀는 다른 국가 이민 2세대에 비해 학위취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학한 고등교육기관의 유형도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사이에, 그리고 부모의 출신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Waters 등(2013)에 따르면 미국 백인 가정 청소년의 80% 정도는 미국의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였고 이들의 약 50% 정도는 중·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반면, 푸에르토리코 이주민 가정의 자녀 중 53.3%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하위권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진학하였다. 심지어 미국 백인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더 높은 중국인 이주민 가정의 자녀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백인가정의 자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Waters et al., 2013). TREE 자료를 사용하여 스위스에 거주하는 이민 2세대의 의무교육 이후 교육 및 직업경로에 관한 장기적인 변화궤적을 추적한 Lagana 등(2014)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Lagana 등(2014)에 따르면 스위스의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다문화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유형보다 의무교육 이후 직업교육기관에 진학한 뒤 좀 더 일찍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유형 및 중등교육 이수 후 고등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받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으로도 진출하지 않는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상태가 되는 유형의 비율이 높았다(Lagana et al., 2014).

일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진학한 다문화청소년들이 선택하는 전공 유형에도 일반청소년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1-2012 전미 대학생 지원연구(National Post-secondary Student Aid Study; NPSAS) 결과에 따르면 히스패닉과 라틴아메리카계 다문화청소년의 전공 선택 경향은 전체 미국 대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아시아계 다문화청소년은 공학, 수학, 컴퓨터, 물리 등 이공계열의 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 약 두 배가량 높았다(Arbeit, Staklis & Horn, 2016).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비서구권 국가의 다문화청소년은 소위 수익성이 좋은 전공으로 분류되는 경영

또는 경제학, 공학, 의학 및 보건계열 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øren, 2011). 또한, 이주경험이 없는 일반 노르웨이 가정의 경우 부모의 학력수준이 자녀의 전공 선택에 주요 영향요인인 반면, 비서구권 국가의 이주민 가정에서는 부모 학력수준이 자녀의 전공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Støren, 2011).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Støren(2011)은 고등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던 이민 1세대들이 본인 대신 자녀가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교육체제는 다른 서유럽국가 및 미국과 차이가 있으며, 더욱이 대학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다른 국가와 달리 고등교육 학비 마련을 위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Støren(2011)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2)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이주가정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세대와 달리 이주한 국가의 교육체제를 따라 교육을 받았고 해당 국가의 언어도 상대적으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 부모세대에 비해 노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덜 할 수 있다(Alba & Waters, 2011; Heath & Cheung, 2007). 그러나 아주 어린 시기에 이주했거나 부모가 정착한 국가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문화청소년은 그들의 이주배경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선주민 가정의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Gomensoro & Bolzman, 2019). 특히 이름이나 외모 등 외적요인을 통해 이주배경이 명확히 드러나는 이주민 집단은 노동시장 진출과 계약조건 및 임금수준과 같은 노동환경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이 존재한다(Heath & Cheung, 2007).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은 '합법

요인(legitimate factor)'과 '불법 요인(illegitimate factor)'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능력중심의 사회에서 개인의 인적자본 부족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출의 불이익은 '합법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출신국가, 인종,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한 차별은 '불법 요인'에 해당된다(Gracia, Vázquez-Quesada & Van de Werfhorst, 2016). 다문화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집중한 영향요인은 대표적인 인적자본 관련 변인인 교육수준이다. Health와 Cheung(2007)은 능력중심 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이 이들의 낮은 취업률과 높은 실업률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가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

Langevin, Masclat, Moizeau 그리고 Peterle (2013)은 프랑스 대도시에 거주하는 18~60세 이주배경을 가지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 여건, 교육과 고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실시된 TeO (Trajectories et Origines)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주배경에 따른 취업률의 차이와 교육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이주배경 여부만 고려할 때에는 프랑스 선주민과 아프리카 및 터키 이민 2세대의 취업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수준 변인을 함께 고려할 경우, 취업률에 미치는 이주배경 변인의 부적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대신 교육수준이 취업률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실시된 네덜란드 생애과정 종단조사(Netherlands Longitudinal Life Course Survey, NELLS) 결과에서도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로코 및 터키 이민 2세대의 취업률은 이주배경 없이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동일 연령대의 청년들에 비해 낮았다(Gracia et al., 2016). 또한, 교육수준, 언어 및 수리능력, 부모의 직업 및 교육수준, 문화자본관련 변인 중에서 교육수준만 이들의 낮은 취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cia et al., 2016).

하지만 국가마다 이주인구가 증가된 사회적 배경과 시기가 다르고,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각 국가의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수준’이라는 하나의 변인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고용격차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Gracia 등(2016)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민 2세대의 취업률에 주는 교육수준의 긍정적 효과는 출신 국가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터키 이민 2세대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을 통제하여도 여전히 취업률에 미치는 이주배경의 부적 영향은 존재하였다. 심지어 모로코 이민 2세대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교육수준 및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 관련 변인을 통제함에 따라 유의하지 않았던 이주배경 변인이 유의하게 바뀌기도 하였다(Gracia et al., 2016). 마찬가지로 Brinbaum (2018)의 연구에서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마그레브 지역 이민 2세대 등 일부 특정 집단에 한해서만 프랑스 선주민과의 취업률 격차 완화에 교육수준이 유의한 역할을 한 반면,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남동아시아 국가에서 이주한 가정의 자녀 중 남성의 경우, 고등교육을 이수한 집단에서 오히려 프랑스 선주민과의 취업률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교육체계가 노동시장이 긴밀히 연결된 사회의 경우, 고등교육이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수준만으로 다문화청소년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발생하는 격차를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Alba, 2005).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출 및 고용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교육수준 및 언어능력 이외의 다른 영향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Heath, Rethon 그리고 Kilpi(2008)는 이민 2세대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부족이 노동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Kalter(2006; Heath, Rethon & Kilpi 2008에서 재인용)는 터키에서 독일로 이주한 가정의 자녀들은 주로 자신과 비슷한 소수민족의 친구들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교우관계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부족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본 다문화청소년의 고등교육 기회 및 성취수준이 출신 국가 및 민족적 특성에 의해서 차이를 보였던 것과 같이, 노동시장 진출에서도 출신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며, 성별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유럽연합 노동력 조사(EU Labour Force Survey: EU-LF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민 2세대가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변인과 출신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 거주하는 여러 국가의 이민 2세대 가운데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이주한 가정의 여성 이민 2세가 노동시장 진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에서 이주한 가정의 다문화 청소년은 유럽출신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Eurofound, 2019). 2009년부터 수행된 영국가구종단조사(the United Kingdom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UKHLS) 자료를 바탕으로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16~29세 청년 가운데 니트가 될 확률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이 니트로 분류될 확률은 교육수준, 출신국가, 성별,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을 통제함에 따라 영국 백인집단에 비해 높았던 파키스탄 이민 2세대가 니트로 분류될 확률이 상쇄되는 반면, 남성의 경우, 카리브지역 국가에서 이주한 가정의 자녀는 배경변인들을 통제한 뒤에도 영국 백인청소년에 비해 니트가 될 확률은 여전히 높았다.

낮은 교육수준, 정보부족과 같은 인적자본 및 이주배경 특성에 의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인식 또한 후기 이주청소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Midtbøen(2016)은 노르웨이에서 거주하는 이민 2세대들에 대한 노동시장의 차별을 밝히기 위한 현장실험연구를 2009년 11월부터 1년에 걸쳐 실시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900개 일자리 채용 공고에 제시된 교육수준, 직무경험, 어학능력 등의 기존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두 개의 가상 지원서를 작성하되, 하나의 지원서에는 파키스탄 이주배경이 드러나는 이름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렇지 않은 이름으로 작성하여 동일한 채용 공고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장실험이 설계되었다. 즉, Midtbøen(2016)은 이주배경 여부를 제외한 비슷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의 채용절차에서 이주배경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900개 채용공고 가운데 이름에 상관없이 두 지원서 모두 서류전형에 통과한 사례는 269개(29.9%)이고, 이주배경이 드러나지 않은 이름의 지원서만 통과한 사례는 116개(12.9%)인 반면 파키스탄 이름의 지원서만 통과한 사례는 오직 18개(2%)에 불과하였다. 또한 채용기관 유형별 서류전형 합격률을 비교하면, 공공기관은 이름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사기업은 두 집단의 서류전형 합격률이 약 14%p 정도 차이를 보였다(노르웨이인 이름의 지원서 서류전형 합격률 : 39.3%, 파키스탄 이름의 지원서 서류전형 합격률 : 25.1%). 직업의 유별로 살펴보면, 교사, 간호사와 같이 전문 기술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에 비해서 운전자, 창고 관리자(warehouse worker)와 같은 전문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직종에서의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차이는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공기관 일자리와 같이 공식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전문적 기술 또는 자격증이 필요한 일자리에서의 차별은 상대적으로 비전문적 기술의 직종에 비해 덜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직종(단순 기술직, 전문직, 관리직 등), 임금 수준, 고용의 안정성 등과 같은 노동환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Gracia 등(2016)은 직업의 유형을 단순 기술직과 전문직 및 관리직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고용현황을 비교하였다. 2009-2010 네덜란드 생애과정 종단조사(NELLS)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로코와 터키 이민 2세대의 전문직 및 관리직 비율(모로코 출신 : 28%, 터키 출신 : 27%)은 네덜란드 선주민(남자 : 53%, 여자 : 46%)과 비교의 약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014년 프랑스 노동력 조사

(the French Labour Force Survey, LFS) 자료를 분석한 Brinbaum(2018)의 연구에도 프랑스에 거주하는 터키 및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아프리카 이민 2세대의 취업률과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모두 선주민에 비해 낮았다.

반면에 일부 연구에서는 취업률과 마찬가지로 노동환경에 있어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격차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Eurofound(2019)에 따르면 2015년에 실시된 유럽 노동환경 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환경, 근무시간 및 강도, 기술수준, 소득수준 및 전망 등을 바탕으로 5개 유형의 직업 프로파일을 도출한 뒤 각 프로파일별 종사자 비율을 이주배경에 따라 비교한 결과, 유럽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의 고용환경은 일반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기술을 요구되며 그에 맞는 높은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민 2세대의 비율은 25%로 선주민(22%)과 이민 1세대(20%)에 비해 높았으며, 단순기술을 사용하고 임금수준 및 전망이 낮은 직종에 종사자의 비율도 이민 2세대가 가장 낮았다.

2016년 캐나다 인구총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민 2세대의 취업률은 남자가 86.1%, 여자가 81.6%로 캐나다 출신 백인의 취업률(남자: 85.8%, 여자: 81.7%)과 큰 차이가 없었고,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이민 2세대가(남자: 28.6%, 여자: 37.6%) 캐나다 출생 백인(남자: 19.9%, 여자: 31.0%)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Chen & Hou, 2019). 이민 2세대와 캐나다 선주민 간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의 차이는 거주지 규모, 나이,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 배경변인을 통제한 뒤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이민 2세대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Chen & Hou, 2019).

2008년과 2014년에 실시된 EU 스페인 노동력 조사(EU Labour Force Survey for Spain)의 자료를 바탕으로 스페인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출성과를 비교한 Marina, Jonas, 그리고 María(2018)의 연구 또한 전반적으로 이민 2세대

의 노동시장 진출성과는 선주민 집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진출성과를 세 가지 변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 변인은 현재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임금근로자 여부'이고, 두 번째 변인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해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비자발적 시간제 근무 여부', 마지막으로 현재 직장의 평균 교육수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지를 구분하는 '과잉교육(over-educated) 여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임금근로자 여부'의 경우, 이주배경 여부 및 나이, 교육 수준 언어 능력 등 관련변인을 통제하면 2008년 남성 라틴계 이민 2세대와 남성 중동·북아프리카계 이민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는 스페인 선주민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2014년 조사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자발적 시간제 근무 여부'와 '과잉교육 여부'는 2008년과 2014년 조사에서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Marina et al., 2018).

다문화청소년의 임금수준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민 2세대의 임금수준을 선주민 집단과 비교한 Langevin et al,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중 임금 정보가 있는 일부만 분석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이(selection bias)를 교정하고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및 경력수준 변인을 통제할 경우, 이민 2세대와 선주민의 임금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캐나다의 경우, 오히려 이민 2세대의 연평균 임금수준(남자: \$65,700, 여자: \$48,200)이 캐나다 출생 백인집단(남자: \$62,700, 여자: \$43,50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캐나다 내 이민 2세대의 높은 전문직 종사자 비율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직 종사자 비율과 달리 개인 배경변인을 통제할 경우 캐나다 이민 2세대의 임금수준(남자: \$61,300, 여자: \$44,000)은 캐나다 출생 백인집단(남자: \$64,000, 여자: \$44,700)에 비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 Hou, 2019). 반면, Gomensoro와 Bolzman(2019)의 연구에서는 스위스의 청년들 가운데 스위스가 아닌 국가에서 태어난 청년의 임금수준은 스위스 출생 청년에 비해 15% 가량 낮았으며, 부모가 이주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부모의 출생국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랐는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이주한 부모의 자녀는 스위스에서 태어난 부모의 자녀와 거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반면 터키, 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출신 부모의 자녀의 임금수준은 이들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동시장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차별경험에 대한 수집된 자료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Eurofound(2019)의 연구에서 이민 2세대의 차별경험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2015년에 실시된 유럽노동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주배경이 없는 선주민 가운데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에 상관없이 1%에 불과한 반면, 이민 2세대 가운데 자신의 인종 및 민족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의 경우 5%, 여성의 경우 4%로 나타났다. 이민 1세대의 차별경험이 남성이 12%, 여성이 8%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이민 2세대의 차별경험은 낮은 수준이나, 선주민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다문화청소년의 고등교육 및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마다 이주의 역사와 배경, 이주민에 대한 정책, 노동 및 교육체계의 차이로 인해 일관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출신국가에 따라 교육 및 노동시장의 성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다문화청소년은 부모의 출신국가, 민족적 특성 등에 따라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이질적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주배경이라는 하나의 변인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고등

교육 및 노동시장의 성과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외 선행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한계로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 및 취업률의 단순비교가 대부분이었으며, 다문화청소년의 진학률 및 취업률은 선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점차 다양한 요인에 대한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개인의 교육수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적 자본 등 여러 영향요인의 고려한 연구가 가능해졌고,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주배경 유무로 단순히 비교할 때 발생하였던 교육 및 노동성과 격차는 대체로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특히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의 불이익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차별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제Ⅲ장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 1. 조사개요
- 2. 추진경과
- 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성과 및 의의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2010년 당시 우리 사회에 다문화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던 시기에 다문화청소년 집단의 건강한 발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과 요구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다. 당시 다문화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주류집단에 비해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임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러한 연구들은 다문화청소년들이 왜 청소년 일반집단에 비해 뒤떨어지는지에 대한 타당하고 정밀한 분석 없이 연구자의 고정관념을 검증하는 결과를 생산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점과 결핍점만 강조할 뿐 실효성 있는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들이 보이는 특성이 발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다문화청소년들만의 특성인지, 일반집단과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극복방안은 무엇인지(양계민 외, 2011: 4) 등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연구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초기 당시부터 주요 관심은 청소년 일반집단과의 격차 및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이 격차를 해소하기

* III 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위한 정책방안 도출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그림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처음 본 조사 패널을 구축하였고, 매년 추적을 하여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다문화청소년들이 2020년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초기 구축 당시 전국의 총 1,625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고 2019년 현재 최종 1,169가구가 유지되고 있어 2011년 대비 71.9%의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본 조사는 2011년 조사 당시 승인통계가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2013년에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제 402003호). 그 다음 해인 2014년 정기통계품질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 5점 만점에 4.5점, 가중치 적용점수 90.1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111), 5년 후인 2019년에 다시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받았는데, 서론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5점 만점에 4.5점, 가중치 및 정성평가 및 추가점수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97.6점을 획득하여 매우 우수한 통계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양계민 외, 2019: 109).

이후 본 조사의 1기 패널 참여자들이 2020년 기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 또는 취업을 하게 됨에 따라 후기 청소년기의 다문화청소년들의 사회진출 및 적응실태를 파악하고자 지속적 추적조사를 결정하였고,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다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신규패널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신규로 2기 패널을 구축한 이유는 2018년도 신규패널설계보고서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재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지형이 2011년 당시와는 많이 달라져서 국외 출생자와 외국 인가정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에 반하여, 1기 패널은 국내 출생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 구축된 자료를 가지고 현재의 다문화청소년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양계민 외, 2019: 3). 따라서 2018년에 신규패널 구축을 위한 예비연구를 추진하였고, 2019년에는 새로이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2,224가구(2,246명)를 구축하였

으며 2020년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연도	주요 연구 내용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조사 설문 문항 최종 선정 ■ 본조사 연구방법 최종 결정 ■ 2011년도 1차 종단연구 패널 구축(초4)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패널 설문조사(2차년도 추적조사, 초5) ■ 1기 패널 질적조사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패널 설문조사(3차년도 추적조사, 초6) ■ 1기 패널 질적조사 ■ 국가통계승인(승인번호: 제 40203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패널 설문조사(4차년도 추적조사, 중1) ■ 1기 패널 질적조사 ■ 정기통계품질진단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패널 설문조사(5차년도 추적조사, 중2) ■ 1기 패널 질적조사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패널 설문조사(6차년도 추적조사, 중3) ■ 1기 패널 질적조사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패널 설문조사(7차년도 추적조사, 고1) ■ 다문화패널 학술대회 ■ 6년간 종단변화 분석 및 국내 다문화청소년 정책 총괄 분석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패널 설문조사(8차년도 추적조사, 고2) ■ 신규패널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 패널 데이터 공개를 위한 원칙 및 절차 수립 ■ 1기 패널 데이터 공개 시작(2011~2016)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패널 설문조사(9차년도 추적조사, 고3) ■ 정기통계품질진단 ■ 2기 패널 구축 및 설문조사(1차년도 조사, 초4)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패널 설문조사(10차년도 추적조사, 고졸이후) ■ 2기 패널 설문조사(2차년도 추적조사, 초 5)

* 출처: 양계민, 강경균(2017: 8) 그림 1-2 수정

그림 III-1. 본 조사의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2. 추진경과

1) 연구추진경과⁶⁾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1년간 3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종단연구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라는 명칭으로 3년간 1단계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0년에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종단연구를 위한 예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1년에는 종단연구의 본조사가 시작되었다. 2011년에 본조사와 취약계층 청소년과의 비교를 주요 주제로 다루었으며, 2012년에는 일반가정 청소년과의 비교분석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라는 명칭으로 2단계 연구가 5년간 수행되었다. 1단계 연구에서는 집단 대 집단의 비교연구가 실시되었으나, 2단계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발달단계별 주요주제를 선정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2단계 연구가 시작된 2013년에는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 및 학교생활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2014년에는 심리, 정서, 사회적응,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5년에는 자아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2016년에는 진로의식 및 태도를 다루었다. 2단계 연구의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그 간의 연구를 총정리하고 전반적인 발달양상에 대한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2018년부터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라는 명칭으로 3단계 연구가 시작되었다. 2018년에는 기존의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이들의 진로발달 및 진로관련 요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3단계 연구의 첫 해인 2018년에

6) 연구추진 경과는 2019년도 연구인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총괄보고서(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19: 6-7)」의 연구추진경과를 수정 보완함.

는 기존 패널에 더하여 새로운 패널구축을 위한 예비연구로 표본설계, 조사문항구성, 예비조사 등이 추진되었고, 2019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함께 신규패널의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의 연구주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 청소년 관련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에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년에는 2019년 신규패널로 구축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데이터로 1기 패널과의 비교, 배경변인에 따른 전반적 현황분석, 유형별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단계	과제명	연도	WAVE	학년	연구주제
1단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2010년	예비조사	초4	예비조사
		2011년	WAVE1	초4	취약계층 청소년과 비교
		2012년	WAVE2	초5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
2단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2013년	WAVE3	초6	학업 및 학교생활
		2014년	WAVE4	중1	심리, 정서, 사회적응, 문제행동
		2015년	WAVE5	중2	자아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
		2016년	WAVE6	중3	진로인식 및 태도
		2017년	WAVE7	고1	총체적 발달
3단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년	WAVE8	고2	진로발달현황 및 요구
			예비조사	초4	예비조사
		2019년	WAVE9	고3	심리·사회적응
			WAVE1	초4	
		2020년	WAVE10	고졸	1기 추적, 1,2기 비교 2기 배경변인 및 유형별 비교
WAVE2	초5				

그림 III-2. 연차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연구주제

* 출처: 양계민 외(2018, p.8) 수정 및 보완

(1)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 1차 코호트 구축 당시 1,625가구에서 시작하여, 2019년 1,169가구 조사를 성공하여 현재 71.9%의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2020년 현재 1기 패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로, 향후 고등학교 졸업 후 후기청소년기 발달 및 사회진입과정에 대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고, 1기 패널이 청소년기본법상 해당 연령인 만 24세가 되는 시점까지 유지하고자 한다. 2020년 조사 내용은 고교 졸업 후의 대학진학 및 취업현황 등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IV장 패널조사 부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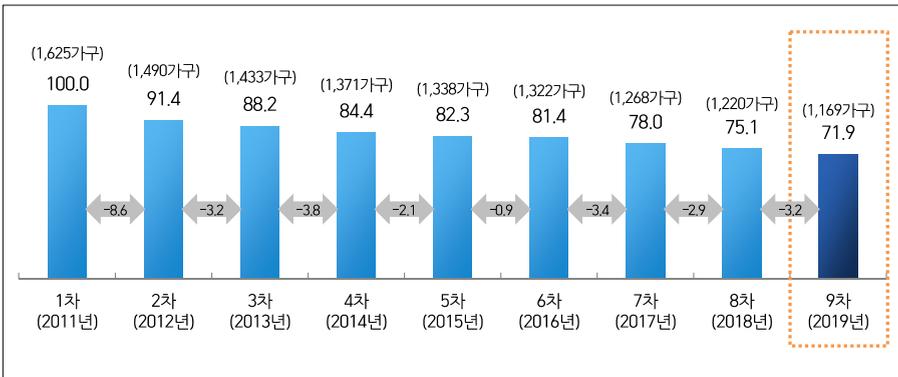


그림 III-3. 1차 코호트 패널조사 유지현황

(2) 2기 패널

본 연구는 2019년부터 신규패널을 구축하였는데, 2기 패널은 2019년 교육통계 중 「다문화 학생 통계」를 기준으로 표본설계를 하고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의 세 개 하위 유형에 따라 새로이 구축한 신규코호트로, 국제결혼가정

1,719가구, 중도입국가정 149가구, 외국인가정 356가구 등 총 2,224 가구로 구성되었다. <표 I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가구는 전국대비 12.2%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중도입국가정자녀는 16.6%, 외국인가정자녀는 17.5%에 해당하며, 전체 수치는 구축당시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약 13%에 해당하였다.

표 III-1. 2기 패널 구축 결과

시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합계
구축가구 수	1,719	149	356	2,224
구축 청소년 수	1,734	150	362	2,246
전국분포(청소년 기준)	14,163	902	2,069	17,134
전국대비 구축비율	12.2%	16.6%	17.5%	13.1%

본 연구의 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 III-4]와 같다. 즉, 2019년부터 2개의 코호트를 추적하게 되어 2011년 구축한 기존패널을 24세까지 추적하고, 2019년 구축한 신규패널을 역시 24세까지 추적조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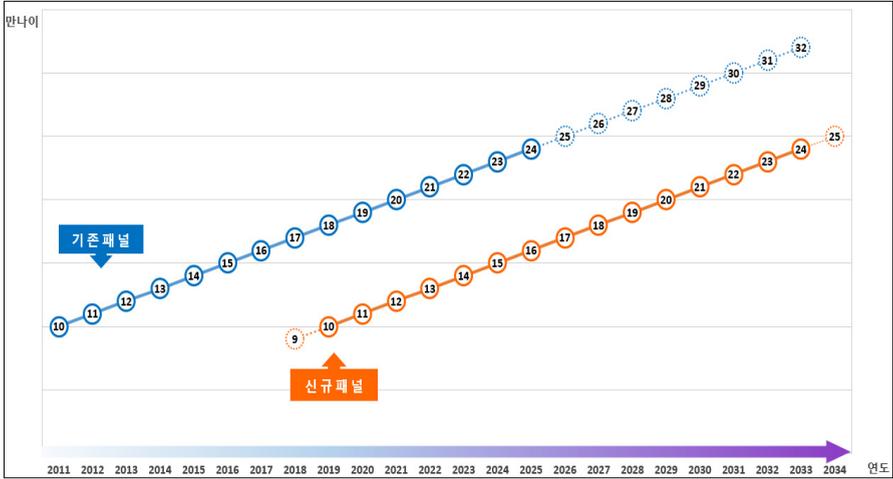


그림 III-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조사모형

* 출처: 양계민 외(2018, p.9)

2)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차별성

본 연구에서 추적조사하고 있는 1기 패널과 2기 패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우선 1기 패널은 201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다양한 다문화청소년들의 하위 유형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1기 패널의 한계와 변화하는 한국사회 다문화지형의 변화에 근거하여 2기 패널을 구축하였다.

2기 패널은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 다양한 유형들을 비교분석하고자 의도적으로 국내출생자와 국외출생자,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이 산출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표집틀은 교육부의 다문화학생통계이나 결과적으로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

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등 네 집단이 산출될 수 있었다.

두 개의 패널은 2011년과 2019년 시기의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을 추적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거나 2기의 경우 표본설계부터 하위유형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고 표본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지금까지도 본 조사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다문화청소년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향후 더욱 중요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는데, 1기 패널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다문화청소년 중 후기청소년기의 발달 및 사회적 적응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2기 패널의 경우는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 다양한 하위유형별 발달 및 적응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각 조사가 모두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성과 및 의의

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차별성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패널조사 연구로 기초연구로 구분되나 일반적인 패널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는 패널연구와 함께 정책연구를 추진해 왔다는 점인데, 매년 해당 패널의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특정 주제를 분석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을 함께 개발하고 제시해왔다. 이는 다른 패널조사와는 매우 차별적인 점으로, 물론 다른 패널조사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본 연구가 단순히 패널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지 않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객관적 실태를 알리고 이에 근거한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는 매년 패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더하여 참여청소년, 어머니, 교사,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실제 맥락 내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현재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과 관련지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제안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 생산을 통한 이론적 성과 뿐 아니라 정책적 분야에서도 성과를 도출하였다.

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성과

(1) 학술적 성과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의 이론적 성과를 제시하면, 2017년 학술대회를 통해 학술대회용 데이터가 공개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산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들이 산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위논문, 학술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 또는 기관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가 206건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을 연구 주제로 작성된 논문이 가장 많았고, 문화적응, 진로, 문제행동 등의 주제로도 출판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마이크로데이터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시점이 2018년 12월 30일이었기 때문에 본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실적은 실질적으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출판된 총 150개라고 볼 수 있고, 2017년과 2018년 실적인 22개의 학술논문은 2017년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의 발표논문과 학술지 발표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한 사례이다. 아래의 <표 III-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9년에는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이 65개가 출판되었고, 2020년의 경우 11월 30일 기준 총 85건의 논문 및 연구보고서가 출판되었다.

그 내용도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 학교적응, 문화적 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등 다양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분석된 바, 국내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학술적 분야에 기여한 바가 크고 그 기여도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보다 자세한 성과는 뒤의 6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표 Ⅲ-2. 본 연구의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건수

구분		2017	2018	2019	2020.11	총 활용 실적(편)
		1~5차	1~5차	1~6차	1~7차	
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	-	4	11	15
	석사학위논문	-	-	7	13	20
학술논문	전문 학술지 논문	9	13	49	60	131
학술대회 발표논문	MAPS학술대회	32	-	-	-	32
	기타 학술대회	1	1	5	-	7
기타(타 기관 연구보고서)		-	-	-	1	1
계		42	14	65	85	206

* 2017년과 2018년은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의 발표 논문 및 발표논문을 추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한 사례임.

* 데이터 일반공개 시점이 2018년 12월 30일이므로 2019년과 2020년 실적이 본 조사 데이터 활용실적임.

* 데이터 활용건수는 본 연구진이 검색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기에 실제 활용건수는 그보다 더 많을 수 있음.

(2) 정책적 성과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 대상 패널을 구축하고 기초데이터를 생산하는 것 이외에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 매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주제에 대하여 다문화청소년, 어머니, 학교교사,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대상자

들을 중심으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꾸준히 제시해 왔다. 그 결과 많은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 또는 정책제언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나 사업에 반영된 사례가 다수 있다.

최근의 반영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우선 2017년도 정책제언 보고서에 제안한 내용 중 '예비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필수과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20년 6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방안」에 반영이 되었다. 정책의 내용으로는 '예비교원 교직과목에 다문화교육 포함하는 교원양성교육과정 관련 규정 개정 및 편성운영 권고'라는 항목으로 예비교사 단계부터 다문화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2017년도 동 보고서에서 기존에는 교사나 학생 대상의 다문화이해교육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역사회 내 청소년업무 담당자들에게도 다문화이해교육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지도사 직무연수 등 프로그램 내에 다문화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과제로 제안한 바 있는데, 2020년 현재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두 개의 연구가 추진 중이다. 두 개의 연구 모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무지개 청소년센터에서 추진 중인데, 하나는 청소년지도사 직무연수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정책방안 연구'로 청소년 수련시설 중심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방안연구이다. 이 역시 2017년도 본 연구의 정책제언이 반영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2017년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 결과 2020년 6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방안」에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고, 현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통계연계방안 연구’와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가 추진 중이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현황통계와 실태통계가 지속적으로 작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는 2017년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그 내용이 2020년 6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방안」에 반영되어 있고, 그 결과 2020년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을 안산과 화성 두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다섯 번째로 2018년 보고서의 정책제언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방안 중 다문화청소년 대상 독서프로그램을 전국 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20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전국 도서관에 문화 다양성 이해를 위한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를 매개로 상호문화이해 기회 확대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독서멘토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2020).

여섯 번째로 2018년도 정책제언에서 다문화청소년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하여 ‘다문화청소년 재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두드림 사업」 우선지정’ 을 제시한 바 있는데, 2020년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기초학력 두드림학교 우선지정 권장’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 지원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 전체가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2020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 ‘지역사회 내 다문화 아동·청소년지원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내 정서지원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전문 지원 강화’라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2020b). 즉, 학교에서 정서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일차적으로는

위(Wee)클래스나 위(Wee) 센터를 이용하지만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교 밖의 지역 연계가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장기간 지속되고 꾸준히 정책제언을 개발 및 제시한 결과,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방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등에 반영된 성과가 있고, 이는 여타의 다른 패널연구와는 차별화되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표 III-3.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의 정책반영 결과

출판연도	제안내용	반영결과	정책내용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필수과목 포함(보고서 p. 118) 	「2020년 6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방안」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교원 교직과목에 다문화교육 포함하는 교원양성교육과정 관련 규정 개정 및 편성운영 권고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자 및 시설종사자 다문화이해교육과정 개발(보고서 p. 120) ■ 청소년 시설 다문화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보고서 p. 120) 	「2020년 여성가족부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직무연수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추진 •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정책방안 연구(청소년 수련시설 중심)’ 추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 통계구축(보고서 p. 133) 	「2020년 6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방안」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관련 통계 체계 구축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추정을 위한 행정통계연계방안,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추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중심 지역연계 체계 구축(보고서 p. 128) 	「2020년 6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방안」에 반영 및 「2020년 여성가족부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아동· 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추진

출판 연도	제안내용	반영결과	정책내용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청소년 대상 독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보고서 p. 438) 	「2020년 다문화가족 정책시행계획」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도서관에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를 매개로 상호문화이해 기회 확대 다문화가정 독서멘토링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청소년 재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두드림 사업」우선지정 (보고서 p. 436) 	「2020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에 기초학력 '두드림학교' 우선지정 권장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 연계시스템 구축(보고서 p. 386) 	「2020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내 다문화 아동·청소년지원기관(CYS-Net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내 정서지원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전문 지원 강화

(3) 사회적 파급효과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는 학문적 성과와 정책적 성과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언론에도 꾸준히 게재되었다. 본 연구물이 인용된 홍보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언론사에 다양한 주제로 게재되었고,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제시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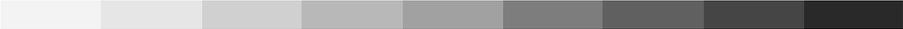
표 III-4. 본 연구결과 인용 언론게재 결과

날짜	언론사	제목
2009.02.18.	매일경제	청소년 56% "다문화가정 자녀와 친구 안 해"
2009.11.23.	동아일보	다문화 사회의 대응과 전망
2010.08.11.	약업신문	탈북·다문화 청소년 "우리 이야기 들어볼래?"
2012.02.10.	서울경제	언어 장벽·차별적 시선에 가족 융화 힘들어 '삼중고'

날짜	언론사	제목
2012.08.06	한국일보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한국인 정체성 낮아
2012.08.06	연합뉴스	다문화 어린이 10명 중 7명 "난 100% 한국인"
2012.08.07	동아일보	다문화 어린이 73% "나는 100% 한국인"
2012.09.18	조선일보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1년 만에 69% 급증
2013.03.20	연합뉴스	"다문화 청소년 보편적 기준 적용, 지원해야"
2013.05.29	장애인신문	'다문화', 그 속에 숨겨진 차별
2013.12.12	헤럴드POP	중도입국청소년 10명 중 4명 "진로 계획 없어"
2013.12.13	연합뉴스	중도입국청소년 상당수 1년 이상 '나홀로 집에'
2014.03.04	국제신문	"다문화 청소년, 저소득층일수록 학교 적응 어려움"
2014.03.04	연합뉴스	"다문화 청소년, 저소득층일수록 학교 적응 어려움"
2014.03.06	영남일보	"다문화 청소년, 저소득층일수록 학교적응 어려움"
2014.11.04	뉴스1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 과제는?
2014.11.07	농촌여성신문	FOCUS-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2015.03.11	서울신문	점점 더 어우러지는 다문화 청소년
2016.08.09	한국농어민신문	다문화정책 10년 이제는 자녀교육에 달렸다 ⑥국회 정책토론회
2016.11.20	세계일보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관심 밖… '있어도 없는' 존재
2016.12.04	세계일보	'같이'의 진정한 가치 교육 통해 차별·편견 극복 '한마음'
2017.02.01	신아일보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학년 올라갈수록 우울해진다
2017.02.01	쿠키뉴스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년 오를수록 우울증 커져"
2017.02.01	한국일보	나이 들수록 위축되는 다문화 청소년
2017.02.01	연합뉴스	"다문화청소년, 고학년될수록 우울감 심해져" 1천300명 추적조사
2017.07.12	농민신문	농촌 다문화정책, 2세에 초점을<하>대안은 없나
2018.06.25	연합뉴스	[다문화학생 10만명] ③ "진로탐색 교육 가장 중요"…전문가 제언
2018.06.25	연합뉴스	[다문화학생 10만명] ① 진학을 낮고 지원정책도 '부실'
2018.09.10	정책브리핑	다문화, '새로운 세대'를 이야기한다.
2018.09.10	여성소비자신문	다문화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성장 지원방안 모색
2018.12.12	연합뉴스	"다문화청소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도치않은 '낙인효과' 초래"

날짜	언론사	제목
2019.01.13.	서울경제	"함께 공부 못해" 떠돌림에...다문화 고교생 20% 학업 포기
2019.01.13.	서울경제	"이민자 이웃 싫다"...순혈주의에 숨막힌 '또 하나의 한국인'
2019.01.14.	서울경제	단순 적응 아닌 진로 교육 등 보다 현실적인 시스템 갖춰야
2019.03.22.	헤럴드경제	[우리 안의 인종차별]'동생 보느라...사선 때문에...' 학교 밖 다문화 학생들
2019.04.23.	연합뉴스	다문화청소년 추적조사 결과 "성장하면서 삶의 만족도 떨어져"
2019.04.24.	내일신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 청소년 추적조사 결과] 지랄수록 '삶의 만족도' 떨어진다.
2019.05.03.	머니투데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2019.05.03.	국회	이주배경 아동 교육권 보장: 제도-학교 연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2019.05.04.	미디어오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들
2019.05.16.	CTS	2018 다문화 청소년 중단연구 보고서 발표 "다문화 청소년 성장할수록 삶의 만족도 하락"
2019.06.13.	연합뉴스	"다문화학생도 이질적...문제-육구 반영해 맞춤 지원 고민해야"
2019.09.30.	뉴시스	다문화 학생 47.5%는 진로 못 정해...정보력, 가정배경 요인
2020.06.26.	쿠키뉴스	정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공교육 진학 돕는다
2020.08.26.	내일신문	다문화청소년, 집단괴롭힘에도 '도움 요청할 어른 없다' 70.4%
2020.08.27.	연합뉴스	다문화 청소년, 집단 괴롭힘 당해도 도움 청할 곳 없어 '공공'

결론적으로 다문화청소년중단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추적하는 기초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관련분야의 학문적, 이론적으로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다년간 주제별로 정책과제로 제시한 내용들이 중앙정부 수준의 계획이나 부처별 계획, 또는 부처별 추진사업으로 실현된 결과를 도출하였고, 사회적으로도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객관적 시각 및 태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 2 부



패널조사 및 데이터 공개

○ ————— 제Ⅳ장 패널조사

- 1. 1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 2. 2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 3.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

1. 1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1) 표본설계⁷⁾

(1) 모집단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1기 패널 모집단은 2011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학생이었다. 청소년기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조사에 대한 이해와 성실한 조사 참여가 가능한 인지발달 수준을 보이는 최소연령을 4학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1기 패널 표본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바탕으로 집계된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학생을 조사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표본추출을 실시하였고, 협조가 구해지지 않은 4개의 시·도는 2010년 기준의 자료로 대체하였다. 이렇게 집계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학생의 지역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양계민 외, 2011: 118).

* IV장의 1절은 장윤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절, 3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가 집필함.
7) 1기 패널의 표본설계는 1기 패널이 구축된 2011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1년 연구보고서(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111-121)의 내용을 요약 및 발췌하여 제시함.

표 IV-1. 지역별 조사 모집단 분포 현황

(단위: 빈도(%))

지역	학교	학생	지역	학교	학생
서울	264 (10.4)	510 (11.5)	광주	75 (3.0)	110 (2.5)
인천	119 (4.7)	228 (5.1)	전북	175 (6.9)	318 (7.1)
경기	514 (20.3)	1,006 (22.6)	전남	228 (9.0)	475 (10.7)
부산	114 (4.5)	185 (4.2)	대전	49 (1.9)	64 (1.4)
울산	39 (1.5)	59 (1.3)	충북	118 (4.7)	196 (4.4)
경남	226 (8.9)	351 (7.9)	충남	175 (6.9)	279 (6.3)
대구	80 (3.2)	107 (2.4)	강원	150 (5.9)	234 (5.3)
경북	173 (6.8)	281 (6.3)	제주	38 (1.5)	49 (1.1)
합계			2,537 (100.0)		4,452 (100.0)

* 출처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118) 표 V-1 수정

(2) 표본추출⁸⁾

1기 패널의 목표 표본의 크기는 다문화가정 1,600가구였다. 이는 조사 모집단인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학생 4,452명의 35.9%에 해당한다. 본 조사의 경우 집계된 모집단 정보가 다양하지 않다는 한계로, 지역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층화하였다. 조사 단위는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이지만 학교를 표본추출의 단위로 결정하고, 층화변수인 16개 시도별 할당된 학생 수를 기준으로 목표 표본크기에 도달할 수 있는 1,000개의 학교를 선정하고 확률비례계통추출법(PPS: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을 통해 표본을 배분하였다(양계민 외, 2018: 34). 지역별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의 모든 4학년 다문화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2011년 당시 부득이하게 표본을 대체해야 하는 경우는 연구책임자의 승인 하에 대체하였고, 이후 표본에서 이탈한

8) 표본추출의 경우도 2011년도 구축당시와 동일하여 2019년도 연구보고서(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19: 39-40)의 내용을 다시 제시함.

가구에 대한 경우는 대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양계민, 강경균, 2017: 73).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지역별 표본 배분 결과

(단위: 빈도(%))

지역	학교	학생	지역	학교	학생
서울	100 (10.0)	173 (10.8)	광주	29 (2.9)	39 (2.4)
인천	47 (4.7)	79 (4.9)	전북	67 (6.7)	108 (6.8)
경기	196 (19.6)	362 (22.6)	전남	87 (8.7)	163 (10.2)
부산	56 (5.6)	85 (5.3)	대전	19 (1.9)	24 (1.5)
울산	21 (2.1)	28 (1.8)	충북	45 (4.5)	67 (4.2)
경남	86 (8.6)	125 (7.8)	충남	79 (7.9)	113 (7.1)
대구	31 (3.1)	38 (2.4)	강원	57 (5.7)	83 (5.2)
경북	66 (6.6)	97 (6.1)	제주	14 (1.4)	16 (1.0)
합계			1,000 (100.0)		1,600 (100.0)

* 출처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120) 표 V-2 수정

2) 조사내용

(1) 설문문항 개발절차

2020년은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1기 패널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으로 조사가 실시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다양한 생활과 실태를 반영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문항 개발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 이주청소년 관련 해외 문헌연구 ■ 국내 후기청소년 대상 유사패널 분석을 통한 조사대상 유형 및 조사영역 도출
▼		
2	1차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조사영역별 조사내용에 대한 1차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다문화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 청년 연구 전문가의 의견수렴
▼		
3	연구진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토대로 조사영역별 조사내용 1차 수정안 도출
▼		
4	2차 전문가 서면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영역별 조사내용 1차 수정안에 대한 2차 전문가 서면 자문 실시 - 패널조사 전문가, 다문화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 청년 연구 전문가의 의견수렴
▼		
5	조사대상 유형별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전문가 서면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조사영역별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대상 FGI 실시 - 대학진학자, 비진학자 대상 설문문항에 대한 의견수렴
▼		
6	최종 설문문항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서면자문 및 조사대상 FGI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조사영역별 조사내용 확정
▼		
7	TAPI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 최종 조사문항을 바탕으로 TAPI 시스템 구축 - 원내 연구진과 조사전문업체 담당 연구원의 TAPI 사전테스트 실시를 통한 문항 로직 및 TAPI화면 구현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TAPI 시스템 확정

그림 IV-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1기 패널 설문문항 개발절차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20년 조사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인 관계로 조사대상의 유형구분 방식을 비롯하여, 조사영역 및 내용구성, 조사방법 등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중등교육 이후 후기청소년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조사를 실시한 국내 유사 패널조사들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후기청소년 대상 국내 주요 실태조사들에서 다루고 있는 조사의 영역과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유사 패널조사 및 후기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을 크게 학업형, 취업형, 니트(NEET), 기타로 구분하고 8개 조사영역(배경특성, 대학생활, 진학준비, 경제활동, 미래계획, 군복무, 심리·사회적응 및 가치관 등, 정책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였다.

다음 단계로 다문화청소년 센터의 현장전문가와 청년연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조사영역과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자문의견을 수렴하였고, 자문회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영역 및 내용에 대한 1차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1차 수정안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패널조사 전문가, 청년연구 전문가, 다문화청소년 현장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2차 서면자문을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조사영역 및 내용의 2차 수정안을 도출하였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본 조사에 참여할 조사대상의 설문문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 또한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에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므로, 본 연구의 기존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기 패널 청소년 중 대학 진학자 4명과 비진학자 5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FGI를 실시하였다.

요약하면, 국내 유사패널 및 실태조사 검토, 총 세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 두 차례의 조사대상 FGI를 거쳐 고등학교 졸업 이후 후기청소년의 다양한 생활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

여 청소년용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 청소년용 설문지를 바탕으로 TAPI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후 조사전문기관의 담당 연구원과 원내 연구진이 여러 차례 TAPI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여 문항의 로직 및 TAPI 화면 구현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TAPI 시스템을 확정하였다.

이상 기술된 설문문항 개발절차는 1기 패널 청소년 대상 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진에 판단에 따라 2020년 조사부터는 어머니 및 대체양육자 대상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단, 매년 설문조사 시행에 앞서 패널유지 및 관리를 목적으로 어머니 및 대체양육자 대상 전화조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하며, 후기청소년들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가정의 소득관련 정보와 같이 간단한 문항으로 구성된 어머니 및 대체양육자 대상 전화조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 후기청소년 대상 국내 패널조사 및 실태조사 검토

1기 패널 청소년 대상 새로운 설문지 구성을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후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내 주요패널 및 실태조사를 검토하였다. 국내 패널조사로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을 검토하였고, 후기청소년 대상 실태조사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후기청소년 세대·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현행 청년정책 당사자 의견조사’,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검토하였다.

①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2005년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종단연구로, 2011년 7차년도 조사부터 고등학교 졸업이후 후기청소년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하여, 2012, 2014, 2015, 2018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었다. 기본적으로 '투입-과정-산출' 모형을 기반으로 학교 및 학생수준의 교육관련 조사항목을 구성하며, 후기청소년 대상 설문지는 크게 4종류(대학생, 취업자 및 구직자, 진학준비자, 군입대자)로 구분되었다(김양분 외, 2011: 93).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이 9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였고(김양분 외, 2011: 92), 조사대상 유형의 특성에 따라 4종의 설문지에 대한 응답여부가 결정된다.

- 대학생 I: 대학에 진학 후 1학기 이상 재학했으며, 조사시점 기준 재학 중인 경우
- 대학생·취업자 II: 조사시점 기준 대학교 재학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업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 대학생·진학준비자 III: 대학 진학 후 1학기 이상 재학하였으나, 조사시점 기준 재학여부 상관없이 대학입시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경우
- 대학생·입대자 IV: 대학에 진학하여 1학기 이상 재학하였고,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 취업자 및 구직자 V: 조사시점 기준 ① 임금근로자, ② 자영업자, ③ 주당 18시간 이상 가족이 하는 일을 무급으로 돕고 있는 가족종사자인 취업자(일시 휴직 및 발령대기 포함)와 취업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취업관련 학원 수강중인 취업준비자 포함)
- 취업자 및 진학준비자 VI: 취업자 및 구직자V 중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경우
- 진학준비자 VII: 대학진학 및 취업경험 없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경우

- 입대자 VIII: 대학진학 및 취업경험 없이 군복무 중인 경우
- 기타 IX: 이상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대학생·취업자II’로 구분되는 경우, 대학생용과 취업자 및 구직자용 설문지에 모두 응답하며, ‘대학생·입대자IV’는 대학생용과 입대자용 설문지에 모두 응답하게 된다. 4종의 설문지에서 포함하는 주요 조사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조사대상이 응답하는 공통문항으로는 기본적인 개인배경 정보, 고등학교 재학시절의 교육경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인적교류 및 부모와의 관계 등이 포함되며, 대학생용 설문지에는 대학의 이름, 전공 등과 같은 기본정보와 대학 진학에 관한 정보, 대학생활 및 학습경험, 교육비, 향후 계획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취업자 및 구직자용 설문지에는 취업준비 및 일자리 경험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진학준비자 대상 설문지는 대학입시 경험, 사교육, 진학계획 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고, 입대자용 설문지에는 군입대 시기와 같은 기본정보와 함께 군생활 전반에 관한 문항과 제대 후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표 IV-3. 한국교육총단연구2005 7차(2011년) 조사영역

설문지 구분	주요 조사영역
공통	인구통계학정보, 고등학교 교육경험, 시간활용 및 정치참여, 인적교류, 자신에 대한 인식, 부모와의 관계, 진로의식, 생애목표 의식검사
대학생	기본정보, 대학진학관련 정보, 대학에서의 학습경험, 대학생활, 대학 적응 및 만족도, 인적교류, 교육비, 향후 계획
취업자 및 구직자	고등학교 진로교육경험, 취업준비경험, 일자리경험(취업경험 있는 경우), 구직(취업경험 없는 경우), 진학계획 및 이유, 구직교육경험
진학준비자	이전 입시경험, 학습활동, 사교육, EBS 의존도, 입시컨설팅 경험 및 비용, 입시스트레스, 진학계획, 아르바이트
입대자	기본정보, 군생활 만족도, 참여 활동, 부내 내 프로그램 현황, 제대 후 계획, 취업경험

② 한국교육고용패널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어지는 경로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 기준 중학교 3학년 학생 2,000명과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0명,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추적 조사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I 이 시행되어 2015년 12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I 에 이어 2016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기 패널을 새롭게 구축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 II 을 시작하였으며, 조사 대상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2차 조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2018년 상반기에 실시함에 따라, 2018년에는 조사대상이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이지만 조사내용은 고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다(유한구 외, 2017).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실시되는 첫 번째 조사에 해당하는 2019년에 한국교육고용패널 II 의 3차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를 기준으로 주요 조사영역을 검토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II 3차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고등학생’, ‘대학생’, ‘대입준비’, ‘취업자’, ‘미취업자’로 구분하였고, 설문지를 구분하는 대신 15개 조사영역을 모듈화하여 대상의 특성에 맞게 조사항목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윤혜준 외, 2019). 조사대상별 조사영역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4. 한국교육고용패널 II 3차(2019년) 조사대상별 조사영역 구성

조사영역	조사대상 구분				
	고등학생	대학생	대입준비	취업자	미취업자
고등학교생활	○	×	×	×	×
대학생활	×	○	×	×	×
대학입학 준비	×	○	○	×	○
교육훈련	○	○	○	○	○
자격증	○	○	○	○	○
구직활동	×	○	○	○	○
일자리 유무	×	○	○	○	○
일자리 지속 여부	×	○	○	○	○
주된 일자리 특성	×	○	○	○	○
취업의사 및 준비	×	○	○	○	○
일자리 경험	×	○	○	○	○
가정생활	○	○	○	○	○
여가생활	○	○	○	○	○
진로계획 및 직업의식	○	○	○	○	○
일반적 특성	○	○	○	○	○

* 출처: 윤혜준 외(2019: 47) 표 3-1

한국교육중단연구와 유사하게, 조사대상의 특성을 토대로 조사영역이 구성되며, 가정생활, 여가생활, 진로계획 및 직업의식, 일반적 특성과 같이 조사대상의 구분 없이 모두 응답이 가능한 영역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15개 조사영역 중 후기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 생활영역을 제외한 14개 조사영역의 주요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5. 한국교육고용패널 II 3차(2019년) 조사영역별 주요 조사내용

조사영역	주요 조사내용
대학생활	대학정보, 대학진학정보, 학기별 학적 상태, 학업관련 정보, 등록금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정보, 학교생활, 대학에서의 취·창업 교육경험, 현장실습, 재학 중 근로경험
대학입학 준비	대입준비 경험, 사교육, 개별 공부시간
교육훈련	외국어 공부, 임용 및 전문자격 시험(언론사 포함),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경험, 취·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훈련, 기타 자격증, 해외연수
자격증	취득 자격증 종류 및 수, 취득 준비 경험, 취득 비용, 관련 교육훈련 경험, 도움 정도
구직활동	아르바이트 제외 구직활동 경험, 취업정보 수집 경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실업급여 수급 경험 및 도움 정도
일자리 유무	일자리 유무, 일자리 수 및 고용 형태
일자리 지속 여부	작년 조사당시 일자리 지속 여부, 중단 시점
주된 일자리 특성	-임금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 관련 일자리 정보: 취업경로, 근무기간, 고용형태, 근로소득, 업무 만족도, 이직의사 및 이유 등 -자영업자·고용주·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일자리 정보: 사업동기, 사업시작 시기, 사업체 규모, 월평균 매출액 및 소득, 노동조합 가입여부, 정부지원 여부 및 지원금, 안정성 및 만족도 등 -무급가족 종사자 관련 일자리 정보: 일 시작 시기, 평균 근무시간, 주된 업무내용, 만족도, 근무환경 등
취업의사 및 준비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 및 횟수, 일 시작 또는 중단시기, 근무내용, 근무형태 등
일자리 경험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자리 경험, 근무시기, 근무내용 및 형태 등
가정생활	본인 및 가족구성원 기본 배경정보, 거주형태, 소득 및 지출, 부모의 교육배경 및 경제활동 상태 등
여가생활	하루 평균 여가시간 및 종류, 용돈과 사용처, 해외여행 경험 등
진로계획 및 직업의식	미래 직업결정 여부, 직업선택 요인, 직업생활 성공에 필요한 요인, 자신에 대한 평가 등
일반적 특성	건강상태, 일주일 평균 운동 및 수면시간, 아침식사 여부, 행복정도, 흡연 및 음주 정보 등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조사영역은 한국교육종단연구와 유사하게 대학생, 대학입시, 교육훈련, 일 경험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조사의 주요 목적이 직업세계로의 이행경로에 대한 파악인 만큼, 상대적으로 일자리 및 일 경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2019년 조사에서는 기본 조사영역은 아니지만 기획문항으로 경제상황 만족도, 10년 후 자신의 예상 경제상태 등과 같은 경제의식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③ 청년패널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연구 수행을 위해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 및 경제활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청년패널조사를 실시하였다. 2001년에 만15~29세 청년층을 대상 1기 패널(YP 2001)을 구축하여 2006년 6차년도 추적조사를 완료하였고, 2007년 기준 만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으로 2기 패널(YP 2007)을 새롭게 구축하여 2018년 12차 추적조사가 완료되었다. 청년패널의 조사대상은 크게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취업자, 미취업자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황광훈, 조민수, 박정아, 2018: 35).

- 중·고등학생: 조사기간 내 주간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하루 종일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현장실습 중인 경우
- 대학생 및 대학원생: 조사기간 내에 주간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야간 대학(원)을 다니며 하루 종일 일하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대학 재학 중 기업 인턴쉽을 하는 경우, 대학 휴학 중 아르바이트만 하는 경우
- 취업자: 학생이 아니면서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학생이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 1주일에 18시

간 이상 근로하는 무급가족종사자, 졸업예정자 중 취업한 경우, 휴학 중 아르바이트가 아닌 취업을 한 경우

- 미취업자: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1주일에 18시간미만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지난 1주간 또는 1개월간 구직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 실업자(지난 1주간 또는 1개월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로 ‘구직자’를 의미함), 학교를 휴학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군입대 대기, 진학준비, 시험준비 등), 재수생 및 특정 소속이 없는 경우

청년패널은 대학에 재학하고 있지만, 하루 종일 직장에 다니는 경우를 대학생이 아닌 취업자로 분류하며, 한국교육종단연구와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는 대입준비자를 별도의 조사대상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 청년패널에서는 이들을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등과 함께 미취업자로 분류하였다. 청년패널의 조사영역은 크게 8개로 나누어지며, 각 영역의 조사대상자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6. 청년패널2007 11차(2017년_조사영역 별 조사대상 및 내용)

분류	영역	대상	주요 조사내용
Part A	학교생활	재학자 (재학 중 취업자 포함)	학교 유형 및 기본정보, 재학여부, 입학경로, 학교 성적, 학비부담, 희망 최종학력, 전공계열, 복수(부)전공, 학교생활 만족도, 대학 중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 휴학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Part Ba	현직장	취업자	일자리 변화, 현재 일자리 유형, 근무시작시기, 종사상 지위, 사회보험수혜, 근로시간, 임금, 만족도, 전공 일치도, 직업선택기준, 구직경험, 이직준비
Part Bb	미취업상태	미취업자	실업자(구직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구분
	구직활동	미취업자 중 실업자	구직활동기간, 횟수, 취업을 위한 노력, 구직정보 습득경로, 희망직업 및 산업, 희망기업 및 임금
Part C	경험일자리	취업자	과거 일자리 경험
		재학 중 취업자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일자리경험(인턴)
		미취업자	지난조사 이후 일자리 경험
Part D	시험준비	전체	대학입시 제외 시험준비 경험
	직업훈련	전체	직업훈련 경험, 목적, 도움정도, 비용
	자격증	전체	취득 자격증, 전공관련도, 도움정도, 향후취득계획
	직장체험 훈련	전체	고용노동부 제공 직업탐색 및 현장경험 프로그램 경험여부, 도움정도, 재참여 여부, 미참여 이유
Part E	취업사교육	전체	취업을 위한 사교육 경험, 비용, 도움정도
	해외연수	전체	유학 및 어학연수 경험, 도움정도
Part F	진로지도	전체	전공선택, 진로지도경험, 도움정도, 희망 진로지도
	예상진로	재학생, 취업자	향후 진로계획, 진학 이유, 진학/취업 결정시점
	진로발달	재학생	진로미결정검사, 진로성숙도 검사
	구직동기	미취업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Part G	가구배경	전체	성장환경, 배우자 및 혼인상태, 군복무경험, 부모 직업 및 고용형태, 가구주 및 가구구성원, 주거상태 및 자산, 가구소득

청년패널은 앞서 살펴본 두 패널조사와 비슷하게 대학생할, 일 경험, 진학준비 등의 유사한 조사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육고용패널과 마찬가지로 청년패널 역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된 조사인 만큼, 현 경제활동여부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구분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영역의 조사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④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한국 청년층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청년관련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 만 15~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횡단조사다(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2013년과 2015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를 기반으로 2016년부터 매년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국내 패널조사와 다르게 진학, 취업, 미진학, 구직 등 청년의 현재 상태에 따라 조사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연령을 기준으로 만 15~18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과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만 구분한다. 단, 만 15~18세에 해당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예. 검정고시 준비, 대입준비, 대학교 재학 및 취업)는 '만 19~39세 청년용' 설문지에 응답하고, 만 19~39세에 해당하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만 15~18세 중·고등학생용' 설문지에 응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019년 조사기준 '만 19~39세 청년용' 설문지의 배경변인을 포함한 총 9개 조사영역 및 하위항목은 다음과 같다(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2019: 405-409).

표 IV-7.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영역 및 주요내용

영역	주요 조사내용
인구와 가족	연령, 혼인상태, 결혼계획, 가족계획, 맞벌이 유무, 자녀 수 및 계획, 2025년 출산을 전망, 해외이주 고려 여부 및 이유
교육과 훈련	2025년 입시경쟁 전망,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의견, 고등학교 교육 경험,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 경험과 도움정도, 취업준비, 공무원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향후 직업훈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진학자 대상: 대학정보, 졸업유예 경험, 전공계열, 교육만족도, 향후 대학원 진학 여부, 대학원 재학 상태 ▪ 대학 미진학자 대상: 대학 미진학 사유, 향후 대학 진학 의향
경제와 고용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2020년 적정 최저 임금,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청년관련 정책 참여 경험 및 인식, 생활비, 물질적 박탈감 경험, 창업 및 근로경험,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중요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업자 대상: 구직(창업준비 포함) 경험 여부,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 구직활동 기간 ▪ 취업자 대상: 현재 일자리, 소득수준, 노동시간, 만족도, 이직의향, 취업 후 지진 퇴사 및 해고경험 여부, 실업급여 정보 ▪ 미취업, 미진학자 대상: 학업 및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주거	본인 명의 집 마련 예상시기, 집에 대한 생각, 주거 형태
건강	주관적 신체 및 정신건강 수준, 건강검진 수검 여부,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 운동여부, 외모의 중요도
가치관	항목별 가치도,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과 달성 정도
관계 및 참여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수, 외출 정도, 외출하지 않은 상태의 지속기간 및 계기, 혼자 밥을 먹는 경험,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정치적 효능감
정치·사회 참여	사회·정치문제 참여 및 관심정도, 선거 참여, 단체(모임) 참여경험 및 의향, 청년 참여 관련 법, 정책 기구별 인지도,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10대 시기 활동별 참여 경험
배경변인	성별, 부모의 소득 수준 및 학력, 현 직장 정보(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직장유형, 사업장 규모, 근속년수)

* 출처: 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2019: 405-409) 표 부록-1 수정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경우, 청년층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주거,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과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가치관, 정치·사회참여, 사회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인식 등 앞서 살펴본 패널조사들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⑤ 후기청소년 세대·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만 19~24세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2년과 2013년 2년에 걸쳐 수행한 실태조사로(김지경, 이광호, 2013; 조혜영, 김지경, 전상진, 2012), 2012년에 실시한 조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2013년에는 비진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 진학자의 경우, 별도로 하위 조사 대상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2013년 조사대상인 비진학자의 경우는 현재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김지경, 이광호, 2013).

- 취업자: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며 일한 시간이 진학·취업공부·직업교육·창업준비 시간보다 많은 경우, 가족종사자, 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일시 휴직한 경우
- 구직자: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며 일한 시간이 일자리를 찾는 시간보다 많은 경우, 지난 1주/4주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일하지 못하고 취업할 일자리를 찾아본 경우
- 준비자: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며 진학·취업·창업을 위한 교육 받는 시간이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경우, 지난 1주간 일하지 않으며 주로 진학·취업·창업을 목적으로 공부 및 준비한 경우
- 니트(니트): 지난 1주간 어떠한 것(일, 구직, 공부, 취업, 창업준비 등)도 하지 않은 경우

후기청소년 세대·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의 진학자와 비진학자 대상 주요 조사영역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패널 및 실태 조사와 비슷하게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배경정보, 대학 및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 대학생활, 학업계획, 경제수준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대학생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와 이용경험에 대한 내용도 함께 조사하였다(조혜영 외, 2012: 84-86). 대학 비진학자의 경우, 개인 및 가정배경 변인, 가구정보, 출신 고등학교 경험, 소득수준, 사회·심리적응 관련 변인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조사영역으로 추가되었다(김지경, 이광호, 2013: 124-129). 예를 들어 니트로 분류된 조사대상에게는 외출 횟수, 인적교류, 구직의향이 없는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며,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경험 및 취업가능성 등을 조사하였다.

표 IV-8. 후기청소년 세대·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대상별 주요 조사영역

대상		주요 조사영역
진학자		개인배경정보, 대학 및 출신고교 정보, 일상생활 시간배분, 주거형태, 주거 만족도, 생활비, 등록금, 경제적 상황, 소득 수준, 재학 중 근로경험, 여가활동, 학업 및 취업준비, 학업중단 의사 및 이유, 희망 학력 수준, 대학생 관련 정부정책 인지 및 이용정도, 가정배경 변인, 초중등시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정부지원
비진학자	공통	가정배경 변인, 개인배경정보, 가구형태, 가구구성, 출신고교 정보, 고교 재학 중 일 경험, 고교 졸업 후 첫 일 경험, 생활시간, 생활비, 소득 수준, 여가활동, 1년 후 계획, 진로성숙도, 자존감, 생활만족도, 사회적응, 직무태도, 미래관,
	취업자	현재 일자리 정보, 소득 수준, 4대 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수령가능성, 고등학교 교육의 도움정도, 부당대우 경험, 아르바이트 관련 기본상식
	구직자	구직활동 경험, 구직활동의 어려움, 구직 실패이유, 희망 직종, 예상 구직활동 지속기간, 취업가능성
	준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학준비자: 진학 결정요인, 진학준비, 진학계획, 사교육, 어려움 및 필요한 지원

대상	주요 조사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준비자: 취업 결정요인, 취업준비, 취업계획,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경험, 교육비, 필요한 지원, 직업훈련지원금 수령경험 ▪ 창업준비자: 창업 결정요인, 창업계획, 창업준비, 창업교육경험, 창업 초기자금 조달방법, 우리나라 청년창업환경, 필요한 지원, 창업 실패 후 계획
니트	외출 횟수, 인적교류, 구직활동 경험, 구직활동의 어려움, 구직의향이 없는 이유, 희망 근로형태, 필요한 지원

⑥ 현행 청년정책 당사자 의견조사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보다 구체적인 청년정책 개선 사항 파악을 위해 만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현행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수준을 조사하였다(김지경, 변금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 조사대상은 현재 상태에 따라 재학생, 미취업자, 취업자로 구분하고, 크게 세 가지 영역(개인배경, 현재 상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정책의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므로 대학 및 일자리 등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만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는 대부분의 청년관련 정책에 관해서 인지여부, 이용경험 및 도움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김지경 외 2019: 143-144).

표 IV-9. 현행 청년정책 당사자 의견조사 주요 영역 및 내용

영역	주요 조사내용
개인배경	개인배경변인, 교육수준, 거주지, 주관적 경제수준, 월평균 소득, 생활비 마련, 현재 상태,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 참여여부 및 기간
현재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 : 대학(원) 학제, 소재지 ▪ 미취업자 : 미취업기간, 구직활동, 구직실패, 공시준비 ▪ 취업자 : 근로형태, 사업체 규모, 근속기간

영역	주요 조사내용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 : 학자금 지원, 구직 및 창업지원,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 사회지속 : 주거지원, 신용회복, 사회서비스 및 공간지원, 건강지원 ▪ 혁신능력 : 다양한 활동지원, 일터의 안전보장, 고용안전망 확충 ▪ 추진방향 : 추진 방향에 대한 중요도 인식, 우선되어야 할 청년정책

⑦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들의 취업 및 삶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2018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김유빈, 이영민, 2018).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2018년 기준 만 25~34세에 해당하는 2,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대상의 지난 1주일 동안 상태를 기준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을 한 '취업자',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을 다니거나 이들 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으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취업준비생)', 정규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분하고, 그 외 진학준비, 가사 및 육아 등의 활동을 주로 한 경우는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영역으로는 가구구성, 학력 및 일자리 정보 등을 조사하는 일반영역과 주거, 문화 및 여가, 자기개발, 심리 및 정서 영역으로 구분된다.

표 IV-10. 청년의 삶 실태조사 주요 영역 및 내용

영역	주요 조사내용
일반	가구구성, 최종학력정보, 생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 대상: 일자리 정보,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득수준
주거	거주유형, 주거 선택 고려사항, 소유 주택정보, 주거비 및 부담정도
문화/여가	문화/여가생활 및 만족도, 거주지 주변 문화/여가활동 시설 만족도, 문화/여가활동 비용,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인지정도
자기개발	창업준비 경험 및 이유, 희망하는/했던 일자리 및 선택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 학생, 기타 대상: 취업준비,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임용

영역	주요 조사내용
	등 관련시험 준비경험 ▪ 취업자 대상: 취업준비경험 및 비용, 취업준비 후 첫 일자리 마련까지 소요된 기간
심리/정서	전반적 삶 행복감, 전반적 삶 만족감, 정서 및 심리상태(자존감, 스트레스, 불안, 행복, 분노, 우울, 대인기피, 외로움, 공감, 좌절 각 1문항으로 구성), 한국청소년에 대한 인식

⑧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사회의 다문화가구의 비중 증가와 거주 장기화에 따른 다문화가족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변화된 상황과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3년을 주기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시작되었다. 2009년 조사에는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2년부터 표본조사로 변경되었다. 기본 조사단위는 다문화가구이며, 조사대상 가구 내 가구원을 ① 결혼이민자·귀화자, ②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 ③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만 9~24세 자녀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최윤정 외, 2019). 여기서는 후기청소년의 연령에 해당되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만 9~24세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조사의 주요 영역 및 내용을 검토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하위 구분은 없으며, 주요 조사영역은 가구구성, 재학학교 및 일자리 정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조사대상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특성이 반영된 한국사회 적응, 다문화정체성, 학교 및 사회에서의 차별경험 등이 포함되었다(최윤정 외, 2019: 26-27).

표 IV-1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청소년 자녀 대상 주요 조사 영역 및 내용

영역	주요 조사내용
가정생활	부모와의 관계, 다문화가족 정체성, 주요 사용 언어
한국생활과 국적취득	한국에서의 재학여부(초중고/대학/대학원), 학업중단 이유,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방법(초중고 재학 시절), 학교적응 및 부적응 이유,

영역	주요 조사내용
	학업성적, 사교육 경험여부 및 시간, 현재 체류자격, 한국국적 및 영주권 취득계획,
정서 및 사회생활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적 차별경험 및 차별 가해자와 대응방법
진로 및 교육지원	희망교육수준, 외국출신 부모나라로 유학 의사 및 이유, 다문화관련 시설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 정규학교 외 교육지원 경험 및 필요정도, 직업교육 경험
경제활동	일자리 정보, 소득수준, 일 관련 어려움,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구직의 어려움, 비재학 및 비취업 경우 지난 1주간 주된 활동

이상 7개의 국내 주요 패널 및 실태조사에서 후기청소년의 유형 구분과 주요 조사영역 및 내용을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후기청소년 대상 조사에서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대학 진학 및 취업여부로 조사마다 사용하는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진학자’, ‘취업자’,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자’로 구분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의 주요 목적에 따라 조사대상의 구분이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교육영역에 대한 조사가 주요 목적인 한국교육종단연구의 경우 취업자와 구직자를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한 반면, 청년고용에 주된 관심이 있는 청년패널은 진학준비자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미취업자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IV-12. 조사대상유형구분 비교

조사	진학자	취업자	진학 준비자	미취업자 (구직자/취업준비자)	기타
교육종단	○	○ (취업자 및 구직자)	○	×	입대자
고용패널	○	○	○	○	×
청년패널	○	○	×	○ (진학준비자 포함)	×
청년 사회·경제	○	○	○	○	×
청소년 생활·의식	○	○	○	○	니트
청년의 삶	○	○	×	○	진학준비, 가사 및 육아
청년정책 당사자	○	○	×	○	×
전국 다문화	×	×	×	×	×

조사대상 유형 구분뿐 아니라, 취업자에 대한 정의 및 기준 역시 조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로 정의하고,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주당 18시간 이상 가족(친척)이 하는 일을 무급으로 돕고 있는 가족종사자를 취업자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한국교육종단연구에서는 대학 진학자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일반 아르바이트는 포함하나 교내 아르바이트는 제외하였다. 조사대상과 마찬가지로 조사영역에서도 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조사영역을 '개인특성', '대학생활', '교육훈련', '고용', '기타'로 크게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3. 주요 조사영역 비교

구분	교육종단	고용패널	청년패널	청년 사회·경제	후기청소년 생활·의식	청년의 삶	청년정책 당사자	전국 다문화
개인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학 생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 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교육종단	고용패널	청년패널	청년 사회·경제	후기청소년 생활·의식	청년의 삶	청년정책 당사자	전국 다문화
기타	군입대 관련	○	×	×	○	×	×	×
	시간활용	○	○	×	○	○	×	×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	×	○	○	×	×	○
	자기인식	○	○	×	○	×	×	×
	심리 및 정서	×	×	○	○	○	×	○
	건강상태	×	○	×	○	×	×	×
	진로인식	○	○	○	×	○	×	×
	경제인식	×	○	×	×	○	×	×
	사회에 대한 인식	×	×	×	○	×	×	×
	청년관련 정책	×	×	×	×	○	○	×
	다문화 변인	×	×	×	×	×	×	○

(3) 조사영역 및 내용구성

이상 기술한 1기 패널의 후기청소년대상 설문문항 개발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설문지 문항구성은 아래와 같다. 후기청소년 대상 새롭게 개발된 설문지에 포함된 조사영역은 크게 8개로, ① 배경변인, ② 대학진학, ③ 대학진학준비, ④ 일 경험, ⑤ 취업준비 및 교육훈련, ⑥ 구직활동, ⑦ 심리적응, 사회적 가치 및 태도, ⑧ 군입대가 조사영역으로 포함되었다. ‘심리적응, 사회적 가치 및 태도 영역’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 직업의식 문항은 기존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문항을 유지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문항은 유사 패널조사에서 발췌 및 수정되었거나 연구진에 의해 작성되었다. 각 조사영역의 조사내용과 출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1기 패널 설문지 문항 구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비고
배경변인	혼인상태	연구진 작성	
	현재 거주형태	윤혜준 외(2019) 발췌 및 수정	
	가계 생활비 마련방법	연구진 작성	
	개인 생활비 마련방법	연구진 작성	
	개인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연구진 작성	5점 척도
대학진학	2020학년도 대학진학여부	연구진 작성	
	대학 미진학의 주된 이유	연구진 작성	비진학자 대상
	대학명	연구진 작성	
	전공계열	연구진 작성	전공계열 분류: 박근영 외 (2019) 발췌
	학부 및 학과(전공)명	연구진 작성	
	입학 모집유형	연구진 작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비고
	입학 전형방법	연구진 작성	
	대학 및 전공계열 선택의 주요 영향요인	윤혜준 외(2019) 발췌 및 수정	2순위까지 응답
	대학입학에 영향을 준 사람	김양분 외(2011) 발췌 및 수정	2순위까지 응답
	현재 학적상태	연구진 작성	
	등록금 마련방법	황광훈, 조민수, 박정아 (2018) 발췌 및 수정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연구진 작성	5점 척도
	대학생활 만족도 및 적응 (대학만족도 4문항, 학업적응 4문항, 사회적응 4문항으로 구성)	이민희(2018) 일부 발췌 및 수정	5점 척도
대학진학 준비	2021학년도 대학진학 준비여부	연구진 작성	
	대학진학 준비의 주된 이유	김양분 외(2011) 발췌 및 수정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종류	연구진 작성	
	대학진학 준비방법	연구진 작성	
	대학진학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 부담정도	연구진 작성	5점 척도
일 경험	일 경험 여부	연구진 작성	
	종사상지위	연구진 작성	종사상지위 정의 : 윤혜준 외 (2019) 발췌
	일 종류	연구진 작성	
	특성화고 전공과 일의 관련성	연구진 작성	특성화고졸업자 대상
	직장 소재지	연구진 작성	
	평균 근무시간	연구진 작성	
	월평균 소득	연구진 작성	
	업무만족도(9개 하위문항으로 구성)	김양분 외(2011) 발췌 및 수정	5점 척도
취업준비	취·창업 준비여부	연구진 작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비고
및 교육훈련	취업 준비 활동	유한구 외 (2017)발채 및 수정	
	창업 준비 활동	유한구 외 (2017)발채 및 수정	
	교육훈련 경험	연구진 작성	교육기관유형: 윤혜준 외 (2019) 발채 및 수정
구직활동	구직활동 경험	연구진 작성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김양분 외(2011) 발채 및 수정	
	노동 의지	연구진 작성	
	현재 생활	연구진 작성	
심리 적응, 사회적 가치 및 태도	미래 계획	연구진 작성	
	자아존중감(9개 하위문항으로 구성)	기존문항 유지	5점 척도
	삶의 만족도(3개 하위문항으로 구성)	기존문항 유지	4점 척도
	우울(10개 하위문항으로 구성)	기존문항 유지	4점 척도
	주관적 건강상태	기존문항 유지	4점 척도
	차별경험	김지혜 외(2020) 발채	차별정도: 4점 척도
	다문화청소년에게 발생 가능한 사회적 불이익 정도	연구진 작성	4점 척도
	직업의식	기존문항 유지	2순위까지 응답
	사회적 가치 (한국사회 인식 4문항, 한국교육 인식 3문항으로 구성)	한국사회 인식: 김유빈 외(2019)에서 일부 발채 한국교육 인식: 김형주 외(2019)에서 일부 발채	5점 척도
	학업 포부수준	연구진 작성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한 태도	연구진 작성	4점 척도	
청년지원정책 인지도	김지경 외 (2019) 발채 및 수정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비고
군복무	군입대 시기	연구진 작성	군 입대자 대상 군생활 만족도: 5점 척도
	군생활 만족도	연구진 작성	
	전역 후 계획	연구진 작성	

(4) 조사대상 유형 구분

2020년 조사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해 1기 패널의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진로의 경로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각 진로경로의 특성에 따라 조사대상의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후기청소년 대상 주요 국내 패널 및 실태조사에서 구분하는 방식을 참고하여 7개의 진로유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조사대상을 구분하였다.

- 대학진학: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경우
- 대학진학 준비: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대학 재학 및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모든 경우
- 취업: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1주일 동안 소득을 위해 1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포함)한 모든 경우
- 취·창업준비 및 교육훈련: 고등학교 졸업 후, 현 상태에 상관없이 취·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경우
- 니트(NEET): 현재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모든 경우(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일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진학 및 취·창업 준비를 하는 경우도 포함)
- 군입대: 대체복무 포함 군 복부를 위해 입대한 경우
- 검정고시 준비: 고등학교 중퇴 후, 학력인정을 위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본 조사에서는 이상 7가지 진로유형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의 유형을 구분하나, 조사대상별 별도의 설문지를 제작하지 않고 조사대상이 해당되는 조사영역에만 응답하는 모듈방식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단, ‘검정고시 준비’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은 1기 패널 학업중단자용 설문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진로유형별 조사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1기 패널 진로유형별 조사영역

조사영역	진로유형						
	대학 진학	대학 진학 준비	취업	취업준비 및 교육훈련	니트 NEET	군 입대	검정 고시 준비
배경변인	○	○	○	○	○	○	○
대학진학	○	◎	◎	◎	×	◎	×
대학진학 준비	◎	○	◎	◎	◎	◎	×
일 경험	◎	◎	○	◎	×	◎	×
취업준비 및 교육훈련	◎	◎	◎	○	◎	◎	×
구직활동	×	◎	×	◎	○	×	×
심리적응, 사회적 가치 및 태도	○	○	○	○	○	○	○
군 복무	×	×	×	×	×	○	×
검정고시 준비	×	×	×	×	×	×	○

○ 필수 응답, ◎ 해당되는 경우만 응답, × 응답 제외

진로유형에 따라 각 조사영역의 응답여부가 결정되며, 각 진로유형별 필수 응답 영역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경우만 응답하는 영역, 응답 제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로유형이 대학진학인 경우의 청소년은 배경변인, 대학진학, 심리적응, 사회적 가치 및 태도 영역은 필수적으로 응답하게 되며, 대학에 진학중이나 2021학년도 대학입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대학진학 준비 영역에도

응답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청소년이 지난 1주일 동안 돈을 벌기 위하여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없다면 일 경험 영역은 응답하지 않는다.

니트(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청년은 ‘학업도, 일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2018: 3)’로 정의되어 재진입자, 단기실업자, 가정주부 등도 모두 NEET에 포함되고 있으나(김기현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정의하는 개념과 더불어 순수하게 학업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으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구분을 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2. 2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1) 표본설계⁹⁾

2기 패널의 표본설계 내용을 요약제시하면 <표 IV-16>과 같다. 2기 패널조사의 모집단은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가정(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의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센터 자료를 표본추출틀로 하였다. 다문화청소년 2기 패널의 표본 규모는 전국에 약 2,100명으로 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유형 및 17개 시/도를 층화변수로 하였다.

표 IV-16. 2기 패널 표본설계 내용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모집단 : 전국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 ■ 조사 모집단 :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중도입국/외국인 가정의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 ■ 표본추출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2018년 4월 1일 기준)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규모 : 전국 2,100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pm 2.1\%p$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 지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적 층화 : 다문화가정 유형(국제결혼 가정의 국내출생,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17개 시/도 ■ 내재적 층화 : 부모의 출신국가 ■ 표본추출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psu) : 학교 → 다문화 학생 수 기준 확률비례추출 - 2차(ssu) : 학교 내 다문화 학생 → 전수조사
표본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유형별 : 50명 우선할당 후 나머지는 비례배분 ■ 17개 시/도별 : 비례배분
추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가중값을 적용하고, 표본설계에 적합한 모수추정법 적용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다문화가족 유형별, 어머니 출신국가별, 어머니 학력별, 가구소득별, 지역 규모별 ■ 조사된 사례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가 큰 경우(25% 이상)에는 유사

9) 표본설계의 내용은 양계민(2018: 35-60)과 양계민 외(2019: 120-133)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음.

분 류	내 용
	인접층을 통합하여 공표하거나 내부 자료만으로 활용할 것이며, 모수추정 후 공표범위는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

* 출처: 양계민 외(2019: 124) 표 VI-7

(1) 모집단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모집단은 2019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학생으로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구분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중도입국에 해당하는 학생이다(양계민, 2018: 38).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추출틀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센터 자료(2018년 4월 1일 기준)로 2019년에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다. 표본추출틀 기준 2018년에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양계민, 2018: 38), 2018년에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전체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17,134명으로 국제결혼가정 청소년(14,163명)이 가장 많고, 외국인가정(2,069명), 중도입국자녀(90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시/도별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전체
전국	14,163	902	2,069	17,134
서울	1,458	169	543	2,170
부산	684	42	34	760
대구	477	30	47	554
인천	710	80	144	934
광주	372	12	44	428
대전	325	14	16	355

구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전체
울산	390	15	32	437
세종	82	4	4	90
경기	2,903	306	830	4,039
강원	474	12	10	496
충북	622	27	61	710
충남	1,046	47	101	1,194
전북	888	22	23	933
전남	1,046	27	21	1,094
경북	1,158	23	58	1,239
경남	1,301	49	73	1,423
제주	227	23	28	278

* 출처 : 양계민(2018: 39)의 표 III-1~4 수정

또한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존재하는 초등학교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표 IV-18>와 같이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기준 전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는 4,805개교로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는 4,612개교이고, 중도입국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는 645개교, 외국인 가정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는 72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다문화가정 학생이 존재하는 초등학교 분포 - 초등학교 4학년 기준

(단위: 개교, %)

구분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	
				합계	구성비(%)
전국	4,612	645	729	4,805	100.0
서울	447	115	162	485	10.1
부산	237	33	24	246	5.1
대구	175	28	24	182	3.8
인천	202	52	55	214	4.5
광주	124	11	12	128	2.7
대전	108	13	13	115	2.4
울산	98	13	19	99	2.1
세종	30	4	4	31	0.6
경기	930	191	241	999	20.8
강원	214	11	9	217	4.5
충북	203	23	24	210	4.4
충남	341	36	41	347	7.2
전북	303	19	17	306	6.4
전남	331	23	13	339	7.1
경북	380	20	26	389	8.1
경남	404	35	30	408	8.5
제주	85	18	15	90	1.9

*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내부자료

(2) 표본크기 및 표본배분

본 패널의 표본크기는 2,000명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유형 및 17개 시/도별로 할당하고자 하였다. 본 패널은 50명을 우선할당한 후 비례배분하는 변형비례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표본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는 패널조사로 추후 조사 진행까지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유형별/시도별 표본결과를 보완하여 모든 셀에

표본크기가 3명 이상이 되도록 추가 배분하였다. 그 결과 100명의 표본이 추가되어 최종 2,100명으로 표본 크기를 결정하여 표본을 배분하였다.

표 IV-19. 다문화가정 유형별 시/도별 추가 표분배분

구분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전체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전국	1,580	20	1,600	147	53	200	273	27	300	2,000	100	2,100
서울	163	0	163	28	3	31	72	1	73	263	4	267
부산	76	0	76	7	3	10	4	2	6	87	5	92
대구	53	0	53	5	3	8	6	2	8	64	5	69
인천	79	0	79	13	3	16	19	2	21	111	5	116
광주	41	0	41	2	3	5	6	2	8	49	5	54
대전	36	0	36	2	3	5	2	2	4	40	5	45
울산	44	0	44	2	3	5	4	2	6	50	5	55
세종	10	15	25	2	2	4	2	1	3	14	18	32
경기	324	0	324	48	6	54	107	0	107	479	6	485
강원	53	0	53	2	3	5	2	1	3	57	4	61
충북	69	0	69	4	3	7	8	2	10	81	5	86
충남	117	0	117	8	3	11	13	2	15	138	5	143
전북	99	0	99	4	3	7	3	2	5	106	5	111
전남	117	0	117	4	3	7	3	2	5	124	5	129
경북	129	0	129	4	3	7	8	1	9	141	4	145
경남	145	0	145	8	3	11	10	1	11	163	4	167
제주	25	5	30	4	3	7	4	2	6	33	10	43

* 출처 : 양계민의 (2019: 131)의 표 IV-16 발췌

(3) 표본추출

본 조사의 표본추출 단위는 학교로 추출된 학교에서는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2019년 기준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4학년)을 전수조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양계민, 2018: 47). 표본학교 추출은 층화임의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적용하였으나 층 내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추출률을 크게 하기 위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sampling)을 적용하여 표본학교를 선정하였다(양계민, 2018: 47).

표 IV-20. 다문화가정 유형별 시/도별 표본 학교 수

구분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전체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전국	4,612	521	645	143	729	106	4,805	770
서울	447	53	115	22	162	26	485	101
부산	237	25	33	7	24	2	246	34
대구	175	18	28	6	24	3	182	27
인천	202	26	52	11	55	7	214	44
광주	124	13	11	3	12	3	128	19
대전	108	12	13	3	13	1	115	16
울산	98	14	13	4	19	2	99	20
세종	30	8	4	3	4	1	31	12
경기	930	106	191	39	241	38	999	183
강원	214	17	11	4	9	1	217	22
충북	203	22	23	5	24	4	210	31
충남	341	38	36	8	41	5	347	51
전북	303	32	19	5	17	2	306	39
전남	331	38	23	5	13	2	339	45
경북	380	42	20	5	26	3	389	50
경남	404	47	35	8	30	4	408	59
제주	85	10	18	5	15	2	90	17

* 출처 : 양계민(2018: 46)의 표 III-9.

부모의 출신국가별 표본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 유사하게 추출하기 위해 모집단 학교 수(〈표 IV-20〉 참조)를 시/도별, 다문화학생의 하위 유형별 층 내에서 주소를 기준으로 정렬한 다음, 다문화가정 4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양계민, 2018: 47).

(4) 표본구축 결과

2기 패널 구축결과 〈표 IV-21〉과 같이 국제결혼가정이 1,719가구, 중도입국자녀 가구가 149가구, 외국인가정이 356가구이며, 한 가정에 쌍둥이 등 동일한 학년이 있는 경우가 둘 다 조사를 실시하여 총 2,246명(총 2,224가구)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V-21. 2기 패널 구축 결과 요약

(단위: 명)

시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합계
구축가구 수	1,719	149	356	2,224
구축 청소년 수	1,734	150	362	2,246
전국분포(청소년 기준)	14,163	902	2,069	17,134
전국대비 구축비율	12.2%	16.6%	17.5%	13.1%

전국 시도별 2기 패널 구축현황은 〈표 IV-22〉와 같다.

표 IV-22. 2기 패널 전국 시도별 구축 현황

(단위: 명)

시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전체	
	가구수	청소년 수	가구수	청소년 수	가구수	청소년 수	가구수	청소년 수
전국	1,719	1,734	149	150	356	362	2,224	2,246

시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전체	
	가구수	청소년 수	가구수	청소년 수	가구수	청소년 수	가구수	청소년 수
서울	163	164	23	24	76	76	262	264
경기	303	305	44	44	152	157	499	506
인천	80	82	15	15	26	26	121	123
강원	60	60	2	2	2	2	64	64
충북	83	83	4	4	10	11	97	98
대전	41	42	6	6	7	7	54	55
충남	119	121	8	8	24	24	151	153
세종	25	25	1	1	1	1	27	27
대구	80	81	2	2	11	11	93	94
경북	128	128	7	7	6	6	141	141
경남	150	151	14	14	7	7	171	172
부산	79	81	13	13	6	6	98	100
울산	46	47	1	1	6	6	53	54
광주	50	50	3	3	12	12	65	65
전북	102	102	1	1	4	4	107	107
전남	180	182	3	3	2	2	185	187
제주	30	30	2	2	4	4	36	36

(5) 추가 구축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 패널은 2019년도에 국제결혼가정 1719가구, 중도입국가정 149가구, 외국인가정 359가구로 총 2,246명의 다문화청소년을 패널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중도입국가정의 경우 설계에 따른 목표표본은 200명이었으나 최종 149가구(청소년 150명)가 구축되어 목표표본을 채우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패널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가정의 청소년 및 어머니 약 50가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조사내용

2기 패널 조사문항은 1기 패널과의 상호비교, 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비교가능성, 새로운 다문화적 환경 변화요인 반영,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가능성, 국외 다문화청소년과 비교가능성, 조사 참여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의 간명한 설문 문항 구성의 6가지 원칙(양계민, 2018: 63)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2기 패널의 설문은 총 6종으로 개발되어 1차년도 조사가 진행되었고 2차년도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진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문항들을 재검토하였다. 2차 년도 설문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문항들(초등학교 입학 전 및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내용 등)이 삭제되면서 국내 및 외국 출생 외국인 학부모 문항이 동일하게 되어 설문은 최종 5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청소년 조사표의 경우 문항의 수가 길다는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항 수를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추가구축 가구의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 및 그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출생 청소년용, 외국인 학부모(외국출생 청소년용), 한국인 학부모(외국출생 청소년용) 3종만을 활용하였으며, 패널 구축 시 확인이 필요한 문항(초등학교 입학 전 및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내용 등)을 추가로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표 IV-23. 2기 패널 문항 수 변경 사항

구분		변경 문항 수				전체 문항 수	
		동일	변경	추가	삭제	2019년도	2020년도
청소년용	국내출생	16	28	0	4	48	44
	외국출생	20	26	0	11	57	46
외국인	외국출생	28	19	5	7	54	52

구분		변경 문항 수				전체 문항 수	
		동일	변경	추가	삭제	2019년도	2020년도
학부모용	국내출생				5	52	
한국인	국내출생	22	10	0	3	35	32
학부모용	외국출생	22	12	0	5	39	34
(추가구축) 외국출생 청소년용		29	24	0	4	57	53
(추가구축)외국인 학부모용 (외국출생)		38	16	5	0	54	59
(추가구축)한국인 학부모용(외국출생)		27	12	0	0	39	39

(1) 청소년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

청소년용 설문지는 크게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언어능력, 이중문화경험), 개인요인(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인지, 진로), 환경 요인(부모, 친구, 학교, 지역사회 지지망)으로 구성되며, 중도입국은 외국출생 자녀들에게만 물어보았다. 방과후 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문항 수가 너무 많다는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 년도에는 해당 영역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표 IV-24. 청소년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년~2020년)

구분		조사항목	2019 (1차 년도)		2020 (2차 년도)		
대영역	소영역		국내출생	외국출생	국내출생	외국출생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	언어 능력	· 부모의 외국인 여부	○	○	○	○	
		·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	○	○	○	
		·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	○	○	○	
		· 외국출신 부모나라의 언어 교육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언어 실력	○	○	○	○	
		· 자신의 한국어 실력	-	○	-	○	
	이중 문화	이중 문화	· 입국 후, 학교 입학 전 한국어 배운 경험 및 장소	-	○	-	-
			· 국적에 대한 인식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방문여부 및 횟수	○	-	○	-

구분		조사항목	2019 (1차 년도)		2020 (2차 년도)	
대영역	소영역		국내출생	외국출생	국내출생	외국출생
	경험	· 문화적응스트레스	○	○	○	○
		· 국가정체성	○	○	○	○
		· 이중문화수용태도	○	○	○	○
개인 요인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 건강평가	○	○	○	○
		· 스트레스	○	○	○	○
		· 자존감	○	○	○	○
		· 사회적 역량	○	○	-	-
		· 삶의 만족도	○	○	○	○
		· 현재 걱정거리	○	○	○	○
		· 차별 경험 피해어부 및 가해자, 차별경험 대처	○	○	○	○
		· 차별에 대한 생각	○	○	○	○
		· 친한 친구 수	○	○	○	○
		· 친한 친구 국적	-	○	-	○
	인지	· 학교성적	○	○	○	○
		· 성적에 대한 만족도	○	○	○	○
	진로	· 희망교육수준	○	○	○	○
		· 희망직업	○	○	○	○
· 학교 마친 후 일하고 싶은 나라		○	○	○	○	
·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상담)하는 사람		○	○	○	○	
환경 요인	부모	· 부모님의지지(교육적 지원 및 기대)	○	○	○	○
		· 부모의 양육태도	○	○	○	○
		· 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	○	○	○
		· 하루 부모님과 대화 시간	○	○	○	○
		· 방과 후 보호자 부재	○	○	○	○
	· 가정형편	○	○	-	-	
	친구	· 친구의 지지	○	○	○	○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	○	○
	학교 생활	· 학교생활	○	○	○	○
		· 학교생활 전체의 어려운 점	○	○	○	○
		· 학교생활 어려운 점 (친구)	○	○	○	○
		·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	○	○	○
		· 교사의 지지	○	○	○	○
		· 학교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	○	○	○
지역사회 지지만	· 학교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	○	○	○	
중도입국	학교 관련	· 한국 오기 전 학교 경험	-	○	-	-
		· 한국 입학(편입) 학년	-	○	-	-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2019 (1차 년도)		2020 (2차 년도)	
			국내출생	외국출생	국내출생	외국출생
	미래 생활	한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전 생활	-	○	-	-
		국적취득 희망	-	○	-	○
		한국 거주 희망	-	○	-	○
기타	방과후 생활	방과 후 활동	○	○	-	-
		문화생활, 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등	○	○	-	-

(2)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

학부모용 설문지의 경우 1차 년도에는 외국인 학부모와 한국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국내출생 자녀와 외국 출생 자녀로 구분하여 총 4종의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2차 년도 조사에서는 설문지 수정 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문항을 삭제한 결과 외국인 학부모 중 외국출생과 국내출생 자녀 설문지 문항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하나의 설문지로 통일하여 최종 설문지를 3종으로 구성하였다.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을 살펴보면 외국인 학부모와 한국인 학부모 공통으로 확인하는 조사영역은 배경변인(가족특성), 개인요인(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자녀양육(자녀 교육 및 양육, 양육관련 특성, 자녀 진학/진로 및 향후 희망 거주), 다문화지원정책(지원정책 태도)이며, 외국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문화특성(언어능력, 문화적응)과 관련한 영역을 조사하였다.

표 IV-25.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년~2020년)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2019 (1차 년도)				2020 (2차 년도)			
			외국인학부모		한국인 학부모		외국인학부모		한국인 학부모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배경변인	가족특성	배우자와의 결혼 상태 및 관계 만족도	○	○	○	○	○	○	○	○
		가정의 월평균 소득	○	○	○	○	○	○	○	○
		가정의 주요 소득원	○	○	○	○	○	○	○	○
		가정의 경제적 수준(가정형편)	○	○	○	○	○	○	○	○

구분		조사항목	2019 (1차 년도)				2020 (2차 년도)		
대영역	소영역		외국인학부모		한국인 학부모		외국인 학부모		한국인 학부모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외국
개인요인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장소, 차별 대처	○	○	-	-	-	-	-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대상별 피해 경험, 차별 대처 및 차별 사유	-	-	-	-	○	-	-
		자아존중감	○	○	○	○	○	○	○
		전반적 건강 상태	○	○	○	○	○	○	○
		걱정거리 의논할 수 있는 사람	○	○	○	○	○	○	○
문화특성	언어능력	모국어	○	○	-	-	○	-	-
		한국어 학습경험	○	○	-	-	○	-	-
		한국어 수준	○	○	-	-	○	-	-
	문화적응	주로 어울리는 사람	○	○	-	-	○	-	-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	○	-	-	○	-	-
		문화적응 스트레스	○	○	-	-	○	-	-
		문화적응 유형	○	○	-	-	○	-	-
자녀 양육	자녀교육 및 양육	자녀와 대화시 사용 언어	○	○	-	○	○	-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	○	-	○	○	-	○
		자녀의 모국(본국)어 능력	○	○	-	-	○	-	-
		초등학교 입학 전 주 양육자	○	○	○	○	-	-	-
		한국 오기 전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산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함께 한 사람	-	○	-	○	-	-	-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기간 및 소요 이유	-	○	-	○	-	-	-
		초등학교 입학 시기 및 입학이 늦어진 사유	○	-	○	-	-	-	-
		자녀교육 관련 주 의사결정자	○	○	○	○	○	○	○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	○	○	○	○	○	○
		자녀 학교문제, 숙제지도 하는 사람	○	○	○	○	○	○	○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	○	○	○	○	○	○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	○	○	○	○	○	○	
	선호하는 자녀 교육 방식	○	○	○	○	○	○	○	
	방과후 교육(사교육 경험)	○	○	○	○	○	○	○	
	양육관련 특성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	○	○	○	○	○	○
		부모효능감	○	○	○	○	○	○	○
	자녀 진학/진로 및 향후 희망 거주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	○	○	○	○	○	○
희망하는 자녀 거주 방식		○	○	○	○	○	○	○	
다문화 지원 정책	지원정책 태도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	○	○	○	○	○	○
		지원프로그램 제공장소 선호도	○	○	○	○	○	○	○
		자녀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 및 도움 정도	○	○	○	○	○	○	○
		선호하는 지원 방식	○	○	○	○	○	○	

(3) 조사문항 구성

표 IV-26. 청소년용 설문지 문항 구성(2019년~2020년)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국내출생	외국출생	국내출생	외국출생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	· 부모의 외국인 여부 ·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능력 ·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 외국출신 부모나라의 언어 교육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언어 능력 · 자신의 한국어 능력 · 입학 후, 학교 입학 전 한국어 배운 경험 및 장소 · 국적에 대한 인식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방문여부 및 횟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학생의 부모님 중 어느 분이 외국출신입니까?	MAPS 1기	문1	문1	문1	문1
			학생의 부모님의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CILS 문항 및 MAPS 1기 문항 수정	문2	문2	문2	문2
			학생은 부모님과 대화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하나요?	CILS 문항 및 MAPS 1기 문항 수정	문3-1 문3-2	문3-1 문3-2	문3-1 문3-1	문3-1 문3-1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모님 나라의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	연구진 작성	문4	문4	문4	문4
			학생은 부모님 나라의 말을 얼마나 할 수 있나요?	MAPS 1기 문항 수정	문5	문5	문5	문5
			학생은 한국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CILS 문항 수정 및 MAPS 1기 문항	-	문10	-	문6
			학생은 한국에 입학 후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어를 별도로 배운 적이 있나요?	연구진 작성	-	문9	-	-
			학생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CILS 문항 수정 및 MAPS 1기 문항 수정	문6	문11	문6	문7
			외국인 부모님의 나라에 기본 적이 있나요?	MAPS 1기 문항 수정	문7	-	문7	-
			외국인 부모님의 나라에 몇 번 가보았습니까?	MAPS 1기 문항 수정	문7-1	-	문7-1	-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국내출생	외국출생	국내출생	외국출생	
개인 요인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 관련 항목(4점 척도)	학생의 평소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Hovey & King(1996)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한 노총래(2000)를 수정한 홍진주(2004)를 수정하여 사용한 MAPS 1기 수정	문30	문36	문29	문31	
			※한국에 대한 생각 항목(4점 척도)	한국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성한기(2001) 발췌 및 수정	문31	문37	문30	문32	
			※한국 문화 및 외국인 부 모님 나라 문화 관련 항목(4점 척도)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노총래, 홍진주(2006) 발췌 및 수정	문32	문38	문31	문33	
			※신체적/정신적 건강(4점 척도)	학생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7)* 수정	문24	문30	문24	문26	
		간감평가	스트레스	※평소생활/연속 2주간 스트레스트(4점 척도)	학생은 최근 1년 동안 다음 내용에 대하여 경험한 적이 있나요?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7)* 수정	문25	문31	문25	문27
				※자존감 관련항목(4점 척도)	학생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7)* 수정	문26	문32	문26	문28
		사회적 역량	자존감	※사회적 역량 관련 항목(4점 척도)	평소 학생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7)* 수정	문27	문33	-	-
				※행복함 정도 관련 항목(4점 척도)	학생의 평소 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김신영 외(2006)을 인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0(김지경 외, 2010)	문28	문34	문27	문29
		현재 걱정거리	자별 경험 피해여부 및 가해자, 차별경험 대처	※평소 걱정, 고민 관련 항목(4점 척도)	학생이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유한구 외(2016)에서 발췌 및 수정한 MAPS 1기 수정	문29	문35	문28	문30
				자별 경험 피해여부 및 가해자, 차별경험 대처	학생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이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국내 난민이동 한국사회적응 실태조사(2018) 수정	문33	문39	문32	문34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국내출생	외국출생	외국출생
인지	차별에 대한 생각	차별 가해자	누구에게 차별을 받았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국내 난민이동 한국사회적응 실태조사(2018) 수정	문33-1	문39-1	문34-1
		차별 경험 대처 경험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후 주로 어떻게 하였나요?	국내 난민이동 한국사회적응 실태조사(2018) 수정	문33-2	문39-2	문34-2
	친한 친구 수	※ 우리나라 다문화에 대한 인식 관련 항목(5점 척도)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연구진 작성	문34	문40	문33
	친한 친구 수 및 국적	총 친한 친구 수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 나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친구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친구	학생은 친한 친구가 몇 명정도 있나요?	MAPS 171	문8	-	문8
진로	· 학교상적 · 상직에 대한 만족도		학생은 친한 친구가 몇 명정도 있나요?	MAPS 171 및 연구진 작성	-	문14	-
			학생은 친한 친구가 몇 명정도 있나요?	MAPS 171	-	문14	문10
	· 희망교육수준 · 희망직업		학생의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동청소년패널조사(2018)	문14	문20	문14
			· 상직에 대한 만족도	학생은 자신의 성적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MAPS 171	문15	문21
· 희망교육수준 · 희망직업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하나요?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하나요?	MAPS 171	문20	문26	문20
		· 상직에 대한 만족도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하나요?	MAPS 171	문21	문27	문21
· 희망교육수준 · 희망직업		학생은 나중에서 일하고 싶은 나라	학생은 나중에서 일하고 싶은 나라 후에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 싶나요?	연구진 구성	문22	문28	문24
		· 상직에 대한 만족도	학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든지, 어떤 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등) 다음 사람들과	한국이동청소년패널조사(2018)	문23	문29	문23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국내출생	외국출생	국내출생	외국출생	
환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과의(부모적 자원 및 기대) ·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 하루 부모님과 대화 시간 · 방과 후 보호자 부재 · 가정형편 · 친구의 지지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학교생활 · 학교생활 전체의 어려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 관련 항목(4점 척도) ※부모님(보호자)의 평소 양육 관련 항목(4점 척도) 	<p>얼마나 자주 대화(또는 상담) 하나요?</p> <p>학생의 부모님(보호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p> <p>학생의 부모님(보호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p> <p>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부모님과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함께 하였나요?</p> <p>학생은 부모님과 하루에 얼마나 함께 시간(대화 시간 포함)을 보냈습니까?</p> <p>평일 방과 후에 부모님이 돌아 주는 어른 없이 집에서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1주일에 며칠 정도나 되나요?</p> <p>학생의 가정형편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p>	김소규(2001) 수정	김소규(2001) 수정	문35	문41	문34	문36
				호모연(2000) 수정 발췌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 사 2010(2010, 2011)	문36	문42	문35	문3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7)* 수정	문37	문43	문36	문38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7)* 수정	문38	문44	문37	문39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7)*	문39	문45	문38	문40		
				연구진 작성	문42	문48	-	-		
				한미현(1996) 발췌	문9	문15	문9	문11		
				이해경, 김혜원(2001) 수정	문17	문23	문17	문19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7)*	문10	문16	문10	문12		
				연구진 작성	문11	문17	문11	문13		

구분	대역역 소영역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국내출생	외국출생	국내출생	외국출생
중도입국 학교 관련	· 학교생활 어려운 점 (친구) ·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 교사의 지지 · 학교 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평소담임 선생님과의 관계 관련 항목(5점 척도)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누구인지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누구인지 한국 오기 전 학교 경험 한국 오기 전 재학 학교 학년 한국 오기 전 재학 학교 출석 한국 오기 전 학교 다니지 않은 이유 한국 입학(편입) 학년 한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전 생활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MAPS 1기 수정	문12	문18	문12	문14	
			학생이 학교 공부를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세 가지 이내로 답해주세요.	MAPS 1기 수정	문13	문19	문13	문15	
			학생의 담임선생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를 번호를 골라주세요	한미현(1996) 발제 및 수정	문16	문22	문16	문18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나요? (있다면) 도와주는 어른은 누구인가요? 모두 골라주세요	MAPS 1기	문18	문24	문18	문20	
			학생에게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숙제를 해야 할 때, 가족이나 학교 선생님 외에 도와주는 어른이 있나요? (있다면) 도와주는 어른은 누구인가요? 모두 골라주세요	MAPS 1기 수정	문18-1	문24-1	문18-1	문20-1	
			한국 오기 전 학교 경험	학생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학교에 다녀왔나요?	연구진 작성	-	문6	-	
			한국 오기 전 재학 학교 학년	몇 학년까지 다녀왔나요?	연구진 작성	-	문6-1	-	
			한국 오기 전 재학 학교 출석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얼마나 다녔나요?	연구진 작성	-	문6-2	-	
			한국 오기 전 학교 다니지 않은 이유	학교를 다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연구진 작성	-	문6-3	-	
			한국 입학(편입) 학년	한국에서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생은 몇 학년이었나요?	연구진 작성	-	문7	-	
한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전 생활	한국에 들어온 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은 주로 무엇을 하면서 지냈나요?	연구진 작성	-	문8	-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국내출생	외국출생	국내출생	외국출생
미래 생활	국적취득 희망 한국 거주 희망		학생은 앞으로 한국 국적을 받기를 원하나요?	-	문12	-	문8
			학생은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나요?	-	문13	-	문9
기타	방과 후 활동 문화생활, 스포츠 관람, 레저 시절 이용 등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문13-1	-	문9-1
			학생은 평일 방과 후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나요?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문40	문46	-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7)*	문41	문47	-	-
			사회조사표(2017) 발제 및 수정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7)* 출처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10).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표 IV-27.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 문항 구성(2019년~2020년)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외국인/한국인	외국	국내	외국인/한국인	외국	국내				
개인요인	심리사회적 적응 및 건강	배우자와의 결혼 상태 및 관계 만족도	현재 결혼 상태	귀하의 현재 결혼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MAPS 1기	문32	문33	문21	문24	문30	문19	문21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배우자(사실상 포함)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국내 난민이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2018) 수정	문32-1	문33-1	문21-1	문24-1	문30-1	문19-1	문21-1			
			가정의 월평균 소득	귀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 되십니까?	MAPS 1기 수정	문33	문34	문22	문25	문31	문20	문22			
			가정의 주요 소득원	귀댁의 주요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MAPS 1기	문34	문35	문23	문26	문32	문21	문23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장소, 차별 대처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장소, 차별 대처	차별 피해 경험	차별 피해 경험	귀하는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내 난민이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2018) 수정	문24	문25	-	-	-	-		
					차별 장소	귀하가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는지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국내 난민이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2018) 수정	문24-1	문25-1	-	-	-	-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대상별 피해 경험, 차별 대처 및 차별 사유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대상별 피해 경험, 차별 대처 및 차별 사유	차별 피해 경험	차별에 대한 대처	귀하는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후, 주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국내 난민이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2018) 수정	문24-2	문25-2	-	-	-	-		
					차별 피해 경험	귀하가 작년 조사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살면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지혜 외(2020) 수정	-	-	-	-	문22	-	-	
					차별 가해자	귀하가 작년조사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살면서 아래의 각 대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는지 해당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김지혜 외(2020) 수정	-	-	-	-	-	문22-1	-	-

구분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외국인	국내	외국인	국내	외국인	국내	외국인	국내	
대영역 소영역		차별대응 (차별 대응) 공공기관 (차별 대응) 민간 단체 차별에 대응하지 않은 사유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자아 존중 관련 항목 (5점 척도) 전반적 건강 상태 각정거리 의논할 수 있는 사람 문화특성 언어능력	귀하는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다? 해당되는 모든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김지혜 외(2020) 수정	-	-	-	문22-2	-	-	-	-	
			귀하가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또는 전문가)은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 해 주세요.	김지혜 외(2020) 수정	-	-	-	문22-2-1	-	-	-	-	-
			귀하가 도움을 요청한 민간기관(또는 전문가)은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김지혜 외(2020) 수정	-	-	-	문22-2-2	-	-	-	-	-
			귀하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지혜 외(2020) 수정	-	-	-	문22-2-3	-	-	-	-	-
			귀하가 차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진 작성	-	-	-	문22-3	-	-	-	-	-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Rosenberg(1965) 발제	문30	문31	문19	문22	문28	문17	문19	문18	문20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MAPS 171	문31	문32	문20	문23	문29	문18	문20	문18	문20
			귀하는 마음을 타놓고 이야기하거나 각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한 MAPS 171	문25	문26	문18	문21	문23	문16	문18	문16	문18
			몇 사람이나 의논하는 사람 몇 명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한 MAPS 171	문25-1	문26-1	문18-1	문21-1	문23-1	문16-1	문18-1	문16-1	문18-1
			모국어	MAPS 171	문1	문1	-	-	문1	-	-	-	-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외국인	국내	외국	외국인	국내	외국
			한국어 학습 경험	귀하는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MAPS 1기	문2	-	-	문2	-	-
			한국어 학습 시기	귀하는 언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2-1	-	-	-	-	-
		한국어 학습경험	한국어 학습 방식	한국에 들어온 후 귀하는 한국어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MAPS 1기 수정	문2-2	-	-	문2-1	-	-
			한국어 학습 기간	그 동안 귀하가 한국어를 공부한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MAPS 1기	문2-3	-	-	-	-	-
			한국어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진 작성	-	-	-	문2-2	-	-
		한국어 수준	말하기	귀하는 현재 한국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CILS 문항 수정	문3	-	-	문3	-	-
			쓰기								
			읽기								
			듣기								
		주로 어울리는 사람		귀하는 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십니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한 MAPS 1기	문26	-	-	문24	-	-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모국의 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한 MAPS 1기	문27	-	-	문25	-	-
		문화적응		다음은 한국에서 귀하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일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이승종(1995)번안, 이소래(1997)가 수정한 것을 수정 후 사용한 MAPS 1기 수정	문28	-	-	문26	-	-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 생활 시 문화 차이에 관련 어려움 항목 (5점 척도)		문28	-	-	문29	-	-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국내	외국	한국인	외국인	국내	외국	한국인
자녀 양육	자녀교육 및 양육	문화적응 유형	※한국인, 모국인과의 교류 및 평소 생각 항목(5점 척도)	다음은 귀하가 한국생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Barry(2001) 발제 및 수정 한 MAPS 1기 수정	문29	문30	-	문27	-	-	
			자녀와 대화 시 사용 언어	귀하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MAPS 1기	문4	문4	-	문4	-	문1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귀하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MAPS 1기	문5	문5	-	문5	-	문2	
			자녀의 모국(본국)어 능력	자녀의 모국(본국)어 능력	연구진 작성	문6	문6	-	문6	-	문6	
			초등학교 입학 전 주 양육자	자녀가 모국(본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	귀하의 자녀가 귀하의 모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연구진 작성	문6-1	문6-1	-	문6-1	-	문6-1
				초등학교 입학 전 주 양육자	귀하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주로 누가 자녀를 돌보았습니까?	MAPS 1기 수정	문7	문7	문1	문3	-	-
			인국 후 초등학교 입학 기간 및 소요 이유	한국 오기 전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산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함께 한 사람	귀하의 자녀가 한국에 들어 오기 이전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 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연구진 작성	-	문8	-	문4	-	-
				초등학교 입학 전 소요 기간	(떨어져 산 기간 동안) 함께 한 사람	연구진 작성	문8-1	문8-1	-	문4-1	-	-
				인국 후 초등학교 입학 기간 및 소요 이유	초등학교 입학 전 소요 기간	연구진 작성	-	문9	-	문5	-	-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외국인학부모	국내	외국	외국인학부모	국내	외국	외국인학부모
			입학 시간이 걸린 이유	한국에 들어온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 자녀는 한국의 일반적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만7세 이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까? 일반적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자녀가 입학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연구진 작성	문9-1	-	문5-1	-	-	-	
	초등학교 입학 시기 및 입학이 늦어진 사유	초등학교 입학 시기	초등학교 입학이 늦어진 이유		연구진 작성	문8	-	-	-	-	-	
	자녀교육 관련 주 의사결정자				MAPS 1기 수정	문9	문10	문6	문7	문1	문3	
	자녀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MAPS 1기	문10	문11	문7	문8	문2	문4	
	자녀 학교문제, 숙제지도하는 사람				MAPS 1기	문11	문12	문5	문8	문3	문5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자녀 공부 도움과 관련된 평소 행동 항목 (5점 척도)		MAPS 1기 수정	문12	문13	문6	문9	문4	문6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자녀 학교에서 학부모 활동 참여 관련 항목 (5점 척도)		MAPS 1기 수정	문13	문14	문7	문10	문5	문7	
	선호하는 자녀 교육 방식				MAPS 1기 수정	문19	문20	문13	문16	문11	문13	
	방과후 교육(사교육 경행)		참여여부		김지경 외(2010) 수정	문20-1	문21-1	문14-1	문17-1	문18-1	문12-1	문14-1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영국관련 특성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월 평균 비용	있습니까? 있다면, 사교육 비로 월 평균 얼마나 지출 하십니까, 비용이 얼마나 부담되었는지 정보를 아래에 표시해 주세요.	김지경 외(2010) 수정	문20-2	문21-2	문14-2	문17-2	문18-2	문12-2	문14-2
			비용 부담 정도	귀하기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세요.	김지경 외(2010) 수정	문20-3	문21-3	문14-3	문17-3	문18-3	문12-3	문14-3
자녀 진학/진로 희망 및 향후 희망 거주		부모효능감	※ 부모의 역할 충족 정도 관련 항목(5점 척도)	귀하기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세요.	국내 난민이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2018)	문21	문22	문15	문18	문13	문15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귀하는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신속제(1997)를 수정한 MAPS 1기 수정	Gibaude-Walstom & Wandersman(1978)의 문항을 번안 및 수정한 신속제(1997)를 수정한 MAPS 1기 수정	문15	문16	문9	문12	문13	문7	문9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대학교 이상 교육 희망 시) 대학진학 희망 국가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대학교 이상 교육 희망 시) 대학진학 희망 국가	귀하는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MAPS 1기 수정	문15-1	문16-1	문9-1	문12-1	문13-1	문7-1	문9-1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대학교 이상 교육 희망 시) 희망하는 수준	귀하의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십니까?	MAPS 1기	문15-2	문16-2	문9-2	문12-2	문13-2	문7-2	문9-2
희망하는 자녀 거주 방식		희망하는 자녀 거주 방식	한국에서 거주 여부	귀하의 자녀를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생각이십니까?	연구진 작성	문16	문17	문10	문13	문14	문8	문10
			희망하는 자녀 거주 방식 (한국에서 거주 희망) 거주 형태	한국에서 거주 여부 (한국에서 계속 거주 비 희망) 거주 예정 기간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거주하게 할 생각이십니까? 언제까지 한국에서 살게 할 예정입니까?	연구진 작성	문16-1	문17-1	문10-1	문13-1	문14-1	문8-1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연구진 작성	문16-2	문17-2	문10-2	문13-2	문14-2	문8-2	문10-2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MAPS 1기	문17	문18	문11	문14	문15	문9	문11

구분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하위문항	질문	출처	2019(1차년도)			2020(2차년도)					
						외국인	국내	외국	외국인	국내	외국	외국인	국내	외국
다문화 지원 정책	지원정책 태도	지원프로그램 제공 장소 신호도 자녀 다문화가족정책 지 원 경험 및 도움 정도 선호하는 지원 방식	지원유무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도움 정도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지 원 필요성 특별지원 방식	만일 귀하의 자녀가 학교공 부 또는 취미활동 등을 지 원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귀하의 자녀는 다음의 서비 스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 니까? 있다면, 지원이 얼마 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귀하는 다문화청소년에대 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대 자녀에게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 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 십니까?	MAPS 171	문14	문15	문16-1	문12	문11	문15-1	문10-1	문6	문8
				문18-1	문19-1	문12-1	문15-1	문16-1	문10-1	문12-1	문18-2	문19-2	문12-2	문15-2
					MAPS 171 수정	문23	문24	문17	문20	문21	문15	문17		
					MAPS 171 수정	문23-1	문24-1	문17-1	문20-1	문21-1	문15-1	문17-1		

3.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헬싱키 선언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명윤리 준수를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 연구계획 심의 신청서, 연구계획서, 1기 및 2기 패널 설문지, 조사 설명문 및 조사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였다. 또한 1기 패널 학부모 조사의 경우 전화로 간단한 문항을 묻는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서면 면제 신청서와 전화 조사진행 시 조사 설명 및 동의를 받는 과정의 스크립트를 제출하였다. 또한, 코로나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서류를 2020년 6월 11일 제출하였으며, 심의위원의 조사 설명문 수정 요청(패널 조사 완료 시기 추가)을 받아들여 수정 후 2020년 6월 23일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본 조사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번호는 202006-HR-고유-011이다. 이후 통계청 통계변경승인 과정에서 설문지에 추가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심의를 신청하여 변경심의도 승인으로 통보 받았다(부록 1 참조).

2) 행정자료 우선활용 검토 및 통계변경승인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조사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019년 조사 기간이 6월~10월로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조사 기간 변경이 필요하여 5월 21일에 조사실시 기간을 2020년 7월~11월로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며, 5월 25일에 승인을 받았다. 이후 조사표 변경을 위한 변경승인을 진행하였다. 2018년 통계법 제 18조

2항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조사항목의 내용 파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20년 6월 5일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에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의뢰를 하였으며, 6월 12일에 활용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조사표 변경 및 전반적인 조사 진행과 관련하여 2020년 6월 16일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승인과정에서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표준분류(한국표준교육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등)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2020년 7월 20일에 변경승인을 완료하였다(승인번호: 제402003호).

3) 조사절차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변경승인절차를 거쳐 최종 조사표가 완성한 후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진행을 위한 절차는 확정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TAPI 시스템을 개발하고 외국인 학부모 및 외국출생 학생을 위해 조사표를 번역하였다. 이후 조사원 교육을 통해 조사와 관련된 여러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완성된 TAPI 시스템 실습 등을 하였다. 조사원 교육 이후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와 사전에 연락하여 조사를 위한 방문 일정을 정한 후 약속 한 날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응답자들이 문항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있으나, 1기 패널의 경우 외국인 학부모용 설문의 경우 별도의 번역은 하지 않았다. 원래 9차년도 조사까지는 한국어 외 9개 국어로 번역하여 진행하였으나 2020년에는 간단하게 3개 문항 정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간의 조사과정을 살펴볼 때 대부분 그 정도의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기 패널의 경우 전년도 번역본 활용도를 근거로, 외국인 학부모는 8개 국어(영어, 중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였고

외국출생 학생용은 5개국 언어로 번역(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일본어)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다문화청소년 1기 패널의 경우 1~8차년도 조사까지는 CAPI(Computer Assistant Personal Interview)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1기 패널 9차년도 조사 및 2기 패널 1차년도 조사부터는 TAPI(Tablet Assistant Personal Interview)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TAPI 화면 구성 및 응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문항 로직 등을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2기 패널의 경우 9개국 언어로 번역된 5종의 설문지를 TAPI 시스템에 탑재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소요시간은 연도별 차이가 있으나 2019년 조사 소요시간은 1기와 2기 패널 모두 30분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8. 1기패널 연도별 설문조사(CAPI) 소요시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청소년	19.4분	30.1분	30.3분	31.8분	31.4분	29.8분	26.8분	26.6분	28.3분
학부모	17.2분	21.3분	21.4분	24.0분	24.1분	24.9분	29.3분	29.5분	24.0분

* 출처 : 양계민 외(2018:83) 표II-12 수정

표 IV-29. 2019년 패널별 설문조사(TAPI) 소요시간

연도	1기 패널	2기 패널
청소년	27.3분	22.8분
학부모	28.8분	22.0분

1기 패널과 2기 패널은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며, 연도별 조사자료의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조사를 진행하는 시기를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실제 조사 실시 기간이 한

달 씩 늦춰져서 7월에서 11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도별 조사기간은 <표 IV-30>과 같다.

표 IV-30. 연도별 조사기간

연도	조사대상 기간	조사실사 기간	최초결과공표
2011	과거부터 현재	2011. 8 ~ 2011. 11	2011. 12. 31
2012	2011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2. 6 ~ 2012. 8	2012. 12. 31
2013	2012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3. 5 ~ 2013. 7	2013. 12. 31
2014	2013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4. 6 ~ 2014. 8	2014. 12. 31
2015	2014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5. 5 ~ 2015. 8	2015. 12. 31
2016	2015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6. 5 ~ 2016. 7	2016. 12. 31
2017	2016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7. 7 ~ 2017.10	2018. 12. 31
2018	2017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8. 7 ~ 2018.10	2019. 12. 31
2019	2018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9. 6 ~ 2019.10	2020. 12. 31
2020	2019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20. 7 ~ 2020.11	2021. 12. 31(예정)

* 출처 : 양계민 외(2019: 82) 표 II-9 수정

4) 조사원 교육 및 관리

본 연구의 2019년 기준 1기 패널의 유지율은 71.9%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패널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사원 관리와 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1기 패널의 경우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할 때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조사 경험이 풍부하고 가구 패널 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 조사원을 선발하였고, 패널유지에서 조사대상자와의 유대관계를 위하여 동일 조사원들이 매년 동일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1기 패널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은 66명인데, 이들 중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한 조사원은 61명으로 조사원 유지율은 92.4%이며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2기 패널

1차년도 조사원은 기존에 1기 패널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과 기존에 가구/학교 조사 및 패널 조사에 경험이 있는 조사원을 선발하였다.

2020년 조사원 교육은 2020년 7월에 추진되었다. 1기 패널 조사원 64명과 2기 패널 조사원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조사대상 및 조사의 필요성 등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1기 및 2기 패널 관리 및 유지의 중요성, 1기 및 2기 패널별 특이사항 및 주요 안내사항, 조사원의 기본자세, TAPI 실습 및 사례 및 문항별 주의사항 및 오류 발생 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와 관련하여 조사 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과 관리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또한 조사원 교육 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교육참여 당일 오전에 조사원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교육장 입장시 비대면 체온측정기를 통해 발열 체크를 하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 후 교육장에 입장하였다. 교육장 내에서는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 조사원 교육 시 거리를 두고 착석한 후 조사원교육을 진행하였다.

표 IV-31. 조사원 교육 일정

지역	일시	장소	참석조사원 수	
			1기 패널	2기 패널
서울	2020년 7월 24일(금)	한국갤럽 본사	13	20
부산	2020년 7월 27일(월)	한국갤럽 부산지사	9	15
대구	2020년 7월 27일(월)	한국갤럽 대구지사	11	12
대전	2020년 7월 28일(화)	한국갤럽 대전지사	9	11
광주	2020년 7월 28일(화)	한국갤럽 광주지사	12	12
강원	2020년 7월 30일(목)	강원리서치	4	4
제주	2020년 7월 31일(금)	제주 회의실	1	2

5) 조사실시 과정

본 조사는 조사 특성상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였기에, 조사 진행시 조사원과 조사대상자들이 감염예방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원 교육을 통해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구입장 전)

1. 조사기간 동안 개인위생 철저히 관리
2.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조사 약속을 연기하고 슈퍼바이저에게 보고
3. 패널 가구 방문 전, 조사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자가진단 앱(App)에 열, 코로나 증상, 본인 및 동거가족의 해외여행여부 및 격리중인 가족이 있는지 등 기입
4. 자가진단 후 면접조사 진행 여부를 확인

위 단계를 통해 면접조사 가능여부를 파악한 후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슈퍼바이저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패널 가구에도 조사가 어려움을 알리고 약속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면접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도록 하였다.

(가구입장 후)

1. 패널가구 입장 전후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2. 패널 가구 입장시 손소독
3. 1m 이상 거리 유지하며 조사
4. 불필요한 접촉 자제
5. 음료 및 다과 제공시 거절
6. 손세정제 및 세정 티슈를 이용하여 수시로 손 소독

○ — 제 V 장 패널관리

- 1. 패널관리의 원칙 및 절차
- 2. 이탈패널 분석
- 3. 품질진단
- 4. 소결



1. 패널관리의 원칙 및 절차

1) 패널관리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패널조사에서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패널 유지율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패널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패널 유지율 관리와 관련한 내용은 양계민 외(2018: 87-92)에 이미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본 절에서는 다음의 <표 V-1>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V-1. 패널 관리 방법 및 내용

관리 방법	내용
전화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 및 연락처 변경으로 인한 연락 두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조사에 참여한 가구에 전화하여 기본 정보 업데이트■ 전화통화가 편한 일시에 접촉하고,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거부 반응을 줄이고 수신율 향상
연하장 및 명절선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연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연하장과 명절 선물을 제공■ 담당 조사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제공하여 유대관계 유지

* V장의 1절, 2절, 3절은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4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집필함.

관리 방법	내용
리플릿 제작 및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조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 목적, 기관 안내, 이전 연도 주요 조사결과 요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리플릿 제작 ■ 리플릿은 10개 언어로 번역되어 가구방문 조사시 제공
답례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조사실시 후, 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성실한 응답을 하도록 하기 위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소정의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
홈페이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홍보 및 주요 사항 안내를 목적으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운영(http://maps.gallup.co.kr)
수신자 부담 전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080-336-2580)를 운영
연락처 및 접촉 경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어머니 외 가구 구성원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다양한 접촉 경로 마련 ■ 휴대전화 메시지(예: 카카오톡)의 사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원활한 접촉 경로 마련
이사가구 추적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관리를 통해 파악된 이사시기에 맞춰 추가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이사로 인한 패널 이탈 방지
가구정보 변동시 자발적 통보가구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정보 변동사항을 가구 구성원이 사전에 알릴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사항을 적극 홍보

* 출처 : 양계민 외(2019: 84) 표 II-11 수정

2020년 전화관리 결과를 살펴보면, 1기의 경우 2019년도 참여가구 총 1,169가구 중 1,047가구(89.6%)에 대해 선물발송을 위한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며 청소년의 진로에 대해 간략히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학 진학률은 전체 응답자의 66.3%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8명은 국외로 진학을 하여 온라인 조사 등 추적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무슨 일을 하는지 질문하였는데, 전체의 26.9%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응답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비율이 11.0%, 취업준비가 26.6%, 학업이 19.9% 등이었고, 군 입대를 준비하거나 유학을 준비하는 청소년 등이 있었고, 그 외 외국에서 어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이미 군에 입대한 경우도 있었다. 전화관리 결과, 1기의 경우 성장함에 따라 점차 생활환경이 증가하게 되면서

직접 대면조사가 어려운 조사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24세까지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조사 등 대안적 조사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2기 패널 역시 패널 유지를 위하여 총 2,115가구(95.1%)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기의 경우는 전년도 조사결과 중 핵심적인 내용, 즉, 부모님 또는 청소년의 출신국, 청소년 성별 등을 확인함으로써 데이터를 재검증하는 과정을 거쳤고, 역시 선물 발송을 위한 주소 및 연락처, 이사계획, 향후 조사 참여 의향 등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관리

본 패널조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인식 강화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근거하여 자료 수집과정 및 수집된 관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절차로 자료수집 과정에서 조사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 가구방문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고, 조사에 사용 된 태블릿 PC에 암호를 설정하여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가구방문 조사 후 관련 자료는 조사원으로부터 회수하여 파기하고 전체 가구원부 명단은 암호화 하여 접근 권한이 승인된 일부 연구진을 제외하고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집된 조사자료는 정보보안담당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별도의 홈페이지 및 보안관리가 가능한 실사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에 승인된 USB 외 별도의 저장장치 및 클라우드 사용을 금하고 있고, 특히 자료가 보관되는 서버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접근을 제한하고, 서버실 출입대장을 관리하는 등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공표자료의 경우는 일련번호를 무작위로 부여하여 개인 식별을 불가하게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전체나 집단별 평균으로만 공표하고 있고, 개인 수준의 결과

는 공표하지 않으며, 조사용과 마이크로데이터 공표용 개인 일련번호는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명, 나이, 부모님 직업, 부모나이, 부모학력 등 개인정보는 조사결과 공표항목에 포함하지 않으며, 1기 패널 마이크로 데이터 공개와 관련하여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거주지역을 16개 시도(아닌 5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 및 강원권, 경상권, 전라 및 제주권))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부모의 국적 역시 공표되는 항목 기준으로 리코드하여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3) 연구자 연구윤리교육

조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모든 연구진이 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2020년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심의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구진의 연구윤리교육 참여 현황은 <표 V-2>와 같다.

표 V-2. 연구윤리교육 참여 현황(최근 4년간)

번호	과정명	수료날짜	운영기관	비고
1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2017.6.1.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책임자
2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2018.4.19.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공동연구원
3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2018.4.19.	질병관리본부	공동연구원
4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2018.4.20.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공동연구원
5	인간대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	2018.6.1.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연구원
6	인간대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	2019.2.28.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연구원
7	인간대상 및 인체 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과정	2020.3.6.	질병관리본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출처 : 양계민 외(2018: 94) 표 II-15 수정

4) 조사원 모니터링

본 연구에서는 매년 조사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화조사를 통해 조사원이 조사를 위해 실제 방문을 했는지, 사전연락을 하고 방문하였는지, 상품권을 수령하였는지, 조사원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었는지 등과 함께 조사원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1기의 경우 총 397가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99.7%가 방문을 하였고, 기타 1가구가 우편 유치조사로 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는 어머니가 매일 10시까지 일을 하는 관계로 우편 유치조사를 요청하여 진행한 경우였다. 사전연락은 100%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100%가 조사원 자질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100% 상품권도 수령하였고, 조사원에 대한 만족도는 93.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5%도 '보통'이라고 응답을 하였다. 2기의 경우도 약 438명을 어머니에게 모니터링을 한 결과 100%가 실제 방문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응답을 하였고, 100%가 사전 연락을 경험하였으며, 상품권 역시 100%가 수령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원 자질에 대한 불편감의 경우도 100%가 '불편감이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90.9%가 조사원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1%도 '보통'이라고 응답을 하여, 1, 2기 조사원 모두 전반적으로 조사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2기 패널 참여자들의 건의사항으로,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문화가정의 혜택에 대해 알려달라는 의견 등 정보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견과 방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응답, 수입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학생에게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설문지를 우편으로 먼저 보내주면 좋겠다는 의견, 아이가 낮을 많이 가리니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온라인이나 전화조사가 좋겠다는 의견, 휴일이나 주말에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2. 이탈패널 분석

이탈패널 분석은 1기 패널의 이탈 현황만 분석하였다. 2기 패널은 2019년 처음 구축하였으며, 올해 2차년도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탈패널에 대한 분석은 1기 패널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1) 배경특성별 패널 이탈 현황

(1)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

2011년에 구축된 후 2019년 조사까지 패널 이탈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V-3>과 같다. 2011년 구축 후 현재까지 이탈한 가구는 총 456가구로 현재 패널 유지율은 71.9%이다. 시/도별 가구수 대비 이탈률을 살펴보면, 제주가 80%(15가구 중 12가구 이탈)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0%, 24가구 중 12가구 이탈), 광주(45.2%, 42가구 중 19가구 이탈)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이 14.4%(90가구 중 13가구 이탈)로 이탈률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전북(14.8% 108가구 중 15가구 이탈)이 낮았다.

표 V-3.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지역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시/도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유지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시/도별 가구수 대비	
서울	179	63	13.8	35.2	64.8
부산	74	22	4.8	29.7	70.3
대구	42	16	3.5	38.1	61.9
인천	67	26	5.7	38.8	61.2
광주	42	19	4.2	45.2	54.8
대전	24	12	2.6	50.0	50.0
울산	31	10	2.2	32.3	67.7
경기	383	131	28.7	34.2	65.8
강원	90	13	2.9	14.4	85.6
충북	74	21	4.6	28.4	71.6
충남	117	23	5.0	19.7	80.3
전북	108	16	3.5	14.8	85.2
전남	160	27	5.9	16.9	83.1
경북	101	17	3.7	16.8	83.2
경남	118	28	6.1	23.7	76.3
제주	15	12	2.6	80.0	20.0
합계	1,625	456	100.0	28.1	71.9

(2) 어머니 출신국별 패널 이탈현황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어머니 출신국별 패널 이탈현황을 살펴보면 <표 V-4>와 같다. 어머니의 출신국별 이탈률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러시아(52.9%), 한국(48.5%)의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의 경우 구축된 패널 가구 수(카자흐스탄 7가구, 러시아 17가구)가 적어서 한 두 가구의 이탈이 이탈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탈률이 낮은 나라는 태국(12.5%), 일본(21.9%), 필리핀(23.5%), 우즈베키스탄(25.0%) 등이었다.

표 V-4.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출신국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출신국가별 가구수 대비
한국	68	33	7.2	48.5
중국(한족, 기타민족)	125	42	9.2	33.6
중국(조선족)	318	118	25.9	37.1
베트남	42	15	3.3	35.7
필리핀	400	94	20.6	23.5
일본	525	115	25.2	21.9
대만	7	2	0.4	28.6
몽골	8	3	0.7	37.5
태국	56	7	1.5	12.5
캄보디아	3	1	0.2	33.3
우즈베키스탄	12	3	0.7	25.0
러시아	17	9	2.0	52.9
인도네시아	9	3	0.7	33.3
카자흐스탄	7	4	0.9	57.1
기타	28	7	1.5	25.0
합계	1,625	456	100.0	28.1

2019년 조사 시 어머니의 출신국가별 가구 수 대비 이탈률을 살펴보면, 러시아(11.1%)와 우즈베키스탄(10.0%)의 이탈률이 높았으며, 이는 패널 가구수가 적어 각각 한 가구 씩 탈락했음에도 이탈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현황(2019년)

출신국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출신국가별 가구수 대비
한국	40	3	5.5	7.5
중국(한족, 기타민족)	84	3	5.5	3.6
중국(조선족)	213	13	23.6	6.1
베트남	27	2	3.6	7.4
필리핀	317	11	20.0	3.5
일본	430	21	38.2	4.9

출신국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출신국가별 가구수 대비
대만	5	-	-	-
몽골	5	-	-	-
태국	49	-	-	-
캄보디아	2	-	-	-
우즈베키스탄	10	1	1.8	10.0
러시아	9	1	1.8	11.1
인도네시아	6	-	-	-
카자흐스탄	3	-	-	-
기타	20	-	-	-
합계	1,220	55	100.0	4.5

(3)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현황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현황을 살펴보면 <표 V-6>과 같다. 100만원 미만의 이탈률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상(31.4%)과 100-200만원 미만(31.3%)의 이탈률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400-500만원 미만의 이탈률은 18.9%로 가장 낮았다.

표 V-6.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월 평균 가구소득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소득별 가구수 대비
100만원 미만	49	17	3.7	34.7
100-200만원 미만	358	112	24.6	31.3
200-300만원 미만	482	138	30.3	28.6
300-400만원 미만	400	100	21.9	25.0
400-500만원 미만	190	36	7.9	18.9
500만원 이상	121	38	8.3	31.4
모름/무응답 ^{주)}	25	15	3.3	60.0
합계	1,625	456	100.0	28.1

주)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한

2019년 조사 시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현황을 살펴보면, 400-500만원 미만(5.2%)과 200-300만원 미만(5.1%)의 이탈률이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 패널 집단에서의 이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월 평균 가구소득별 패널 이탈현황(2019년)

월 평균 가구소득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소득별 가구수 대비
100만원 미만	20	-	-	-
100-200만원 미만	221	7	12.7	3.2
200-300만원 미만	351	18	32.7	5.1
300-400만원 미만	338	15	27.3	4.4
400-500만원 미만	172	9	16.4	5.2
500만원 이상	103	4	7.3	3.9
모름/무응답 ^{주)}	15	2	3.6	13.3
합계	1,220	55	100.0	4.5

주)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한

(4)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

패널 구축 후 2019년 조사까지 본인이 지각하는 가정형편에 따른 패널 이탈현황을 살펴보면, <표 V-8>과 같다. '잘사는 편'이라고 지각하는 집단의 패널 이탈률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주 잘 산다'는 33.3%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려운 편'이라는 집단의 패널 이탈률은 23.5%로 가장 낮았다. 이는 '잘사는 편' 및 '아주 잘 산다'고 응답한 집단의 가구수가 적어 이탈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V-8.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본인 지각 가정형편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지각 가정형편별 가구수 대비
아주 어렵다	204	59	12.9	28.9
어려운 편이다	608	143	31.4	23.5
보통이다	743	222	48.7	29.9
잘사는 편이다	41	19	4.2	46.3
아주 잘 산다	6	2	0.4	33.3
모름/무응답 ^{주)}	23	11	2.4	47.8
합계	1,625	456	100.0	28.1

주)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한

2019년 조사기준으로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패널 이탈현황을 살펴보면,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과 '아주 잘 산다'고 응답한 집단의 패널 이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이탈률은 5.3%,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이탈률은 4.0%, '아주 어렵다'고 응답한 집단의 이탈률은 3.3%이었다.

표 V-9.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가정형편별 패널 이탈현황(2019)

본인 지각 가정형편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지각 가정형편별 가구수 대비
아주 어렵다	150	5	9.1	3.3
어려운 편이다	478	19	34.5	4.0
보통이다	544	29	52.7	5.3
잘사는 편이다	32	-	-	-
아주 잘 산다	3	-	-	-
모름/무응답 ^{주)}	13	2	3.6	15.4
합계	1,220	55	100.0	4.5

주)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한

(4) 어머니 직업여부별 패널 이탈현황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어머니 직업여부별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집단의 이탈률(33.9%)이 직업이 있는 집단(25.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10.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직업 여부별 가구수 대비
있다	1,100	278	61.0	25.3
없다	525	178	39.0	33.9
합계	1,625	456	100.0	28.1

2019년까지 조사 당시 어머니 직업여부별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탈률과 유사하게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집단의 이탈률(4.8%)이 직업이 있는 집단(4.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이탈현황(2019)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직업 여부별 가구수 대비
있다	867	38	69.1	4.4
없다	353	17	30.9	4.8
합계	1,220	55	100.0	4.5

(5)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현황

현재까지 어머니 학력에 따른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원 석사과정 집단의 이탈률이 68.4%, 박사과정 집단의 이탈률이 37.5%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석사과정: 19가구, 박사과정: 8가구)인 경우의 패널 가구수가 적어 패널 한 두 가구가 이탈하더라도 이탈률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학력이 초등학교일 때 이탈률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4년제 미만의 대학교인 경우 이탈률이 23.6%로 나타났다.

표 V-1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현황(전체)

어머니 학력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학력별 가구수 대비
안 받았음	1	-	-	-
초등학교	28	6	1.3	21.4
중학교	130	36	7.9	27.7
고등학교	698	202	44.3	28.9
대학교(4년제 미만)	458	108	23.7	23.6
대학교(4년제 이상)	283	88	19.3	31.1
대학원 석사과정	19	13	2.9	68.4
대학원 박사과정	8	3	0.7	37.5
합계	1,625	456	100.0	28.1

2019년 조사기준 어머니 학력에 따른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원 석사과정의 이탈률이 1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교 미만의 이탈률이 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3.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현황(2019)

어머니 학력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학력별 가구수 대비
안 받았음	1	-	-	-
초등학교	23	1	1.8	4.3
중학교	99	5	9.1	5.1
고등학교	520	27	49.1	5.2
대학교(4년제 미만)	360	10	18.2	2.8
대학교(4년제 이상)	205	11	20.0	5.4
대학원 석사과정	7	1	1.8	14.3
대학원 박사과정	3	-	-	-
모름/무응답 ^{주)}	2	-	-	-
합계	1,220	55	100.0	4.5

주)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 및 응답 거절로 인한

2) 주요 이탈사유

패널 이탈 사유를 살펴보면 <표 V-14>와 같다. 패널 이탈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는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음’(26.1%)이며, 다음은 ‘유학, 이민 등’(16.7%)으로 나타났다.

표 V-14.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패널 이탈 사유(전체)

이탈 사유			가구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음	119	26.1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76	16.7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 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강력 거절	33	7.2
		바쁘다며 거절	30	6.6
		아빠가 반대함	21	4.6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음	22	4.8

대분류	중분류	이탈 사유	가구 수	%
		소분류		
		약속 후 연락피함/거절	15	3.3
		귀찮고 싫다며 거절	9	2.0
		관리조사 시 이미 거절 의사 밝혔다며 거절	8	1.8
		도움되는지 모르겠고 하기 싫음	7	1.5
		이사 후 주소지 안 알려주고 연락 피함	8	1.8
		의무아니면 하기 싫음	4	0.9
		혜택도 없고, 시간도 없다며 거절	4	0.9
		개인적인 일 말하는 것 싫음	3	0.7
		약속 피하여 방문하여 설득했으나 강력거절	3	0.7
		다문화관련 조사 참여하기 싫음	2	0.4
		찾아오는 것 싫다며 거절	2	0.4
		어머니가 거절하여 아버님께 협조를 구했으나 바쁘고 집안 사정 있다며 거절	1	0.2
	지난번에도 학교요청으로 겨우 했다고 함	1	0.2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학생이 하기 싫어함	37	8.1
		개인사정으로 거절	13	2.9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13	2.9
		학생의 사정으로 진행 불가(기숙사, 체육부, 소년원, 시설 등)	7	1.5
		어머니 가출, 아버지 거절	4	0.9
		가족 간병으로 바쁨	2	0.4
		남편 사망 후 거절	2	0.4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자녀 이사. 조사 참여 거절	2	0.4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학생 가출		1	0.2	
어머니 가출 후 타가구원 거절		1	0.2	
어머니 가출, 가구원 거절	1	0.2		
학생이 친엄마에게 감, 친엄마가 조사 거절	1	0.2		
기타	기타	기타(대학진학, 학생 사망, 친엄마가 한국사람으로, 다시 합가)	4	0.9
전체			456	100.0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표 V-15>와 같이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함’이 20.0%로 패널 이탈 사유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이 하기 싫어함’(14.5%)도 높게 나타났다. ‘유학, 이민 등’과 ‘강력 거절’,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음’(각각 12.7%)의 사유로 패널을 이탈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1기 패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9년간 지속되었으며, 2019년에 이들

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기로 학생 거절로 인한 패널 이탈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패널 이탈 사유(2019)

이탈 사유			가구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함	11	20.0
이주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7	12.7
강력거절	싫음	강력 거절	7	12.7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음	7	12.7
		도움 되는지 모르겠고 하기 싫음	1	1.8
		바쁘다며 거절	3	5.5
		아빠가 반대함	1	1.8
		이사 후 주소지 안 알려주고 연락 피함	3	5.5
	개인사정	개인사정으로 거절	1	1.8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4	7.3
		학생이 하기 싫어함	8	14.5
기타	기타	기타(대학 진학, 학생 사망)	2	3.6
전체			55	100.0

3. 품질진단

본 조사는 2019년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받았고, 진단 결과 5점 만점에 4.5점, 가중치, 정성평가, 추가점수를 포함한 최종 점수는 97.6점을 획득하여 통계품질의 우수함이 확인되었다(통계청 2019.11). 정기품질진단 과정에서 더 나은 통계구축 및 제공을 위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과제는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계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 정기품질진단 결과 7개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16. 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연번	개선과제명	세부개선과제
1	통계설명자료 보완	○ 통계정보보고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보완 첨부파일 업로드
2	조사 방법 개선 검토	○ 온라인 조사 도입 검토
3	공개 자료 모집단 정의 통일 및 표본 특성 제시	○ 통계정보보고서와 유저가이드, 통계설명자료 등에 모집단 정의를 일치되게 기술 ○ 유의사항에 2011년 표본특성 제시
4	데이터 공표 시기 조정 검토	○ 데이터 공표시기를 조사 이후 익익년 12월에서 앞 당기는 것을 검토
5	관련 자료 제공 환경 개선 검토 및 유저가이드 보완	○ 데이터 이외의 자료 (유저가이드, 조사표)는 정보 입력 없이 제공 하도록 검토 ○ 유저가이드 내 문항의 추가 및 삭제정보 기술 ○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6	조사문항 검토	○ 문항 중 차별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검토 및 심리적 특성에 관련한 변수 추가 여부 검토
7	가중치 작성 방법 연구 검토	○ 패널가중치 작성 방법에 대한 연구시행 검토

각 과제에 대하여 개선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통계설명 자료 보완은 KOSIS 메타 정보에 현재 통계설명자료를 보완하는 첨부파일을 업로

드를 하였으며, 기초분석보고서와 연동되어 2020년에 9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가 공개될 때 수정 및 보완된 통계설명자료도 함께 공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개선과제인 온라인 조사에 대한 고려는 내부 연구진 및 조사업체가 논의를 한 결과 온라인 조사를 실시할 경우 면대면 방식의 조사에 비하여 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는 대면조사를 하기로 하였고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해외 체류 등)에는 온라인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반영하였다.

세 번째, 통계정보보고서와 유저가이드, 통계설명자료 등의 모집단 정의를 일치하게 기술하는 문제와 유의사항에 2011년도 표본특성을 제시하는 문제는 그대로 반영하여 유저가이드와 통계설명자료를 수정하였다.

네 번째로 데이터 공표시기 조정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 담당인력의 수로 데이터 공개 일정을 앞당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담당인력이 데이터 공개와 관련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데이터 공개를 한두 달 앞당기는 것은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현재 마이크로 데이터 공개일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섯 번째, 데이터 이외의 자료는 정보입력 없이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본 원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일괄처리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진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였다. 따라서 본 원의 홈페이지 담당부서에 건의하여 검토 중이다. 또한 유저가이드 내 문항 추가 삭제 정보를 기술하는 문제는 그대로 반영하여 2020년 12월 31일에 8차년도 데이터 공개 시 함께 공개 할 예정이며,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의 경우는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데이터 신청서에 SPSS나 CSV 중 신청자로부터 원하는 데이터 형식을 신청 받아 신청자가 신청한 마이크로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섯 번째로 조사문항 검토에서는 차별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와 심리 특성에 관한 변수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1기 패널의 경우 대상자가 성인이 되어 현황파악이 주된 설문방향으로 차별과 관련하여 검토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특별한 의견을 없었다. 또한 현재에도 이미 많은 심리특성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에 근거하여 새로이 추가하지 않았다. 2기 패널의 경우도 새로이 설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별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요소와 심리특성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차별인식을 심어줄 요소는 없다는 의견과 특별히 더 추가할 심리 특성 측정요인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학년(초등학교 5학년)을 고려하여 문항 축소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에 근거하여 문항을 축소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중치 작성방법 검토 연구는 2022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4. 소결

본 연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패널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19년에는 새로이 2기 코호트를 구축하고 있다. 패널조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패널유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수한 수준으로 패널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패널의 거주지 확대, 코로나로 인한 면대면 조사방식의 한계 등으로 변화하는 조사상황에 부합하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본 패널의 유지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제VI장 데이터 공개

- 1. 데이터 공개의 원칙
- 2. 데이터 공개의 절차
- 3. 데이터 활용 실적

1. 데이터 공개의 원칙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과 그 학부모를 패널로 구축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2018년도부터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본 데이터의 경우 일반적인 조사대상자들과는 달리 다문화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로, 데이터 공개로 인하여 개인이 특정되거나 다문화청소년 집단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나타나거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당시 패널조사전문가,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인권전문가들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데이터 공개의 방향과 원칙을 도출한 바 있다¹⁰⁾. 그 결과를 토대로 일부 문항은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재범주화하였고, 단기조사로 패널항목으로의 활용이 어렵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민감할 수 있는 일부 문항은 비공개를 결정하였으며, 공개데이터를 전달 할 때에는 연구계획서, 데이터 활용 보안 서약서, 데이터 활용 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서명을 받은 후 데이터를 전달하며, 본인 이외에는 본 데이터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VI장은 정윤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가 집필함.

10) 데이터 공개 과정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양계민 외(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p. 99-110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이 때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비전문가가 단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논문을 작성함으로써 오히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근거없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을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활용시 주의사항」을 읽고 숙지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즉, 데이터 활용 시 주의사항에는 i)본 데이터가 특정 국가나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숙고하고, ii)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단순히 집단 대 집단으로 비교할 때 유의하며, iii)산출된 결과가 다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사회·경제적 배경 등 다른 요인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iv)논문결과 보고 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v)연구결과가 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가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숙고한다는 총 5가지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절차에 포함하고 있다. 본 데이터의 공개절차에서 데이터를 신청하고 보완서약서를 받은 후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유는 바로 위의 데이터 활용시 주의사항을 한 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문을 제출할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MAPS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임을 사사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데이터 활용 보안 서약서

※ 다음의 보안 관련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표 해 주십시오.

1. 제공받은 데이터를 타인과 공유, 판매, 양도 및 배포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3. 본 데이터로 활용한 논문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주제에 한하여 작성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4.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할 경우 연구계획서를 다시 제출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5. 기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 연구진에게 문의 후, 필요할 경우 연구계획서를 다시 제출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6. 본 데이터로 논문을 출판한 경우 게재정보 및 논문(PDF파일)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제출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7. 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문 게재 시 저장서에 제시된 주제어 및 사자표기를 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연구논문 및 학위논문을 출판한 경우, 관련 기관(학술단체 혹은 학교)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고지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다문화청소년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성실히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소속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년 월 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귀하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활용 보안서약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데이터 활용 시 주의사항

○ 본 패널조사는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잘못된 분석결과와 공표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술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술논문을 발표할 경우 결과 해석이 특정 국가 및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키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숙고함. 예 아니오
- 본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결과를 집단 대 집단으로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 주의함. 예 아니오
- 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때는 그 결과가 다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사회경제적 배경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한 후 게시함. 예 아니오
- 본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결과 보고 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함. 예 아니오
- 본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가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숙고함. 예 아니오

소속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활용 시 주의사항**

데이터 신청서

이름		소속기관	
직위		전공	
이메일		전화	
연구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기대되는 결과 및 시사점			
신청 데이터 및 신청 자수		데이터 형태	
청소년데이터 <input type="checkbox"/> (신청 자수 ex.1~7자 or 4자)		SPSS <input type="checkbox"/>	
학부모데이터 <input type="checkbox"/> (신청 자수 ex.1~7자 or 4자)		CSV <input type="checkbox"/>	

※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신청서

그림 VI-1. 데이터 신청서 양식

2. 데이터 공개의 절차¹¹⁾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는 2017년 1~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1~6차년도까지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데이터 공개와 관련한 자료들(유저가이드, 코드북 등)을 만들기 위해 본원 및 타 기관 공개 데이터 및 데이터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시 제공되었던 데이터 및 자료와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과정(의견조사 및 FGI)을 거쳐 실 사용자들에게 데이터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코드북과 유저가이드를 구성하고 작성하였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데이터는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공개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계 전문가와 인권 및 다문화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민감한 문항들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데이터는 삭제되고 리코드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말에 본 원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s://www.nypi.re.kr/archive>)를 통해 1~6차(2011~2016)년도 조사표, 유저가이드, 코드북을 공개하였으며 데이터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연구진 검토를 거쳐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다.

2019년도 12월 31일에는 본 원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1~7차(2011~2017)년도 데이터가 공개된다. 이를 위해 2018년도에 공개된 1~6차년도 유저가이드, 코드북, 조사표에 7차년도 자료를 추가하였고, 1~7차년도 유저가이드, 코드북, 조사표를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데이터 공개를 위해 1~6차년도 데이터와 7차년도를 데이터를 시계열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2018년도

11) 데이터 공개 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양계민 외(2018).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p. 99-110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데이터 공개 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내용을 근거로 7차년도 데이터 일부 항목도 삭제 및 리코드 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데이터 공개절차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1. 데이터 공개절차

절차	내용
신청서 접수	연구계획서, 데이터 활용 보안서약서, 데이터 활용 시 주의사항 제출
연구팀 검토	계획서 제출 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이 본 데이터 포함여부를 확인
데이터 공개	본 조사에 포함된 데이터이면 제공하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을 알리고 연구계획서 재 제출을 권고함.

3. 데이터 활용 실적

1) 데이터 활용 결과 주제 분석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는 2017년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MAPS 학술대회)」에서 1~5차년도까지 데이터를 처음 공개하였고, 2018년 12월 31일에 1~6차년도까지 302건의 데이터를 전달하였으며, 2019년 12월 31일에도 1~7차년도까지 데이터를 공개하였으며, 487건의 데이터 신청서에 대해 데이터를 전달하였다.

2020년 11월 31일까지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실적건수를 살펴보면, 총 206건으로 학위논문 35건(박사학위논문 15건, 석사학위논문 20건), 학술지 게재 131건,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2017년)」 32건, 기타 학술대회 7건, 기타(타 기관 연구보고서) 1건으로 확인되었다. 출판된 논문의 리스트는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다.

표 VI-2. 데이터 활용 건수

구분		활용실적(편)
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15
	석사학위논문	20
학술논문	전문 학술지 논문	131
학술대회 발표논문	MAPS학술대회	32
	기타 학술대회	7
기타(타 기관 연구보고서)		1
계		206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주제를 살펴본 결과¹²⁾. 총 164건의 주제가 산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VI-3>과 같다. 아래와 같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이나, 우울, 사회적 위축,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등에 대해 연구한 심리사회특성 주제 논문이 57건(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학교생활이나 학습활동(학업성취 등) 논문이 41건(25.0%)이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이중언어, 이중문화 수용태도 등과 관련한 문화적응 관련 주제 논문 21건, 진로와 관련한 논문 17건, 문제행동/피해경험(집단괴롭힘 피해 등) 관련 논문이 13건으로 나타났다.

12) 학위논문을 학술논문으로 발간한 경우에는 학술논문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종속변수를 중심으로 연구주제를 분류하였음.

표 VI-3. 연구 주제 건수

주제	활용실적(편, %)
심리사회특성	57(34.8)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41(25.0)
문화적응	21(12.8)
진로	17(10.4)
문제행동/피해경험	13(7.9)
기타(자녀양육, 또래관계, 다문화정책, 기타)	15(9.1)
계	164(100.0)

2) 데이터 활용논문 실적리스트

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판된 논문실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위논문

① 박사학위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교
강유선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과 발달산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김서정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전략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적응특성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김평화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김효선	2020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손한결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오세비	2019	어머니의 문화통합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오혜정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정책개선 연구	총신대학교
우안순	2020	부모의 긍정적·부정적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이덕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	대한신학대학교
이은정	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종단 연구	연세대학교
이현주	2020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한양대학교
장은지	2020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한국어 능력, 진로인식 수준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동아대학교
차한솔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위축 및 국가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호운운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및 언어적응 영향요인 연구	충북대학교
Park, Jisu	2020	Challenges and adjustment of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Sungkyunkwan University

② 석사학위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교
김슬기	2020	(The) Effect of Family Social Capita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in Korea	서울대학교
남상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순천향대학교
송현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신연주	2019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성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신은영	2020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우영숙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정서요인, 부모진로지지, 자아존중감, 진로장벽과 진로태도결정성과의 구조적관계	가야대학교
유가환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자본 잠재프로파일유형과 진로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육주홍	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경험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윤빛나	2019	또래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송실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윤수민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윤예린	2020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대한 다문화멘토링 사업 효과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이선민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이아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이현정	2020	다문화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임정소	2019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정주미	2020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부산대학교
최은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학업적응 차이	연세대학교
최지원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긴장이 비행과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Cui, Lina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Li, Ling	202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2) 학술논문

① 국내 학술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강희경	2019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청소년기 자녀 진로 지원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12)
고은선, 김성순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2
곽지영	2020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 조사연구, 65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구하라, 모경환, 성상환	2020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도 및 참여유형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6(5)
권민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체육특기적성활동 참가와 교우관계 및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웰니스 학회지, 15(1)
김기영, 고은선	2018	다문화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인식과 요인 분석	교육혁신연구, 28(1)
김동순, 박봉선, 이의빈, 손가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 조사연구, 64
김민선	2019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적응 변화와 관련요인 분석: 한국어 능력, 성취동기, 진로장벽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연구, 8(4)
김민선	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변화와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연구 :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부모연구, 7(1)
김민주, 윤기봉	2018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 지, 13(1)
김소영, 홍세희	2019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프로파일이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유형에 미치는 영향: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하여	조사연구, 20(3)
김영미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육아정책연구, 14(2)
김영미, 현안나	2020	다문화청소년의 맥락적 요인과 진로장벽,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간 다집단분석	학교사회복지, 49
김우진, 정지아, 심태은, 이송이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이중문화수용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28(4)
김원영, 김경식	2020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2)
김원영, 정나은	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 관련변인에 대한 종단적 탐색: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4)
김윤희, 김현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 가족지지 및 한국어 능력과 학교적응의 종단적 발달경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김윤희, 김현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종단적 교우관계 발달	청소년학연구, 27(9)
김은혜, Cui, Lina, 노충래	201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다집단분석	한국아동 복지학, 68
김정은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1(3)
김준범, 박성훈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1
김종곤	2020	집단 괴롭힘 피해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차별적 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8(2)
김지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 환경, 17(3)
김춘경, 조민규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매개로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 연구, 34(4)
김평화, 윤혜미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
노보람, 정정화, 최나야, 이강이	2019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외모만족도와 한국어능력의 종단적 영향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노필순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청소년기 자녀가 인지한 부모관심,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8)
덩징야, 진미정	2019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습활동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 내 교육참여, 공적 교육 지원, 사교육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24(2)
모상현	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 포럼, 54
목소리, 서보림, 정재경, 강민주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박경미	2019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 연구, 21(4)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박동진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2)
박동진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융합정보논문지, 9(9)
박동진, 김송미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1(3)
박동진, 이지연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6(3)
박명희	2017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10(4)
박미현, 김희숙, 김린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초기 자아 탄력성과 연도별 친구관계 지지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3)
박용한, 이신동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발달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박정윤, 채지은, 조몽적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4(2)
박현주, 양영자	2020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박혜숙, 양상희	2017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 변화 양상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백승희, 박소영, 정혜원	2018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변화추정	교육학연구, 56(1)
백종규, 염동문	2018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1(1)
봉초운, 정윤희, 홍세희	2018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9(3)
서봉언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비행 참여요인 탐색	현대사회와 다문화, 9(2)
성윤희, 장은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결정성의 관계: 진로장벽을 통한 자존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손신영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0(3)
송은, 임동선	2020	중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과 모국어 사용 정도에 따른 군집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신연주, 이경순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성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평생학습사회, 15(3)
심령	2020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들 성취동기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관련 요인 탐색	다문화교육 연구, 13(3)
안혜우, 엄명용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 융합적 대응방안 모색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11(6)
안혜진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9(12)
양계민	2016	종단연구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과 정책과제	다문화아동청소년 연구, 1(3)
연은모, 최효식	2019	다문화가정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에 따른 잠재집단 탐색 및 잠재집단별 자녀의 진로, 심리, 학업 특성 차이 검증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9(8)
연은모, 최효식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진로관련행동, 진로장벽인식 간 관계: 자녀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9(10)
연은모, 최효식	2020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잠재프로파일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3)
연은모, 최효식	2020	잠재계층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 및 예측요인 탐색: 학업성취 수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2)
연은모, 최효식	2020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 추정 및 예측요인 탐색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7)
연은모, 최효식	2020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에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9)
염동문	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변화양상과 변화양상별 영향요인	복지상담교육 연구, 8(2)
염동문, 임채영, 김한솔	2019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유형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잠재프로파일분석 활용	사회과학연구, 35(3)
오동균	201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방임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중등교육연구, 67(3)
유승희	2020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문화정체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4(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유승희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연구, 14(1)
유승희, 최충	2020	중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계적과 생태체계적 요인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 연구, 22(3)
유지애	2020	자녀 학교생활 중개인(broker)으로서의 다문화가정 어머니 역할에 대한 검토-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 학교생활 참여가 자녀 학습활동, 어머니 한국어 능력, 어머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 복지학, 67(2)
유효은, 이원기,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피해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 회보, 28(1)
윤미리, 장유나, 홍세희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수용성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직렬다중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3)
윤은영	201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 연구	다문화와 평화, 13(2)
윤지영, 허은정	2017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교육문화연구, 23(6)
윤홍주, 최효식	201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따른 방안 및 자녀의 학업성취 차이 : 성장혼합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2)
은선민, 이수현, 이강이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 유형화: 유형 예측요인과 유형별 심리·사회적응	한국청소년 연구, 30(2)
이강훈	2019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사회적지지, 아동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아동교육, 28(4)
이래혁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감독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1
이래혁, 장혜림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양육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 복지학, 66
이래혁, 장혜림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습태도의 관계 - 자아탄력성을 통한 친구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 환경, 17(3)
이래혁, 장혜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교우관계와 사회적위축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문화 포럼, 6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래혁, 채항석, 오채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성취동기의 관계에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49
이래혁, 최홍일	2020	다문화가정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일상생활 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방임적 양육태도를 통해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 복지학, 25(2)
이소연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29(1)
이수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의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 계층 분류 및 계층별 예측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탐색	다문화교육 연구, 13(3)
이영주, 박윤경, 이수경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적응 및 학교적응	교육문화연구, 23(5)
이원기, 유효은,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발달궤적과 선정요인에 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3(1)
이원기, 유효은,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 회보, 74
이원석	2019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와 디아 스포라연구, 14
이윤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 에이션학회지, 43(1)
이윤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3(1)
이윤정	2019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교사친구지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
이은경, 이선희	2019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에 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6)
이은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예측요인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의사결정나무형 분석: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에 대한 4가지 언어 사용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중심으로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5(2)
이은택, 이은경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미래청소년 학회지, 14(4)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지숙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비행과의 관계: 국가정체성,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분석	학교사회복지, 48
이진경, 김혜미	2019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비교 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11(2)
이진경, 이혜정	2019	이중언어요인과 이중문화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4)
이진석, 장대연, 최선아	2020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 조사연구, 66
이현주, 차윤경	2020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이주배경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연구, 13(1)
이형하	2020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컴퓨터정보 학회논문지, 25(4)
이형하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진로 · 양육지원과 교사관계,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의 구조적 관계	한국컴퓨터정보 학회논문지, 25(5)
이혜미, 김유미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식발달의 관계 : 성취동기와 진로관련 부모행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9(10)
이희정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변화과정과 학교 적응	한국사회학, 52(1)
인효연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각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0)
임동선, 백수정, 김송이, 한지윤	2020	다문화 가정 내 모국어 사용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 능력 및 사회적지지 탐색	다문화교육 연구, 13(3)
임선아	2018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경험과 학교적응 : 자아탄력성과 도움을 주는 어른의 보호역할 검증	아동과 권리, 22(2)
임양미	2019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교육 학회지, 31(3)
임양미	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참여와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 회지, 28(6)
임양미	2020	결혼이주여성의 학교활동 참여와 부모효능감 및 중학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 종단적 상호 영향 분석	인간발달연구, 27(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임효진, 황매향, 최희철	2020	다문화 가정 자녀의 아동·청소년기 자기존중감의 다중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0(8)
장유진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학업성취의 차이	글로벌교육 연구, 11(4)
장혜림, 이래혁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7
전혜숙, 김진영, 전종설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6(10)
전혜숙, 전종설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및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8)
정두수, 백진아	2020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이중문화수용태도, 집단따돌림 및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주단의조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 논문지, 10(10)
조성희, 박소영	2020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지역사회인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 환경, 18(2)
조성희, 박소영	202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 연구, 22(3)
조영선, 조영일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집단에 대한 종단적 변화 유형 및 심리사회적 특성	인문사회21, 10(5)
조영선, 조영일, 박수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1(3)
조옥선, 방해순	2018	융복합 시대에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행태에 미치는 영향 :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정보 논문지, 8(4)
조혜영, 오민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교사관계가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0(11)
최가희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모효능감에 대한 종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0(8)
최미선, 김연옥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21세기 사회복지 연구, 17(1)
최정석, 최석규	2020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태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1(5)
최태진	2019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연령 변화에 따른	수산해양교육연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사회적지지 요인의 변화 분석 및 사회적지지 잠재집단 유형과 심리·정서적 적응과의 관계	구, 31(6)
최효식, 연은모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변화에 대한 부모감독, 문화적응 스트레스, 또래관계의 동시 및 지연효과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20(18)
하영진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21, 10(6)
한광현	2020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궤적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8(1)
한광현, 강상경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수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스트레스 과정 모델 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7(1)
한수연, 양미석, 박용한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발달양상에 따른 성취동기의 종단적 변화 탐색	교육문화연구, 26(3)
한지혜, 김경희	2020	부모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64(1)
홍나미, 박현정	2017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미래사회복지 연구, 8(2)
Hyoung- g-Ha Lee	2019	A Longitudinal Study on the Parenting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한국컴퓨터정보 학회논문지, 24(11)

② 해외 학술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Bae, Sung Man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identity,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ling	Stress and Health, 36(1)
Bae, Sung Man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74

(3) 학술대회

①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MAPS 학술대회)」

이름	제목
김기영, 고은선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대상내용방법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
김남희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 인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
김민주, 윤기봉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
김양희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김우진, 심태은, 정지아, 이승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김원영, 김경식	사회적 지지가 남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김준범, 박성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박명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박애스더, 김두영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 2011-20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박용한, 이신동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
박혜숙, 양상희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 변화
백승희, 박소영	분할합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초·중학생들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영향요인 검증
백종규, 염동문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봉초운, 정윤희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서봉언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관련요인 탐색

이름	제목
오정아, 한애경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 탐색
유봉애, 옥경희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성별에 따른 차이 연구
윤지영, 허은정	다문화가정의 부모 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검증
이소연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적서적응의 구조관계
이영주, 박륜경, 이수경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심리적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이응택, 이은경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이희정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이 한국사회 어울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효연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임선아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 내·외 지지자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장주리	MAPS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Resilience)이 결핍에 미치는 영향력
정민아, 김은혜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성차 비교
정호용	정부 지원 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조옥선, 방해순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현주, 하영진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 개인 간/개인 내 변화를 중심으로
한애경, 김평화, 오정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성별과 학령기를 중심으로
홍나미, 박현정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② 외부학술대회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노보람, 정정화, 최나야, 이강이	2018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변화유형 및 예측요인	2018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신형진	2017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 사회화 유형 : 20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분석	전남대학교 세계한문문화연구원 국내학술회의
이형하, 라연희, 송현주, 용정미, 윤정희	2019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2)
이형하, 김지선, 김지원, 송현경, 최은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사회적위축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2)
임양미	2019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6
한광현	2019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궤적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 복지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11
한도현, 안명인	2019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 대회 자료집, 8

(4) 기타 연구보고서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조승연	2020. 08.14.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결정 요인 분석.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의용 논문 W50



제 3 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 분석

○———— 제Ⅵ장

다문화청소년 9년간(초4~고3) 발달추이

: 1기 패널 분석

- 1. 분석개요
- 2. 분석결과
- 3. 소결



다문화청소년 9년간(초4~고3) 발달추이 : 1기 패널 분석*

1. 분석개요

이 장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2019년까지 수행된 청소년대상 1기 패널조사의 1~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9년간 발달추이를 분석하였다. 9년간 청소년의 발달추이 분석은 조사시점 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1~9차년도 조사동안 각 영역별로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된 변인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단, 1차년도 조사항목에는 없었으나 이후 추가되어 동일하게 유지된 변인은 분석에 포함되었다. 발달추이 파악을 위해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고, 측정 시점마다 자료의 분산이 동일해야 한다는 구형성(sphericity) 가정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의 유의확률은 Greenhous-Geisser 방법을 적용하여 교정하였다. 2019년 설문조사에 사용된 1기 패널 청소년용 설문문항은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 연구에서 8년간 발달추이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이 동일하게 9년간 발달추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 VII장은 장윤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표 VII-1. 다문화청소년 9년간 발달추이 분석 영역(2011년~2019년)

대영역	소영역	비교변인
1) 가정요인	(1) 사회경제적 배경	① 월 평균 소득수준
	(2) 가족관계	①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② 부모의 양육태도
2)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1) 학교생활	①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②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 ③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2) 성취 및 학업적 포부	① 학교성적 수준 ② 성적에 대한 만족도 ③ 성취동기 ④ 학업적 포부
3) 심리·사회 적응요인	(1) 심리적응	① 삶의 만족도 ② 신체만족도 ③ 우울
	(2) 사회적응	① 사회적 위축 ② 비행경험 ③ 친한 친구의 수
	(3) 사회적 지지	① 가족의 지지 ②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③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4) 정체성요인	(1) 국가정체성	① 국적에 대한 인식 ② 한국인정체성
	(2) 다문화정체성	① 다문화수용성 ② 이중문화수용태도
5)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1) 신체발달	① 키 ② 몸무게
	(2) 건강에 대한 인식	①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출처: 양계민 외(2019: 162) 표 V-1

2. 분석결과¹³⁾

다문화청소년의 9년간 발달추이를 크게 가정요인,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심리·사회적응 요인, 정체성 요인, 신체발달 및 건강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요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가정요인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대리변인인 월 평균 소득수준과 가족관계의 대리변인인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와 부모님의 양육태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사회·경제적 배경: 월 평균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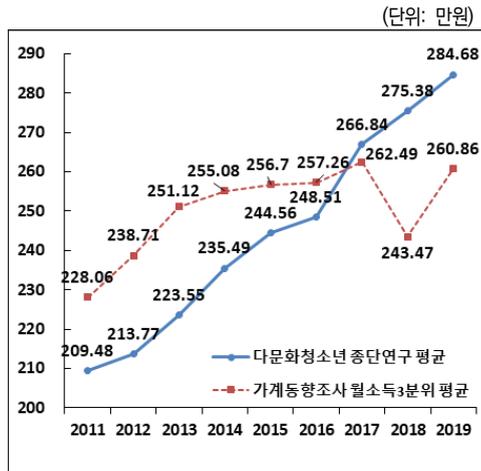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1~9차년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된 소득수준은 2015년에서 2016년의 증가수준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월 평균 소득수준의 지속적인 증가추이는 다문화청소년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 전체평균(매년 4사분기 자료 기준) 역시 2011년 약 388만원에서 2019년 약 477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KOSIS 국가통계포털, 2020). 아울러 가계동향조사 자료(KOSIS 국가통계포털, 2020)와 비교할 때,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

13) 본 장에서 제시된 평균 및 표준편차는 반복측정분산분석 기본 가정에 따라 분석에 사용된 9개 측정 시점의 응답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산출된 값이다. 따라서 이전 연도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준은 매 해 전국 2인 이상 전체가구의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2016년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월 소득 2분위와 3분위 사이에 해당되었던 반면 2017년 이후 3분위와 4분위 사이로 소득수준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I-2. 월 평균 소득수준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1	209.48 ^a	111.50	168.31 ***
2012	212.77 ^b	100.88	
2013	223.55 ^c	100.62	
2014	235.49 ^d	119.19	
2015	244.56 ^e	131.52	
2016	248.51 ^f	110.41	
2017	266.84 ^g	115.09	
2018	275.38 ^h	122.73	
2019	284.68 ⁱ	120.44	



*** $p < .001$, Bonferroni: a, b < c < d < e, f < g < h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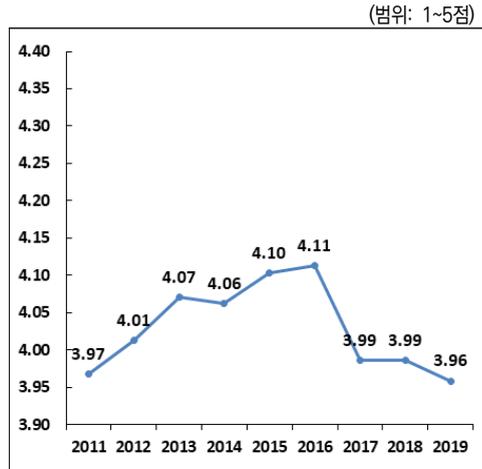
(2) 가족관계: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다문화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는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1차년도 조사가 실시된 2011년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의 평균은 3.97점으로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평균인 4.20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다문화청소년의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수준은 비교적 크게 올라가 2016년 조사에서는 평균 4.11점으로 같은 해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평균인 4.27점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2016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여 평균 4점미만으로 다시 낮아졌다.

표 VII-3.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1	3.97 ^a	0.91	8.39 ***
2012	4.01 ^b	0.90	
2013	4.07 ^c	0.90	
2014	4.06 ^d	0.91	
2015	4.10 ^e	0.88	
2016	4.11 ^f	0.88	
2017	3.99 ^g	0.89	
2018	3.99 ^h	0.93	
2019	3.96 ⁱ	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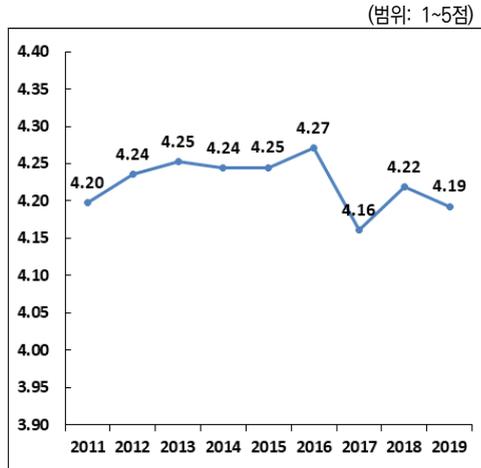


*** $p < .001$, Bonferroni: a, i < c, e, f. b < f. g, h, i < e, f. i < d.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는 모든 시점에서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9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017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9년 중 가장 낮은 수준(평균 4.16점)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도에 평균 4.22점으로 조금 높아지다 2019년에 평균 4.19점으로 다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러한 변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VII-4.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1	4.20 ^a	0.79	3.56 **
2012	4.24 ^b	0.76	
2013	4.25 ^c	0.80	
2014	4.24 ^d	0.78	
2015	4.25 ^e	0.77	
2016	4.27 ^f	0.77	
2017	4.16 ^g	0.78	
2018	4.22 ^h	0.78	
2019	4.19 ⁱ	0.81	



** $p < .01$, Bonferroni: $g < c, d, e,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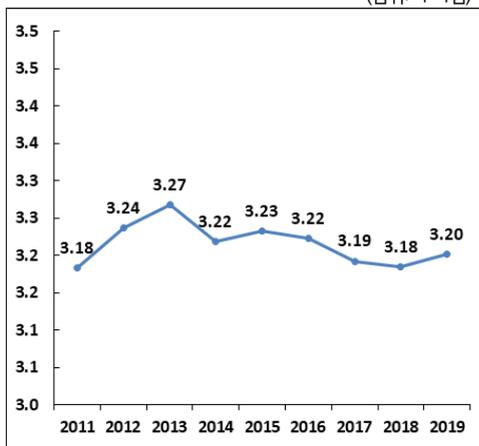
(3) 가족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다문화청소년의 가정요인 중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문화청소년이 생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로 ‘감독’과 ‘방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감독’ 정도는 4점 척도 기준 모든 조사시점에서 평균 3점 이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 재학기간인 2011년에서 2013년 동안 ‘감독’ 수준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2014년 조사이후 소폭 하락하고 그 후 일정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평균 2점미만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임’ 정도의 9년 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과 2012년 조사에서 다른 시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2011년 평균 1.78점, 2012년 평균 1.81점)으로 조사되었으나, 2013년에 다시 낮아진 뒤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변화추이

(범위: 1~4점)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1	3.18 ^a	0.63	3.67 **
2012	3.24 ^b	0.60	
2013	3.27 ^c	0.60	
2014	3.22 ^d	0.61	
2015	3.23 ^e	0.57	
2016	3.22 ^f	0.54	
2017	3.19 ^g	0.59	
2018	3.18 ^h	0.57	
2019	3.20 ⁱ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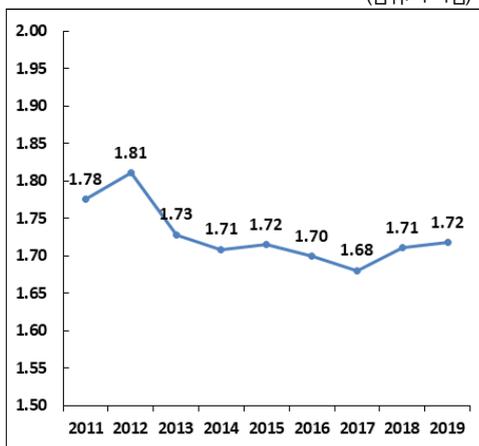


** $p < .01$, Bonferroni: a, g, h < c

표 VII-6.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변화추이

(범위: 1~4점)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1	1.78 ^a	0.61	7.08 ***
2012	1.81 ^b	0.67	
2013	1.73 ^c	0.60	
2014	1.71 ^d	0.58	
2015	1.72 ^e	0.58	
2016	1.70 ^f	0.56	
2017	1.68 ^g	0.57	
2018	1.71 ^h	0.56	
2019	1.72 ⁱ	0.61	



*** $p < .001$, Bonferroni: f, g < a. c, d, e, f, g, h, i < b

2)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과 학업성취요의 발달추이는 학교생활 및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주관적 학업성적 수준과 성적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성취동기와 학업적 포부 변인을 통해 살펴보았다. 각 변인별 9년간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

먼저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중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는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조사에서 모두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응답한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1년 조사당시 80.9%였던 비율이 2019년 조사에서 94.1%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별 다른 어려움이 없다’의 응답비율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응답항목으로 함께 제시된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들의 선택비율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으로 많이 선택된 것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 시기에 해당하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나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되었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2017년도 조사이후에는 ‘친한 친구가 없는 것’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표 VII-7.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중복응답) 변화추이

(단위: 빈도(%))

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별 어려움이 없다	1,323 (80.9)	1,307 (87.1)	1,299 (90.0)	1,279 (92.7)	1,268 (94.1)	1,249 (94.0)	1,161 (92.1)	1,124 (93.9)	1,078 (94.1)
나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	66 (4.0)	61 (4.1)	42 (2.9)	32 (2.3)	25 (1.9)	29 (2.2)	18 (1.4)	18 (1.5)	11 (1.0)
친구들이 나를 흥보는 것	68 (4.2)	44 (2.9)	38 (2.6)	18 (1.3)	16 (1.2)	11 (.8)	18 (1.4)	13 (1.1)	11 (1.0)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72 (4.4)	51 (3.4)	36 (2.5)	15 (1.1)	8 (.6)	7 (.5)	7 (.6)	6 (.5)	5 (.4)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56 (3.4)	35 (2.3)	29 (2.0)	24 (1.7)	15 (1.1)	13 (1.0)	14 (1.1)	9 (.8)	11 (1.0)
공부를 못한다고 놀리는 것	59 (3.6)	39 (2.6)	29 (2.0)	19 (1.4)	23 (1.7)	27 (2.0)	25 (2.0)	16 (1.3)	14 (1.2)
친구들이 나에게 욕설을 하는 것	78 (4.8)	40 (2.7)	27 (1.9)	17 (1.2)	15 (1.1)	10 (.8)	16 (1.3)	13 (1.1)	10 (.9)
친구들이 나를 때리는 것	69 (4.2)	19 (1.3)	10 (.7)	10 (.7)	5 (.4)	6 (.5)	5 (.4)	3 (.3)	1 (.1)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놀리는 것	25 (1.5)	12 (.8)	9 (.6)	2 (.1)	4 (.3)	3 (.2)	3 (.2)	1 (.1)	2 (.2)
친한 친구가 없는 것	34 (2.1)	15 (1.0)	22 (1.5)	17 (1.2)	14 (1.0)	16 (1.2)	31 (2.5)	21 (1.8)	18 (1.6)
다문화가족이라고 다르게 대하는 것	9 (.6)	5 (.3)	1 (.1)	23 (1.7)	14 (1.0)	9 (.7)	14 (1.1)	10 (.8)	11 (1.0)
기타	13 (.8)	10 (.7)	8 (.6)	10 (.7)	5 (.4)	8 (.6)	16 (1.3)	12 (1.0)	7 (.6)
전체	1,635	1,500	1,443	1,380	1,347	1,329	1,260	1,197	1,146

(2) 학교생활: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약 54~79%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생활에서 어려운 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체로 동일 학교급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하다가, 학교급이 전환되는 시기인 2014년(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과 2017년(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 조사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다문화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2017년 조사에서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53.8%로 크게 감소하였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다소 증가하여 2019년 조사에서는 61.4%로 나타났다.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많았으며, 고등학교 재학 시기인 2017~2019년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10%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공부할 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2017년도 조사를 기점으로 이전 조사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다.

표 VII-8.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 변화추이

(단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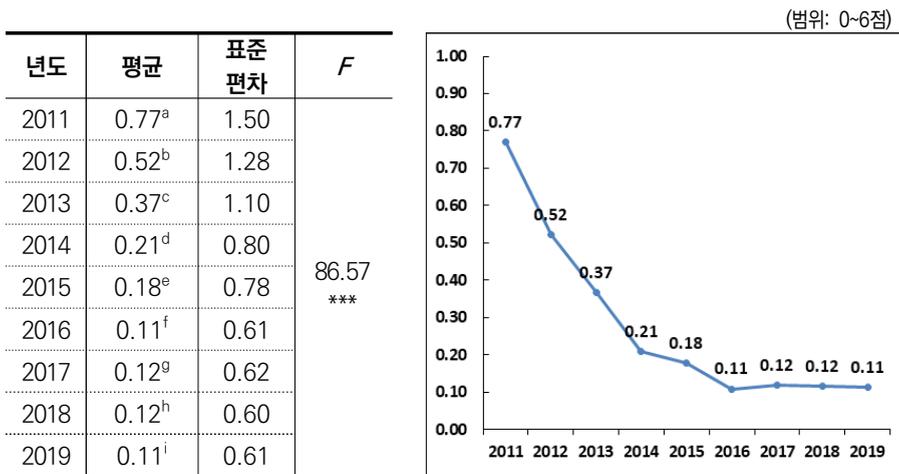
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별 어려움이 없다	1,103 (67.5)	1,119 (74.6)	1,136 (78.7)	932 (67.5)	934 (69.3)	940 (70.7)	678 (53.8)	706 (59.0)	704 (61.4)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125 (7.6)	109 (7.3)	104 (7.2)	77 (5.6)	78 (5.8)	78 (5.9)	148 (11.7)	122 (10.2)	129 (11.3)
공부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	102 (6.2)	62 (4.1)	74 (5.1)	64 (4.6)	53 (3.9)	41 (3.1)	54 (4.3)	48 (4.0)	40 (3.5)
내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것	154 (9.4)	97 (6.5)	54 (3.7)	47 (3.4)	52 (3.9)	57 (4.3)	66 (5.2)	65 (5.2)	60 (5.2)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	94 (5.7)	50 (3.3)	33 (2.3)	82 (5.9)	83 (6.2)	68 (5.1)	90 (7.1)	61 (5.1)	46 (4.0)
공부할 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것	47 (2.9)	48 (3.2)	32 (2.2)	58 (4.2)	48 (3.6)	50 (3.8)	96 (7.6)	76 (6.3)	60 (5.2)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	-	-	-	97 (7.0)	82 (6.1)	72 (5.4)	72 (5.4)	74 (6.2)	75 (6.5)
기타	10 (.6)	15 (1.0)	10 (.7)	23 (1.7)	17 (1.3)	23 (1.7)	53 (4.2)	48 (4.0)	32 (2.8)
전체	1,635 (100)	1,500 (100)	1,443 (100)	1,380 (100)	1,347 (100)	1,329 (100)	1,260 (100)	1,197 (100)	1,146 (100)

(3) 학교생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며 경험할 수 있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을 조사하였다. 신체적, 언어적, 비언어적 집단괴롭힘에 해당하는 6개 유형의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로 지난 한 학기 동안 한 번 이상의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변환한 뒤 합한 값이 9년간 변화추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모든 조사년도에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평균은 1을 넘지 않았으며, 이는 본 분석에 사용된 변인 값의 범위가 1~6인을 고려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평균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평균 0.77점에서 2019년 0.11점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초등학교 재학 시기인 2011~2013년 동안에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9.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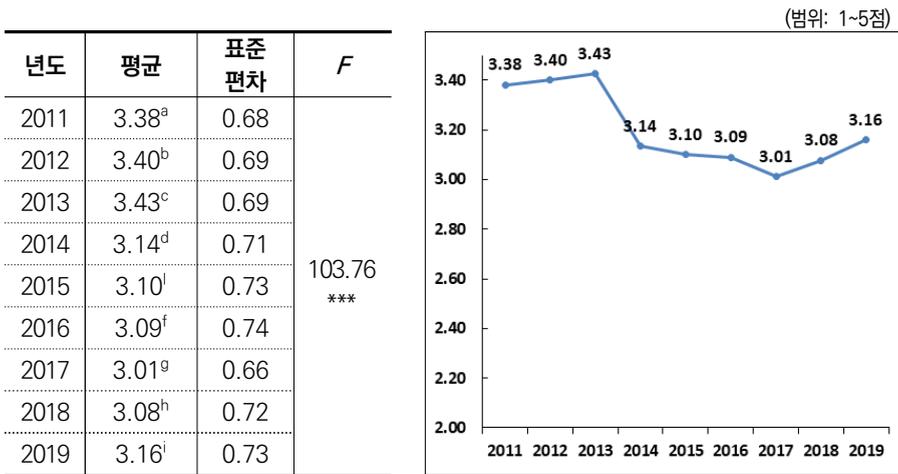
*** $p < .001$, Bonferroni: f, g, h, i < d < c < b < a. e < c < b < a

(4) 성취 및 학업적 포부: 학교성적 수준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의 변인중 하나인 학교성적수준의 9년간 변화추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에서 학교성적 수준은 5개 주요 교과에 대해 다문화청소년 년 자신이 생각하는 성적수준을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뒤 5교과의 응답 평균을 사용하였다. 모든 조사년도에서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의 학교성적 수준을 보통수준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성적 수준의 9년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재학 시기인 2011~2013년 사이에 가장 높았고, 중학교에 진학한 시점인 2014년에 큰 폭으로 떨어진 뒤 지속적으로 낮아져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인 2017년 평균 3.0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이후 학교성적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은 다시 상승하여 2019년 평균 3.16점으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I-10. 학교성적 수준 변화추이



*** $p < .001$, Bonferroni: $g < h < i < a, b, c.$ $g < d, e, f < a,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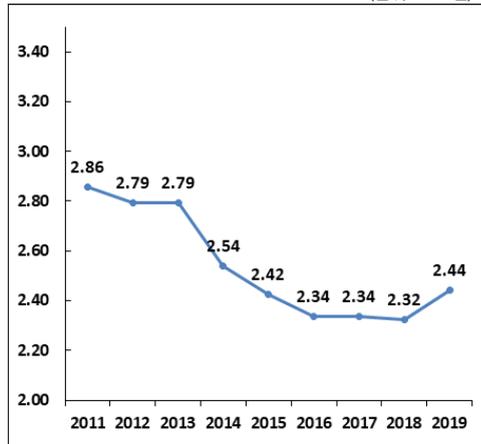
(5) 성취 및 학업적 포부: 성적에 대한 만족도

학교성적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과 별도로 성적에 대해 만족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9년간 모든 조사시점에서 평균 3점 미만으로 자신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학교성적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재학 시기(2011~2014년)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9년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1.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추이

(범위: 1~4점)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1	2.86 ^a	0.69	139.15 ***
2012	2.79 ^b	0.77	
2013	2.79 ^c	0.77	
2014	2.54 ^d	0.76	
2015	2.42 ^e	0.77	
2016	2.34 ^f	0.73	
2017	2.34 ^g	0.71	
2018	2.32 ^h	0.73	
2019	2.44 ⁱ	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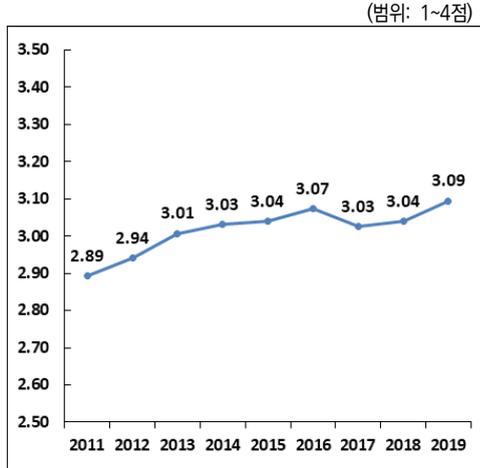
*** $p < .001$, Bonferroni: f, g, h < e, i < d < a, b, c

(6) 성취 및 학업적 포부: 성취동기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즐기는 정도를 의미하는 성취동기의 9년간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성취동기도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 시기(2011~2016년)에 꾸준히 상승하였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2017년에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전 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더불어 2017년 조사 이후 다시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 조사에서 평균 3.09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동기를 보였다.

표 VII-12. 성취동기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1	2.89 ^a	0.52	29.99 ***
2012	2.94 ^b	0.50	
2013	3.01 ^c	0.49	
2014	3.03 ^d	0.48	
2015	3.04 ^e	0.47	
2016	3.07 ^f	0.48	
2017	3.03 ^g	0.45	
2018	3.04 ^h	0.47	
2019	3.09 ⁱ	0.47	



*** $p < .001$, Bonferroni: a, b < c, g < f, i. a, b < d, e, h < i

(7) 성취 및 학업적 포부: 학업적 포부

자신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을 통해 알아본 학업적 포부수준은 2011년부터 2019년 동안 큰 변동 없이 '대학교'를 희망교육수준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 4, 5학년에 해당하는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대학교까지 다니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의 약 81%였고, 응답항목으로 '대학원'이 추가된 2013년도에는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약 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교육계획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됨에 따라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고등학교까지 다니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고등학교 재학 시기인 2017년 이후에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희망교육수준으로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8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3. 학업적 포부수준 변화추이

(단위: 빈도%)

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합계
2011	16 (1.0)	32 (2.0)	262 (16.0)	1,325 (81.0)	-	1,635 (100)
2012	10 (.7)	22 (1.5)	252 (16.8)	1,216 (81.1)	-	1,500 (100)
2013	6 (.1)	16 (1.1)	145 (10.0)	1,131 (78.4)	145 (10.0)	1,443 (100)
2014	1 (.1)	27 (2.0)	144 (10.4)	1,113 (80.7)	95 (6.9)	1,380 (100)
2015	1 (.1)	24 (1.8)	170 (12.6)	1,088 (80.8)	64 (4.8)	1,347 (100)
2016	-	19 (1.4)	234 (17.6)	1,037 (78.0)	39 (2.9)	1,329 (100)
2017	-	1 (.1)	291 (23.1)	928 (73.7)	40 (3.2)	1,260 (100)
2018	-	-	262 (21.9)	888 (74.2)	47 (3.9)	1,197 (100)
2019	-	-	236 (20.6)	849 (74.1)	61 (5.3)	1,146 (100)

3) 심리·사회적응 요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심리·사회적응 또한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 본 조사에서는 크게 심리적응, 사회적응, 사회적 지지로 구분하여 9가지 관련변인의 9년간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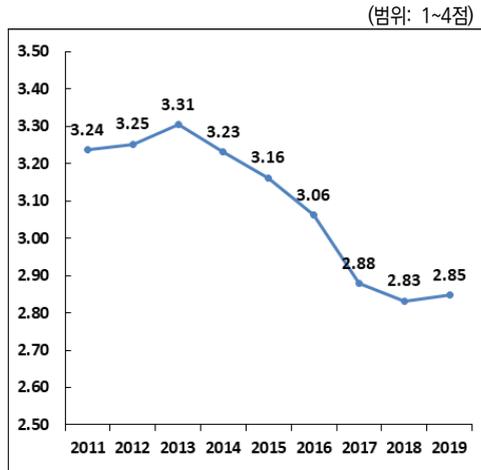
(1) 심리적응: 삶의 만족도

심리적응과 관련된 첫 번째 변인으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즐거운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9년간 변화추이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재학시기인 2011~2013년 사이 평균 3.2점 이상의 높은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2014년도 조사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고등학교 재학시기인 2017년에서 2019년에는 평균 3점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VII-14. 삶의 만족도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1	3.24 ^a	0.58	181.98 ***
2012	3.25 ^b	0.61	
2013	3.31 ^c	0.57	
2014	3.23 ^d	0.58	
2015	3.16 ^e	0.62	
2016	3.06 ^f	0.58	
2017	2.88 ^g	0.54	
2018	2.83 ^h	0.58	
2019	2.85 ⁱ	0.59	



*** $p < .001$, Bonferroni: g, h, i < f < e < a < c. d < c. e <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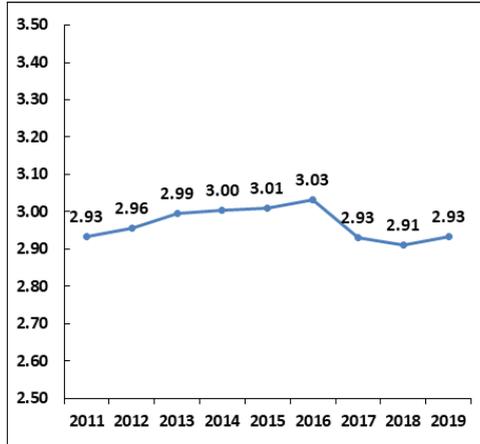
(2) 심리적응: 신체만족도

다문화청소년의 자신에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신체만족도의 경우, 평균 2.9점에서 3점으로 다른 심리·사회적응 요인의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이 중학교에 재학하던 시기인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의 평균 신체만족도가 다른 시기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VI-15. 신체만족도 변화추이

(범위: 1~4점)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1	2.93 ^a	0.49	14.10 ***
2012	2.96 ^b	0.49	
2013	2.99 ^c	0.48	
2014	3.00 ^d	0.50	
2015	3.01 ^e	0.50	
2016	3.03 ^f	0.50	
2017	2.93 ^g	0.51	
2018	2.91 ^h	0.51	
2019	2.93 ⁱ	0.53	



*** $p < .001$, Bonferroni: a, g, h, i < c, d, e, f. b <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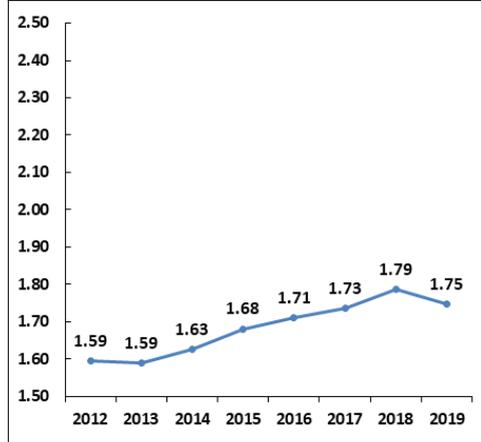
(3) 심리적응: 우울

2012년 조사에 추가된 우울은 4점 척도의 10개 하위문항으로 구성된 변인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년 조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정도는 평균 약 1.6점에서 1.8점 사이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우울의 정도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며 2018년도 조사에서 평균 1.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년도 조사에서 평균 1.75점으로 다소 우울 수준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초·중등학교 재학 시기인 2012~2014년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VII-16. 우울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2	1.59 ^a	0.52	33.81 ***
2013	1.59 ^b	0.51	
2014	1.63 ^c	0.53	
2015	1.68 ^d	0.53	
2016	1.71 ^e	0.53	
2017	1.73 ^f	0.55	
2018	1.79 ^g	0.56	
2019	1.75 ^h	0.60	

(범위: 1~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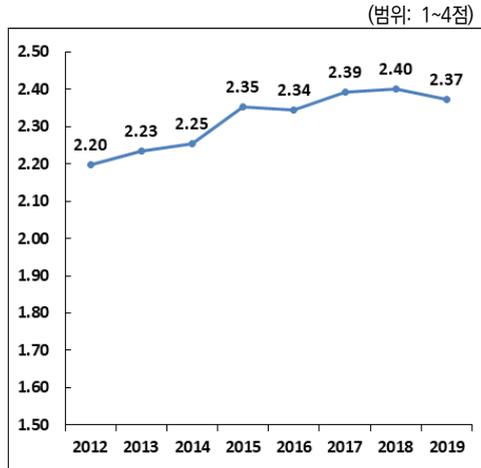
*** $p < .001$, Bonferroni: a, b, c < d < f < g. a, b, c < e. d < h. e < g

(4) 사회적응: 사회적 위축

우울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위축 정도를 보여주는 사회적 위축 변인도 2012년도부터 사회부적응의 대리변인으로 추가 조사되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8년간 사회적 위축 정도는 평균 2.2점에서 2.4점 사이로 우울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8년간 변화추이는 우울과 유사하게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재학 시기에 해당하는 2012~2014년의 사회적 위축 정도는 그 이후 시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표 VII-17. 사회적 위축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2	2.20 ^a	0.73	23.16 ***
2013	2.23 ^b	0.71	
2014	2.25 ^c	0.74	
2015	2.35 ^d	0.74	
2016	2.34 ^e	0.72	
2017	2.39 ^f	0.72	
2018	2.40 ^g	0.73	
2019	2.37 ^h	0.73	



*** $p < .001$, Bonferroni: a, b, c < d, e, f, g,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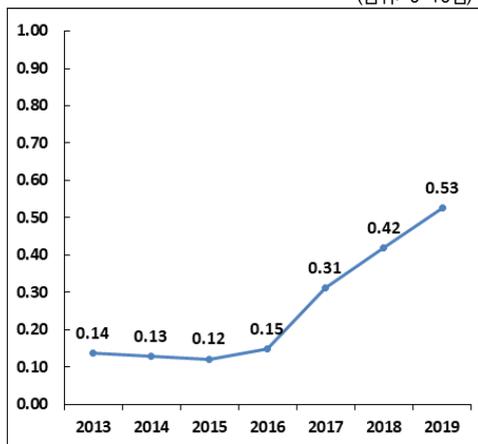
(5) 사회적응: 비행경험

2013년도 조사부터는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 비행경험은 흡연, 음주, 가출, 무단결석 등에 대해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여부를 조사하며, ‘경험이 있다’는 1, ‘경험이 없다’는 0으로 변환한 뒤 총합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비행행동의 유형이 추가되었으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발달추이 분석에는 모든 년도의 조사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10개 항목의 응답 값만 사용하였다. 따라서 비행경험 변인 값의 범위는 0에서 10점 사이가 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비행경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해의 평균이 1점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시절인 2014~2016년 동안 평균은 0.15점미만으로 상당히 낮았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2017년부터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9년 조사에서는 평균 0.53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VII-18. 비행경험 변화추이

(범위: 0~10점)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3	0.14 ^a	0.48	67.17 ***
2014	0.13 ^b	0.48	
2015	0.12 ^c	0.48	
2016	0.15 ^d	0.49	
2017	0.31 ^e	0.88	
2018	0.42 ^f	1.02	
2019	0.53 ^g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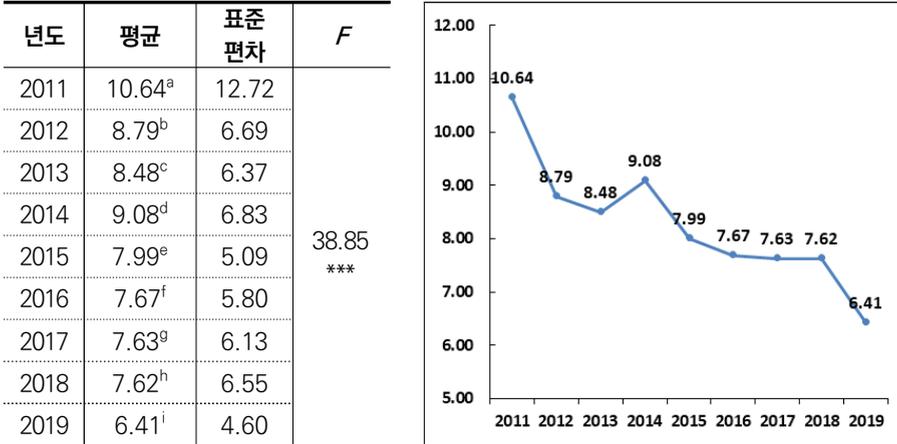


*** $p < .001$, Bonferroni: a, b, c, d < e < f, g

(6) 사회적응: 친한 친구의 수

다문화청소년이 생각하는 친한 친구의 수를 통해 긍정적 사회적응 정도를 살펴 보았다. 이때 친한 친구란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이를 의미한다. 대체로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응답한 친한 친구의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9년 중 2011년도 조사의 평균이 10.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2019년 평균 6.41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VII-19. 친한 친구의 수 변화추이



*** $p < .001$, Bonferroni: $i < f, g, h < b, d < a. i < e < b,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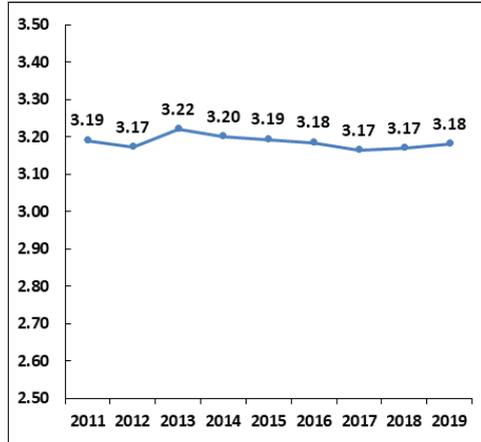
(7)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

심리·사회 적응 영역에서 세 번째로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을 둘러싼 가족, 학교, 사회에서 얼마나 지지받고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관련 변인들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의 지지 정도는 4점 척도 기준, 평균 3.17점에서 3.22점 사이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년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I-20. 가족의 지지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1	3.19 ^a	0.56	1.83
2012	3.17 ^b	0.59	
2013	3.22 ^c	0.55	
2014	3.20 ^d	0.56	
2015	3.19 ^e	0.53	
2016	3.18 ^f	0.54	
2017	3.17 ^g	0.54	
2018	3.17 ^h	0.57	
2019	3.18 ⁱ	0.57	

(범위: 1~4점)



(8) 사회적 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

가족의 지지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 여부와, 학교 밖에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재학 시기인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인식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1차년도 조사 당시 약 20%에 불과하였고, 이후 약 40%로 증가하였으나, 학교 안과 학교 밖 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안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약 61%에 도달한 반면,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약 33%에 그쳐 연령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서는 어려운 일에 도움을 청할 어른의 존재에 대한 인식 정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1.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 변화추이

(단위: 빈도(%))

년도	학교 내		학교 밖		합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011	317(19.4)	1,318(80.6)	327(20.0)	1,308(80.0)	1,635(100)
2012	546(36.4)	954(63.6)	594(39.6)	906(60.4)	1,500(100)
2013	622(43.1)	821(56.9)	583(40.4)	860(59.6)	1,443(100)
2014	680(49.3)	700(50.7)	533(38.6)	847(61.4)	1,380(100)
2015	706(52.4)	641(47.6)	475(35.3)	872(64.7)	1,347(100)
2016	751(56.5)	578(43.5)	520(39.1)	809(60.9)	1,329(100)
2017	648(51.4)	612(48.6)	337(26.7)	923(73.3)	1,260(100)
2018	715(59.7)	482(40.3)	355(29.7)	842(70.3)	1,197(100)
2019	703(61.3)	443(38.7)	383(33.4)	763(66.6)	1,146(100)

4) 정체성 요인

다문화 가정이 가진 다문화적 특성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정체성 요인에 대해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정체성 변인의 발달추이를 살펴보았다.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자신의 국적에 대한 인식과 한국인정체성을, 다문화정체성의 변인으로 다문화수용성과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1) 국가정체성: 국적에 대한 인식

다문화청소년의 국적에 대한 인식의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신이 한국 사람 또는 외국인부모님 나라사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매년 70%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부모님 나라사람으로 인식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

의 비율은 2013년 조사 이후 1%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을 한국사람인 동시에 외국인부모님 나라사람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2011년도 조사결과 21.7%에서 2019년도 기준 26.3%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II-22. 국적에 대한 인식 변화추이

(단위: 빈도(%))

년도	한국사람	한국사람인 동시에 외국인부모님 나라사람	외국인부모님 나라사람	잘 모르겠다	기타	합계
2011	1,194(73.0)	355(21.7)	54(3.3)	31(1.9)	1(.1)	1,635(100)
2012	1,105(73.7)	343(22.9)	24(1.6)	28(1.9)	-	1,500(100)
2013	1,081(74.9)	345(23.9)	10(.7)	7(.5)	-	1,443(100)
2014	1,021(74.0)	341(24.7)	8(.5)	10(.7)	-	1,380(100)
2015	993(73.7)	330(24.5)	12(.9)	12(.9)	-	1,347(100)
2016	982(73.9)	325(24.5)	13(1.0)	8(.6)	1(.1)	1,329(100)
2017	906(71.9)	332(26.3)	11(.9)	11(.9)	-	1,260(100)
2018	852(71.2)	328(27.4)	7(.6)	7(.6)	3(.3)	1,197(100)
2019	831(72.5)	301(26.3)	5(.4)	8(.7)	1(.1)	1,14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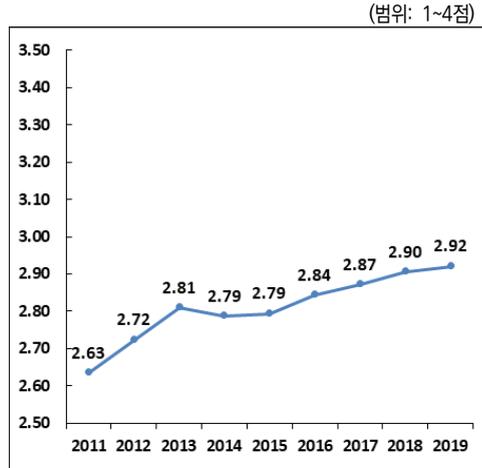
(2) 국가정체성: 한국인정체성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인정체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에 대한 생각을 묻는 4점 척도 4개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한국인정체성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 평균 2.63점이었던 한국인정체성은 2013년 조사에서 평균 2.81점으로 높아져 전체 조사기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조사에서 평균 2.79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 평균 2.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Ⅶ-23. 한국인정체성 변화추이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1	2.63 ^a	0.67	32.92 ***
2012	2.72 ^b	0.64	
2013	2.81 ^c	0.64	
2014	2.79 ^d	0.66	
2015	2.79 ^e	0.65	
2016	2.84 ^f	0.64	
2017	2.87 ^g	0.62	
2018	2.90 ^h	0.64	
2019	2.92 ⁱ	0.65	



*** $p < .001$, Bonferroni: a < b < c < h, i. a < d, e < g, h, i. a < b < f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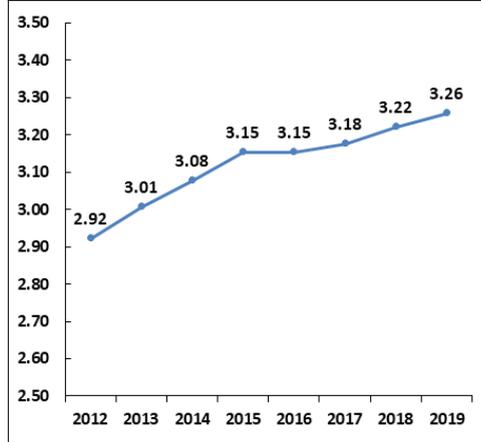
(3) 다문화정체성: 다문화수용성

2012년 조사에는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에 대한 수용정도를 보여주는 다문화 수용성 변인이 추가되었다. 다문화수용성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관한 4점 척도 5개 문항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조사결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재학 시기에 해당하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뒤, 이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를 제외한 모든 시기의 평균이 3점 이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에 대해 대체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I-24. 다문화수용성 변화추이

(범위: 1~4점)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2	2.92 ^a	0.57	68.55 ***
2013	3.01 ^b	0.53	
2014	3.08 ^c	0.54	
2015	3.15 ^d	0.54	
2016	3.15 ^e	0.55	
2017	3.18 ^f	0.53	
2018	3.22 ^g	0.55	
2019	3.26 ^h	0.54	



*** $p < .001$, Bonferroni: a < b < c < d, e < g, h. c < f <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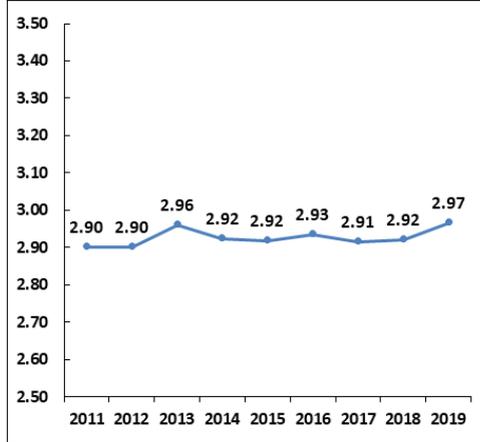
(4) 다문화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정체성 영역의 또 다른 변인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 및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에 대한 수용정도를 보여주는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조사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이중문화수용태도는 4점 척도 기준 평균 2.9점을 유지하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문화와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를 구분하여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한국문화 수용태도가 평균 3.19에서 3.31점 사이로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 수용태도의 평균인 2.58~2.69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문화수용태도는 초등학교 재학 시기인 2011년에서 2013년에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뒤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의 수용태도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아진 2016년도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VII-25. 이중문화수용태도(전체) 변화추이

(범위: 1~4점)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1	2.90 ^a	0.40	5.87 ***
2012	2.90 ^b	0.40	
2013	2.96 ^c	0.37	
2014	2.92 ^d	0.38	
2015	2.92 ^e	0.38	
2016	2.93 ^f	0.38	
2017	2.91 ^g	0.39	
2018	2.92 ^h	0.42	
2019	2.97 ⁱ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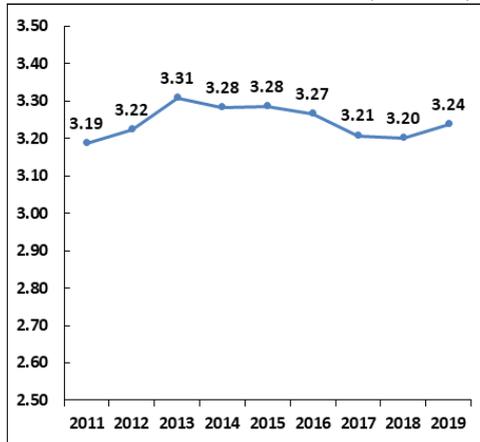


*** $p < .001$, Bonferroni: a, b, d, g < c, i. h < i.

표 VII-26. 이중문화수용태도(한국문화) 변화추이

(범위: 1~4점)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1	3.19 ^a	0.51	13.20 ***
2012	3.22 ^b	0.48	
2013	3.31 ^c	0.44	
2014	3.28 ^d	0.47	
2015	3.28 ^e	0.45	
2016	3.27 ^f	0.47	
2017	3.21 ^g	0.46	
2018	3.20 ^h	0.49	
2019	3.24 ⁱ	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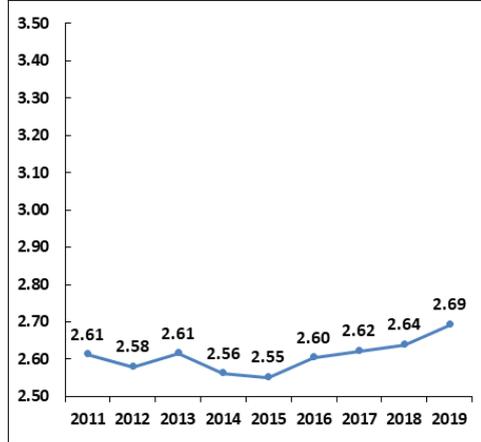


*** $p < .001$, Bonferroni: a, b, g, h < d, e. a, b, g, h, i < c. a, g, h < f

표 VII-27. 이중문화수용태도(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 변화추이

(범위: 1~4점)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1	2.61 ^a	0.57	10.71 ***
2012	2.58 ^b	0.58	
2013	2.61 ^c	0.55	
2014	2.56 ^d	0.56	
2015	2.55 ^e	0.56	
2016	2.60 ^f	0.57	
2017	2.62 ^g	0.58	
2018	2.64 ^h	0.59	
2019	2.69 ⁱ	0.59	



*** $p < .001$, Bonferroni: a, b, c < i. e < c. d, e < f, g, h < i

5) 신체발달 및 건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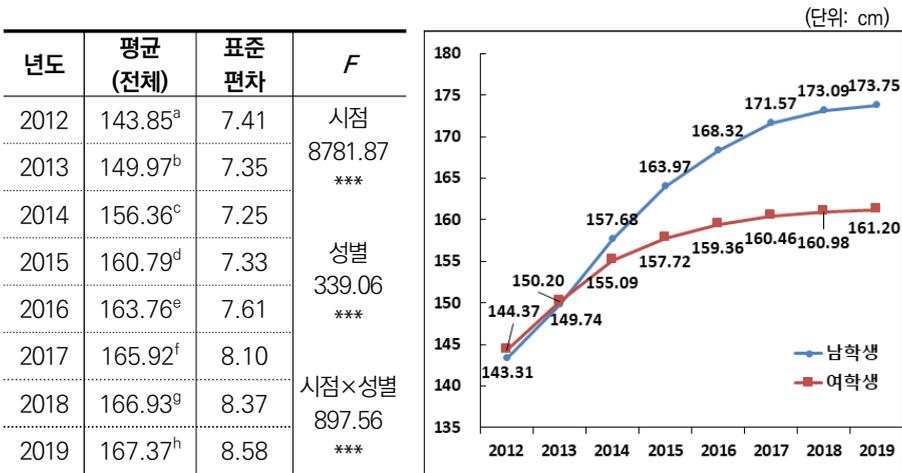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발달 및 건강영역의 9년간 발달추이를 분석하였다. 신체발달로는 키와 몸무게 변인을 사용하였고, 건강영역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변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1) 신체발달: 키와 몸무게

다문화청소년의 키와 몸무게의 경우, 2012년 조사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8년 동안 남학생의 키와 몸무게 변화는 여학생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는 점차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교육부, 2020a)에 따르면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174.0cm, 71.5kg로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2019년 평균 키와 몸무게인 173.75cm, 67.95kg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조사에 참여한 여학생의 2019년 평균 키와 몸무게는 161.20cm, 54.99kg으로 전국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평균 신체발달 수준(161.20cm, 58.kg)과 비교할 때, 몸무게는 다소 적으나 신장은 평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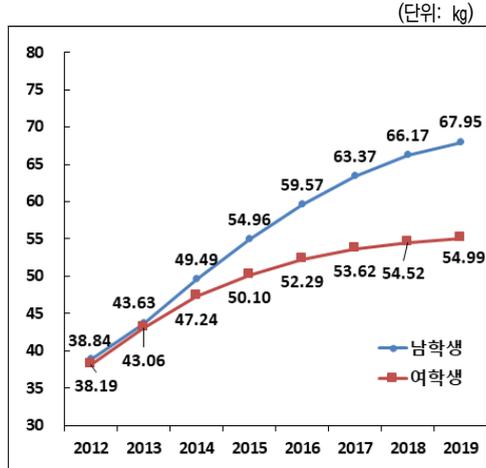
표 VII-28. 키 변화추이



*** $p < .001$, Bonferroni: a < b < c < d < e < f < g < h

표 VII-29. 몸무게 변화추이

년도	평균 (전체)	표준 편차	F
2012	38.51 ^a	9.22	시점 4244.15 ***
2013	43.34 ^b	9.72	
2014	48.35 ^c	10.22	
2015	52.50 ^d	10.53	성별 113.84 ***
2016	55.89 ^e	11.37	
2017	58.44 ^f	11.93	
2018	60.28 ^g	12.66	시점×성별 369.26 ***
2019	61.40 ^h	13.21	



*** $p < .001$, Bonferroni: a < b < c < d < e < f < g <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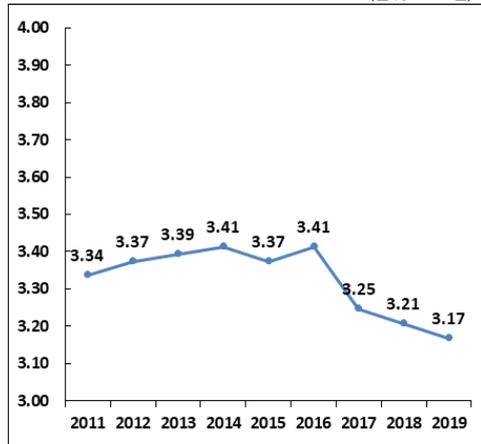
(2)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또래 청소년과 비교할 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다문화청소년들의 주관적 인식 수준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 3점 이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 조사 시점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고, 그 결과 2019년 조사에서는 평균 3.17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VII-30.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추이

(범위: 1~4점)

년도	평균	표준 편차	F
2011	3.34 ^a	0.61	34.62 ***
2012	3.37 ^b	0.62	
2013	3.39 ^c	0.61	
2014	3.41 ^d	0.61	
2015	3.37 ^e	0.66	
2016	3.41 ^f	0.59	
2017	3.25 ^g	0.61	
2018	3.21 ^h	0.60	
2019	3.17 ⁱ	0.64	



*** $p < .001$, Bonferroni: g, h < a, b, c, e, f. a < d. i < g

3. 소결

본 장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가정, 학교생활 및 성취, 심리·사회적응, 정체성, 신체발달 및 건강 영역에서 전반적인 발달을 살펴보았다. 각 영역의 주요 9년간 발달추이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요인의 변인 중 하나인 월평균 가구소득은 매년 상승하고는 있으나 가계동향조사(KOSIS 국가통계포털, 2020)의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가계동향조사 기준 소득분위 2~3분위 사이에 해당되었던 반면, 2017년 이후 소득분위 3~4분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가족관계와 관련된 변인인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비교하면 모든 조사시점에서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는 어머니에 비해 낮았으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 시기 동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역시 전반적으로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수준이 유지되나, 고등학교 진학 시기에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추이의 원인으로 부모와 자녀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녀가 청소년 초기에서 후기로 성장함에 따라 부모-자녀갈등의 빈도는 감소하나 갈등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박영신, 2016).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상황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할 때(박영신, 2016), 갈등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입장 차이를 서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감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갈등해결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급에 상관없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의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이 비율은 증가하였다. 아울러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수준도 모든 시점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 관련 변인의 변화추이에서 특징적인 점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성취동기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 이후부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습동기와 유능감이 함께 감소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연구결과(김아영, 2008)와 다소 차이가 이다. 하지만 학년별 학업성취와 학습동기 간의 관계를 비교한 조한익과 권혜연(2010)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학습수준의 난이도가 낮은 저학년의 학습동기는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내용의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 학습동기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대신 학습기술의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학습동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나 심화된 내용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학습기술의 습득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응 발달추이에 있어 주목할 점은 삶의 만족도가 다른 심리적응 변인인 우울 및 신체적 만족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추이는 선행연구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김은혜, 서지은, 노충래(2019)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삶의 만족도 평균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전현정과 정혜원(2016)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삶의 만족도는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병선(2019)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사이 삶의 만족도는 소폭 상승하나 이후 고등학교 1학년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 동안 삶의 만족도 일차함수 변화율은 양의 값이지만 이차함수 변화율은 음의 값으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다 그 이후 낮아지는 비선형적 변화궤적이 제시된 반면(김소영, 윤기봉, 2016), 고등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까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변화는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정문경, 2020). 각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대상의 연령 및 연구모형 등의 차이로 청소년 삶의 만족도 변화추이는 다르게 보고되었으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영향변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김명자, 손은령, 2018; 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2014; 김은혜 외, 2019; 성경주, 김재철, 2017; 이현정, 손수경, 홍세희, 2018).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여러 선행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소영, 윤기봉, 2016; 김은혜 외, 2019; 전현정, 정혜원, 2016; 정문경, 2020).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의 어려움 정도는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낮아지는 추이가 나타났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 및 학교공부에서의 어려움 정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개별 변인의 변화추이를 각각 분석하였으므로 여러 변인들 사이의 상관 및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추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의 변화추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볼 때, 부모 및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못지않게 학업과 관련된 적응 및 만족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적응 및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살펴본 다문화청소년의 9년간 변화추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위축은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다소 높아졌으며, 비행경험 수준은 고등학교 진학시점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으나 여전히 10점 척도 기준 1점미만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양계민 외(2019)의 연구에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는 동안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잠재프로파일이 부적응 또는 평균수준에서 우수 적응으로 전이하는데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친한 친구의 수는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우수적응 수준을 유지하는데 유의한 영향요인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학교 내에서 도와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양계민 외, 2019)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2019년 기준 약 33%)이 학교 내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는 청소년(2019년 기준 약 6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심리·사회적응에 있어 가족 및 학교에서의 지지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 및 지지 또한 주요한 영향요인이므로(박영숙, 최효선, 민소영, 2017; 정민희, 2020)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인 또는 부모가 가지는 이주배경으로 인한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은 자신을 '한국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에 따른 인식의 큰 변화는 없었다. 이와 함께 다문화수용성도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변화추이는 비(非)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었다(박혜숙, 2020; 연보라, 2017; 이수경, 2015). 이는 본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이 국내출생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과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국가 및 다문화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발달 또한 꾸준한 성장추이를 보였으며, 동일 연령대의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교육부, 2020a)에서 보고된 발달수준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은 고등학교 진학 시점부터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2019년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질병관리본부, 2019)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기준, 본인이 건강한 편이거나 매우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학생의 비율은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약 77%인 반면 고등학교 3학년은 약 64%로 13%p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9). 즉,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의 부정적 변화는 다문화청소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해당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추이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박미라, 양현주, 2018;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또래 및 지역사회 구성원 간 관계가 청소년기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성준, 2018).

이상 살펴본 다문화청소년의 9년간 발달추이 분석 결과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은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분절적인 지원이 아닌 청소년의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이 고려된 복합적이고 유기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의 9년간 발달추이 분석의 각 영역별 주요결과를 표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I-31. 다문화청소년 9년간 변화추이 주요 분석결과

영역	주요 분석결과
1) 가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2019년 가계동향조사 기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분위 3분위에서 4분위 수준에 해당함 ■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는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에 비해 모든 시기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며, 고등학교 진학 이후 아버지 및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2)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마다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함 ■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성취동기는 높아지나,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3) 심리·사회적응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우울 및 신체만족도 등 다른 심리적응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 ■ 사회적 위축 수준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비행경험 수준은 고등학교 진학을 기점으로 높아지나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유지됨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학교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한다고 응답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2019년 기준 학교 안에서 도움을 청할 어른의 존재 비율의 절반 수준에 그침
4) 정체성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조사 시점에서 자신이 한국사람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이 대다수였으며, 한국인 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은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5)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발달에 있어서도 꾸준한 성장추이를 보이며 동일 연령대의 전국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나, 주관적 건강상태는 고등학교 진학이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

○———— 제Ⅷ장

2011년과 2019년 시기의 집단별 비교 : 1, 2기 패널 비교

- 1. 분석개요
- 2. 분석결과
- 3. 소결



2011년과 2019년 시기의 집단별 비교 : 1, 2기 패널 비교*

1. 분석개요

이 장에서는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구축된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1기 패널 1차년도 자료와 이후 9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에 새롭게 구축된 2기 패널의 1차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개인, 환경, 다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 9년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1) 분석변인

기본적으로 두 시점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2011년과 2019년에 모두 조사된 변인을 사용해야한다. 더불어 같은 개념의 변인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측정문항의 내용, 기술 방식, 척도 등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변화가 발생한 문항은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분석에 포함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2기 패널의 조사문항은 1기 패널과 상호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1기 패널 조사문항을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다문화적 환경의 변화요인을 반영하는 동시에 조사 참여자에게 부담되지 않을 수준의 간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사문항설계 방향 및 원칙에 따라 일부 변인의 추가 및 삭제, 하위 문항 수정, 응답방식 변경 등 여러 측면에서의

* VIII장은 장윤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변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시점 간 비교분석에 사용하기 위한 변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두 시점에 실시된 조사의 청소년 대상 설문문항의 내용 및 척도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각 시기별 청소년 대상 조사변인을 비교하면 <표 Ⅷ-1>과 같다.

표 Ⅷ-1. 1기 패널(2011년 조사)과 2기 패널(2019년 조사) 간 청소년 대상 조사변인 비교

구분		내용	1기 패널	2기 패널	비고
대영역	소영역				
개인	심리 사회 적응	건강평가	○	○	2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구분
		신체만족도	○	×	
		스트레스	×	○	
		자존감	○	○	하위문항 모두 불일치
		자아탄력성	○	×	
		사회적 역량	×	○	
		삶의 만족도	○	○	
		현재 걱정거리	×	○	
		차별경험 피해여부 및 대처	×	○	
		차별에 대한 생각	×	○	
	인지	친한 친구 수	○	○	2기: 친구의 출신국별 조사
		학교성적	○	○	1기: 교과별 조사
		성적에 대한 만족도	○	○	
		성취동기	○	×	
	진로	희망교육수준	○	○	2기: 응답 항목 추가
		희망 직업	×	○	
		직업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	○	×	
		학업을 마친 후 일하고 싶은 나라	×	○	
		미래, 진로, 진학관련 대화(상담) 를 주로 하는 사람	×	○	
	기타	방과 후 활동	×	○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	×		
문화생활 경험		×	○		

구분		내용	1기 패널	2기 패널	비고
대영역	소영역				
환경	부모	부모님의지지	×	○	
		가족의 지지	○	×	
		부모에 대한 자랑스러움	○	×	
		외국출신 부모와의 관계 어려움	○	×	
		부모의 양육태도	○	○	2기: 하위문항 2개 추가
		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	○	
		부모님과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	
		방과 후 보호자 부재여부	×	○	
		가정형편	×	○	
	친구	친구의지지	○	○	2기: 1기 문항 중 3개 하위문항만 사용
		교우관계	○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	
	학교	학교생활	○	○	하위문항 모두 불일치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전체)	×	○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친구)	○	○	응답항목 및 응답방식 불일치 1기: 중복응답 2기: 1개 선택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	○	응답항목 및 응답방식 불일치 1기: 1개 선택 2기: 3순위 까지 선택
		교사의지지	○	○	2기: 1기 문항 중 3개 하위문항만 사용
		교사와의 관계	○	×	
		학교 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	○	
		지역 사회	학교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	○
	다문화	언어 능력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능력	○	○

구분		내용	1기 패널	2기 패널	비고
대영역	소영역				
		부모와의 의사소통	○	○	
		부모 간 사용언어	○	×	
		외국출신 부모나라 언어능력	○	○	1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별 조사, 4점 척도 2기: 5점 척도
		외국출신 부모나라 언어교육	×	○	
		자신의 한국어 실력	○	○	1기: 4점 척도 2기: 5점 척도
		사용 가능한 외국어	○	×	
		국적에 대한 인식	○	○	
	이중 문화	외국 출신 부모나라 방문 횟수	○	○	
		외국 출신 부모 가족의 한국방문	○	×	
		외국 출신 부모나라에 대한 관심	○	×	
		문화적응스트레스	○	○	2기: 하위문항 1개 삭제
		한국인정체성	○	○	
		이중문화수용태도	○	○	

※ 1기와 2기 패널 공통 조사변인은 음영 처리됨.

1기와 2기 패널의 청소년대상 조사변인의 설문문항을 비교한 결과, 25개 변인이 두 시점에서 모두 조사되었다. 그러나 자존감, 학교생활 변인은 해당 변인을 측정하는 하위문항이 모두 변경되어 두 시점 간 비교분석 변인에서 제외되었다. 4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변경된 다문화 영역의 언어관련 변인도 1기와 2기패널 비교분석에 사용되지 않았다. 건강평가 변인의 경우도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조사했던 1기 패널 조사와 다르게 2기 패널 조사에서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구분함에 따라 응답자가 생각하는 변인의 개념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변인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친구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의 경우, 응답항목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응답 방식 또한 1기 패널 조사 당시 순위에 무관하게 3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2기 패널 조사에서는 가장 어려운 항목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비록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변인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분석 변인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표 Ⅷ-2. 1기 패널(2011년)과 2기 패널(2019년) 비교분석 변인

대영역	소영역	비교변인
1) 개인	(1) 심리·사회적응	① 삶의 만족도 ② 친한 친구 수
	(2) 인지	① 학교성적(주관적 성취수준) ② 성적에 대한 만족도
	(3) 진로	① 희망교육수준
2) 환경	(1) 부모	① 부모의 양육태도
	(2) 친구	① 친구의 지지 ②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3) 학교 및 지역사회	① 교사의 지지 ② 학교 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③ 학교 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3) 다문화	(1) 언어능력	① 부모와의 의사소통
	(2) 이중문화	① 국적에 대한 인식 ② 외국출신 부모나라 방문 여부 ③ 문화적응스트레스 ④ 한국인정체성 ⑤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문항 및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경우를 비교분석 변인 선정의 기본조건으로 설정하였으나,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비교분석의 변인에 포함하였다. 예컨대, 다문화 영

역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같이 2기 패널 조사에서 1기 패널 조사에 사용된 하위문항 가운데 한 문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변인의 설문문항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삭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문항의 내용과 척도, 응답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되어 응답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교분석의 변인으로 선정되었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17개 변인이 1기와 2기 패널의 비교분석 변인으로 선정되었다.

2) 분석방법

특정 시기 또는 일정한 기간에 따른 인구통계학 또는 사회적 변화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관찰된 변화를 해석하는데 있어 연령 효과(aging effect), 기간 효과(period effect),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를 고려할 수 있다(Blanchard, Bunker, & Wachs, 1977). 연령 효과(aging effect)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변화로 특정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코호트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태어난 해와 무관하게 65세부터 운전면허 보유율이 낮아진다면, 운전면허 보유율의 변화는 연령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기간 효과(period effect)는 특정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나이와 코호트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효과를 의미한다. 자동차 대량생산에 따른 특정 시기의 신규 운전자 수 증가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경우, 기간 효과의 발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는 특정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며 공유하게 되는 집단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나 변화를 의미한다. 만약 연령 효과가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호트 간의 규칙적인 차이가 발생했다면 이를 코호트 효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령에 상관없이 1920년대에 태어난 사람의 특정 질병의 발병률이 1930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일관되게 높았다면 이러한 차이는 코호트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실시한 2011년에 구축된 1기 패널과 2019년에 구축된 2기 패널 간의 비교분석의 경우, 9년 간격으로 두 시점 기준 동일한 학년에 해당하는 두 집단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즉, 같은 해에 태어난 동일 연령에 해당하는 다문화청소년으로 구성된 두 개의 집단 간 변화인 코호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두 시점 간 발생한 각 영역별 변인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각 영역별 변인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개인 및 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9년의 간격을 두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개인 및 가정의 특성에 따른 각 영역별 변인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비교분석을 위한 개인 및 가정의 특성으로는 청소년의 성별, 거주지 지역규모, 부모의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이 고려되었다. 통계분석방법은 분석에 사용된 변인의 유형을 고려하여 독립표본 t-검정(t-test), 일원분산분석(ANOVA), 교차분석(χ^2 -test) 등을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경우, 하위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Bonferroni 방법을 적용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및 집단비교분석은 모두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2.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1기 패널의 1차 조사가 실시되었던 2011년 조사 자료와 9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에 동일 학년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패널 간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비교분석에 사용한 개인 및 가정의 특성변인을 각 패널별로 비교하였고, 이어서 1기와 2기 패널 비교분석 결과를 개인 영역, 환경 영역, 다문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특성변인

먼저 비교분석에 사용된 개인 및 가정의 특성변인을 1기와 2기 패널 별로 비교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특성변인은 다문화청소년의 성별, 거주지 기준 지역규모, 부모의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거주기간이며, 두 시점 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부 변인의 경우 원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출하였다. 2011년에 구축된 1기 패널에는 전국 1,635명의 다문화청소년이 포함되었고, 2019년에 구축된 2기 패널에는 2,246명이 포함되었다. 1기와 2기 패널 모두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약 50%로 성별에 따라 균등하게 구성되었다.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3개의 범주(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로 지역규모를 구분하였다. 각 지역규모별 분포를 비교하면, 1기 패널의 경우 읍·면지역의 비율 42.6%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2기 패널의 지역규모는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각각 최종 학력수준을 조사한 원 자료를 바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수준 중 높은 값을 선택하여 부모의 교육수준 변인을 재생성 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2~3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으로 구분하였으

며, 각 교육수준별 1기와 2기 패널 분포의 경향을 유사하였다. 1기와 2기 패널 모두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중학교 졸업이하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월평균 가구소득 변인의 경우, 1기 및 2기 패널 1차년도 조사가 실시된 해의 가계수지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2016, 2020)에서 발표한 가계조사동향 결과의 2011년과 2019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의 경계값을 사용하여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까지 5개 범주를 가지는 변인으로 변환하였다. 2011년 2분기의 전국 2인 이상 전체가구의 소득 1분위에서 5분위의 경계값은 각각 191만원, 296만원, 390만원, 516만원이다(통계청, 2016). 2019년 2분기의 전국 2인 이상 전체가구의 소득 5분위별 경계값은 각각 219만원, 356만원, 482만원, 676만원이었다(통계청, 2020). 소득 5분위별 비율을 비교하면 1기 패널의 경우 1분위의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았던 반면, 2기 패널에서는 1분위 비율은 28.8%로 감소하였다. 또한 소득 4분위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도 1기 패널에 비해 2기 패널이 더 높았다(1기 패널: 8.3%, 2기 패널: 12.7%). 그러나 전국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비율은 1기와 2기 패널 각각 1.3%, 2.2%에 불과하였다. 더불어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 중위값(2011년 중위값: 314만원, 2019년 중위값: 419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중위값 미만'의 비율이 1기와 2기 패널 모두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즉, 9년 동안 1기 패널에 비해 2기 패널의 가구 소득수준은 좋아졌으나, 전국 평균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거주기간의 경우, 한국거주기간을 조사한 1기 패널과 달리 2기 패널에서는 한국 입국시기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된 2019년 하반기(2019년 7월)를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한 기간을 계산한 뒤, 원자료의 분포를 고려하여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대부분 다문화청소년의 외국출신 부모는 한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표 Ⅷ-3. 개인 및 가정 특성변인 패널 간 비교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빈도 (%)	빈도 (%)
전체		1,635 (100.0)	2,246 (100.0)
학생 성별	남자	805 (49.2)	1,144 (50.9)
	여자	830 (50.8)	1,102 (49.1)
지역규모	대도시	443 (27.1)	728 (32.4)
	중소도시	496 (30.3)	814 (36.2)
	읍·면지역	696 (42.6)	704 (31.3)
부모의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01 (6.2)	240 (10.7)
	고등학교 졸업	764 (46.7)	1,170 (52.1)
	2~3년제 대학 졸업	391 (23.9)	288 (12.8)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379 (23.2)	548 (24.4)
월평균 가구소득 (5분위)	1분위(하위 20%)	663 (40.6)	647 (28.8)
	2분위	557 (34.1)	872 (38.9)
	3분위	279 (17.1)	440 (19.6)
	4분위	114 (7.0)	235 (10.5)
	5분위(상위 20%)	21 (1.3)	49 (2.2)
월평균 가구소득 (2분위)	중위값 미만	1,455 (89.0)	1,867 (83.2)
	중위값 이상	179 (11.0)	376 (16.8)
	합계*	1,634 (100.0)	2,243 (100.0)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70 (4.5)	140 (6.2)
	5년 이상~10년 미만	93 (6.0)	195 (8.7)
	10년 이상~15년 미만	1,032 (66.2)	1,580 (70.4)
	15년 이상	363 (23.3)	329 (14.7)
	합계*	1,558 (100.0)	2,244 (100.0)

* 무응답 및 '잘 모름' 응답 사례 제외로 인해 전체 사례수와 합계 불일치

2) 개인 영역

1기와 2기 패널 조사변인 가운데 비교 가능한 개인 영역 변인으로는 심리·사회적응 관련 변인인 ‘삶의 만족도’와 ‘친한 친구 수’, 인지 관련 변인인 ‘학교성적(주관적 성취수준)’과 ‘성적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희망교육수준’ 변인이 있다. 이들 변인에 대한 9년간의 변화를 개인 및 가정의 특성변인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리·사회적응: 삶의 만족도

4점 척도로 조사한 삶의 만족도는 1기와 2기 패널 모두 전체 평균이 3점을 넘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두 시기 모두 성별 및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하위 1분위 가정의 청소년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는 소득수준 2분위 이상 가정의 청소년보다 낮았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2기 패널에서만 유의했는데,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1기 패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4. 삶의 만족도 패널 간 비교

(단위: 4점 척도)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3.24	0.59	-	3.35	0.56	-
학생 성별	남자	3.24	0.59	0.00	3.34	0.54	-0.57
	여자	3.24	0.59		3.36	0.56	
지역규모	대도시	3.19	0.60	2.76	3.35	0.56	0.07
	중소도시	3.23	0.60		3.35	0.55	
	읍·면지역	3.27	0.57		3.34	0.54	
부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a	3.17	0.65	1.03	3.25	0.61	3.74* a < d
	고졸 ^b	3.25	0.58		3.34	0.53	
	2~3년제 대졸 ^c	3.21	0.60		3.38	0.57	
	4년제 대졸이상 ^d	3.26	0.58		3.39	0.56	
월평균 가구 소득 ¹⁴⁾	1분위 ^a	3.21	0.62	3.44* a < d	3.27	0.59	7.40 *** a < b, c, d
	2분위 ^b	3.23	0.57		3.36	0.53	
	3분위 ^c	3.25	0.57		3.40	0.54	
	4~5분위 ^d	3.39	0.51		3.41	0.53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a	3.08	0.69	3.14* a < b	3.42	0.55	1.13
	5년 이상~ 10년 미만 ^b	3.37	0.52		3.36	0.57	
	10년 이상~ 15년 미만 ^c	3.24	0.59		3.34	0.55	
	15년 이상 ^d	3.23	0.57		3.36	0.57	

* $p < .05$, *** $p < .001$

14)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5분위'의 비율이 전체의 2% 수준으로 매우 낮아 이후 비교분석에서는 '4분위' 범주와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2) 심리·사회적응: 친한 친구의 수

친한 친구의 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친한 친구의 수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1기 패널의 전체 평균은 9.88명으로 2기 패널 전체 평균인 7.37명에 비해 높았고 편차도 상대적으로 컸다. 1기와 2기 패널 모두 남학생이 응답한 친한 친구의 수가 여학생에 비해 많았다.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친한 친구의 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친한 친구의 수 차이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1기 패널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이 응답한 친한 친구의 수도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2기 패널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른 친한 친구의 수의 경우, 1기 패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2기 패널에서는 지역 규모가 작아질수록 친구의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 또한 2기 패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거주기간에 짧을수록 친한 친구의 수를 더 크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인지: 학교성적(주관적 성취수준)

자신이 생각하는 학교성적 수준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전체 평균은 매우 유사하였으며, 각각 3.39점과 3.40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가정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도 두 패널 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교육수준 및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1기와 2기 패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졸이상인 집단의 학교 성적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성적은 높아지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학교성적은 1기 패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VIII-5. 친한 친구의 수 패널 간 비교

(단위: 명)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9.88	9.04	-	7.37	7.57	-
학생 성별	남자	10.34	9.68	2.04*	7.99	8.61	3.99
	여자	9.42	8.35		6.73	6.26	***
지역규모	대도시 ^a	10.49	9.37	2.76	8.25	9.26	10.23
	중소도시 ^b	10.65	9.51		7.39	7.46	***
	읍·면지역 ^c	8.94	8.38		6.45	5.34	a, b > c
부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a	8.44	8.58	1.85	7.02	6.97	2.65
	고졸 ^b	10.01	9.13		7.15	6.99	
	2~3년제 대졸 ^c	9.39	8.48		7.09	7.02	
	4년제 대졸이상 ^d	10.49	9.48		8.16	9.11	
월평균 가구소득	1분위 ^a	9.22	8.58	6.94 *** a, b, c < d	6.83	6.63	3.01* a < c
	2분위 ^b	9.67	8.67		7.53	7.98	
	3분위 ^c	10.35	8.99		8.14	9.00	
	4-5분위 ^d	13.01	11.80		6.96	5.55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a	8.94	7.31	1.67	11.09	12.98	17.52 *** a, b > c, d
	5년 이상~ 10년 미만 ^b	11.67	9.66		9.13	8.51	
	10년 이상~ 15년 미만 ^c	9.70	8.83		6.98	6.85	
	15년 이상 ^d	9.58	8.97		6.67	6.59	

* $p < .05$, *** $p < .001$

표 VIII-6. 학교성적(주관적 성취수준) 패널 간 비교

(단위: 5점 척도)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3.39	0.68	-	3.40	0.77	-
학생 성별	남자	3.41	0.71	1.18	3.40	0.78	0.39
	여자	3.37	0.66		3.39	0.76	
지역규모	대도시 ^a	3.44	0.67	1.88	3.43	0.76	2.19
	중소도시 ^b	3.39	0.71		3.41	0.79	
	읍·면지역 ^c	3.36	0.67		3.35	0.75	
부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a	3.22	0.70	14.49 *** a, b, c < d	3.36	0.82	7.06 *** a, b < d
	고졸 ^b	3.34	0.68		3.35	0.75	
	2~3년제 대졸 ^c	3.35	0.67		3.39	0.75	
	4년제 대졸이상 ^d	3.58	0.66		3.53	0.79	
월평균 가구소득	1분위 ^a	3.33	0.69	6.74 *** a, b, c < d	3.36	0.77	5.25** a, b, c < d
	2분위 ^b	3.41	0.67		3.37	0.79	
	3분위 ^c	3.40	0.68		3.39	0.73	
	4~5분위 ^d	3.61	0.67		3.56	0.78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a	3.39	0.79	3.54* b > c, d	3.24	0.91	2.31
	5년 이상~ 10년 미만 ^b	3.60	0.66		3.39	0.81	
	10년 이상~ 15년 미만 ^c	3.38	0.69		3.40	0.75	
	15년 이상 ^d	3.35	0.65		3.43	0.78	

* $p < .05$, ** $p < .01$, *** $p < .001$

(4) 인지: 성적 만족도

학교성적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과 함께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개인 및 특성변인에 따른 성적 만족도 차이는 두 패널에서 다른 경향을 보였다. 1기 패널의 경우 학생 성별, 지역규모,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적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월평균 가구소득과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2기 패널은 1기 패널 조사에서 나타났던 성별 및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는 반면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1기 패널에서와 마찬가지로 2기 패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앞서 기술한 개인 영역의 변인인 삶의 만족도, 친한 친구의 수, 학교성적 변인에서 1기와 2기 패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각 특성변인 별 성적만족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기 패널 남학생의 성적 만족도는 여학생보다 높으며,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성적 만족도는 낮아졌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1기와 2기 패널의 성적 만족도는 모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III-7. 성적 만족도 패널 간 비교

(단위: 4점 척도)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84	0.71	-	2.98	0.68	-
학생 성별	남자	2.89	0.73	2.38*	2.98	0.69	0.34
	여자	2.80	0.69		2.97	0.67	
지역규모	대도시 ^a	2.74	0.72	6.87** a < b, c	3.02	0.64	1.85
	중소도시 ^b	2.86	0.72		2.95	0.70	
	읍·면지역 ^c	2.90	0.69		2.96	0.69	
부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a	2.69	0.72	4.20** a < d	2.92	0.73	2.81* a < d
	고졸 ^b	2.82	0.71		2.95	0.68	
	2~3년제 대졸 ^c	2.83	0.74		2.99	0.67	
	4년제 대졸이상 ^d	2.94	0.67		3.04	0.66	
월평균 가구소득	1분위 ^a	2.81	0.72	2.38	2.97	0.68	1.52
	2분위 ^b	2.83	0.71		2.97	0.68	
	3분위 ^c	2.89	0.67		2.96	0.70	
	4-5분위 ^d	2.97	0.71		3.06	0.64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a	2.79	0.80	1.61	2.76	0.78	6.86 *** a < c, d
	5년 이상~ 10년 미만 ^b	3.00	0.72		2.88	0.67	
	10년 이상~ 15년 미만 ^c	2.85	0.70		3.00	0.67	
	15년 이상 ^d	2.84	0.70		3.00	0.67	

* $p < .05$, ** $p < .01$, *** $p < .001$

(5) 진로: 희망교육수준

패널 간 비교분석에 사용한 개인 영역의 마지막 변인은 청소년이 원하는 최종 교육수준을 조사한 희망교육수준이다. 해당 변인을 위한 조사문항에서 제시된 응답항목에 있어 1기와 2기 패널 간 차이가 있다. 1기 패널에서는 교육수준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총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했던 것과 달리 2기 패널에서는 대학교와 대학원을 구분한 5개 범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비교분석에서는 2기 패널에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선택한 경우를 하나의 범주로 변환하였다. 더불어 매우 소수의 청소년이 선택한 초등학교 역시 중학교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비교분석에 사용하였다.

1기와 2기 패널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두 패널 간 특성변인 별 희망교육수준은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먼저, 전체 응답비율을 비교할 때, 두 패널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대학교 이상 수준을 최종 학력수준으로 선택하였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대학교 이상 수준을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희망교육수준 응답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두 패널 모두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대학교 이상 수준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의 교육수준 및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두 패널에서 동일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인 경우 희망교육수준으로 대학교 이상을 선택한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대학교 이상 선택비율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표 VIII-8. 희망교육수준 패널 간 비교

(단위: %)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중학교 이하	고등 학교	대학 이상	χ^2	중학교 이하	고등 학교	대학 이상	χ^2
전체		2.94	16.02	81.04	-	2.49	16.21	81.30	-
학생 성별	남자	2.73	18.51	78.76	7.35*	2.80	18.79	78.41	12.89 **
	여자	3.13	13.61	83.25		2.18	13.52	84.30	
지역 규모	대도시	1.81	13.77	84.42	7.81	2.34	10.99	86.68	24.16 ***
	중소도시	3.02	15.12	81.85		2.70	17.44	79.85	
	읍·면지역	3.59	18.10	78.30		2.41	20.17	77.41	
부모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1.98	25.74	72.28	13.95 *	4.58	18.75	76.67	18.36 **
	고졸	3.01	16.88	80.10		2.48	17.52	80.00	
	2~3년제 대졸	3.07	16.37	80.56		2.08	17.71	80.21	
	4년제 대졸이상	2.90	11.35	85.75		1.82	11.50	86.68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	3.47	18.85	77.68	15.13 *	3.25	20.56	76.20	19.23 **
	2분위	1.97	15.08	82.94		2.41	15.60	82.00	
	3분위	3.58	15.41	81.00		1.36	13.41	85.23	
	4~5분위	2.96	7.41	89.63		2.82	12.68	84.51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 기간	5년 미만	2.86	15.71	81.43	0.53	2.86	8.57	88.57	11.82
	5년 이상~ 10년 미만	3.23	16.13	80.65		1.03	12.31	86.67	
	10년 이상~ 15년 미만	3.20	16.38	80.43		2.59	17.28	80.13	
	15년 이상	2.48	16.25	81.27		2.74	16.72	80.55	

* $p < .05$, ** $p < .01$, *** $p < .001$

3) 환경 영역

다문화청소년의 부모, 친구, 학교 및 지역사회와 같은 환경 영역에서 9년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의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교사의지지, 학교 안과 밖에서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른의 존재 여부를 사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 부모의 양육태도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양육 방식의 유형에 따라 '감독적 양육태도'와 '방임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4점 척도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전체응답 평균을 비교해보면 감독적 양육태도는 1기 패널(평균 2.78)에 비해 2기 패널(평균 3.32)이 더 높았다.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감독적 양육태도는 1기 패널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2기 패널에서는 지역규모와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감독적 양육태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거주기간이 긴 경우에 비해 부모의 '감독' 정도는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적 양육태도는 감독적 양육태도에 비해 패널 간 차이는 작으나 1기 패널(평균 1.77)이 2기 패널(평균 1.64)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감독적 양육태도와 달리 청소년들이 인식한 부모의 '방임' 정도는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을 제외한 모든 특성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지역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방임적 양육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은 1기와

2기 패널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기 패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2기 패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II-9.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패널 간 비교

(단위: 4점 척도)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78	0.50	-	3.32	0.61	-
학생 성별	남자	2.76	0.52	-1.25	3.30	0.62	-1.90
	여자	2.79	0.48		3.35	0.59	
지역규모	대도시 ^a	2.78	0.48	0.06	3.40	0.60	9.66*** a > b, c
	중소도시 ^b	2.78	0.50		3.32	0.58	
	읍·면지역 ^c	2.77	0.51		3.26	0.63	
부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a	2.85	0.50	0.82	3.27	0.62	0.67
	고졸 ^b	2.77	0.51		3.33	0.60	
	2~3년제 대졸 ^c	2.76	0.48		3.34	0.62	
	4년제 대졸이상 ^d	2.78	0.51		3.33	0.61	
월평균 가구소득	1분위 ^a	2.76	0.51	0.57	3.28	0.61	1.79
	2분위 ^b	2.78	0.49		3.33	0.60	
	3분위 ^c	2.77	0.53		3.35	0.61	
	4~5분위 ^d	2.82	0.43		3.36	0.62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a	2.75	0.55	1.57	3.47	0.55	3.32* a > c
	5년 이상~ 10년 미만 ^b	2.79	0.49		3.34	0.57	
	10년 이상~ 15년 미만 ^c	2.75	0.50		3.30	0.61	
	15년 이상 ^d	2.82	0.48		3.34	0.65	

* $p < .05$, *** $p < .001$

표 VIII-10.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패널 간 비교

(단위: 4점 척도)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1.77	0.61	-	1.64	0.65	-
학생 성별	남자	1.83	0.63	4.06***	1.68	0.67	3.39**
	여자	1.71	0.59		1.59	0.62	
지역규모	대도시 ^a	1.70	0.59	4.92** a < c	1.64	0.66	12.77 ***
	중소도시 ^b	1.76	0.62		1.56	0.64	
	읍·면지역 ^c	1.82	0.62		1.73	0.64	
부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a	1.95	0.68	5.00** a > d	1.62	0.60	2.85* b > d
	고졸 ^b	1.78	0.61		1.66	0.66	
	2~3년제 대졸 ^c	1.77	0.58		1.67	0.68	
	4년제 대졸이상 ^d	1.69	0.62		1.57	0.62	
월평균 가구소득	1분위 ^a	1.83	0.62	7.65*** a, b > d; a > c	1.68	0.65	2.02
	2분위 ^b	1.77	0.60		1.64	0.65	
	3분위 ^c	1.70	0.62		1.63	0.66	
	4~5분위 ^d	1.59	0.56		1.56	0.62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a	1.76	0.63	1.20	1.57	0.63	0.58
	5년 이상~ 10년 미만 ^b	1.65	0.60		1.63	0.73	
	10년 이상~ 15년 미만 ^c	1.77	0.60		1.65	0.64	
	15년 이상 ^d	1.78	0.61		1.64	0.66	

* $p < .05$, ** $p < .01$, *** $p < .001$

(2) 친구: 친구의 지지

5점 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한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친구의 지지’는 1기와 2기 패널의 평균은 3.7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남학생이 인식하는 친구의 지지 수준은 여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이러한 차이는 1기와 2기패널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친구의 지지는 차이가 있었다.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소득 1, 2분위 집단의 평균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1기 패널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이 크게 벌어졌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이하인 집단과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집단의 친구의 지지 차이는 1기 패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친구: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경험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여부를 괴롭힘 유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유형에 상관없이 2기 패널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기 패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돌림, 집적거림, 무시, 신체폭력, 거짓소문 퍼트리기, 외모비하 중에서 집적거림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기와 2기 패널 모두 가장 높았으나, 2기 패널의 피해경험 비율은 12.6%로 1기 패널(18.8%)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따돌림 피해경험은 1기 패널의 경우 18.04%로 집적거림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던 반면, 2기 패널에서는 9.17%로 상당히 크게 낮아졌으며, 신체폭력 피해경험 역시 9.85% 수준에서 5.79%로 감소하였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VIII-11. 친구의 지지 패널 간 비교

(단위: 5점 척도)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3.74	0.94	-	3.85	0.82	-
학생 성별	남자	3.65	0.94	-3.87	3.73	0.80	-3.80
	여자	3.83	0.92	***	3.85	0.81	***
지역규모	대도시 ^a	3.82	0.93		3.84	0.77	
	중소도시 ^b	3.71	0.97	2.11	3.90	0.84	2.94
	읍·면지역 ^c	3.72	0.91		3.80	0.83	
부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a	3.57	0.99		3.77	0.87	
	고졸 ^b	3.70	0.93	3.46*	3.83	0.82	1.92
	2~3년제 대졸 ^c	3.76	0.93	a < d	3.92	0.80	
	4년제 대졸이상 ^d	3.85	0.92		3.88	0.80	
월평균 가구소득	1분위 ^a	3.71	0.95		3.79	0.85	
	2분위 ^b	3.70	0.92	4.50**	3.84	0.81	3.08*
	3분위 ^c	3.77	0.94	a, b < d	3.93	0.76	a < c
	4~5분위 ^d	4.02	0.86		3.89	0.84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a	3.61	0.95		3.89	0.89	
	5년 이상~ 10년 미만 ^b	3.95	0.97		3.95	0.83	
	10년 이상~ 15년 미만 ^c	3.71	0.94	2.30	3.84	0.82	1.31
	15년 이상 ^d	3.76	0.94		3.83	0.77	

* $p < .05$, ** $p < .01$, *** $p < .001$

표 VIII-12.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패널 간 비교

(단위: %)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마돌림	집적거림	무시	신체폭력	거짓소문	외모비하	마돌림	집적거림	무시	신체폭력	거짓소문	외모비하
진체	18.04	18.84	14.13	9.85	8.26	8.56	9.17	12.60	10.11	5.79	6.28	7.70
남자	20.12	22.48	17.52	14.04	10.19	10.68	10.75	15.73	12.41	8.30	7.69	9.62
여자	16.02	15.30	10.84	5.78	6.39	6.51	7.53	9.35	7.71	3.18	4.81	5.72
χ^2	4.65*	13.79***	14.99***	31.36***	7.79**	9.11**	6.99**	20.80***	13.64***	27.07***	7.93**	12.00**
대도시	16.70	19.41	14.45	7.45	7.00	7.45	8.24	11.13	8.65	4.81	5.08	6.46
중소도시	19.76	20.36	16.33	11.49	8.87	9.27	9.71	13.64	11.55	5.77	6.76	8.85
읍·면지역	17.67	17.39	12.36	10.20	8.62	8.76	9.52	12.93	9.94	6.82	6.96	7.67
χ^2	1.59	1.81	3.82	4.48	1.30	1.06	1.13	2.30	3.57	2.65	2.64	3.09
중졸이하	15.84	18.81	10.89	6.93	9.90	7.92	15.83	15.83	12.92	7.92	9.17	10.83
고졸	17.67	17.15	14.01	10.08	8.12	7.98	7.61	11.97	8.97	5.64	5.98	7.01
2~3년제 대졸	17.90	19.18	14.58	11.25	8.70	8.18	10.07	11.81	11.46	4.17	7.29	7.29
4년제 대졸이상	19.53	21.90	14.78	8.71	7.65	10.29	9.12	12.96	10.58	6.02	5.11	8.03
χ^2	0.97	3.78	1.08	2.44	0.66	1.90	16.50**	2.93	4.45	3.48	5.35	4.25
1분위	20.51	20.21	15.08	11.76	9.05	8.45	10.51	13.76	10.66	7.11	7.88	8.50
2분위	17.06	19.75	14.90	9.34	9.52	8.98	9.06	12.04	10.32	6.08	5.85	7.34
3분위	15.41	17.20	13.98	9.68	6.09	8.24	7.95	11.36	9.09	4.09	5.68	9.09
4~5분위	14.81	11.11	5.93	2.22	2.96	7.41	8.45	13.73	9.86	4.58	4.93	4.93
χ^2	5.37	6.89	8.29*	11.81*	8.48	0.40	2.36	1.97	0.78	5.29	4.24	5.00

(단위: %)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따들림	집적거림	무시	신체폭력	거짓소문	외모비하	따들림	집적거림	무시	신체폭력	거짓소문	외모비하
5년 미만	20.00	18.57	17.14	8.57	12.86	8.57	10.00	8.57	10.71	4.29	5.00	5.71
5년 이상~ 10년 미만	15.05	21.51	13.98	9.68	10.75	9.68	9.74	12.31	11.79	7.69	8.72	6.15
10년 이상~ 15년 미만	18.41	19.38	15.12	10.37	7.95	8.53	8.92	12.91	9.49	5.76	5.82	7.53
15년 이상	15.98	16.53	9.64	7.71	7.71	6.61	9.73	13.07	11.85	5.47	7.60	10.33
χ^2	1.80	1.90	7.41	2.27	2.99	1.65	0.43	2.28	2.43	1.94	3.89	4.70

* $p < .05$, ** $p < .01$, *** $p < .001$

(4) 학교 및 지역사회: 교사의 지지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담임선생님의 지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친구의 지지와 마찬가지로 전체평균은 두 패널 모두 3.5점보다 높아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학생의 성별에 따라 인식하는 교사의지지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기와 2기 패널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좀 높게 인식하였으나, 1기 패널에 비해 2기 패널의 성별 간 차이는 줄어들었다.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서도 1기와 2기 패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차이의 양상은 달랐다. 1기 패널의 경우,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이 5년~10년 사이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2기 패널에서는 거주기간에 길어질수록 교사의 지지 정도는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5) 학교 및 지역사회: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지체계를 파악을 목적으로 학교안과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고, 두 패널 간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먼저, 학교 안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하면, 1기 패널에서는 19.39%에 불과하였던 것과 2기 패널에서는 83.75%로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학교 밖에서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2기 패널의 비율 또한 1기 패널의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1기: 20.00%, 2기: 53.65%). 두 패널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어려울 때 학교 안과 밖에서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두 패널 간 다른 경향을 보였다. 1기 패널의 경우, 학교 밖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

이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2기 패널의 경우 학교 안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역규모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13. 교사의 지지 패널 간 비교

(단위: 5점 척도)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3.61	0.93	-	3.79	0.81	-
학생 성별	남자	3.50	0.93	-4.41 ***	3.73	0.80	-3.27**
	여자	3.71	0.93		3.85	0.81	
지역규모	대도시 ^a	3.62	0.94	1.00	3.83	0.79	2.34
	중소도시 ^b	3.56	0.94		3.80	0.83	
	읍·면지역 ^c	3.63	0.93		3.74	0.80	
부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a	3.52	0.94	1.23	3.80	0.84	1.32
	고졸 ^b	3.58	0.95		3.76	0.80	
	2~3년제 대졸 ^c	3.60	0.91		3.86	0.76	
	4년제 대졸이상 ^d	3.68	0.93		3.80	0.85	
월평균 가구소득	1분위 ^a	3.62	0.92	1.14	3.74	0.84	1.83
	2분위 ^b	3.60	0.95		3.79	0.80	
	3분위 ^c	3.54	0.96		3.85	0.79	
	4-5분위 ^d	3.71	0.86		3.82	0.81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a	3.66	0.87	3.50* b > c, d	3.97	0.80	4.07** a > c
	5년 이상~ 10년 미만 ^b	3.90	0.87		3.89	0.82	
	10년 이상~ 15년 미만 ^c	3.57	0.95		3.76	0.81	
	15년 이상 ^d	3.60	0.89		3.80	0.78	

* $p < .05$, ** $p < .01$, *** $p < .001$

표 VIII-14.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여부 패널 간 비교

(단위: %)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학교 안	학교 밖	학교 안	학교 밖
전체		19.39	20.00	83.75	53.65
학생 성별	남자	19.01	16.65	80.68	50.70
	여자	19.76	23.25	86.93	56.72
	χ^2	0.15	11.15**	16.12***	8.17**
지역 규모	대도시	18.28	21.44	87.91	55.22
	중소도시	16.94	15.93	84.03	54.79
	읍·면지역	21.84	21.98	79.12	50.71
	χ^2	4.93	7.43*	20.40***	3.59
부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7.82	21.78	84.58	56.67
	고졸	18.98	19.90	82.65	54.44
	2~3년제 대졸	20.97	20.97	88.19	57.99
	4년제 대졸이상	19.00	18.73	83.39	48.36
	χ^2	0.90	0.82	5.39	9.53*
월평균 가구소득	1분위	21.12	22.17	83.15	52.86
	2분위	19.21	18.85	81.77	53.67
	3분위	16.49	15.41	86.36	52.95
	4-5분위	17.78	23.70	86.97	56.34
	χ^2	3.00	7.24	7.06	1.07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17.14	18.57	82.14	50.00
	5년 이상~10년 미만	26.88	23.66	84.10	50.77
	10년 이상~15년 미만	18.22	19.96	83.29	54.05
	15년 이상	20.11	17.91	86.32	55.02
	χ^2	4.57	1.76	2.13	1.75

* $p < .05$, ** $p < .01$, *** $p < .001$

4) 다문화 영역

패널 간 비교분석의 세 번째 영역은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관련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문화 영역의 변인은 크게 언어능력과 이중문화 관련 변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언어능력과 관련해서는 외국출신 부모와 의사소통 만 두 패널 간 비교가 가능하였다. 이중문화와 관련하여 비교 가능한 변인은 국적에 대한 인식, 외국출신 부모나라의 방문 여부 및 횟수, 문화적응 스트레스, 국가(한국인) 정체성,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있었다. 각 변인별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언어능력: 외국출신 부모와 의사소통

외국출신 부모와 다문화청소년 간의 의사소통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1기와 2기 패널 모두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한국어만 사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에 있어서는 두 패널 간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났다. 1기 패널의 경우, 한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은 약 60%,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비율은 약 25%로 전체의 85% 정도가 외국출신 부모님과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기 패널의 경우, 한국어만 사용하거나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각각 46%, 25%로 전체의 약 71% 정도로 나타나 외국출신 부모님과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주된 언어가 한국어인 비율이 1기에 비해서 낮았다. 한편,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의 언어와 한국어를 반반 사용하거나 주로 부모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2기 패널 청소년의 비율은 1기 패널의 두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특성변인에 따라서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대체로 지역규모가 클수록, 부모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Ⅷ-15. 외국출신 부모와 의사소통 패널 간 비교

(단위: %)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한국어만 사용		주요 언어 반반 사용		주요 부모님 나라 언어만 사용		한국어만 사용		주요 언어 반반 사용		주요 부모님 나라 언어만 사용		χ^2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전체	60.33	25.12	10.33	2.78	1.42	-	45.73	25.01	21.71	5.63	1.92	-	
학생 성별	남자	63.29	21.52	10.25	3.04	1.90	46.54	24.01	21.30	6.05	2.10	2.57	
여자	57.51	28.57	10.41	2.54	0.97	13.05*	44.90	26.05	22.13	5.19	1.73		
지역 규모	대도시	59.64	24.04	10.20	4.31	1.81	43.45	23.03	25.79	4.97	2.76	44.59	
중소도시	57.20	21.60	15.84	3.70	1.65	44.05	46.17	22.22	21.60	8.15	1.85	***	
읍·면지역	62.99	28.30	6.53	1.16	1.02	47.59	30.26	17.61	3.41	1.14			
부문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86.00	10.00	1.00	3.00	0.00	52.50	20.00	23.75	2.50	1.25		
고졸	65.74	23.28	8.47	1.98	0.53	92.20	50.39	26.05	18.25	4.20	1.11	88.49	
2~3년제 대졸	56.44	28.61	11.60	2.06	1.29	***	42.01	25.69	25.35	4.17	2.78	***	
4년제 대졸이상	46.51	29.30	15.32	5.11	3.76	34.74	24.63	26.29	10.85	3.49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	63.19	24.54	9.05	2.76	0.46	47.12	22.86	21.77	6.53	1.71		
2분위	59.57	28.34	8.84	2.17	1.08	51.72	44.72	26.83	20.30	5.73	2.41	13.47	
3분위	59.06	23.19	11.59	4.35	1.81	***	46.24	26.20	21.18	5.24	1.14		
4~5분위	52.63	18.80	20.30	2.26	6.02	44.33	22.70	26.95	3.90	2.13			

(단위: %)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χ^2
	한국어만 사용	주로 한국어 사용	두 언어 반반 사용	주로 부모님 나라 언어만 사용	부모님 나라 언어만 사용	한국어만 사용	주로 한국어 사용	두 언어 반반 사용	주로 부모님 나라 언어만 사용	부모님 나라 언어만 사용	
5년 미만	52.86	18.57	12.86	11.43	4.29	13.77	7.97	36.23	25.36	16.67	
5년 이상~ 10년 미만	52.75	20.88	21.98	3.30	1.10	32.29	15.10	31.25	17.71	3.65	443.4
10년 이상~ 15년 미만	61.70	25.66	9.70	2.45	0.49	49.91	27.55	19.32	2.66	0.57	4
15년 이상	62.43	27.90	8.84	0.55	0.28	46.81	25.84	21.58	4.56	1.22	***

* $p < .05$, ** $p < .01$, *** $p < .001$

(2) 이중문화: 국적에 대한 인식

다문화청소년의 국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모님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두 패널의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71~73%로 과반수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부모님 나라 또는 국외출생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태어난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1기 패널은 약 3.3%에 매우 낮았던 것에 비해 2기 패널은 약 9.4%로 약 3배 정도 높아졌다.

개인 및 가정 특성변인에 따른 국적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앞서 살펴본 외국출신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변인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의 특성과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특성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지역규모가 클수록, 부모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을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은 낮으며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 역시 낮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다만 2기 패널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국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국적 인식의 차이는 2기 패널에서 특히 크게 나타났다. 2기 패널 가운데 외국출신 부모님의 한국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청소년 가운데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6.43%로 낮고, 대신 자신을 부모님 나라 또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3.57%로 훨씬 높았다. 그러나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부모님을 둔 청소년의 경우 70% 이상이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 부모님의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국적에 대한 인식 차이는 매우 크며, 이러한 차이는 1기 패널에 비해서도 월등히 큰 수준이었다.

표 VIII-16. 국적에 대한 인식 패널 간 비교

(단위: %)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χ^2	
	한국사람 부모님 나라(본국) 사람	한국사람 이면서 부모님 나라 사람	잘 모르겠다	χ^2	한국사람 부모님 나라(본국) 사람	한국사람 이면서 부모님 나라 사람	잘 모르겠다	χ^2		
전체	73.07	3.30	21.73	1.90	-	71.33	9.44	16.96	2.27	-
학생 성별	남자	76.77	2.73	19.13	1.37	71.94	9.79	15.38	2.88	7.72
	여자	69.48	3.86	24.25	2.41	70.69	9.07	18.60	1.63	
지역 규모	대도시	68.17	3.16	25.96	2.71	67.58	10.30	18.68	3.43	
	중소도시	68.28	3.64	25.86	2.22	67.57	11.06	19.16	2.21	37.92***
	읍·면지역	79.60	3.16	16.09	1.15	79.55	6.68	12.64	1.14	
부모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94.06	1.98	3.96	0.00	75.42	7.50	13.75	3.33	
	고졸	76.41	2.62	19.66	1.31	76.15	8.38	13.68	1.79	
	2~3년제	74.94	3.32	20.46	1.28	67.01	10.42	20.49	2.08	47.57***
	4년제	58.84	5.01	31.93	4.22	61.50	12.04	23.54	2.92	
일평균 가구 소득	1분위	78.85	3.47	16.01	1.66	74.96	9.12	13.60	2.32	
	2분위	74.15	2.87	21.90	1.08	70.76	8.60	18.12	2.52	15.38
	3분위	63.80	2.87	29.75	3.58	70.91	10.23	16.59	2.27	
	4-5분위	60.00	4.44	32.59	2.96	65.14	11.62	21.83	1.41	

(단위: %)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한국사람		한국사람		한국사람		한국사람		
	부모님 나라(본국) 사람	이면서 부모님 나라 사람	부모님 나라(본국) 사람	이면서 부모님 나라 사람	부모님 나라(본국) 사람	이면서 부모님 나라 사람	부모님 나라(본국) 사람	이면서 부모님 나라 사람	
	한국사람 잘 모르겠다	한국사람 잘 모르겠다	한국사람 잘 모르겠다	한국사람 잘 모르겠다	한국사람 잘 모르겠다	한국사람 잘 모르겠다	한국사람 잘 모르겠다	한국사람 잘 모르겠다	
	χ^2	χ^2	χ^2	χ^2	χ^2	χ^2	χ^2	χ^2	
외국 출신 부 모의 한국 거주 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75.36 52.69 77.71 71.63	8.70 9.68 1.65 4.13	13.04 36.56 18.80 22.87	2.90 1.08 1.84 1.38	26.43 36.92 79.37 72.04	43.57 36.41 3.42 7.90	26.43 22.56 15.51 16.72	3.57 4.10 1.71 3.34
								491.31 ***	

** $p < .01$, *** $p < .001$

(3) 이중문화: 외국출신 부모나라 방문

다문화청소년들은 외국출신 부모님의 나라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까지 방문한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률을 비교해보면 1기 패널이 82.86%, 2기 패널이 91.87%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에 1회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고, 1기에 비해 2기 패널의 방문 비율이 좀 더 높았다.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 2~4회 방문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단 한차례만 방문한 비율은 1기 패널(25.72%)이 2기 패널(15.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1기와 2기 패널의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 방문 경험 여부는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부모의 교육수준 및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1기 패널에서만 유의하였다.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패널 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1기 패널의 경우, 거주기간이 5년 미만 일 때 부모님 나라에 방문한 청소년의 비율(58.57%)이 가장 낮았으나, 2기 패널은 거주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86.01%)가 가장 낮았다. 앞서 살펴본 다문화 영역의 다른 변인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교육수준 및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외국출신 부모나라 방문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의 경향은 두 패널 모두 유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5회 이상 방문'의 비율은 높아지고, '1회 방문'의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III-17. 외국출신 부모나라 방문 여부 및 횟수 패널 간 비교

(단위: %)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방문함	방문 횟수			방문함	방문 횟수		
			1회	2~4회	5회 이상		1회	2~4회	5회 이상
전체		82.86	25.72	49.07	25.20	91.87	15.27	56.19	28.54
학생 성별	남자	82.98	25.79	50.38	23.83	91.08	14.27	57.31	28.42
	여자	82.75	25.66	47.81	26.53	92.68	16.27	55.07	28.66
	χ^2	0.01	1.43			1.57	1.50		
지역 규모	대도시	85.33	24.60	45.77	29.63	92.23	18.58	50.19	31.23
	중소도시	83.98	26.33	48.55	25.12	92.21	13.34	53.55	33.11
	읍·면지역	80.49	26.03	51.71	22.26	91.22	14.26	64.26	21.48
	χ^2	5.07	6.77			0.55	32.22***		
부모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70.00	35.71	50.00	14.29	92.65	20.11	62.96	16.93
	고졸	82.02	29.60	49.92	20.48	90.91	16.48	59.78	23.74
	2~3년제 대졸	83.29	22.84	49.69	27.47	94.92	12.05	54.91	33.04
	4년제 대졸이상	87.53	19.09	46.67	34.24	92.10	11.80	44.77	43.43
	χ^2	178.7***	33.78***			4.36	67.44***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	78.60	26.45	51.93	21.62	91.50	19.57	56.32	24.11
	2분위	84.38	27.23	48.09	24.68	91.40	15.63	57.66	26.71
	3분위	86.69	23.24	49.79	26.97	92.72	9.97	59.82	30.21
	4-5분위	89.47	21.85	39.50	38.66	92.92	11.68	44.67	43.65
	χ^2	16.27**	16.55*			0.97	39.95***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 기간	5년 미만	58.57	46.34	34.15	19.51	91.67	36.36	45.45	18.18
	5년 이상~ 10년 미만	86.96	35.00	38.75	26.25	96.30	26.92	42.31	30.77
	10년 이상~ 15년 미만	83.85	24.01	52.55	23.43	92.99	13.94	58.46	27.60
	15년 이상	83.70	23.43	47.52	29.04	86.01	20.63	45.63	33.73
	χ^2	31.06***	20.11**			16.82**	22.57***		

* $p < .05$, ** $p < .01$, *** $p < .001$

(4) 이중문화: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인은 부모님 또는 자신의 다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1기와 2기 패널의 전체 평균은 각각 1.36점과 1.28점으로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월평균 가구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1기 패널에서만 발견되었다. 1기 패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5) 이중문화: 국가(한국인) 정체성

국가 정체성 변인은 한국에 대한 생각을 통해 조사한 다문화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 정체성 수준을 의미한다. 전체 평균을 비교하면 1기와 2기 패널 각각 2.65점, 2.62점으로 매우 유사하였다. 또한 4점 척도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한 변인임을 고려할 때, 중간수준의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성변인에 따른 국가 정체성 차이 역시 1기와 2기 패널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II-18. 문화적응 스트레스 패널 간 비교

(단위: 4점 척도)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1.36	0.41	-	1.28	0.41	-
학생 성별	남자	1.36	0.41	0.64	1.30	0.43	1.91
	여자	1.35	0.41		1.26	0.39	
지역규모	대도시 ^a	1.38	0.43	1.12	1.29	0.43	0.81
	중소도시 ^b	1.35	0.42		1.27	0.40	
	읍·면지역 ^c	1.35	0.40		1.28	0.41	
부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a	1.36	0.44	0.27	1.32	0.43	0.77
	고졸 ^b	1.36	0.41		1.28	0.41	
	2~3년제 대졸 ^c	1.35	0.41		1.27	0.40	
	4년제 대졸이상 ^d	1.34	0.40		1.28	0.41	
월평균 가구소득	1분위 ^a	1.39	0.44	4.47** a > d	1.30	0.42	1.59
	2분위 ^b	1.37	0.41		1.29	0.42	
	3분위 ^c	1.31	0.36		1.26	0.39	
	4~5분위 ^d	1.27	0.34		1.25	0.39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a	1.42	0.44	0.71	1.34	0.43	2.65
	5년 이상~ 10년 미만 ^b	1.37	0.43		1.32	0.45	
	10년 이상~ 15년 미만 ^c	1.35	0.41		1.27	0.40	
	15년 이상 ^d	1.35	0.40		1.30	0.43	

** $p < .01$

표 VIII-19. 국가(한국인) 정체성 패널 간 비교

(단위 : 4점 척도)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65	0.66	-	2.62	0.72	-
학생 성별	남자	2.66	0.64	0.97	2.64	0.72	1.11
	여자	2.63	0.68		2.61	0.72	
지역규모	대도시 ^a	2.65	0.65	2.70	2.66	0.71	3.03
	중소도시 ^b	2.70	0.63		2.63	0.71	
	읍·면지역 ^c	2.61	0.69		2.57	0.73	
부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a	2.54	0.70	1.29	2.57	0.67	0.59
	고졸 ^b	2.65	0.66		2.63	0.72	
	2~3년제 대졸 ^c	2.63	0.67		2.62	0.72	
	4년제 대졸이상 ^d	2.68	0.65		2.64	0.73	
월평균 가구소득	1분위 ^a	2.63	0.67	0.64	2.57	0.70	1.90
	2분위 ^b	2.63	0.65		2.65	0.69	
	3분위 ^c	2.67	0.65		2.64	0.76	
	4~5분위 ^d	2.70	0.68		2.63	0.78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a	2.64	0.67	1.22	2.67	0.68	1.02
	5년 이상~ 10년 미만 ^b	2.68	0.64		2.54	0.69	
	10년 이상~ 15년 미만 ^c	2.67	0.67		2.63	0.71	
	15년 이상 ^d	2.59	0.66		2.62	0.76	

(6) 이중문화: 이중문화 수용태도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한국 문화와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 문화에 대해 다문화청 소년이 가지는 수용정도를 의미하는 변인으로, 각 나라 문화별로 수용태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문화 수용태도의 전체 평균 두 패널 모두 3점 이상으로 4점 척도 기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패널 간 전체 평균 및 특성변인에 따른 평균 또한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2기 패널의 경우 중소도시의 평균이 읍·면지역 평균에 비해 다소 높았다.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 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를 비교하면 전체평균은 1기와 2기 패널 모두 2.61점으로 동일하였고, 한국문화 수용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부모님 나라문화 수용태도의 평균은 특성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기와 2기 패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변인은 학생성별과 부모의 교육수준이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1기 패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지역규모와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은 2기 패널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학생이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았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님 나라문화의 수용태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III-20. 이종문화 수용태도(한국문화) 패널 간 비교

(단위: 4점 척도)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3.19	0.51	-	3.28	0.51	-
학생 성별	남자	3.18	0.51	-0.75	3.26	0.53	-1.83
	여자	3.20	0.51		3.30	0.49	
지역규모	대도시 ^a	3.22	0.52	1.77	3.28	0.55	4.32* b > c
	중소도시 ^b	3.16	0.53		3.32	0.50	
	읍·면지역 ^c	3.19	0.49		3.24	0.48	
부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a	3.21	0.55	0.47	3.27	0.54	0.81
	고졸 ^b	3.20	0.50		3.27	0.51	
	2~3년제 대졸 ^c	3.17	0.52		3.32	0.50	
	4년제 대졸이상 ^d	3.17	0.49		3.30	0.52	
월평균 가구소득	1분위 ^a	3.20	0.52	0.15	3.25	0.53	1.86
	2분위 ^b	3.18	0.51		3.28	0.50	
	3분위 ^c	3.17	0.48		3.30	0.48	
	4~5분위 ^d	3.19	0.52		3.33	0.57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a	3.23	0.59	1.42	3.29	0.56	0.20
	5년 이상~ 10년 미만 ^b	3.23	0.49		3.26	0.55	
	10년 이상~ 15년 미만 ^c	3.20	0.51		3.28	0.50	
	15년 이상 ^d	3.15	0.48		3.27	0.53	

* $p < .05$

표 VIII-21. 이중문화 수용태도(부모님 나라문화) 패널 간 비교

(단위: 4점 척도)

특성변인		1기 패널(2011년)			2기 패널(2019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61	0.58	-	2.63	0.61	-
학생 성별	남자	2.54	0.59	-4.75	2.59	0.61	-3.73
	여자	2.67	0.56	***	2.68	0.59	***
지역규모	대도시 ^a	2.61	0.60		2.57	0.66	
	중소도시 ^b	2.63	0.59	0.81	2.70	0.57	7.90*** a < b
	읍·면지역 ^c	2.59	0.56		2.63	0.57	
부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a	2.39	0.63	11.94	2.54	0.59	
	고졸 ^b	2.56	0.58	***	2.58	0.60	12.87 ***
	2~3년제 대졸 ^c	2.64	0.55	a < b < d; a < c	2.75	0.60	a b < c, d
	4년제 대졸이상 ^d	2.72	0.57		2.73	0.62	
월평균 가구소득	1분위 ^a	2.61	0.59		2.59	0.58	
	2분위 ^b	2.57	0.58	2.81*	2.62	0.59	
	3분위 ^c	2.63	0.57	b < d	2.67	0.62	2.93
	4~5분위 ^d	2.72	0.52		2.70	0.69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a	2.48	0.61		2.82	0.64	
	5년 이상~ 10년 미만 ^b	2.67	0.67		2.69	0.64	
	10년 이상~ 15년 미만 ^c	2.60	0.57	1.43	2.62	0.59	5.97*** a > c, d
	15년 이상 ^d	2.60	0.55		2.60	0.61	

* $p < .05$, *** $p < .001$

3. 소결

8장에서는 1기와 2기 패널의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응답자료를 사용하여 개인, 환경, 다문화 영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변인이 9년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전체 평균을 비교하여 전반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이와 함께 집단비교분석을 통하여 개인 및 가정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패널 간 비교 주요결과

2011년과 2019년의 다문화청소년 개인 및 가정의 특성변인을 비교해보면 월 평균 가구소득 수준에서 두 패널 간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분위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1기 패널과 다르게 2기 패널에서는 2분위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1분위의 비율을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2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여건은 9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개인 영역의 변인에 대해 두 패널을 비교한 결과, 다문화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학교성적 수준'과 '희망교육수준'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친한 친구의 수'는 9년 전에 비해 낮아졌다. 이와 반대로 '삶의 만족도'와 '성적 만족도'는 1기 패널과 비교할 때 다소 높아졌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았다. 환경 영역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 안 또는 밖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에 관한 변인이 9년 사이에 크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 정도는 높아졌고, 방임적 양육태도는 낮아져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9년 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9년 사이에 크게 높아졌고, 특히 학교 안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약 세 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우리 사회의 지지체계가 학교를 중심으로 지난 9년 동안 상당 수준 확대·강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 집단괴롭힘 피해경험도 9년 사이에 감소하였고,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는 9년 전에 비해 그 정도가 소폭 높아졌다.

마지막 영역인 다문화 영역에서는 외국출신 부모와 의사소통 시 사용하는 언어'와 '청소년의 국적인식'에서 두 패널 간 상이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외국출신 부모님과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9년 전에 비해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비율은 줄어든 반면 부모님 나라 언어의 사용 비율은 높아졌다. 이와 함께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낮아지고, '부모님 나라 또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 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이는 가정의 문화 및 청소년의 국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여 발생했다기 보다는 두 패널의 구성 차이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2011년에 구축된 1기 패널은 대부분이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구성되었던 반면, 2019년에 구축된 2기 패널의 경우 과거에 비해 다양해진 다문화 지형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외국 출생청소년과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포함하여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부모님 나라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년 전에 비해 높아졌다.

표 VIII-22. 영역별 패널 간 차이 비교

구분	개인 영역	환경 영역	다문화 영역
1기 > 2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의 수 (▽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양육태도(방임) (▽0.13)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출신 부모와 의사소통(한국어 사용) 국적 인식(한국사람) 문화적응 스트레스 (▽0.12)
1기 < 2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만족도 (△0.11) 성적 만족도(△ 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0.54) 친구의 지지 (△0.11) 교사의 지지 (△0.18) 학교 안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어른 (△64.36) 학교 밖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어른 (△33.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 나라 방문 (△9.01)
1기 ≈ 2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성적(주관적 성취 수준) 희망교육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 정체성 (▽0.03) 한국문화 수용태도 (△0.09) 부모님나라 문화 수용태도 (▽0.03)

※ △와 ▽는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변인의 전체 평균 증감정도를 의미함.

2) 개인 및 가정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비교 주요결과

다문화청소년의 개인 및 가정 특성변인에 따른 각 영역별 차이가 1기와 2기 패널 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부 변인은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가 1기 또는 2기 패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두 패널 모두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집단 간 차이의 경향은 유사하였다.

표 Ⅷ-23. 영역별 개인 및 가정의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 비교

구분		성별		지역규모		부모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한국 거주기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개 인	삶의 만족도						+	+	+	+	
	친한 친구의 수	남	남		+			+	+		-
	학교성적(주관적 인지)					+	+	+	+	a	
	성적 만족도	남	남	-		+	+				+
	희망교육수준(대학이상)	여	여		+	+	+	+	+		
환 경	양육태도(감독)				+						-
	양육태도(방임)	남	남	-	-	-	-	-	-		
	친구의 지지	여	여			+		+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남	남								
	교사의 지지	여	여							-	-
	학교 내 도움 주는 어른		여		-						
	학교 밖 도움 주는 어른	여	여								
다 문 화	부모와 의사소통(한국어)	남	남	-	-	-	-	-	-	+	+
	국적 인식(한국사람)	남	남	-	-	-	-	-	-	b	+
	부모나라 방문경험 여부					+		+		+	-
	문화적응 스트레스							-			
	국가(한국인)정체성										
	한국문화 수용				c						
	부모나라 수용	여	여		c	+	+	+			+

+: 정적 관계; - : 부적 관계.

a: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b: 5년 이상~10년 미만 이 가장 낮음; c: 중소도시가 가장 높음

개인 영역의 변인은 주로 청소년의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1기와 2기 패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성적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교육수준도 마찬가지로 1기와 2기 패널 청소년의 인지 및 진로와 관련된 세 변인(학교성적,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1기 패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9년이 지난 2기 패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다른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문화청소년 개인의 심리·사회적응과 인지 및 진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환경 영역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변인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기와 2기 패널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변의 지지체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성별뿐만 아니라 지역규모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두 패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에서 지역규모 및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9년 전과 비교하여 새롭게 나타난 변화이다. 더불어 환경 영역의 변인 중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거주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두 패널에서 모두 있었던 변인은 교사의 지지가 유일하며,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청소년이 생각하는 교사의 지지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짧은 한국 거주기간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 영역의 변인 가운데 외국출신 부모님과과의 의사소통과 국적에 대한 인식은 모든 특성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지역규모

가 작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부모와 의사소통할 때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9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하였다. 다만,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9년 전과 달리 2기 패널에서는 다문화 영역의 모든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9년 전에는 부모의 교육수준 및 월평균 가구소득과 정적 관계가 나타났으나, 2기 패널에서는 이러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과 부모님 나라 방문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의 관계는 9년 전과 비교할 때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다. 1기 패널의 경우,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부모님 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낮았던 반면, 2기 패널에서는 부모님의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부모님 나라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이상 기술한 1기 패널과 2기 패널의 비교분석의 주요결과를 하나의 표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VIII-24>와 같다.

표 VIII-24. 1기 패널과 2기 패널 비교분석 주요결과

구분		주요결과
패널비교	특성 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평균 가구소득을 비교할 때, 소득분위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비율은 1기 패널에 비해 2기 패널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2분위의 비율은 증가함
	개인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영역에서 9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던 변인은 학교성적(주관적 성취수준)과 희망교육수준임 삶의 만족도와 성적 만족도는 9년 전에 비하여 높아졌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음
	환경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영역 변인인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는 9년 전과 비교할 때 높아진 반면, 방임적 양육태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학교 안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9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높아짐

구분	주요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도 2.5배 수준으로 증가함 ▪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역시 9년 전과 비교할 때 뚜렷한 감소추세가 나타남
	다문화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출신 부모와 의사소통할 때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9년 전에 비해 낮아짐 ▪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 역시 1기 패널에 비해 2기 패널에서 낮게 나타남 ▪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년 사이에 더 높아짐
특성변인 간 비교	개인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 영역의 성적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은 높아지는 경향은 1기와 2기에서 모두 나타남 ▪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성취수준인 학교성적과 성적 만족도, 희망교육수준으로 대학교 이상을 선택한 청소년의 비율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이러한 경향은 9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타남
	환경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와 2기 패널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변의 지지체계(친구, 교사, 학교 안팎의 어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 ▪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지역규모 및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적관계를 보이며 이는 1기와 2기 패널의 공통된 경향임 ▪ 지역규모 및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 차이는 2기 패널에서 새롭게 나타남(지역규모는 부적,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은 정적 관계임) ▪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사의 지지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은 9년 전과 동일하게 발견됨
	다문화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지역규모, 부모의 교육수준,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어만 사용하여 외국출신 부모님과 의사소통하는 청소년의 비율과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인식하는 청소년 비율의 차이는 1기패널에 이어 2기 패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부모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부모님 나라 방문경험 비율의 차이는 1기 패널에서만 유의함

제Ⅸ장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특성

: 2기 패널 분석

- 1. 분석개요
- 2. 조사대상자 배경특성
- 3.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발달특성
- 4.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부모특성
- 5. 소결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특성 : 2기 패널 분석*

1. 분석개요

2기 패널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다문화청소년 유형 내 하위유형별 발달현황을 비교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도출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학부모(어머니)를 대상으로 2019년도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2019년 구축한 신규패널의 다문화청소년조사와 학부모조사를 각각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생지와 부모의 결혼유형에 따라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추출 시에는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는 가장 정확한 통계인 교육통계 틀에 근거하여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등 세 집단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외국인가정의 경우도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와 외국에서 출생한 후 청소년기에 입국한 경우의 발달양상이 다른 등 아래와 같이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2장에서 제시했던 아래 틀에 근거하여, 국제결혼 가정자녀 중 국내출생자와 국외출생자, 외국인가정자녀 중 국내출생자와 국외출생자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배경특성 및 발달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IX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 출처: 양계민(2018:14) 그림 II-2를 수정함.

그림 IX-1.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분

1) 배경특성

2기 패널 분석의 청소년과 학부모 조사의 영역은 <표 IX-1>과 같다. 우선 청소년과 학부모 결과를 별도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가정의 배경변인을 먼저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하위 유형별 배경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X-1. 조사대상자 배경특성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청소년	성별
	거주지 규모
	현재국적(한국국적 미소지자)
가정환경	청소년 체류자격
	부모 중 외국출신자
	부모연령
	부모출신국 및 부모 현재국적
	부모 체류자격
	가구원수
	부모 결혼 상태
	부모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월평균 소득수준, 주관적 가정형편)	

2) 청소년 데이터 분석 영역

각각 청소년 결과의 분석틀은 크게 개인요인, 환경요인 및 다문화요인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요인 내에서는 i) 학교생활적응 및 방과후활동, ii) 심리사회적응, iii) 진로 및 향후계획 등 세 가지 소영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환경요인에는 i) 가정요인과 ii) 사회적지지요인의 두 가지 소영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다문화요인에는 i) 언어요인과 ii) 다문화환경요인 등 두 가지 소영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3가지 대영역의 7가지 소영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하위유형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IX-2. 청소년 대상 조사결과 분석 영역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국내출생	외국출생
개인 요인	학교생활 적응 및 방과후 활동	학교생활적응	○	○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	○
		학교 교우관계에서 어려운 점	○	○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	○
		학업성취수준	○	○
		성적에 대한 만족도	○	○
		방과후 활동	○	○
	심리 사회 적응 및 건강	문화체험 활동	○	○
		자아존중감	○	○
		사회적 역량	○	○
		삶의 만족	○	○
		일상생활 스트레스 및 우울	○	○
		현재 걱정거리	○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
	진로 및 향후계획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	○
		신체발달(키, 몸무게)	○	○
			희망교육수준	○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국내출생	외국출생
		향후 일하고 싶은 나라	○	○
		한국국적취득 희망여부	-	○
		한국거주 희망 여부	-	○
환경 요인	가정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	○
		부모와의 활동 정도	○	○
		부모와 보내는 시간 정도	○	○
		방과후 성인 보호자 없이 지내는 기간	○	○
	사회적 지지요인	부모, 친구, 교사 지지	○	○
		학교 안팎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	○
진로 상담자		○	○	
다문화 요인	언어	본인의 한국어 실력	-	○
		외국출신부모의 한국어 실력	○	○
		부모와의 의사소통언어	○	○
		외국출신 부모나라의 언어교육	○	○
		부모 나라 언어 능력	○	○
	이중문화 환경	문화적응스트레스	○	○
		이중문화수용태도	○	○
		국가정체성	○	○
		한국인 동일시 수준	○	○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	○
		차별경험(경험여부, 가해자, 대처방법)	○	○

3) 학부모 데이터 분석 영역

학부모 결과는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영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배경요인, 자녀교육 및 양육,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문화적응,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등이었다.

표 IX-3 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분석 영역

대영역	소영역	조사항목	외국인학부모		한국인 학부모	
			국내	외국	국내	외국
학부모의 심리·사회 적응	심리적응 및 건강	자아존중감	○	○	○	○
		전반적 건강 상태	○	○	○	○
		걱정거리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유무	○	○	○	○
		배우자 만족도	○	○	○	○
	다문화 요인	한국어 학습경험(경험여부, 학습방식, 학습시기)	○	○	-	-
		한국어 수준	○	○	-	-
		주로 어울리는 집단	○	○	-	-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수준	○	○	-	-
		문화적응 스트레스	○	○	-	-
		문화적응 유형	○	○	-	-
차별 경험(경험여부 및 장소, 대처방법)	○	○	-	-		
자녀 교육 및 양육	언어 소통	자녀와 대화시 사용 언어	○	○	-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	○	-	○
		자녀의 모국(본국)어 능력	○	○	-	-
		자녀의 부모나라 모국어 능력 부족이유	○	○	○	○
	자녀 양육	초등학교 입학 전 주 양육자	○	○	○	○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	○	○	○
		부모 양육효능감	○	○	○	○
	자녀 교육	자녀교육 관련 주 의사결정자	○	○	○	○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제공자	○	○	○	○
		자녀의 성적관리 노력	○	○	○	○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	○	○	○
		사교육 경험	○	○	○	○
	자녀진로 및 향후 계획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	○	○	○	○
		향후 한국거주형태	-	○	○	○
	지원정책	다문화청소년 특별지원의 필요성	○	○	○	○
		다문화청소년 지원방식 선호도	○	○	○	○
다문화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제공장소 선호도		○	○	○	○	
지원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	○	○	○	

2. 조사대상자 배경특성

1) 청소년

본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은 2019년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총 2,246명으로, 하위 유형을 보면,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국내출생자가 1,734명(77.2%), 국외출생자가 150명(6.7%)이었고, 외국인가정자녀 중 국내출생자가 113명(5.0%), 국외출생자가 249명(11.1%)이었다.

표 IX-4. 조사참여자 수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합계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빈도(%)	1,734(77.2)	150(6.7)	113(5.0)	249(11.1)	2,246(100.0)
소계	1,884(83.9)		362(16.1)		

그러나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한 명을 제외하였다. 분석에서 제외된 한 명은 현재 분류의 기준인 본인의 출생지 및 현재 부모의 출신국 기준으로 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이나, 실제 배경특성으로는 이 기준의 특성과 맞지 않아 이 사례를 포함할 경우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다문화청소년의 총 수는 전체 조사대상자에서 한 명이 감소한 2,245명이었다.

표 IX-5. 분석포함 대상자 수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합계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빈도(%)	1,733(77.2)	150(6.7)	113(5.0)	249(11.1)	2,245(100.0)
소계	1,883(83.9)		362(16.1)		

① 성별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전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각각 51.0%, 49.0%로 유사한 수준이었고, 하위 유형별 성별 분포 역시 50%내외로 분포하였다.

표 IX-6. 분석포함 대상자 성별

성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합계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남	879(50.7)	85(56.7)	53(46.9)	127(51.0)	1,144(51.0)
여	854(49.3)	65(43.3)	60(53.1)	122(49.0)	1,101(49.0)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	2,245(100)

② 거주지 규모

조사대상자들의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분포를 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 외 나머지 집단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국내출생 외국인 가정자녀의 경우는 50%이상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가정환경이나 지역사회환경, 정책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의 파트에서는 하위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다음 파트에서 거주지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별도로 분석 제시하였다.

표 IX-7. 거주지 규모별 조사대상자 수

지역규모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전체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대도시	529(30.5)	64(42.7)	38(33.6)	97(39.0)	728(32.4)
중소도시	583(33.6)	63(42.0)	59(52.2)	109(43.8)	814(36.2)
읍/면	621(35.8)	23(15.3)	16(14.2)	43(17.3)	703(31.3)
전체	1,734(100.0)	150(100.0)	113(100.0)	249(100.0)	2,245(100.0)

③ 현재국적

조사대상청소년의 국적을 하위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빈도수가 10명 이상인 국적만 표에 제시하고 10명 미만인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는데,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97.3%는 한국국적이었고, 나머지 2.7%는 이중국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결혼가정 중 국외출생자는 61.3%가 한국국적이었고, 이중국적이 22.0%, 그 외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외국인 가정 중 국내출생자는 62.8%가 한국국적, 14.2%는 이중국적, 15.1%는 중국국적이었고 국적이 없는 경우도 한 명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가정 중 국외출생자의 경우는 중국조선족이 4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우즈베키스탄(13.7%), 한국(8.8%), 러시아(7.2%), 몽골(6.8%) 등의 순이었다.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국적 중 중국 조선족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를 합하면 66.3%를 차지하는데, 이는 최근 동포비자 발급의 확대에 의하여 중국과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입국이 수월해졌기 때문에 이에 동반되는 자녀들의 가족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이 유형에 해당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IX-8. 청소년의 현재국적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전체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한국	1,687(97.3)	92(61.3)	71(62.8)	22(8.8)	1,872(83.4)
중국(한족,기타민족)	-	4(2.7)	2(1.8)	15(6.0)	21(9)
중국(조선족)	-	6(4.0)	15(13.3)	113(45.4)	134(6.0)
몽골	-	2(1.3)	1(9)	17(6.8)	20(9)
우즈베키스탄	-	2(1.3)	-	34(13.7)	36(1.6)
러시아	-	-	-	18(7.2)	18(8)
국적없음	-	-	1(9)	-	1(0)
기타	-	11(7.3)	7(6.2)	29(11.6)	47(2.1)
이중국적	46(2.7)	33(22.0)	16(14.2)	1(4)	96(4.3)
전체	1,733(100.0)	150(100.0)	113(100.0)	249(100.0)	2,245(100.0)

$\chi^2 = 1935.84, p < .001$

④ 체류자격

한국국적이 없는 경우 어떤 비자유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F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F-1(방문동거)비자를 소지한 비율(36.0%), F-2(거주)비자를 소지한 비율(24.0)%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외국인가정자녀들의 경우는 F-1, 2의 비율이 높은 것은 동일하나 F-1비자를 소지한 비율이 F-2비자를 소지한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9. 청소년의 체류자격(한국국적 미소지자)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C-3(단기방문)	-	-	4(1.8)
D-2(유학)	-	-	2(.9)
F-1(방문동거)	9(36.0)	11(42.3)	122(54.0)
F-2(거주)	6(24.0)	3(11.5)	31(13.7)
F-3(동반)	-	4(15.4)	23(10.2)
F-4(재외동포)	1(4.0)	-	14(6.2)
F-5(영주, 동포 제외)	3(12.0)	5(19.2)	20(8.8)
기타(G-1)	3(12.0)	-	5(2.2)
H-1(관광취업)	-	-	1(.4)
H-2(방문취업)	-	-	2(.9)
미등록	2(8.0)	2(7.7)	1(.4)
모름/무응답	1(4.0)	1(3.8)	1(.4)
전체	25(100)	26(100)	226(100)

$\chi^2 = 38.96, p < .05$

2) 가정환경특성

① 부모 중 외국출신자

배경특성 중 가정환경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의 기본적인 특성을 우선적으로 비교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 중 누가 외국출신인지를 조사한 결과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외국출신자는 대다수가 어머니였고, 특히 국내출생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어머니가 외국인인 가정이 98.0%였고, 아버지가 외국출신인 경우는 2.0%에 불과하였다. 그에 비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어머니가 외국출신인 경우가 86.0%, 아버지가 외국출신인 경우가 14.0%였다. 외국인가정의 경우는 당연히 부모 모두 외국인인 비율이 100%였다.

표 IX-10. 부모님 중 외국출신자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아버지	35(2.0)	21(14.0)	-	-
어머니	1,698(98.0)	129(86.0)	-	-
부모 모두 외국인	-	-	113(100)	249(100)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

$\chi^2 = 2312.23, p < .001$

② 부모연령

부모연령분포는 어머니의 경우 30대가 65.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40대(29.4%), 50대(3.4%), 20대(2.1%) 순이었다. 이에 비하여 아버지의 경우는 40대가 4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대(36.8%), 30대(7.5%), 60대 이상(2.8%) 순이었고, 20대인 경우도 있었다(0.2%).

표 IX-11. 부모 연령 분포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전체
어머니	46(2.1)	1447(65.1)	654(29.4)	76(3.4)	-	-	2,223(100)
아버지	4(.2)	166(7.5)	938(42.2)	817(36.8)	63(2.8)	235(10.6)	2,223(100)

이러한 부모 연령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경우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연령이 가장 낮고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어머니의 연령이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경우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아버지 연령이 가장 높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아버지의 연령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집단별 평균 부모 간 연령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IX-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부모의 평균이 12.43세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부모의 연령차이가 평균 9.03세,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부모의 평균 연령차이가 3.47세,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부모의 연령차이가 3.24세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12. 부모 연령의 평균비교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어머니	37.22(5.57)	38.99(6.17)	40.53(5.81)	38.19(5.15)	16.75***	b,c>a,d
아버지	49.73(5.37)	47.93(6.42)	43.19(7.32)	41.68(5.85)	162.52***	a>b>c,d
연령차이	12.43(7.14)	9.03(7.58)	3.24(5.05)	3.47(4.37)	157.50***	a>b>c,d

*** $p < .001$

③ 부모출신국 및 현재국적

부모의 출신국을 비교해보면, 전체 빈도가 10명 이상인 국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포함하였는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경우는 베트남 출신자가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국(17.2%), 중국조선족(10.3%)과 필리핀(10.3%), 일본(6.1%) 등의 순이었고, 어머니가 북한출신인 경우도 1명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당시 구축하였던 1기 패널의 분포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기 패널에서는 어머니 출신국이 일본인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는 국제결혼이 한국에서 증가하던 초기 단계에 통일교를 통한 국제결혼이 많았는데, 그 당시 일본인 여성의 한국입국이 많았고, 그들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시기에 본 패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다시 베트남 여성들의 결혼이 주가 증가하면서 어머니 출신국의 분포 양상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의 지형이 가정의 형태 뿐 아니라 가정 내 부모의 출신국 등에서도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어머니 국적을 보면, 중국출신자(한족

및 기타민족)가 20.7%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필리핀(16.0%), 베트남(13.3%), 중국 조선족(11.3%) 등의 순이었는데, 중국출신을 민족과 상관없이 합하면 32%가 중국출신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중 8.7%에 해당하는 13명은 어머니가 북한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으로 구분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어머니의 출신국이 중국조선족인 경우가 4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중국 한족 및 기타민족(15.0%), 베트남(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도 역시 어머니의 출신국이 중국조선족이라는 응답이 41.0%, 그 외 중국이 18.1%였고, 그 다음이 우즈베키스탄(14.5%), 러시아(7.6%)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들의 대다수가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동포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동포 중에서도 조선족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국적은 어떠한지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표 IX-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결혼가정의 경우는 국내출생이나 국외출생 공통적으로 한국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중국조선족이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중국조선족이 48.5%, 베트남이 14.6%, 중국(한족, 기타민족)이 9.7%, 등의 순이었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49.5%가 중국조선족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이 14.5%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다음이 중국(한족, 기타민족) 10.0%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어머니의 출신국과 함께 놓고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제결혼가정의 경우는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출신 또는 중국출신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정이 가장 많고, 외국인가정의 경우는 부모가 모두 중국조선족인 가정이 약 50%정도를 차지하며,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의 경우 중국조선족 출신 가정이 가장 많은 양상은 유사하나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출신가정자들이 약 15%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X-13. 어머니 출신국

출신국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한국	34(2.0)	8(5.3)	-	-
중국(한족,기타민족)	298(17.2)	31(20.7)	17(15.0)	45(18.1)
중국(조선족)	178(10.3)	17(11.3)	50(44.2)	102(41.0)
베트남	720(41.5)	20(13.3)	16(14.2)	3(1.2)
필리핀	178(10.3)	24(16.0)	7(6.2)	-
일본	105(6.1)	14(9.3)	-	-
몽골	38(2.2)	5(3.3)	2(1.8)	17(6.8)
태국	35(2.0)	7(4.7)	1(0.9)	-
캄보디아	80(4.6)	1(0.7)	5(4.4)	-
파키스탄	-	-	5(4.4)	8(3.2)
우즈베키스탄	26(1.5)	3(2.0)	2(1.8)	36(14.5)
러시아	7(0.4)	-	-	19(7.6)
북한	1(0.1)	13(8.7)	-	-
기타	33(1.9)	7(4.7)	8(7.1)	19(7.6)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0)

$\chi^2 = 954.00, p < .001$

표 IX-14. 아버지 출신국

출신국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한국	1,517(97.8)	120(90.2)	-	-
중국(한족,기타민족)	3(0.2)	5(3.8)	10(9.7)	22(10.0)
중국(조선족)	4(0.3)	1(0.8)	50(48.5)	109(49.5)
베트남	-	-	15(14.6)	2(0.9)
몽골	1(0.1)	-	1(1.0)	15(6.8)
파키스탄	3(0.2)	-	6(5.8)	8(3.6)
우즈베키스탄	-	-	2(1.9)	32(14.5)
러시아	1(0.1)	-	-	13(5.9)
기타	22(1.4)	7(5.3)	19(18.4)	19(8.6)
전체	1,551(100)	133(100)	103(100)	220(100)

$\chi^2 = 2091.91, p < .001$

부모의 출신국과는 별개로 현재의 국적을 파악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비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들의 경우 원래 한국인이었던 34명을 제외하면 전체 중 1,111명이 한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원래 한국인이었던 8명을 제외하고 41명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가정의 경우는 국내출생자가정 어머니의 40.7%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어머니의 경우 6.4%만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들에 비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았는데,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아버지의 경우 28.2%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출생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에 비하여 부모의 한국장기거주의사가 높음을 시사하며, 결국 이들 집단은 한국에 영구 거주할 집단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X-15. 어머니 현재국적

국적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한국	1,145(66.1)	49(32.7)	46(40.7)	16(6.4)
중국(한족,기타민족)	109(6.3)	23(15.3)	11(9.7)	40(16.1)
중국(조선족)	42(2.4)	14(9.3)	33(29.2)	94(37.8)
베트남	136(7.8)	12(8.0)	3(2.7)	2(.8)
필리핀	59(3.4)	16(10.7)	4(3.5)	-
일본	100(5.8)	13(8.7)	-	-
몽골	15(.9)	3(2.0)	2(1.8)	17(6.8)
태국	19(1.1)	6(4.0)	-	-
캄보디아	19(1.1)	1(.7)	-	-
파키스탄	-	-	5(4.4)	8(3.2)
우즈베키스탄	13(.8)	2(1.3)	2(1.8)	35(14.1)
러시아	2(.1)	-	-	19(7.6)
기타	19(1.1)	6(4.0)	6(5.3)	18(7.2)
이중국적	55(3.2)	5(3.3)	1(.9)	-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

$\chi^2 = 1162.30, p < .001$

표 IX-16. 아버지 현재국적

국적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한국	1,523(98.3)	122(91.7)	29(28.2)	19(8.6)
중국(한족,기타민족)	2(.1)	4(3.0)	7(6.8)	15(6.8)
중국(조선족)	4(.3)	1(.8)	29(28.2)	102(46.4)
베트남	-	-	15(14.6)	2(.9)
몽골	1(.1)	-	1(1.0)	14(6.4)
우즈베키스탄	-	-	2(1.9)	31(14.1)
러시아	1(.1)	-	-	13(5.9)
기타	18(1.2)	6(4.5)	19(18.4)	24(10.9)
이중국적	1(.1)	-	1(1.0)	-
전체	1,550(100)	133(100)	103(100)	220(100)

$\chi^2 = 1804.79, p < .001$

표 IX-17. 부모의 한국국적 비율의 변화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어머니	출신국	34(2.0)	8(5.3)	-	-
	현재국적	1,145(66.1)	49(32.7)	46(40.7)	16(6.4)
아버지	출신국	1,517(97.8)	120(90.2)	-	-
	현재국적	1,523(98.3)	122(91.7)	29(28.2)	19(8.6)

④ 부모 체류자격

그렇다면 한국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부모들은 어떤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보았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어머니의 53.7%는 F-6(결혼이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F-4(영주, 동포제외)로 전체의 87.1%가 F-6과 F-4였다. 그 외에도 F비자를 소지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D-2(유학)비자를 소지하거나 D-5(취재)를 소지한 경우도 1명씩 있었고, H-2(방문취업)도 2명 있었다.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어머니 경우도 F-6(결혼이민)비자가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이 66.7%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의 비율인 53.7%보다 더 높았고, F-5(영주, 동포제외)비자의 비율도 두 번째로 높았으나 역시 17.7%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 비율인 33.4%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F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외국인가정의 경우도 대부분 F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비율은 높았으나 그 양상이 약간 상이하였는데, 우선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어머니의 경우는 F-5(영주, 동포제외)비자를 소지한 비율이 2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F-6(결혼이민)을 소지한 비율이 21.2%, F-4(재외동포) 비율이 18.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어머니의 경우는 F-4(재외동포)비율이 가장 높았고(32.2%), 다음이 H-2(방문취업), F-5(영주, 동포제외)(14.2%), F-1(방문동거)(10.3%) 등의 순이었다. 그 외 C-3(단기방문)도 3명이 있었고,

D-2(유학), D-5(취재), D-10(구직), H-1(관광취업) 등 다양한 체류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18. 어머니 체류자격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C-3(단기방문)	-	-	-	3(1.3)
D-2(유학)	1(.2)	-	1(1.5)	6(2.6)
D-5(취재)	1(.2)	-	-	1(.4)
D-10(구직)	-	-	-	2(.9)
E-3(연구)	1(.2)	-	1(1.5)	-
E-4(기술지도)	-	-	-	3(1.3)
F-1(방문동거)	3(.6)	2(2.1)	6(9.1)	24(10.3)
F-2(거주)	45(8.4)	7(7.3)	5(7.6)	21(9.0)
F-3(동반)	2(.4)	1(1.0)	2(3.0)	10(4.3)
F-4(재외동포)	7(1.3)	2(2.1)	12(18.2)	75(32.2)
F-5(영주, 동포 제외)	178(33.4)	17(17.7)	18(27.3)	33(14.2)
F-6(결혼이민)	286(53.7)	64(66.7)	14(21.2)	12(5.2)
기타(G-1)	3(.6)	1(1.0)	-	5(2.1)
H-1(관광취업)	-	-	-	1(.4)
H-2(방문취업)	2(.4)	2(2.1)	2(3.0)	35(15.0)
미등록	3(.6)	-	5(7.6)	1(.4)
모름/무응답	1(.2)	-	-	1(.4)
전체	533(100)	96(100)	66(100)	233(100)

$\chi^2 = 529.67$ $p < .001$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의 체류자격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국제결혼 가정자녀 아버지의 경우는 전체 중 26명만이 응답에 포함되었는데, F-5(영주, 동포제외) 비자를 소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42.3%), 다음이 F-6(결혼이민)(34.6%)이었으며, F-2(거주)와 H-1(관광취업), D-2(유학)를 지닌 경우로 한정되었다. 국외출생국제결혼가정 아버지의 경우는 그보다 더 단순하여 F-2(거주),

F-5(영주, 동포제외), F-6(결혼이민)이 전부였다.

그에 비하여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아버지의 체류자격이 매우 다양한 경향이 있었는데, 우선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아버지의 체류자격이 F-6(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35.6%), 다음이 F-5(영주, 동포제외), F-4(재외동포)(13.7%), F-2(거주)(6.8%), H-2(방문취업)(6.8%)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장기적인 거주를 위한 F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은 국제결혼 가정자녀와 유사하나 그 외 C-4(단기취업), D-3(기술연수), D-6(종교), D-9(기업투자), D-9(무역경영), E-9(비전문취업) 등 다양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비록 소수이나 존재하였다.

이에 비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아버지는 가장 다양한 체류자격 분포를 보이고 있는 집단으로 크게는 F-4(재외동포)비자를 소지한 비율이 28.9%로 가장 높고, F-5(영주, 동포제외)비자 소지자가 21.4%로 다음으로 높으며 그 외 F비자를 소지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마찬가지이나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비율이 21.4%로 F-5(영주, 동포제외)비자를 소지한 비율과 동일하여 다른 집단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나머지 세 집단과 비교해볼 때 가장 다양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체류자격은 향후 해당 가정의 한국거주기간 및 자녀의 정체감 및 적응 등 다양한 특성과 관련될 수 있는 요인으로 집단간 부모 체류자격의 양상을 관심을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IX-19. 아버지 체류자격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A-1(외교)	1(3.8)	-	-	-
C-3(단기방문)	-	-	-	1(.5)
C-4(단기취업)	-	-	2(2.7)	1(.5)
D-2(유학)	1(3.8)	-	-	1(.5)
D-3(기술연수)	-	-	1(1.4)	-
D-6(종교)	-	-	1(1.4)	-
D-8(기업투자)	-	-	1(1.4)	3(1.5)
D-9(무역경영)	-	-	1(1.4)	1(.5)
E-1(교수)	-	-	-	2(1.0)
E-3(연구)	-	-	-	1(.5)
E-4(기술지도)	-	-	-	2(1.0)
E-5(전문직업)	-	-	-	1(.5)
E-7(특정활동)	-	-	-	2(1.0)
E-9(비전문취업)	-	-	1(1.4)	-
F-1(방문동거)	-	-	2(2.7)	10(5.0)
F-2(거주)	2(7.7)	2(18.2)	5(6.8)	6(3.0)
F-3(동반)	-	-	-	9(4.5)
F-4(재외동포)	-	-	10(13.7)	58(28.9)
F-5(영주, 동포 제외)	11(42.3)	4(36.4)	14(19.2)	43(21.4)
F-6(결혼이민)	9(34.6)	5(45.5)	26(35.6)	5(2.5)
기타(G-1)	-	-	-	6(3.0)
H-1(관광취업)	2(7.7)	-	-	1(.5)
H-2(방문취업)	-	-	5(6.8)	43(21.4)
미등록	-	-	4(5.5)	4(2.0)
모름/무응답	-	-	-	1(.5)
전체	26(100)	11(100)	73(100)	201(100)

$\chi^2 = 161.20, p < .001$

⑤ 가구원 수

다음으로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가구원수가 가장 많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가구원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20. 가구원수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평균 (표준편차)	4.03(1.03)	3.89(1.14)	3.73(.99)	3.64(.94)	12.94***	a)c,d

*** $p < .001$

⑥ 부모 결혼상태

부모의 결혼상태도 가정의 심리적 안정성 등 중요한 요인이기에 부모의 현재 결혼상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전반적으로는 결혼상태에 있는 가정이 90%내외로 가장 많았으나 이혼 상태의 비율에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약간 높았고,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부모의 이혼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IX-21. 부모 결혼상태

결혼상태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결혼	1,539(89.6)	132(88.6)	101(91.8)	221(89.8)
이혼	126(7.3)	14(9.4)	4(3.6)	19(7.7)
별거	13(.8)	1(.7)	-	3(1.2)
사별	39(2.3)	2(1.3)	5(4.5)	3(1.2)
동거	1(.1)	-	-	-
전체	1,718(100)	149(100)	110(100)	246(100)

$\chi^2 = 9.22, p < .001$

⑦ 부모 교육수준

다음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았는데, 우선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중졸이하의 학력인 비율이 다소 높은(33.7%)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에서도 국외출생자 어머니의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이 높은 것(24.0%)으로 나타났다.

표 IX-22. 어머니 교육수준

교육수준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중졸 이하	584(33.7)	18(12.0)	22(19.5)	41(16.5)
고졸	758(43.7)	67(44.7)	59(52.2)	119(47.8)
대학(2~3년제) 졸업	180(10.4)	22(14.7)	11(9.7)	27(10.8)
대학교(4년제) 졸업	195(11.3)	36(24.0)	15(13.3)	43(17.3)
대학원 석사 졸업	16(.9)	6(4.0)	4(3.5)	19(7.6)
대학원 박사 졸업	-	1(.7)	2(1.8)	-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

$\chi^2 = 152.65, p < .001$

아버지의 경우도 전반적으로는 고졸자 비율이 가장 높는데, 특히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아버지 중 고졸자 비율이 55.6%로 나머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아버지의 경우 고졸자 비율이 34.7%로 가장 낮았다.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아버지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 비율이 32.7%로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23. 아버지 교육수준

교육수준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중졸 이하	209(12.1)	13(8.7)	18(15.9)	26(10.4)
고졸	963(55.6)	52(34.7)	53(46.9)	125(50.2)
대학(2~3년제) 졸업	126(7.3)	10(6.7)	9(8.0)	24(9.6)
대학교(4년제) 졸업	226(13.0)	49(32.7)	18(15.9)	30(12.0)
대학원 석사 졸업	22(1.3)	8(5.3)	1(9)	12(4.8)
대학원 박사 졸업	4(.2)	1(.7)	4(3.5)	3(1.2)
무응답	183(10.6)	17(11.3)	10(8.8)	29(11.6)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20(100)

$\chi^2 = 105.26, p < .001$

부모의 학력에 대한 하위집단별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자 학력수준을 서열척도로 간주하고 평균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경우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의 평균값이 2.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어머니(2.52), 다음이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어머니(2.35),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2.02)의 순으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도 마찬가지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가장 높고(2.92), 국외출생 외국인가정(2.48), 국내출생 외국인가정(2.45)이 유사한 수준이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2.30)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와 나머지 집단간의 차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모의 교육수준은 모두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이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앞에서 분석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함께 고려해 볼 때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나머지 세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IX-24. 부모 교육수준의 평균비교

교육수준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어머니	2.02(.99)	2.65(1.13)	2.35(1.15)	2.52(1.18)	32.90***	b,c,d>a
아버지	2.30(.95)	2.92(1.21)	2.45(1.22)	2.48(1.12)	17.36***	b>a,c,d

*** $p < .001$

⑧ 가정의 경제수준

다음으로 하위유형별로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의 소득수준(381.92만원)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자녀 집단의 평균값(306.35만원)이 가장 낮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아마도 국외출생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환경의 국제결혼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수준이나 가정의 화목함 등의 수준에서 여건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표 IX-25. 하위 유형별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단위: 만원)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평균 (표준편차)	306.35 (137.81)	381.92 (243.09)	335.12 (168.01)	326.32 (132.42)	13.26***	b>d>a

*** $p < .001$

월평균 소득수준은 객관적인 수치이고, 청소년에게 있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정형편은 청소년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자신의 가정경제적 형편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청소년에게 질문한 결과를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의 평균값이 3.58로 가장

높았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3.44), 국외출생 외국인가정(3.45)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3.37로 가장 낮은 경향성을 보여 객관적인 수치인 월평균 가구소득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나 실제 월평균소득수준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 월평균 소득수준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나 주관적으로 청소년이 느끼는 가정형편의 경우는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가 느끼는 가정형편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일하게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는데, ‘아주 어렵다(1)’부터 ‘아주 잘산다(5)’까지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3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이 전반적으로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과 국내출생외국인가정의 경우 더욱 더 경제적 상태에 대하여 더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26. 주관적 가정형편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청소년	3.37(.83)	3.44(.94)	3.58(.89)	3.45(.88)	2.88*	-
어머니	2.72(.70)	2.82(.74)	2.72(.78)	2.90(.60)	5.33***	d)a,b,c

* α .05, *** α .001

3) 배경특성별 유형특성의 차이 결과 요약

2기 패널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가장 먼저 배경특성별로 하위 유형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거주지 규모에 따른 하위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거주 비율이

거의 유사한 것에 비하여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의 경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 거주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지역이 교육적 문화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중앙정책의 도달거리가 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다문화청소년 중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가장 열악한 발달 환경에 처한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나 부모의 교육수준 역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좀 더 세밀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는 당연히 한국국적을 모두 소지하고 있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는 이중국적자를 포함하여 83.3%가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며, 국내출생 외국인 가정자녀는 이중국적자 포함하여 77.0%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자녀의 경우는 8.8%만이 한국국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한국국적이 없는 경우의 체류자격은 대부분 F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부모체류자격 역시 대다수가 F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한국국적이 없는 경우도 단기적으로 거주하고 돌아갈 가능성은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고, 이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청소년 정책이 이들의 장기거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X-27. 배경특성별 주요결과

요인	주요 결과
거주지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유사한 수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나머지 집단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 거주 비율이 높음.
본인 국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국적은 97.3%가 한국이나 이중국적자도 2.7%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국적은 61.3%가 한국으로 가장 많고, 이중국적이 22.0%이며, 그 외 중국과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이 소수 존재함. 외국인가정자녀 중 국내출생자의 국적은 62.8%가 한국이고, 이중국적이 14.2%, 중국이 14.1%순인 것에 비하여 외국인가정자녀 중 국외출생자는 51.4%가 중국국적이고 우즈베키스탄이 13.7%이며 한국국적이 8.8%임.
체류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국적이 없는 청소년들의 체류자격은 대다수가 F비자임.
부모 중 외국배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부모 중 외국출신자는 어머니인 경우가 대부분임.
부모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가장 낮고, 아버지 연령은 가장 높으며, 부모간 연령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부모출신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어머니 출신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국가는 베트남인 반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이나 외국인가정은 중국이 가장 많음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어머니의 경우 현재국적이 한국인 경우가 66.1%로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월등하게 귀화비율이 높으며,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어머니는 40.7%가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함.
부모체류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국적이 없는 부모의 체류자격은 대다수가 F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가구원수가 가장 많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가구원수가 가장 적음
부모교육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음.
가정의 경제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음 다문화청소년 당사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가정형편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평균이 가장 낮고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이 가장 높은 반면, 어머니가 느끼는 주관적 가정형편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어머니가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가 가장 낮음.

3.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발달특성

1) 개인요인

(1) 학교생활적응 및 방과후활동

① 학교생활 적응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발달특성의 첫 번째 대영역인 개인요인 중 첫 번째 요인으로 학교생활 적응 및 방과후 활동실태를 하위유형별로 비교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았는데, 학교생활적응은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이 좋다', '나는 우리학교 친구들이 좋다' 등 총 4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전체적으로 3점 이상의 평균값을 보여 '그런 편'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유형간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각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산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향성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아래의 결과를 보면 학교생활 적응은 국제결혼 가정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인가정자녀들이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비해 학교생활적응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네 집단 중에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학교생활적응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28. 학교생활적응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평균 (표준편차)	3.21(.50)	3.22(.51)	3.30(.47)	3.28(.53)	2.73*	-

* $p < .05$

②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운 점

학교생활 전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71.8%)과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72.6%)의 경우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그에 비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들의 경우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율이 60%대 인 것으로 나타나 외국출신자들이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학교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점(18.0%)과 한국어(8.7%)가 주요 문제였고,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도 내용은 동일하였다. 다만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한국어의 문제를 어려운 점으로 꼽은 비율이 더 높았고(16.5%), 학교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점(12.0%)이 뒤를 이어서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국제결혼가정자녀나 외국인가정 모두 국내출생자들의 경우는 학교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는 점을 어려운 점으로 들고 있어서, 학교생활 어려움의 차이는 국내출생자와 국외출생자의 차이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X-29.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운 점

어려운 점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점	-	13(8.7)	-	41(16.5)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점	2(.1)	27(18.0)	1(.9)	30(12.0)
학교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는 점	296(17.1)	8(5.3)	15(13.3)	17(6.8)
학교 규칙을 지키는 일	85(4.9)	2(1.3)	6(5.3)	8(3.2)
선생님과의 관계	81(4.7)	3(2.0)	4(3.5)	-
기타	25(1.4)	-	5(4.4)	2(.8)
별 어려움이 없다	1,244(71.8)	97(64.7)	82(72.6)	151(60.6)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

$\chi^2 = 590.06, p < .001$

③ 학교 교우관계에서 어려운 점

학교생활 어려움 중 좀 더 구체적으로 교우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역시 전반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88.2%로 가장 많았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77.5%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다른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두 번째로 많이 언급하여 한국어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우관계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30.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어려움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34(2.0)	2(1.3)	3(2.7)	4(1.6)
나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	54(3.1)	5(3.3)	4(3.5)	8(3.2)
친한 친구가 없는 것	41(2.4)	7(4.7)	2(1.8)	9(3.6)
나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하는 것	54(3.1)	5(3.3)	6(5.3)	6(2.4)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	3(2.0)	-	6(2.4)
다른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	-	6(4.0)	-	20(8.0)
기타	22(1.3)	1(.7)	1(.9)	3(1.2)
별 어려움이 없다	1,528(88.2)	121(80.7)	97(85.8)	193(77.5)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

$\chi^2 = 186.46, p < .001$

④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

다음으로는 학교생활 중 학교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앞의 전반적인 어려움이나 교우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비하여 월등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50%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43.8%인 것으로 나타나 50%이상은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하여 학교 공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50%가 약간 넘기는 하였으나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나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에 비하여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국내출생자와 국외출생자들의 차이로 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공부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응답과 ‘내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는 두 가지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자녀들의 경우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하여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의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표 IX-31. 학교 공부 어려움 (1순위)

어려움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	112(6.5)	16(10.7)	11(9.7)	28(11.2)
내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	163(9.4)	17(11.3)	11(9.7)	34(13.7)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	77(4.4)	4(2.7)	5(4.4)	23(9.2)
공부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104(6.0)	4(2.7)	9(8.0)	7(2.8)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69(4.0)	13(8.7)	4(3.5)	18(7.2)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	120(6.9)	7(4.7)	6(5.3)	16(6.4)
공부에 흥미가 없다	113(6.5)	12(8.0)	3(2.7)	12(4.8)
기타	9(5)	1(7)	1(9)	2(8)
별 어려움이 없다	966(55.7)	76(50.7)	63(55.8)	109(43.8)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

$\chi^2 = 56.58, p < .001$

⑤ 학업성취수준 및 성적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취도는 어떤지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지난학기 성적이 어떤지 ‘매우 못한다(1)’부터 ‘매우 잘한다(5)’ 까지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전반적으로 3점(보통이다) 내외의 평균을 나타내었는데,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자신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만족도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32. 학업성취수준 및 성적에 대한 만족도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지난학기 성적	3.41(.76)	3.33(.84)	3.42(.74)	3.34(.82)	1.02	-
성적에 대한 만족도	3.00(.66)	2.89(.76)	2.95(.71)	2.84(.70)	5.17***	a>d

*** $p < .001$

⑥ 방과후 활동

다음으로 방과후 활동 및 체험활동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방과후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를 <표 IX-33>에 나타난 총 15가지 활동에 대하여 저녁식사 전과 후로 나누어서 주로 하는 활동 한 가지만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저녁식사 전과 후 모두 ‘스마트폰 가지고 놀기’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는 네 개 하위집단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저녁 식사 이전의 활동에서 ‘숙제나 공부하기’, 또는 ‘학원이나 과외’ 등 학업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여 비교해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가 13.3%,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가 23.3%,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가 31.3%,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가 26.9%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학업관련 활동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33. 방과후 활동: 저녁식사 이전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텔레비전 시청	289(16.7)	18(12.0)	18(16.1)	29(11.6)
컴퓨터 하기	156(9.0)	14(9.3)	7(6.3)	14(5.6)
스마트폰 가지고 놀기	420(24.2)	38(25.3)	25(22.3)	62(24.9)
음악 듣기	21(1.2)	1(.7)	2(1.8)	4(1.6)
책 읽기	29(1.7)	5(3.3)	3(2.7)	4(1.6)
가족과 대화하기	11(.6)	1(.7)	1(.9)	5(2.0)
형제자매와 놀기	58(3.3)	3(2.0)	8(7.1)	9(3.6)
집안일 돕기	6(.3)	2(1.3)	1(.9)	1(.4)
그냥 쉬거나 잠자기	29(1.7)	5(3.3)	1(.9)	4(1.6)
숙제나 공부하기	156(9.0)	20(13.3)	15(13.4)	30(12.0)
학원이나 과외	247(14.3)	15(10.0)	20(17.9)	37(14.9)
방과후 학교	87(5.0)	7(4.7)	4(3.6)	4(1.6)
친구들과 놀기	104(6.0)	11(7.3)	2(1.8)	29(11.6)
운동하기	79(4.6)	9(6.0)	3(2.7)	11(4.4)
청소년시설 등 프로그램 참여	34(2.0)	1(.7)	2(1.8)	3(1.2)
기타	7(.4)	-	1(.9)	3(1.2)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

$\chi^2 = 67.23, p < .05$

저녁식사 이후에는 ‘스마트폰 가지고 놀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텔레비전 시청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그보다는 숙제나 공부하기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방과후에는 저녁식사 전후를 막론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비율이 높고, 숙제나 공부하기 또는 학원이나 과외 활동에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응답비율이 다소 낮은 경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X-34. 방과후 활동: 저녁식사 이후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텔레비전 시청	381(22.0)	28(18.7)	19(16.8)	55(22.1)
컴퓨터 하기	170(9.8)	15(10.0)	12(10.6)	16(6.4)
스마트폰 가지고 놀기	504(29.1)	42(28.0)	33(29.2)	75(30.1)
음악 듣기	33(1.9)	4(2.7)	4(3.5)	1(.4)
책 읽기	33(1.9)	9(6.0)	4(3.5)	7(2.8)
가족과 대화하기	45(2.6)	5(3.3)	4(3.5)	16(6.4)
형제자매와 놀기	120(6.9)	9(6.0)	2(1.8)	13(5.2)
집안일 돕기	8(.5)	1(.7)	-	6(2.4)
그냥 쉬거나 잠자기	72(4.2)	5(3.3)	4(3.5)	8(3.2)
숙제나 공부하기	253(14.6)	20(13.3)	23(20.4)	32(12.9)
학원이나 과외	26(1.5)	3(2.0)	1(.9)	3(1.2)
방과후 학교	16(.9)	-	1(.9)	2(.8)
친구들과 놀기	19(1.1)	3(2.0)	-	8(3.2)
운동하기	40(2.3)	5(3.3)	4(3.5)	5(2.0)
청소년시설 등 프로그램 참여	5(.3)	1(.7)	-	1(.4)
기타	8(.5)	-	2(1.8)	1(.4)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

$\chi^2 = 71.79, p < .01$

⑦ 문화체험 활동

다음으로 각종 문화, 스포츠, 레저활동 등 체험활동 경험을 살펴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광명소 방문, 놀이공원가기 두 가지 항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활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관광명소 방문이나 놀이공원 가기 모두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35. 문화·스포츠·레저시설이용 비율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χ ²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음악회·연주회 관람	578(33.4)	49(32.7)	46(40.7)	81(32.5)	2.79
연극·마당극·뮤지컬 관람	678(39.1)	52(34.7)	50(44.2)	79(31.7)	7.58
무용공연 관람	311(17.9)	32(21.3)	16(14.2)	52(20.9)	3.48
영화관람	1373(79.2)	123(82.0)	86(76.1)	210(84.3)	4.94
박물관 관람	992(57.2)	87(58.0)	62(54.9)	149(59.8)	.94
미술관 관람	524(30.2)	52(34.7)	38(33.6)	87(34.9)	3.52
스포츠 관람	438(25.3)	47(31.3)	24(21.2)	69(27.7)	4.35
관광명소(유적지, 국립공원 등) 방문	908(52.4)	91(60.7)	69(61.1)	145(58.2)	8.55*
스키장(눈썰매장 포함) 가기	664(38.3)	66(44.0)	52(46.0)	106(42.6)	5.27
해수욕장 가기	977(56.4)	97(64.7)	66(58.4)	154(61.8)	6.00
산림욕장(휴양림) 가기	481(27.8)	56(37.3)	37(32.7)	80(32.1)	8.28*
놀이공원 가기	1,110(64.1)	112(74.7)	81(71.7)	199(79.9)	30.67*
수영장(워터파크 포함) 가기	1,246(71.9)	107(71.3)	88(77.9)	187(75.1)	2.90
기타	9(.5)	-	-	-	2.66
전체	1,733(100)	149(100.0)	113(100)	249(100)	-

*p<.001

(2)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①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개인요인 중 심리사회적응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집단별로 비교해보았는데, 자아존중감의 경우 국외출생외국인가정자녀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평균이 가장 높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역량의 경우는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X-36. 자아존중감, 사회적역량, 삶의만족도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자아존중감	3.27(.55)	3.34(.63)	3.33(.62)	3.40(.55)	4.84***	d>a
사회적역량	3.21(.58)	3.25(.63)	3.32(.60)	3.26(.64)	1.66	-
삶의만족도	3.34(.55)	3.30(.60)	3.41(.53)	3.43(.56)	2.68*	-

* $p < .05$, *** $p < .001$

② 일상생활 스트레스 및 우울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나 우울의 측면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는데, 일상생활스트레스에서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외국인가정자녀에 비하여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향성도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평균값이 약간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X-37. 스트레스 및 우울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일상생활스트레스	2.17(.93)	2.17(1.03)	1.94(.90)	1.88(.89)	8.70***	a,b>d
우울	1.42(.76)	1.42(.75)	1.30(.60)	1.32(.71)	2.12	-

*** $p < .001$

③ 현재 걱정거리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제시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1)'부터 '매우 걱정한다(5)'까지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3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걱정하는 수준이 큰 것은 아니었다. 다문화청소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공부, 학교, 성적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진학,

진로의 문제와 어머니와의 갈등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진학, 진로의 경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비해 나머지 집단이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와의 갈등의 문제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형제자매와의 갈등 역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가족 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네 집단 중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X-38. 현재 걱정거리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공부, 학교, 성적 문제	2.17(.90)	2.24(.92)	2.24(.93)	2.23(.94)	0.76	-
진학, 진로 문제	1.97(.87)	2.10(.93)	2.15(.91)	2.11(.98)	3.67*	-
가정의 경제적 형편	1.87(.85)	1.92(.97)	1.90(.93)	1.86(.91)	.23	-
부모님 사이의 불화	1.94(1.01)	1.82(.96)	1.85(.98)	1.82(1.03)	1.87	-
아버지와 나와의 갈등	1.68(.85)	1.66(.88)	1.60(.82)	1.55(.82)	1.65	-
어머니와 나와의 갈등	1.63(.82)	1.70(.90)	1.59(.81)	1.48(.79)	3.09*	b>d
형제·자매와 나와의 갈등	1.64(.88)	1.78(.97)	1.46(.77)	1.52(.83)	3.61*	b>c
이성친구와의 문제	1.64(.82)	1.61(.82)	1.68(.77)	1.68(.89)	.22	-
친구와의 문제	1.75(.87)	1.65(.83)	1.75(.87)	1.74(.92)	.56	-
나의 성격 문제	1.74(.86)	1.78(.89)	1.72(.81)	1.67(.86)	.66	-
나의 외모 문제	1.68(.85)	1.67(.82)	1.66(.91)	1.64(.84)	.18	-
나의 건강 문제	1.66(.86)	1.73(.87)	1.61(.87)	1.58(.87)	1.11	-
미래에 대한 불안감	1.72(.90)	1.74(.88)	1.75(.95)	1.73(.93)	.07	-
비자/체류 문제	-	1.48(.73)	1.83(.76)	1.54(.82)	1.55	

* $p < .05$

④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청소년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경우 네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X-39.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평균 (표준편차)	1.13(.34)	1.12(.37)	1.10(.32)	1.12(.32)	.14

⑤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다음으로 건강과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하였는데,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전반적인 건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가정자녀에 비하여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40.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신체적 건강	3.45(.62)	3.48(.59)	3.57(.63)	3.57(.58)	3.65*	d)a
정신적 건강	3.49(.58)	3.49(.60)	3.67(.51)	3.58(.56)	4.82**	c,d)a
전반적 건강	3.47(.55)	3.49(.55)	3.62(.52)	3.58(.53)	4.80**	

* $p < .05$, ** $p < .01$

⑥ 신체발달

마지막으로 신체적 성장발달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이를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녀 청소년

모두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키와 몸무게가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로 나누어서 분석했을 때는 집단 간 체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표 IX-41. 키, 몸무게

구분	성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키	남	141.90(7.07)	142.86(6.69)	144.55(9.50)	144.82(8.23)	8.85***	c,d)a
	여	141.56(7.27)	141.95(7.48)	141.75(7.23)	144.39(7.88)	5.27***	d)a
	전체	141.63(7.17)	142.47(7.03)	143.06(8.45)	144.61(8.05)	12.86***	d)a,b
몸무게	남	40.44(10.47)	40.78(10.15)	43.23(9.35)	43.03(10.30)	3.26*	-
	여	37.91(8.94)	36.80(6.42)	37.88(8.04)	39.21(9.61)	1.23	-
	전체	39.19(9.82)	39.05(8.93)	40.39(9.05)	41.16(9.68)	3.43*	d)a

* $p < .05$, *** $p < .001$

(3) 진로 및 향후 계획

① 희망교육수준

다음으로 진로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희망교육수준을 비교하였다.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대학교 이상 진학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으나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명확히 비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1)부터 대학원(6)까지를 서열척도로 간주하여 평균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IX-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평균값이 가장 낮고, 나머지 세 집단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42. 희망교육수준의 빈도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초등학교	28(1.6)	4(2.7)	-	1(.4)
중학교	21(1.2)	-	-	2(.8)
고등학교	313(18.1)	15(10.0)	8(7.1)	27(10.8)
대학교	1226(70.7)	107(71.3)	88(77.9)	173(69.5)
대학원	145(8.4)	24(16.0)	17(15.0)	46(18.5)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

$\chi^2 = 56.61, p < .001$

표 IX-43. 최종 희망교육 수준의 평균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평균 (표준편차)	3.83(.66)	3.98(.71)	4.08(.47)	4.05(.60)	13.85***	b, c, d) a

*** $p < .001$

② 향후 일하고 싶은 나라

또한 최종학교를 졸업한 이후 어디에서 일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는 72.1%가 한국에서 일하겠다고 응답하였고, 그 나머지 집단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인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들 역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향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남을 가능성도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X-44.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하고 싶은 곳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전체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한국	1,249(72.1)	91(60.7)	71(62.8)	165(66.3%)	1,576(70.2)
본국(외국출신 부모님 나라)	52(3.0)	7(4.7)	2(1.8)	19(7.6)	80(3.6)
제3국	41(2.4)	7(4.7)	6(5.3)	8(3.2)	62(2.8)
아직 잘 모르겠다	391(22.6)	45(30.0)	34(30.1)	57(22.9)	527(23.5)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	2,245(100)

$\chi^2 = 56.61, p < .001$

③ 한국국적 취득 희망여부

한국국적이 없는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싶은가에 대하여, 국외출생자들은 대략 50%내외로 취득을 하고 싶다고 응답을 하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가정 중 국내출생자들은 66.7%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국민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집단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거주 및 정착할 가능성이 높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표 IX-45. 한국국적 취득 희망여부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예	15(51.7)	10(66.7)	104(46.0)
아니오	-	2(13.3)	27(11.9)
잘 모르겠다	14(48.3)	3(20.0)	95(42.0)
전체	29(100)	15(100)	226(100)

$\chi^2 = 6.73$

④ 한국거주 희망여부

향후 한국거주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출생한 집단을 대상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72.0%가, 외국인가정의 국외출생자는 67.9%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거주 의사가 높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표 IX-46. 한국거주 희망여부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국외출생
예	108(72.0)	169(67.9)
아니오	6(4.0)	12(4.8)
잘 모르겠다	36(24.0)	68(27.3)
전체	150(100)	249(100)

$\chi^2 = .48$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18명의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단 모두 '본국이 그리워서' 또는 '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면 더 잘 살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표 IX-47. 한국거주 비희망 사유

사유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국외출생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	1(8.3)
한국의 학교공부가 어려워서	-	1(8.3)
본국이 그리워서	2(33.3)	5(41.7)
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면 더 잘 살 것 같아서	4(66.7)	3(25.0)
기타	-	2(16.7)
전체	6(100)	12(100)

$\chi^2 = 3.86$

2) 환경요인

환경요인으로는 부모와 관련된 가정환경특성과, 부모를 포함한 친구, 교사, 지역사회 등의 지지요인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1) 가정환경 특성

① 부모 양육태도

가정 먼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교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감독과 방임 등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 중 첫 번째 하위 요인인 감독요인에서는 <표 IX-4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3.44),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3.32)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하위 요인인 방임과 관련해서는 감독요인과는 반대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외국인가정자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이 외국인가정자녀들에 비하여 부모의 감독은 낮고 방임의 수준은 높아서 부모의 양육에 있어서 네 개 하위 유형 중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48. 부모양육태도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감독	3.32(.55)	3.36(.54)	3.36(.58)	3.44(.50)	4.01**	d)a
방임	1.65(.64)	1.67(.67)	1.53(.59)	1.56(.69)	2.86*	-

* $p < .05$, ** $p < .01$

② 부모와의 활동정도

또한 지난 1년 동안 부모님과 같이 고민, 학교생활, 책, 텔레비전, 영화,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여가활동, 저녁식사 등을 얼마나 함께 하였는지에 대해 ‘거의 하지 않는다(1)’, ‘월 1-3회(2)’, ‘주 1-3회(3)’, ‘주 4-6회(4)’, ‘매일 한다(5)’의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대화 및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응답의 전체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들이 가장 많이 대화 및 활동을 한 것(2.98)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2.91),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2.77),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2.65)의 순으로 나타나 국제결혼가정자녀가 부모님과 여러 주제에 대한 대화 및 활동의 정도를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하위유형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가 취약하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49. 부모와의 활동정도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2.37(1.30)	2.68(1.47)	2.42(1.29)	2.77(1.32)	8.30***	b,d)a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2.98(1.34)	3.44(1.37)	3.12(1.28)	3.38(1.27)	11.25***	b,d)a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2.42(1.31)	2.73(1.45)	2.68(1.37)	2.76(1.32)	7.76***	b,d)a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1.52(1.02)	1.49(1.01)	1.58(.95)	1.56(1.02)	.32	-
여가활동에 대한 대화	2.51(1.36)	2.85(1.33)	2.69(1.28)	2.94(1.38)	9.42***	b,d)a
저녁식사	4.12(1.30)	4.29(1.22)	4.10(1.30)	4.46(1.05)	5.84***	d)a
전체	2.65(.88)	2.91(.88)	2.77(.77)	2.98(.83)	13.20***	b,d)a

*** α .001

③ 부모와 보내는 시간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님과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를 '전혀 하지 않는다(1)', '30분 미만(2)', '30분 이상 1시간 미만(3)',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4)', '2시간 이상(5)'의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평균이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50. 부모와 보내는 시간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어머니	3.61(1.20)	4.06(1.09)	3.91(1.21)	3.98(1.12)	14.05***	b,d)a
아버지	2.96(1.26)	3.20(1.41)	3.19(1.29)	3.21(1.38)	4.76**	b,c,d)a

** α .01, *** α .001

④ 방과후 성인 보호자 없이 지내는 기간

그렇다면 평일 방과후에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1주일에 며칠 정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거의 없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고, 다음이 1-2일 정도라는 응답 비율이 16%내외였으며, 거의 매일 이라는 응답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집단의 경우 12% 수준이었다. 하위 유형별 집단 간 양상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51. 방과후 보호자 부재여부

부재여부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거의 없다	1,064(61.4)	95(63.3)	71(62.8)	156(62.7)
1-2일 정도	293(16.9)	24(16.0)	18(15.9)	43(17.3)
3-4일 정도	161(9.3)	12(8.0)	13(11.5)	19(7.6)
거의 매일	215(12.4)	19(12.7)	11(9.7)	31(12.4)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

$\chi^2 = 2.51$

(2) 사회적 지지 요인

①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

다음으로 환경요인 중 두 번째 요인인 사회적 지지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부모, 친구, 교사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에서 하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우선 부모지지의 경우는 국제결혼가정에 비하여 외국인가정자녀들이 부모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고, 그 중 특히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들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의 경우는 국외출생자와 국내출생자의 차이로 구분되는데, 국외출생자들이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의 수준이 국내출생자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국외출생자들의 경우 한국어나 한국학교생활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고 학교교사들이 이에 대해 좀 더 신경 쓰거나 배려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IX-52. 부모, 친구, 교사 지지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부모지지	3.31(.54)	3.38(.51)	3.44(.61)	3.53(.50)	13.76***	d>a,b
친구지지	3.83(.81)	3.90(.78)	3.96(.80)	3.90(.90)	1.57	-
교사지지	3.76(.81)	3.92(.75)	3.78(.77)	3.91(.82)	4.01**	b,d>a,c

** $p < .01$, *** $p < .001$

② 학교안팎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학교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제결혼가정자녀든 외국인가정자녀든 상관없이 80%이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대부분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지지기반이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보이며, 그 대상을 '담임선생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90% 이상임을 보았을 때, 교실 내에서 담임교사들이 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임을 나타내었다. 이는 수년 간 추진해 온 교육부의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및 각종 연수의 결과로 보이며, 다문화교육의 효과가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표 IX-53. 학교 내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예	1442(83.2)	130(86.7)	98(86.7)	210(84.3)
아니오	291(16.8)	20(13.3)	15(13.3)	39(15.7)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

$\chi^2 = 2.11$

표 IX-54. 학교 안에서 도와주는 어른(중복응답)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담임선생님	1345(93.4)	123(94.6)	91(92.9)	195(93.8)
다른반 선생님	281(19.5)	22(16.9)	24(24.5)	47(22.6)
양호·보건 선생님	254(17.6)	16(12.3)	23(23.5)	38(18.3)
상담 선생님	231(16.0)	16(12.3)	16(16.3)	36(17.3)
멘토 선생님	56(3.9)	3(2.3)	6(6.1)	12(5.8)
다문화 선생님	81(5.6)	16(12.3)	12(12.2)	32(15.4)
교과과목 선생님	165(11.5)	14(10.8)	18(18.4)	33(15.9)
경비아저씨나 보안관(지킴이) 아저씨	191(13.3)	22(16.9)	25(25.5)	37(17.8)
전체	1,440	130	98	208

그에 비하여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의 존재(가족은 제외)는 거의 50%내외의 수준에서 '있다'고 응답을 하여 학교 안에 비하여 학교밖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질문한 결과 학원선생님과 공부방선생님 등 주로 학습지도를 하는 대상들이었다고 나타났다.

표 IX-55. 학교 밖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예	942(54.4)	72(48.0)	59(52.2)	132(53.0)
아니오	791(45.6)	78(52.0)	54(47.8)	117(47.0)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

$\chi^2 = 2.41$

표 IX-56.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중복응답)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학원 선생님	462(49.7)	40(56.3)	32(54.2)	68(51.9)
공부방 선생님	250(26.9)	18(25.4)	12(20.3)	19(14.5)
각종 지역 기관 선생님	154(16.6)	10(14.1)	5(8.5)	19(14.5)
이웃 어른들	208(22.4)	16(22.5)	21(35.6)	46(35.1)
멘토 선생님	60(6.5)	3(4.2)	3(5.1)	14(10.7)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	117(12.6)	8(11.3)	9(15.3)	15(11.5)
전체	930	71	59	131

③ 진로상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는지 질문하였다.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1)'부터 '자주 대화한다(4)'까지 4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한 결과 <표 IX-5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형제자매 및 친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집단 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형제자매와의 대화빈도가 높은 집단은 국제결혼가정자녀였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이에 비해 친구와 미래에 대해 대화를 한다는 응답은 국내출생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들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이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외국에서 태어난 후 입국을 했다는 배경특성으로 인하여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비하여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친구 수가 적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IX-57. 미래 관련 부모 및 가족 등 주변인들과의 대화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아버지	3.03(.97)	3.10(1.04)	3.06(.94)	2.99(1.03)	.39	-
어머니	3.41(.84)	3.48(.86)	3.45(.81)	3.43(.84)	.33	-
형제자매	2.87(1.18)	2.95(1.17)	2.73(1.17)	2.56(1.25)	3.73*	a,b>d
친척·친지	2.27(1.00)	2.30(.96)	2.28(1.00)	2.29(1.07)	.09	-
학교 선생님	2.78(.97)	2.67(1.02)	2.66(1.05)	2.64(1.00)	2.04	-
상담교사	2.11(.98)	2.04(.98)	1.93(.98)	2.07(.99)	1.07	-
학원·과의 선생님	2.50(1.14)	2.41(1.17)	2.34(1.12)	2.37(1.16)	1.44	-
친구	3.30(.98)	3.23(1.05)	3.32(1.00)	3.07(1.08)	3.98**	a>d

* α .05, ** α .01

3) 다문화요인

(1) 언어요인

① 본인의 한국어실력

다문화와 관련된 요인 중 첫 번째는 언어와 관련된 영역으로, 우선 한국어가 모국어인 국내출생자들의 한국어수준을 비교하였다.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의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전혀 못한다(1)'부터 '매우 잘한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네 가지 항목을 합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IX-5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결혼가정자녀나 외국인가정자녀나 모두 5점 만점에 4점 내외의 점수를 보여 전반적으로 한국어를 잘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58. 자신의 한국어 능력: 청소년

구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t
평균 (표준편차)	4.03(.85)	3.97(.88)	.68

② 외국출신부모의 한국어실력

부모가 외국출신인 경우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못한다(1)’부터 ‘매우 잘한다(5)’까지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자녀의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경우는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의 평균값이 3.85로 가장 높았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의 평균값이 3.11로 가장 낮았다. 이에 비해서 어머니의 경우는 국내출생자와 국외출생자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출생자들의 어머니가 국외출생자들의 어머니에 비해 한국어실력이 높다고 자녀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59.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아버지	3.54(1.09)	3.11(1.23)	3.85(.99)	3.55(1.12)	3.30*	c)d,a)b
어머니	3.84(.80)	3.48(.87)	3.93(.99)	3.45(1.15)	21.23***	c,a)b,d

* α .05, *** α .001

③ 외국출신부모와의 의사소통언어

다음으로 외국출신 부모와 의사소통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비교하였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는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국어와 아버지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한다’는 응답이 22.9%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아버지 나라 말을 주로 또는 전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은

22.9%였다. 이에 비하여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아버지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30.0%, ‘한국어와 아버지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한다’는 응답이 25.0%,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20.0%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한국어와 아버지나라 말을 반반 사용한다’는 응답이 27.8%로 두 번째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부모 모두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응답과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36.2%로 나타났고, ‘한국어와 아버지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한다’는 응답이 26.0%로 나타나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X-60. 외국출신 부모와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아버지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한국어만 사용한다	13(37.1)	4(20.0)	45(41.7)	61(24.8)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	5(14.3)	1(5.0)	18(16.7)	28(11.4)
한국어와 아버지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한다	8(22.9)	5(25.0)	30(27.8)	64(26.0)
아버지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한다	5(14.3)	6(30.0)	11(10.2)	57(23.2)
아버지 나라 말만 사용한다	3(8.6)	2(10.0)	2(1.9)	31(12.6)
기타	1(2.9)	2(10.0)	2(1.9)	5(2.0)
전체	35(100)	20(100)	108(100)	246(100)

$\chi^2 = 33.88, p < .01$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언어와 관련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응답율이 51.6%였고,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28.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비율이 아버지가 외국출신인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한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한국어만 사용한다(25.4%)’,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22.3%)’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한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47.8%로 가장 높고,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비율이 22.3%,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하는 비율이 28.3%로 나타나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62.8%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한다’는 응답이 28.5%로 가장 높았지만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자녀들과는 다르게 ‘어머니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28.1%로,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하는 비율과 거의 유사하였고, ‘한국어를 전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표 IX-61. 외국출신 부모와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어머니

사용언어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한국어만 사용한다	877(51.6)	33(25.4)	54(47.8)	55(22.1)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	486(28.6)	29(22.3)	17(15.0)	22(8.8)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한다	290(17.1)	43(33.1)	32(28.3)	71(28.5)
어머니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한다	36(2.1)	16(12.3)	9(8.0)	70(28.1)
어머니 나라 말만 사용한다	8(0.5)	7(5.4)	1(0.9)	29(11.6)
기타	1(0.1)	2(1.5)	-	2(0.8)
전체	1,698(100)	130(100)	113(100)	249(100)

$\chi^2 = 536.14, p < .001$

④ 외국출신 부모나라의 언어교육

그렇다면, 집에서 부모님이 부모님나라 언어를 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였는데, 모든 집단에서 50%내외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는 응답이었다. 르거나 국내출생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 언어로 나에

게 말씀하신다'는 응답비율(14.7%)이 다른 집단(국외출생국제결혼가정자녀 23.5%,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23.0%,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28.1%)에 비해 낮고, 대신 부모님 나라 언어를 배우라고 말하거나(14.5%) 직접 가르치거나 (14.8%) 하는 비율은 거의 유사하였다. 이는 이중언어교육에 있어서 국외출생자이거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보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으나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부모님 나라 언어를 학습의 차원에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표 IX-62. 외국출신 부모나라의 언어교육

언어교육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	918(53.0)	74(49.7)	48(42.5)	126(50.6)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 언어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255(14.7)	35(23.5)	26(23.0)	70(28.1)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 언어를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252(14.5)	14(9.4)	16(14.2)	15(6.0)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 언어를 나에게 직접 가르치신다	256(14.8)	20(13.4)	19(16.8)	25(10.0)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곳을 찾아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	47(2.7)	5(3.4)	4(3.5)	11(4.4)
기타	5(3)	1(7)	-	2(8)
전체	1,733(100)	149(100)	113(100)	249(100)

$\chi^2 = 54.17, p < .001$

⑤ 부모나라 언어능력

또한 자녀들이 부모나라 언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전혀 못한다(1)'에서 '매우 잘한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한 결과, <표 IX-6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당연

한 결과로 부모나라 언어가 자신의 모국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국내출생자들의 평균값이 낮았고 특히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부모나라 언어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63. 부모 나라 언어 능력

언어능력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아버지나라	2.97(1.27)	3.38(1.28)	3.05(1.24)	3.77(1.24)	10.87***	d>a, b, c
어머니나라	2.43(1.10)	3.15(1.14)	3.06(1.27)	3.78(1.25)	117.28***	d>c/b>a

*** $p < .001$

(2) 이중문화환경 요인

① 문화적응스트레스

다문화요인 중 이중문화환경으로 인한 요인들을 집단별로 분석하였는데, 우선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해보았다.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집단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집단이었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64. 문화적응 스트레스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평균 (표준편차)	1.26(.40)	1.33(.43)	1.31(.39)	1.36(.46)	4.75**	d>a

** $p < .01$

②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한국문화수용도, 본국문화수용도를 각각 측정하고 이 모두를 합한 값을 이중문화수용태도로 정의하였다. 각 유형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본국문화수용태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본국문화수용도가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외국인가정 자녀, 특히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들이 본국문화에 대한 수용태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본국문화수용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국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또는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기에 어려운 집단적 환경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X-65. 이중문화 수용태도

수용태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한국문화	3.28(.50)	3.25(.50)	3.38(.49)	3.28(.57)	1.70	-
본국문화	2.62(.61)	2.75(.65)	2.69(.551)	2.67(.61)	3.08*	-
이중문화	2.95(.44)	3.00(.42)	3.04(.40)	2.98(.44)	2.20	-

* $p < .05$

③ 국가정체성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81.5%는 한국사람이라고 응답을 한 반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는 48.0%만이 한국사람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본국사람이기도 하다’는 응답이 35.3%로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경향성이 있었다. 따라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정체성의 문제가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IX-66. 국가정체성

국가정체성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한국사람	1,412(81.5)	72(48.0)	62(54.9)	56(22.5)
본국사람(부모나라사람)	38(2.2)	20(13.3)	13(11.5)	140(56.2)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본국사람이기도 하다	252(14.5)	53(35.3)	33(29.2)	43(17.3)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31(1.8)	5(3.3)	5(4.4)	10(4.0)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

$\chi^2 = 857.61, p < .001$

④ 한국인 동일시 수준

그렇다면 한국인과의 동일시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해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을 받는 것 같다’,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관심이 많다’,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누군가 한국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다’ 등 네 개의 문항을 평균값으로 구한 후 비교하였다. 이 경우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이나 내용적으로 한국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이므로 ‘한국인 동일시’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한국인 동일시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국외출생외국인 자녀집단의 평균값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성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X-67. 한국인 동일시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평균 (표준편차)	2.64(.72)	2.66(.70)	2.63(.74)	2.52(.67)	1.94

⑤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또한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파악하고자 ‘한국인은 외국출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라는 문항과 ‘한국인은 외국출신자들을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X-68.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한국인은 외국출신 사람에게 친절하다	3.71(.88)	3.73(.92)	3.85(.93)	3.75(.87)	1.05
한국인은 외국출신자들을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2.67(1.06)	2.72(1.06)	2.62(1.12)	2.77(1.08)	.80

⑥ 차별경험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모님이나 자신이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은 느낀 적이 없다는 응답이었다. 그러나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차별한 사람이 누구인지 중복응답하도록 한 결과 학교의 다른 학생들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차별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은 모든 집단에서 ‘그냥 참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국내출생외국인가정자녀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그냥 참았다는 응답비율이 특히 높았다.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차별을 당했다고 느껴도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해결하고자 하기 보다는 스스로 억압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학교 내 반차별 반편견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표 IX-69. 차별 경험 여부

차별 경험 여부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예	94(5.4)	8(5.3)	11(9.7)	11(4.4)
아니오	1639(94.6)	142(94.7)	102(90.3)	238(95.6)
전체	1,733(100)	150(100)	113(100)	249(100)

$\chi^2 = 4.47$

표 IX-70. 차별하는 사람(중복응답)

차별하는 사람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학교의 다른 학생들	62(68.1)	8(100)	6(66.7)	6(60.0)
학교선생님	6(6.6)	1(12.5)	2(22.2)	-
학원이나 과외선생님	4(4.4)	3(37.5)	-	-
친척들	5(5.5)	1(12.5)	2(22.2)	1(10.0)
동네 사람들	11(12.1)	-	-	1(10.0)
길거리의 모르는 사람	10(11.0)	1(12.5)	2(22.2)	2(20.0)
전체	91	8	9	10

표 IX-71. 차별경험 대처

차별경험 대처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그냥 참았다	55(58.5)	3(37.5)	6(54.5)	7(63.6)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알렸다	20(21.3)	3(37.5)	3(27.3)	3(27.3)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	9(9.6)	2(25.0)	2(18.2)	1(9.1)
차별행동이나 무시한 사람에게 직접 따졌다	10(10.6)	-	-	-
전체	94(100)	8(100)	11(100)	11(100)

$\chi^2 = 6.94$

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발달특성 결과 요약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발달특성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경우는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이 별로 없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고 성적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하여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값에서는 네 집단 중 응답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후활동에서 숙제, 공부하기, 학원이나 과외활동 등 학업관련 활동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전반, 교우관계나 학교공부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을 하지만 구체적인 적응실태를 척도로 질문했을 때 나타난 결과는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취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들이 '별로 어려움이 없다'라고 응답한 것을 맥락과 함께 신중히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과 관련된 영역을 살펴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자녀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고 일상생활스트레스가 높으며 남자 청소년의 키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와 상관없이 부모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가정자녀들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고, 일상생활스트레스가 낮으며, 어머니와의 갈등이 낮고, 남자 청소년 집단의 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 기준인 중도입국청소년에 해당하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어머니와의 갈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과 관련하여 하위유형별로 처한 상황과 배경특성에 따라 적응실태가 서로 다르며, 외국인가정 자녀들의 경우 한국어가 국내출생자들에 비해 서툴러도 일상생활스트레스가 가장 낮고 삶의 만족도도 높은 등 심리사회적응 수준이 오히려 더 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단지 한국어가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특성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진로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최종 희망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문화청소년 중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진로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최종 학교 졸업한 후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응답율이 70% 내외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살겠다는 응답자 역시 70% 내외로 이는 한국의 다문화청소년들이 장기적 거주 의사가 높은 집단이며, 우리 사회의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네 번째로 가정환경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를 감독과 방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집단의 경우 감독의 수준이 가장 높고, 방임의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비하여 다문화청소년 중 가장 숫자가 많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감독은 가장 낮고 방임은 가장 높으며,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 수준도 가장 낮고, 부모와 보내는 시간도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에서도 나타났는데, 친구지지의 경우는 네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지지와 교사지지의 경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안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는 응답율에서도 국내출생국제결혼가정자녀의 응답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경우 한국 국적이고 한국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국적이 없고 한국어가 서툰 외국출생자보다 한국사회 적응을 더 잘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국적이거나 한국어보다는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관심 등 가정환경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언어나 정체성, 차별 등의 문제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외국출신인 경우 어머니와의 소통은 완전히 또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아버지가 외국출신인 경우 어머니에 비하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출신 부모나라 언어교육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부모들은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집단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인 정체성이 가장 강한 집단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정도 당연한 결과로 보이는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는 50%이상이 한국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48%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이 지니는 정체성은 반드시 부모의 출신이나 자신의 출생국에 근거하는 것만은 아님을 나타내었다. 차별경험과 관련해서는 전체 중 10%내외의 청소년들이 경험이 있었는데, 대부분 차별하는 사람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이었다. 또한 차별경험시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유형 내에서 매우 다양하며, 다문화청소년들의 다양한 영역의 발달과 성장은 부모의 출신국이나 자신의 출생지, 또는 한국어 등과 같은 표면적 이유가 아닌 그 청소년이 처한 환경, 특히 가정환경의 문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반적으로 여러 유형을 비교했을 때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취약함은 거주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부모교육수준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유발되고, 이들 집단이 다문화청소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환경특성이 고려된 세밀한 모델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X-72.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발달특성 결과 요약

요인		주요 결과
개인 요인	학교생활적응 및 방과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 전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요인	주요 결과
	<p>‘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는데, 국내출생자들이 국외출생자들에 비하여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10%p 이상 높음.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문항은 국내출생자들의 경우는 학교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는 점을 들었고, 국외출생자들은 학교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들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는데 특히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88.2%로 가장 높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의 동일응답비율이 77.5%로, 두 집단간의 차이가 약 10%p임. • 학교공부와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은 전반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50%내외였으며, 그 중 국내출생자들이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였고, ‘공부에 흥미가 없다’는 응답의 경우도 국내출생 및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로 나타남.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는 응답비율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비율이 가장 높음. • 학업성취수준은 집단간 차이가 없으나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가장 높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가 가장 낮음. • 방과후활동에서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고, 그 외 숙제나 공부하기 또는 학원이나 과외활동 등 학업관련 활동에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성이 있음.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에서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가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가 가장 낮음 • 삶의 만족도의 경우 외국인가정자녀들이 국제결혼가정자녀들에 비하여 높음. • 일생생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집단이 국제결혼가정(국내, 국외출생)이고 다음이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이며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가 가장 낮음. • 현재의 다양한 걱정거리 중 집단간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진학진로문제, 어머니와의 갈등, 형제자매와의 갈등 세 가지 요인임. 이 중 진학 및 진로문제의 경우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가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평균값이 낮고, 어머니와의 갈등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평균값이 가장 낮으며, 형제자매와의 갈등이 가장 높은 집단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임.

요인	주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경우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모두 외국인가정자녀들이 국제결혼가정자녀들에 비하여 평균값이 높음. 특히 정신적 건강의 경우는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들의 평균값이 가장 높음. • 키는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외국인가정자녀의 키가 국제결혼가정자녀들보다 크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키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몸무게의 경우 여자 청소년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남자의 경우 외국인가정이 국제결혼가정에 비해 더 평균이 높음.
진로 및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최종 희망교육수준이 가장 낮음. •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으나 특히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72.1%가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66.3%,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62.8%,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60.7%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함. • 한국국적이 없는 청소년들 중 향후 한국국적을 취득할 생각이 있는 비율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가 66.7%,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가 51.7%,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가 46.0%임. • 향후 한국에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표시한 사례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가 72.0%,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가 67.9%로 거의 70%내외의 다문화청소년은 향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함.
환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양육태도 중 감독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가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가 가장 낮으며, 방임의 경우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가 가장 높고, 다음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순임. • 부모와 하는 활동 정도에서는 국외출생자들이 국내출생자들에 비하여 많은 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들의 경우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이 가장 많은 집단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이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 수준이 가장 낮음. • 부모와 보내는 시간의 경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가 가장 적음 • 방과후 성인 보호자 없이 지내는 기간은 하위 유형별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보임.
사회적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지지의 경우 하위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지지와 교사지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산출됨. 즉, 부모지지의 경우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평균이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평균이 가장 낮음.

요인	주요 결과
	<p>정자녀가 가장 낮으며, 교사지지의 경우는 국외출생자들이 국내출생자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은 담임선생님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안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는 응답 비율에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가 가장 낮고, 학교밖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는 응답에서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응답비율이 가장 낮음.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은 학원 선생님이 가장 높음. • 주변 사람들과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대화를 하는지 대상별로 조사한 결과 형제자매와 친구 두 가지 대상에서만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요인 모두 국내출생자들의 평균값이 국외출생자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p>다문화 요인</p> <p>언어관련요인</p> <p>이중문화 환경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한국어실력에서는 국외출생자들만 비교하였는데 국제결혼가정자녀나 외국인가정자녀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외국출신 부모 중 아버지의 한국어실력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집단의 경우 가장 낮음. 이에 비해 외국출신 부모가 어머니일 경우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낮고,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평균값이 가장 높음. •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응답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로 51.6%임. 다음이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로 47.8%이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이 25.4%,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이 22.1%임. • 국내출생자들의 경우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항목은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었던 것에 비하여, 국외출생자들은 한국어와 어머니나라 말을 반반씩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이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응답이었음. •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의 경우 어머니에 비하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비율이 낮으며, 국내출생자들이 국외출생자들에 비하여 한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높음.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아버지나라 말을 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는 것이 나머지 집단의 반응양상에 비하여 특이한 점임. • 외국출신 부모나라 언어교육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특별히 하는 것이 없다’는 응답율이 50%내외로 가장 높음. <p>이중문화 환경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집단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이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가 가장 낮음 • 이중문화수용태도 중 한국문화수용도는 하위 유형간 차이가 없으나 본국문화 수용도의 경우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평균값이 가장

요인	주요 결과
	<p>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정체성의 경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81.5%가 한국사람이라고 인식하였고,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54.9%도 한국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48.0%도 한국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56.2%는 본국에 대한 정체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인과의 동일시 수준의 경우 하위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수준 역시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차별경험을 한 사례는 전체 중 10%내외인데, 차별하는 사람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이 대부분임. • 차별경험시에는 그냥 참았다는 응답율이 가장 높으나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 또는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는 응답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그에 비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그냥 참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4.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부모특성

학부모 결과는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영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문화적응, 자녀교육 및 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등이었다.

1) 부모의 심리·사회적응

(1) 자아존중감과 전반적인 건강

다문화청소년 어머니들의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총 9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상에 응답을 하도록 하고 평균을 구하였는데, <표 IX-7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점수는 거의 4점 내외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하위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는데,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어머니의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73. 어머니 자아존중감, 전반적인 건강상태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자아존중감	3.90(.53)	3.98(.58)	4.01(.53)	4.07(.60)	8.36***	d)a
전반적인 건강	3.63(.76)	3.67(.76)	3.66(.75)	3.84(.71)	5.79***	d)a

*** $p < .001$

(2) 걱정거리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유무

어머니들의 사회적 지지체계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이 86.4%,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이 83.7%,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이 82.5%,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이 7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74. 걱정거리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여부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예	1,418(82.5)	115(77.2)	95(86.4)	206(83.7)
아니오	300(17.5)	34(22.8)	15(13.6)	40(16.3)
전체	1,718(100)	149(100)	110(100)	246(100)

$\chi^2=4.32$

(3)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다음으로 가정 내 배우자와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배우자와의 사이가

어떠한지 ‘매우 나쁘다(1)’부터 ‘매우 좋다(5)’까지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IX-75>에 나타나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4점 내외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는데, 집단별로 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표 IX-75. 어머니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평균 (표준편차)	3.84(.74)	4.03(.73)	4.08(.91)	4.10(.75)	11.98***	b,c,d)a

*** $p < .001$

2) 다문화요인

(1) 한국어 요인

① 한국어 학습경험 여부

외국출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적응의 문제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언어와 관련하여 한국어 학습경험을 질문하였는데,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거나 현재 공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이상 이었다. 그 중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학습경험은 85%이상이었으며, 외국인가정 어머니는 70%대로 약 10%p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아마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한국어 교육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주 대상자가 국제결혼가정이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IX-76. 한국어 학습경험

학습경험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예	1,468(87.2)	109(85.2)	78(70.9)	181(73.6)
아니오	215(12.8)	19(14.8)	32(29.1)	65(26.4)
전체	1,683(100)	128(100)	110(100)	246(100)

$\chi^2 = 48.00, p < .001$

② 한국어 학습방식

따라서 한국어는 어디에서 공부를 하였는지 질문해본 결과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 등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데, 특히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이용비율이 83.6%로 가장 높았다. 또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경우는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방문교육서비스를 이용한 비율도 28.4%로 월등히 높았다. 교재를 사서 혼자 공부를 한 비율도 낮은 수준은 아니었는데, 대체적으로 20% 내외였다.

표 IX-77. 한국어 학습방식(중복응답)

학습방식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교육	992(83.6)	56(71.8)	33(70.2)	69(72.6)
방문교육서비스	337(28.4)	12(15.4)	8(17.0)	6(6.3)
인터넷 강의	39(3.3)	3(3.8)	-	7(7.4)
교재를 사서 혼자 공부	265(22.3)	19(24.4)	13(27.7)	18(18.9)
개인 과외	73(6.1)	7(9.0)	3(6.4)	11(11.6)
전체	1,187	78	47	95

③ 한국어 학습시기

다음으로 한국어를 언제 학습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학습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외국인가정 어머니들의 경우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어를 미리 학습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어머니의 경우 39.2%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어를 공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어머니의 경우 37.2%가 입국전에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응답한 반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경우 24.8%,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16.3%가 한국 입국전에 공부를 했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의 부모 교육수준 비교에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주도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IX-78. 한국어 학습시기

학습시기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한국에 들어오기 전	239(16.3)	27(24.8)	29(37.2)	71(39.2)
한국에 들어온 후	860(58.6)	52(47.7)	44(56.4)	85(47.0)
한국에 들어오기 전과 후 모두	369(25.1)	30(27.5)	5(6.4)	25(13.8)
전체	1,468(100)	109(100)	78(100)	181(100)

$\chi^2 = 81.48, p < .001$

④ 본인의 한국어 능력

그렇다면 현재 본인의 한국어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비교하였는데,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에 대하여 각각 '전혀 못한다(1)'부터 '매우 잘한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IX-7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간 값이 3점 이상 4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보면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자신감이 가장 높고, 다음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그리고 다음으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어머니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표 IX-79. 현재 한국어 수준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말하기	3.70(.77)	3.43(.93)	3.79(.99)	3.39(1.11)	13.56***	a,c>b,d
쓰기	3.22(.91)	3.09(.98)	3.55(1.12)	3.19(1.21)	5.01**	c>a,b,d
읽기	3.57(.85)	3.31(1.01)	3.74(.99)	3.31(1.18)	10.05***	a,c>b,d
듣기	3.81(.81)	3.55(.87)	3.93(.92)	3.54(1.10)	11.29***	a,c>b,d
전체	3.57(.73)	3.35(.85)	3.75(.95)	3.36(1.09)	10.39***	c>a>b,d,

** α .01, *** α .001

(2) 문화적응

① 주로 어울리는 집단

현재 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문화적응의 상태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사람이나 모국 또는 외국출신사람과 비슷하게 잘 어울린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대부분 모국 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지내고 한국 사람들하고는 가끔 어울린다’는 응답, 그 다음이 ‘모국 또는 나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는 응답 순이었다. 그러나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어머니의 경우는 ‘모국 또는 나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는 응답비율(20.9%)이 ‘대부분 모국 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지내고 한국 사람들하고는 가끔 어울린다’는 응답(19.1%)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큰 차이는 아니어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사람들하고 지낸다’는 응답 또는 ‘한국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는 응답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어머니들의 응답비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80. 주로 어울리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모국 또는 나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만 어울린다	303(18.0)	25(19.5)	23(20.9)	65(26.4)
대부분 모국 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지내 고 한국 사람들과고는 가끔 어울린다	392(23.3)	31(24.2)	21(19.1)	80(32.5)
한국 사람이나 모국에서 온 사람 또는 외국에 서 온 사람들과 모두 다 비슷하게 잘 어울린다	649(38.6)	48(37.5)	51(46.4)	79(32.1)
대부분 한국 사람들과 지내고 모국이나 외국 에서 온 사람들과고는 가끔 어울린다	235(14.0)	16(12.5)	11(10.0)	19(7.7)
한국 사람들과고만 어울린다	104(6.2)	8(6.3)	4(3.6)	3(1.2)
전체	1,683(100)	28(100)	110(100)	246(100)

$\chi^2 = 39.02, p < .001$

②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에 대해 ‘전혀 없다(1)’에서 ‘매우 많다(5)’ 까지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모든 집단에서 중간값이 3점 이하의 점수를 보여 전반적으로는 어려움 지각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집단별로 차이를 보았을 때, 국제결혼가정이 외국인가정에 비해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응력의 차이라기보다는 환경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국제결혼가정의 경우는 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가정 안팎에서 경험할 기회가 많은 반면, 외국인가정은 가정 밖에서는 한국문화에 적응을 해야 하지만, 적어도 가정 내에서는 본국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응 과정의 어려움은 다소 적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X-81.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평균 (표준편차)	2.84(.96)	2.84(.89)	2.59(1.04)	2.57(1.03)	7.14***	a,b>c,d

*** $p < .001$

③ 문화적응스트레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크게 차별감과 향수병 등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었는데, 우선 차별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였고, 향수병도 마찬가지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 두 요인을 합하여 전체 문화적응스트레스 점수를 살펴본 결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82. 문화적응스트레스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차별감	2.59(.80)	2.56(.77)	2.55(.83)	2.32(.85)	7.96***	a,b>d
향수병	2.81(.97)	2.72(.94)	2.71(1.05)	2.46(1.01)	9.01***	a>d
전체	2.67(.75)	2.62(.70)	2.61(.85)	2.37(.82)	10.86***	a,b,c>d

*** $p < .001$

④ 문화적응유형

이와 함께 문화적응 유형을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이 역시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개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우선 동화의 수준을 보면, 국외출생의 국인가정어머니들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한국문화에 동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가정이라도 국내출생자녀가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영주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을 것인데, 그에 비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본국지향성의 정도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문화와 본국문화를 모두 받아들이는 통합과 본국의 문화를 더 지향하는 분리의 두 개 하위요인에서는 하위 유형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 비해 한국문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본국문화도 적응하지 못하는 주변화 수준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자신의 정신건강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표 IX-83. 문화적응 유형

유형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동화	2.89(.81)	2.83(.79)	2.82(.76)	2.66(.76)	5.99***	a)d
통합	3.46(.69)	3.46(.72)	3.48(.71)	3.42(.74)	.26	-
분리	3.31(.73)	3.23(.73)	3.38(.78)	3.29(.73)	.91	-
주변화	2.31(.82)	2.20(.85)	2.12(.77)	1.99(.82)	12.32***	a)d

*** α .001

⑤ 차별경험

다음으로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70% 이상은 차별경험 피해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30% 이내로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어머니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어머니들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내외로 가장 높았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의 경험비율은 그보다 낮은 19.5%였다.

표 IX-84. 차별경험 피해여부

피해여부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예	500(29.7)	31(24.2)	33(30.0)	48(19.5)
아니오	1183(70.3)	97(75.8)	77(70.0)	198(80.5)
전체	1,683(100)	128(100)	110(100)	246(100)

$\chi^2 = 12.23, p < .01$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에게 거리나 동네, 상점, 음식점, 은행, 공공기관, 직장이나 일터,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각각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는지 ‘전혀 차별받지 않았다(1)’부터 ‘심한 차별을 받았다(4)’의 4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IX-8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점과 3점 사이의 평균값을 보여주어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장소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직장이나 일터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나 보육시설에서의 차별경험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의 경험의 경우 제도적이거나 모르는 사람에 의한 차별경험보다는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개인적인 관계속에서의 차별이 가장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문화

청소년들의 어머니들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거리 등 관련이 개인적 관계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보다 매일 일하고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차별감이 개인적인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표 IX-85. 차별경험장소

장소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전체	F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거리나 동네에서	2.37(.93)	2.13(.96)	2.06(.97)	2.33(.83)	2.26(.92)	.85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	2.26(.97)	2.32(1.01)	2.03(.88)	2.40(.89)	2.26(.96)	.99
공공기관에서	2.02(.96)	2.07(.91)	1.94(.80)	2.23(.89)	2.03(.94)	.88
직장/일터에서	2.60(.97)	2.80(.81)	2.78(.87)	2.73(.84)	2.63(.95)	.94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1.98(.89)	1.90(1.01)	1.85(.76)	2.04(.89)	1.97(.89)	.40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후 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의 70% 가량은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었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를 한다는 응답이 있었으나 이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들의 응답이었고, 특히 외국인가정의 어머니들은 거의 80% 정도는 그냥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86. 차별경험 시 대처방법

대처방법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전체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44 (8.8)	1 (3.2)	2 (6.1)	3 (6.3)	50 (8.2)
가족, 친구와 상의하였다	61 (12.2)	7 (22.6)	3 (9.1)	3 (6.3)	74 (12.1)
외국인 관련 상담기관, 센터 등에 문의하였다	10 (2.0)	1 (3.2)	-	2 (4.2)	13 (2.1)
관련 기관에 진정/신고하였다	7 (1.4)	-	-	2 (4.2)	8 (1.3)
카페, 인터넷, SNS 등에 글을 올렸다	7 (1.4)	1 (3.2)	-	-	8 (1.3)
그냥 참았다	365 (73.0)	21 (67.7)	26 (78.8)	38 (79.2)	450 (73.5)
기타	6 (1.2)	-	2 (6.1)	-	-
전체	500 (100)	31 (100)	33 (100)	48 (100)	612 (100)

$\chi^2 = 20.42$

3) 자녀교육 및 양육

(1)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이중언어

① 자녀와 대화시 사용 언어

첫 번째로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전적으로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비율이 54.1%로 가장 높았고, ‘거의 한국어를 쓰고 가끔 모국어를 쓴다’는 비율이 29.7%로 다음으로 높았으며,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하게 쓴다’는 응답 비율이 10.6%였다. 그 외 ‘거의 모국어를 쓰고 가끔 한국어를 쓴다’는 비율이 3.6%, ‘모국

어만 쓴다'는 비율이 1.8%로 소수지만 어머니나라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비율도 약 5.4%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25.5%)의 경우는 '거의 한국어를 쓰고 가끔 모국어를 쓴다'는 비율이 25.5%, '한국어만 쓴다'는 비율이 24.2%,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하게 쓴다'는 비율이 22.8%로 거의 유사하였고, '모국어만 쓴다(9.4%)' 또는 '거의 모국어를 쓰고 가끔 한국어를 쓴다(16.1%)'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25.5%정도로 나타나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보다는 모국어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가정의 경우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만 쓴다'고 응답한 비율이 40.9%로 가장 높았고, '거의 한국어를 쓰고 가끔 모국어를 쓴다'는 응답이 20.9%였으며,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하게 쓴다'는 비율이 21.8%였다. 이에 비해 '모국어만 쓴다'는 비율은 5.5%, '거의 모국어를 쓰고 가끔 한국어를 쓴다'는 비율이 10.9%인 것으로 나타나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25.5%)보다도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비율(16.4%)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자녀들이 국내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더 익숙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에 비하여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의 경우는 '한국어만 쓴다'는 비율인 23.2%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거의 한국어를 쓰고 가끔 모국어를 쓴다'는 비율이 12.6%,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하게 쓴다'는 비율이 19.9%로 나타났다. '모국어만 쓴다(20.7%)' 또는 '거의 모국어를 쓰고 가끔 한국어를 쓴다(23.2%)'는 비율이 거의 44%인 것으로 나타나 국외출생자들은 모국어로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는 비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87. 자녀와 대화시 사용언어

사용언어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모국어만 쓴다	30(1.8)	14(9.4)	6(5.5)	51(20.7)
거의 모국어를 쓰고 가끔 한국어를 쓴다	60(3.6)	24(16.1)	12(10.9)	57(23.2)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하게 쓴다	179(10.6)	34(22.8)	24(21.8)	49(19.9)
거의 한국어를 쓰고 가끔 모국어를 쓴다	500(29.7)	38(25.5)	23(20.9)	31(12.6)
한국어만 쓴다	910(54.1)	36(24.2)	45(40.9)	57(23.2)
기타	4(.2)	3(2.0)	-	1(.4)
전체	1,683(100)	149(100)	110(100)	246(100)

$\chi^2 = 450.13, p < .001$

②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그렇다면 자녀와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된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안된다(1)'부터 '매우 잘된다(4)'까지 4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는 잘 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보다는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매우 잘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었다. 이들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값으로 비교해본 결과, 외국인가정의 경우 국제결혼가정에 비하여 의사소통이 잘된다고 응답하고 있었는데, 네 집단 중 가장 평균값이 낮은 집단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응답이었다.

표 IX-88.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의 유형별 빈도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전혀 안 된다	10(.6)	1(.7)	-	1(.4)
잘 안 되는 편이다	111(6.6)	10(6.7)	7(6.4)	17(6.9)
잘 되는 편이다	1062(63.1)	80(53.7)	48(43.6)	108(43.9)
매우 잘 된다	500(29.7)	58(38.9)	55(50.0)	120(48.8)
전체	1,683(100)	149(100)	110(100)	246(100)

$\chi^2 = 54.73, p < .001$

표 IX-89.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의 유형별 평균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평균 (표준편차)	3.22(.58)	3.31(.63)	3.44(.61)	3.41(.64)	11.50***	c,d)a,b

*** $p < .001$

③ 자녀의 외국출신 부모 모국어 구사 능력

다음으로 자녀가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잘 못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41.0%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못한다'는 응답이 28.9%로 두 번째로 높아서 전체의 69.9%는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어느 정도 한다'는 응답이 28.1%로 가장 많았고, '잘 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27.3%,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13.3%로 전체의 68.7%는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일정부분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어머니나라의 언어를 '잘 못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31.8%, '전혀 못한다'는 응답이 19.1%로 전체의 50.9%는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비해 '어느 정도 한다'는 응답이 18.2%, '잘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22.7%,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8.2%로 나타나 39.1%는 어느

정도 어머니 나라 언어를 구사한다고 응답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당연히 ‘잘하는 편이다’라는 응답과 ‘매우 잘한다’는 응답을 더하여 58.1%가 잘한다고 응답을 하였고 ‘어느 정도 한다’는 응답이 16.3%로 나타나 전체의 74.4%는 어머니 나라의 언어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어머니 나라 언어가 바로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자신의 모국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중 15.9%는 ‘잘 못하는 편이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9.8%는 ‘전혀 못한다’라고 응답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혹시 어머니의 출신국과 자녀의 출신국이 다를 가능성을 감안하여 63명을 대상으로 어머니 출신국과 자녀 출신국을 교차분석해본 결과 본 연구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의 출신국과 자녀의 출신국은 큰 차원에서는 모두 일치하였다. 다만, 중국조선족과 중국 한족 및 기타민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자녀는 중국 한족 및 기타민족인데 어머니는 조선족이라거나 반대로 자녀가 조선족인데 어머니는 중국 한족 및 기타민족인 사례가 각각 2명씩으로 매우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어머니의 출신국과 자녀의 출신국이 서로 달라서 나타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X-90. 자녀의 외국출신부모 모국어 능력

모국어 능력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전혀 못한다	487(28.9)	11(8.6)	21(19.1)	24(9.8)
잘 못하는 편이다	690(41.0)	29(22.7)	35(31.8)	39(15.9)
어느 정도 한다	356(21.2)	36(28.1)	20(18.2)	40(16.3)
잘하는 편이다	110(6.5)	35(27.3)	25(22.7)	65(26.4)
매우 잘한다	40(2.4)	17(13.3)	9(8.2)	78(31.7)
전체	1,683(100)	128(100)	110(100)	246(100)

$\chi^2 = 157.86, p < .001$

자녀의 어머니 나라 언어 능력의 유형별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으로 비교해 본 결과 <표 IX-9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자녀들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그리고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마지막으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등의 순이었다. 이는 모국어에 대한 노출빈도 및 언어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IX-91. 자녀의 외국출신부모 모국어 능력의 평균비교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평균 (표준편차)	2.12(.98)	3.14(1.17)	2.69(1.25)	3.54(1.34)	528.47***	d>b>c>a

*** $p < .001$

④ 외국출신 부모나라 언어를 못하는 주된 이유

다음으로 자녀가 어머니 나라 언어를 ‘전혀 못한다’ 또는 ‘잘 못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자녀가 귀하의 모국어를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나 국외출생자, 그리고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의 경우 ‘나의 모국어를 배우기보다는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여 가르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나는 가르치려고 했으나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다. 그에 비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는 반대로 ‘나는 가르치려고 했으나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이 ‘나의 모국어를 배우기 보다는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여 가르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다. ‘나의 모국어를 하는 것이 큰 이득이 없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응답의 경우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응답비율이 1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이 12.7%,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이 10.0%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이 이중언어를 원활히 구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가 생각하기에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한국어를 더 강조했다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치려고 해도 자녀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92. 자녀가 외국출신 부모 모국어를 못하는 주된 이유

이유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나의 모국어를 하는 것이 큰 이득이 없어서 가르치지 않았다	181 (15.4)	4 (10.0)	1 (1.8)	8 (12.7)
나의 모국어를 배우기보다는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여 가르치지 않았다	475 (40.4)	21 (52.5)	23 (41.1)	22 (34.9)
나는 가르치려고 했으나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았다	372 (31.6)	9 (22.5)	22 (39.3)	30 (47.6)
나는 가르치려고 했으나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았다	102 (8.7)	2 (5.0)	7 (12.5)	1 (1.6)
기타	47 (4.0)	4 (10.0)	3 (5.4)	2 (3.2)
전체	1,177(100)	40(100)	56(100)	63(100)

$\chi^2 = 25.16, p < .05$

(2) 자녀 양육

① 초등학교 입학 전 주 양육자

다음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주로 자녀를 양육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어머니 자신이라는 응답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크게 보았을 때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는 국내출생자가정의 경우 84.5%, 국외출생자가정의 87.2%가 어머니 자신이 돌보았다고 응답하였고,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돌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내출생자가정이 9.0%, 국외출생자가정이 6.8%였던 반면, 외국인가정의 경

우는 국내출생자가정의 84.5%, 국외출생자가정의 75.2%가 어머니 자신이 돌보았다고 응답을 하였고,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돌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의 경우는 10.9%,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16.3%로 나타나 국제결혼가정자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93. 초등학교 입학 전 주 양육자

주 양육자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나	1451(84.5)	130(87.2)	93(84.5)	185(75.2)
남편	93(5.4)	4(2.7)	2(1.8)	11(4.5)
시부모	101(5.9)	5(3.4)	2(1.8)	15(6.1)
친정부모	53(3.1)	5(3.4)	10(9.1)	25(10.2)
기타 친인척	7(4)	2(1.3)	2(1.8)	5(2.0)
친구 또는 지인	1(1)	-	-	1(4)
자녀 혼자 집에 있었다	4(2)	-	1(9)	2(8)
기타	8(5)	3(2.0)	-	2(8)
전체	1,718(100)	149(100)	110(100)	246(100)

$\chi^2 = 68.66, p < .001$

② 자녀 양육시 어려운 점

자녀 양육시 어려운 점을 어려운 순서대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내용은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응답이었다. 특히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어머니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10%p 이상 높았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한 항목은 하위 유형별로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어머니는 ‘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11.2%로 두 번째로 높았고, 다음이 ‘다른 학부모와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10.2%)’,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충분히 지원

해주지 못하는 것(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은 ‘다른 학부모와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11.4%)’을 두 번째로 어려운 점으로 꼽았으며,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16.4%)’을 두 번째로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를 둔 어머니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다른 학부모와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12.2%)’을 두 번째로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표 IX-94. 자녀양육시 어려운 점

어려운 점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것	551(32.1)	42(28.2)	26(23.6)	108(43.9)
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	192(11.2)	12(8.1)	10(9.1)	24(9.8)
다른 학부모와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	176(10.2)	17(11.4)	10(9.1)	30(12.2)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	127(7.4)	9(6.0)	11(10.0)	17(6.9)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	121(7.0)	8(5.4)	11(10.0)	6(2.4)
학교 선생님과 소통이 어려운 것	38(2.2)	9(6.0)	5(4.5)	6(2.4)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	174(10.1)	13(8.7)	18(16.4)	14(5.7)
자녀가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치료가 어려운 것	1(1)	1(7)	2(1.8)	-
기타	5(3)	-	-	-
어려운 점이 없다	333(19.4)	38(25.5)	17(15.5)	41(16.7)
전체	1,718(100)	149(100)	110(100)	246(100)

$\chi^2 = 72.18, p < .001$

③ 부모 양육효능감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비교하였다.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자녀를 얼마나 잘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총 9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중간값인 3점 이상 4점에 가깝게 평균값이 산출되어, 부모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효능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하위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본 결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95. 부모 양육효능감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평균 (표준편차)	3.70(.53)	3.73(.53)	3.73(.48)	3.81(.60)	3.15*	d)a

* $p < .05$

(3) 자녀교육

① 자녀교육관련 주 의사결정자

이와 더불어 가정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한 결정을 주로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국제결혼가정의 경우는 국내출생(44.2%)과 국외출생(50.3%) 모두 부부공동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어머니 자신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비해 외국인가정에서는 어머니 자신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특히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의 경우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주 의사결정자가 어머니 자신이라는

응답이 59.1%로 네 집단 중 가장 비율이 높았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의 경우도 어머니 자신이라는 응답이 47.2%로 가장 높았으며, 부부공동이라는 응답이 국내 출생외국인가정의 경우는 35.5%,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의 경우는 41.9%로 나타나 국제결혼가정에 비하여 외국인가정 어머니들의 의사결정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비율이 19.3%,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비율이 14.1%로 외국인가정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96. 자녀교육 관련 주 의사결정자

의사결정자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나	608(35.4)	52(34.9)	65(59.1)	116(47.2)
남편	331(19.3)	21(14.1)	6(5.5)	23(9.3)
부부공동	759(44.2)	75(50.3)	39(35.5)	103(41.9)
시부모	16(.9)	-	-	1(.4)
친정부모	-	-	-	2(.8)
기타 친인척	3(.2)	1(.7)	-	1(.4)
기타	1(.1)	-	-	-
전체	1,718(100)	149(100)	110(100)	246(100)

$\chi^2 = 69.61, p < .001$

②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제공자

다음으로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운 숙제를 해야 할 때 주로 누가 도와주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는데, 국제결혼가정의 경우는 어머니 자신, 남편, 부부공동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외국인가정의 경우는 어머니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숙제를 지도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남편이나 부부공동으로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예를 들면,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어머니 자신이 지도를 한다는 응답이 60.9%로 매우 높았고, 다음이 부부공동

이라는 응답이 21.8%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어머니 자신이라는 응답이 46.3%, 부부공동이라는 응답이 22.0%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의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 및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큰 것으로 보인다.

표 IX-97. 자녀의 학교문제나 숙제지도를 주로 하는 사람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나	545(31.7)	49(32.9)	67(60.9)	114(46.3)
남편	546(31.8)	45(30.2)	7(6.4)	33(13.4)
부부공동	376(21.9)	45(30.2)	24(21.8)	54(22.0)
시부모	13(8)	-	-	4(1.6)
친정부모	2(1)	-	-	5(2.0)
기타 친인척	18(1.0)	2(1.3)	1(.9)	5(2.0)
지역의 전문센터나 기관	125(7.3)	4(2.7)	6(5.5)	22(8.9)
기타	93(5.4)	4(2.7)	5(4.5)	9(3.7)
전체	1718(100)	149(100)	110(100)	246(100)

$\chi^2 = 126.55, p < .001$

③ 자녀의 성적관리 노력 및 학교생활 참여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하는 노력과 관련하여 학교선생님과 상담을 한다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한다거나 학원에 보내거나 시험 때 평소보다 공부를 더 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노력과 관련한 7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하지 않는다(1)'부터 '매우 자주 한다(5)'까지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집단에서 평균이 중간값인 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의 평균값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집단의 평균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담임교사 면담이나 학부모 회의 및 교육참석,

그 외 각종 학교 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지난 1년 간 몇 회나 이러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전혀 하지 않는다(1)’, ‘1회(2)’, ‘2회(3)’, ‘3회(4)’, ‘4회 이상(5)’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IX-9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집단에서 2점 이하의 값이 산출되어서 전반적으로 1회 이하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 중 집단간 차이를 보면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부모가 자녀학교생활참여 빈도가 가장 높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부모의 참여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98. 자녀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자녀 학교생활 참여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자녀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2.63(.64)	2.67(.70)	2.78(.68)	2.77(.66)	4.66**	d>a
자녀 학교생활 참여	1.89(.78)	1.88(.72)	1.94(.83)	1.74(.71)	3.04*	c>d

* α .05, ** α .01

④ 사교육 참여현황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자녀가 교과목관련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교과목 관련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최소 53.3%에서 57.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참여비율인 54.2%를 2019년도 전국 초등학교 4학년의 일반 사교육참여율이 60.3%와 비교하면 다문화청소년들의 교과목 관련 사교육 참여 비율은 6.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체능 관련 사교육의 참여비율을 살펴보았는데, 이 역시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예체능 관련 사교육 참여비율은 전체 평균 4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9년도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예체능 사교육 참여비율인 65.0%(통계청, 2020)와 비교해보면 18.1%p 의 차이를 보여 교과목 관련 사교육

비 격차의 2.5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교과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 예체능에 대한 교육비를 투자하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X-99. 사교육 참여 여부

구분	여부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전체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교과목	예	915(53.3)	84(56.4)	63(57.3)	142(57.7)	1,204(54.2)
	아니오	803(46.7)	65(43.6)	47(42.7)	104(42.3)	1,019(45.8)
예체능	예	792(46.1)	79(53.0)	52(47.3)	120(48.8)	1,043(46.9)
	아니오	926(53.9)	70(47.0)	58(52.7)	126(51.2)	1,180(53.1)
전체		1,718(100)	149(100)	110(100)	246(100)	2,223(100)

교과목: $\chi^2= 2.54$, 예체능: $\chi^2= 3.04$

다음으로 사교육비의 수준을 질문하였는데, 우선 교과목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교과목 관련한 사교육비가 월평균 몇 만원인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평균 20.10만원에서 23.51만원까지였고,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문화청소년들의 교과목관련 사교육비 전체평균인 20.65만원을 2019년 전국 초등학교 4학년의 교과목관련 사교육비(참여학생 기준) 29.8만원(통계청, 2020)과 비교하면 다문화청소년집단의 교과목 관련 사교육비가 확실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과 함께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아래와 같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높았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예체능관련 사교육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교육비 평균인 13.38만원을 2019년도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참여학생 기준) 16.9만원과 비교하면 역시 3.6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100. 1인당 사교육비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전체	F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교과목	20.10 (17.15)	23.69 (18.43)	23.51 (13.21)	21.13 (21.13)	20.65 (16.95)	1.86
예체능	12.98 (7.37)	15.38 (12.26)	14.19 (8.04)	14.38 (10.11)	13.38 (8.24)	2.96*

*p<.05

사교육비의 부담과 관련하여 교과목 및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각각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1)’부터 ‘매우 부담된다(4)’의 4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평균값을 비교함으로써 하위 집단별 부담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과목과 예체능 관련 부담정도 모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X-101. 사교육비 부담 정도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교과목	2.87(.83)	2.74(.87)	3.03(.72)	2.76(.85)	2.27
예체능	2.83(.81)	2.63(.91)	2.94(.80)	2.80(.80)	1.82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이 전국 일반청소년들에 비하여 교과목 및 예체능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다문화청소년과 청소년일반집단과의 발달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4) 자녀의 진로 및 향후 계획

①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

자녀가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전반적으로는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하였다. 이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한 결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부모의 기대수준이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기대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102. 희망하는 자녀교육 수준

교육 수준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초등학교	12(.7)	-	1(.9)	1(.4)
중학교	2(.1)	-	-	-
고등학교	64(3.7)	7(4.7)	2(1.8)	8(3.3)
대학교	1423(82.8)	113(75.8)	89(80.9)	182(74.0)
대학원	217(12.6)	29(19.5)	18(16.4)	55(22.4)
전체	1718(100)	149(100)	110(100)	246(100)

$\chi^2 = 23.80, p < .05$

표 IX-103.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평균 (표준편차)	4.07(.48)	4.15(.47)	4.12(.50)	4.18(.51)	5.04**	d)a

** $p < .01$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교의 기대수준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61.6%로 나타나 나머지 집단(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50.9%,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45.5%,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42.9%)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대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6.9%로 전체 집단 중 가장 낮았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응답비율이 3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25.2%),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22.2%)였다. 그에 비해 명문대를 가야 한다는 응답은 외국인가정이 17%내외인 것에 비하여 국제결혼가정은 6%내외로 나타나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IX-104. 대학교 이상 자녀 교육 희망 시 구체적 수준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전문대라도 충분하다	214(15.0)	10(9.1)	15(15.2)	32(15.2)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876(61.6)	56(50.9)	45(45.5)	90(42.9)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240(16.9)	37(33.6)	22(22.2)	53(25.2)
명문대를 가야 한다	86(6.0)	7(6.4)	17(17.2)	35(16.7)
기타	7(.5)	-	-	-
전체	1423(100)	110(100)	99(100)	210(100)

$\chi^2 = 78.05, p < .001$

다음으로 자녀가 향후 대학을 어디에서 다니기를 원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절대다수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기를 원한다고 응답을 하여 이들 집단의 한국거주는 장기적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시사하였다.

표 IX-105. 희망하는 자녀의 대학진학 국가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한국	1,423(86.8)	110(77.5)	99(92.5)	210(88.6)
외국	217(13.2)	32(22.5)	8(7.5)	27(11.4)
전체	1,640(100)	142(100)	107(100)	237(100)

$\chi^2 = 14.35, p < .01$

② 향후 한국거주 형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자녀가 한국국적이 없는 조사대상자에게 향후 자녀를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생각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한국거주의사가 있는 경우가 80%내외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만, 외국인가정자녀 중 국외출생자들의 경우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3%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자녀의 한국적응 여부, 한국체류의 가능성 등에 따라 거주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IX-106. 향후 자녀 한국 거주 여부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예	20(80.0)	20(76.9)	171(76.3)
아니오	-	3(11.5)	3(1.3)
아직 잘 모르겠다	5(20.0)	3(11.5)	50(22.3)
전체	25(100)	26(100)	224(100)

$\chi^2 = 13.05, p < .05$

위 질문에서 한국에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171명을 대상으로 거주 형태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귀화나 입양 등을 통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60%였고, 나머지는 한국의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현재 상태에서 거주하게 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각각 10%였고, 아직 모르겠다든 응답도 4명(20%) 있었다. 이에 비해 외국인가정의 경우는 그 양상이 조금 달랐는데,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는 한국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8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5명(25.0%), 현재의 상태에서 거주하게 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4명(20%), 아직 모르겠다든 응답이 3명(15.0%)로 나타났다. 국외출생 외국인가정도 국내출생 외국인가정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었으나 한국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응답(34.5%)과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예정이라는 응답(32.2%)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외국인이고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상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다시 한 번 시사해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과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표 IX-107. 향후 자녀 한국 거주 형태

거주 형태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예정이다(귀화, 입양 등)	12(60.0)	5(25.0)	55(32.2)	
한국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다	2(10.0)	8(40.0)	59(34.5)	
자녀의 현재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게 할 예정이다	2(10.0)	4(20.0)	29(17.0)	
아직 모르겠다	4(20.0)	3(15.0)	28(16.4)	
전체	20(100)	20(100)	171(100)	

$\chi^2 = 9.11$.

추가로 향후 자녀가 한국에 계속 거주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6명에게 어떻게 할 예정인지 질문하였는데,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이었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의 경우는 조만간 돌아갈 예정이라거나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 예정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표 IX-108. 향후 자녀 한국 거주 기간

거주 기간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조만간 돌아갈 예정이다	-	2(66.7)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 예정이다	-	1(33.3)
아직 모르겠다	3(100.)	-
전체	3(100)	3(100)

$\chi^2 = 6.00, p < .05$

4)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1) 다문화청소년 특별지원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과 관련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 선호도, 지원방식, 지원경험, 지원의 도움정도 등을 질문하였다. 우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거의 90%에 육박하여 대부분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5%내외였다.

표 IX-109. 특별지원의 필요성

필요성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예	1517(88.3)	124(83.2)	97(88.2)	217(88.2)
아니오	201(11.7)	25(16.8)	13(11.8)	29(11.8)
전체	1,718(100)	149(100)	110(100)	246(100)

$\chi^2 = 3.36$

(2) 다문화청소년 지원방식 선호도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955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특별지원의 방식을 질문하였는데, 모든 집단에서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간 차이를 보았을 때, 다문화청소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3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110. 다문화청소년지원 방식 선호도

구분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다문화청소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514(33.9)	30(24.2)	27(27.8)	55(25.3)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도 상관없다	1,003(66.1)	94(75.8)	70(72.2)	162(74.7)
전체	1,517(100)	124(100)	97(100)	217(100)

$\chi^2 = 11.13, p < .01$

(3) 다문화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제공 장소의 선호도

이어서 만일 자녀가 학교공부 또는 취미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배우기를 원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학교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특히 국제결혼가정어머니들의 경우 외국인가정 어머니들에 비하여 학교를 선호하는 비율이 10%p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다음으로는 학원을 선호하였는데, 학원을 선호하는 비율은 학교에 대한 선호도와는 반대로 외국인가정의 경우 국내 출생자 가정이 27.3%, 국외출생자 가정이 22.8%였던 것에 비하여 국제결혼가정의 경우는 약 18%내외로 학원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111. 선호하는 지원프로그램 제공 장소

장소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	국외출생	국내출생	국외출생
학교	1058(61.6)	97(65.1)	59(53.6)	128(52.0)
지역의 아동센터 또는 청소년센터	223(13.0)	10(6.7)	14(12.7)	27(11.0)
지역의 다문화 관련 센터	108(6.3)	13(8.7)	7(6.4)	35(14.2)
학원	321(18.7)	27(18.1)	30(27.3)	56(22.8)
기타	8(.5)	2(1.3)	-	-
전체	1,718(100)	149(100)	110(100)	246(100)

$\chi^2 = 38.19, p < .001$

(4) 지원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도움 정도

다음으로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경험도를 파악하고 하위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전체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지원의 내용은 견학 및 체험활동으로 전체의 38.9%가 경험을 하였고, 다음으로 많은 경험을 한 것이 문화공연관람으로 32.3%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경험비율이 낮은 프로그램은 진로프로그램으로 전체의 9.9%만이 경험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낮은 경험율을 보인 항목은 현금지원(10.6%)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으로 여기는 이중언어교육의 경우는 전체의 13.9%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경우도 교사나 현장전문가들의 중요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12.6%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멘토링의 경우도 다문화청소년들의 기초학력제고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인데 전체의 23.2%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집단간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한국어교육, 멘토링, 무료방문학습지, 캠프 등이었는데, 한국어는 국외출생자들의 경험비율이 높았고, 멘토링의 경우 국내출생자들의 경험비율이 높았으며, 무료방문학습지와 캠프의 경우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험비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112. 지원경험 비율(있다 비율만)

서비스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전체	x ²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한국어교육	441(25.7)	45(30.2)	21(19.1)	90(36.6)	597(26.9)	17.31***
이중언어교육	236(13.7)	14(9.4)	22(20.0)	37(15.0)	309(13.9)	6.25
교과목학습지도	456(26.5)	35(23.5)	29(26.4)	66(26.8)	586(26.4)	.69
멘토링 프로그램	415(24.2)	23(15.4)	29(26.4)	48(19.5)	515(23.2)	8.42*
무료방문학습지	455(26.5)	23(15.4)	18(16.4)	36(14.6)	532(23.9)	27.20***
특기적성교육	338(19.7)	27(18.1)	22(20.0)	64(26.0)	451(20.3)	5.83
문화체험	418(24.3)	32(21.5)	23(20.9)	75(30.5)	548(24.7)	6.25
문화공연관람	575(33.5)	36(24.2)	35(31.8)	73(29.7)	719(32.3)	6.37
견학 및 체험활동	688(40.0)	50(33.6)	40(36.4)	87(35.4)	865(38.9)	4.33
캠프	521(30.3)	24(16.1)	20(18.2)	60(24.4)	625(28.1)	21.84***
심리적응 프로그램	216(12.6)	18(12.1)	11(10.0)	36(14.6)	281(12.6)	1.63
현금지원	196(11.4)	8(5.4)	10(9.1)	21(8.5)	235(10.6)	6.87
물적지원	297(17.3)	17(11.4)	16(14.5)	51(20.7)	381(17.1)	6.23
진로 프로그램	169(9.8)	11(7.4)	11(10.0)	29(11.8)	220(9.9)	2.05

*p<.05, ***p<.001

지원받았던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도움 안된 다(1)’부터 ‘매우 도움된다(5)’까지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한 결과 <표 IX-11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이 4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문화공연관람과 캠프로, 두 가지 모두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의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113. 서비스 지원 도움 정도

서비스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F	사후검증
	국내출생 ^a	국외출생 ^b	국내출생 ^c	국외출생 ^d		
자녀한국어교육	4.13(.79)	4.36(.83)	4.24(.89)	4.19(.79)	1.20	-
자녀이중언어교육	3.88(.94)	4.21(.80)	4.09(.87)	4.16(.80)	1.66	-
교과목학습지도	4.11(.77)	4.09(.98)	4.24(.74)	4.14(.70)	0.29	-
멘토링 프로그램	4.02(.84)	4.30(.76)	4.03(.82)	3.94(.84)	1.04	-
무료방문학습지	4.03(.82)	4.00(1.00)	3.94(1.16)	3.83(.94)	0.61	-
특기적성교육	4.09(.79)	4.26(.76)	4.23(.92)	4.03(.80)	0.71	-
문화체험	4.16(.76)	4.25(.62)	4.39(.84)	4.16(.77)	0.81	-
문화공연관람	4.13(.72)	3.97(.84)	4.37(.73)	3.97(.90)	2.78*	-
견학 및 체험활동	4.25(.66)	4.02(1.00)	4.33(.66)	4.21(.75)	2.01	-
캠프	4.21(.69)	4.25(.68)	4.60(.68)	4.10(.73)	2.64*	c)d
심리적응 프로그램	4.02(.93)	4.22(.55)	4.00(.89)	4.03(.77)	0.29	-
현금지원	4.25(.84)	3.88(1.36)	4.50(.71)	4.10(1.22)	0.92	-
물적지원	4.04(.77)	4.24(.56)	4.38(.72)	4.10(.73)	1.29	-
진로 프로그램	4.13(.77)	4.18(.40)	4.55(.52)	4.00(.85)	1.40	-

* $p < .05$

5) 요약 및 소결

본 분석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부모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가정환경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하위 유형에 따라 부모의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심리사회적응

수준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전반적인 건강수준 모두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고,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역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또한 한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오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 의사소통 정도 역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출신 부모나라 언어 능력도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경우 부모 양육효능감이 가장 낮고,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는 부부가 함께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도 수준에서 가장 낮고, 자녀가 최종적으로 공부하기 바라는 최종희망학력 수준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의 경우 모든 하위 유형을 전국 4학년 기준의 비용과 비교하였는데, 교과목과 예체능 모두 전국기준보다 낮으며, 특히 예체능에 투입하는 사교육비는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문화청소년 집단이 청소년 일반 집단에 비하여 교육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하위 유형 중에서도 사교육비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어서 향후 집단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어머니들의 경우 오히려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고,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결정하며, 자녀의 학교공부도 자신이 도와주고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고, 지원의 방식에 대하여 네 집단 모두 다문화청소년인 것이 드러나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그 중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어머니들의 경우 다문화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청소년 유형별로 지원경험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

데, 국외출생자들은 한국어교육을, 국내출생자들은 멘토링과 무료방문학습지, 캠프 등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정책이 수요자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외출생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한국어교육이므로 그들에게는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내출생자들은 일상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과 관련된 독해력, 수리력 등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표 IX-114.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부모 특성

요인		주요 결과
심리사회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존중감과 전반적인 건강 모두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평균값이 가장 낮음.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역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평균값이 가장 낮음
다문화 요인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학습경험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어머니가 가장 높고,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어머니가 가장 낮음. 한국어 학습방식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복지관 교육 등을 이용한 비율에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의 응답율이 가장 높고, 교재를 사서 혼자 공부했다는 응답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어머니 응답율이 가장 높음 한국어 학습시기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공부를 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집단이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의 비율이 가장 낮음 반면,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공부했다는 응답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 어머니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어머니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다음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임.
	문화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출신 어머니들이 주로 어울리는 집단은 한국출신이나 모국출신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모국이나 외국출신자들과만 어울린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어머니 집단임.

요인	주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는 차별감과 향수병 모두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어머니가 나머지 집단에 비해 낮음. 문화적응유형 중 동화의 평균값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값이 가장 높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어머니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낮으며, 주변화의 경우도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어머니 집단 평균값이 가장 높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어머니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낮음. 통합과 분리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한국사회의 차별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70% 이상임. 그 중 차별경험을 했다는 응답비율은 주로 국내출생자들의 어머니들이 가장 높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부모들의 피해경험율이 가장 낮음. 차별 경험 시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들도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대다수임.
자녀 교육 및 양육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이중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와의 대화시 언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한국어만 쓰는 비율이 높음.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국내출생 및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평균값이 가장 낮음. 자녀의 외국출신 부모 모국어 능력에 대한 어머니들의 평가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집단이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이 가장 낮음. 자녀가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못하는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나의 모국어를 배우기 보다는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여 가르치지 않았다'는 응답임.
	자녀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입학 전 주 양육자가 어머니 본인인 비율이 대부분 85% 내외로 가장 높았으나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그 비율이 75.2%로 약 10%p 가량 낮음.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은 모든 집단에서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꼽음. 부모 양육효능감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이 가장 낮음.
	자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교육 관련 주 의사결정자에 대하여 외국인가정의 경우 어머니 본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국제결혼가정은 부부공동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자녀의 학교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의 경우도 유사하여 외국인가정의 경우는 어머니 자신이라는 응답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국제결혼가정은 자신, 남편, 부부공동이라는 응답율이 유사한 수준임.

요인	주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도는 외국인가정자녀의 부모들이 더 높으며 특히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의 평균값이 가장 낮음 •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의 부모의 참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과목 관련 사교육 참여자는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고 집단 별로 큰 차이는 없으며, 예체능 관련 사교육 참여도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을 제외하고는 50%가 약간 못되는 수준이며 역시 집단 간 차이는 없음. • 사교육비의 경우 교과목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체능의 경우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의 평균이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평균이 가장 낮음. • 교과목 관련 사교육 참여자는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고 집단 별로 큰 차이는 없으며,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을 제외하고는 50%가 약간 못되는 수준이며 역시 집단 간 차이는 없음. • 사교육비의 경우 교과목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체능의 경우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의 평균이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평균이 가장 낮음. • 사교육비 수준을 전국 4학년 사교육비 평균과 비교해보면 교과목 과 예체능 모두 전국기준보다 낮으며, 특히 예체능 사교육비는 더욱 낮음. •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정도는 교과목과 예체능 모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자녀의 진로 및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최종 학력에 대한 기대수준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집단이 가장 낮음. • 자녀가 대학을 어느 나라에게 다니기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국에서 다니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특히 국내출생 외국인 가정자녀들의 어머니들이 한국 대학 진학을 원한다는 응답이 92.5%로 가장 높았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어머니 집단이 77.5%로 가장 낮음. • 현재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 향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예정인지에 대해 80% 내외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응답함. •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어머니는 60.0%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외국인가정은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응답율이 가장 높음.

요인	주요 결과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거의 90%에 육박하는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선호방식에 대해서는 네 집단 모두 다문화 배경이 드러나도 상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어머니 집단의 경우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음. • 다문화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제공장소로는 학교가 가장 선호됨. •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프로그램의 경험에서 하위 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한국어교육, 멘토링, 무료방문학습지, 캠프 등 네 가지로, 한국어교육은 국외출생자들이 많이 경험하였고, 멘토링은 국내출생자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였으며, 무료방문학습지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경험비율이 높으며, 캠프 역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의 경험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원에 대한 도움 정도는 캠프에서만 나타났는데,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어머니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5. 소결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 중 2019년도에 구축한 2기 패널의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 하위 유형별 발달의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하위유형별로 거주지 규모, 본인 및 부모 국적, 체류자격, 부모 연령 및 교육수준, 가구원 수, 가정의 경제수준 등을 비교분석하였고, 둘째로 학교생활 적응 및 방과후 활동,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진로 및 향후 계획, 가정환경, 사회적지지, 언어 및 이중문화환경요인 등을 비교하였으며, 셋째로 부모의 심리·사회적응, 한국어 학습 및 문화 적응, 자녀의 교육 및 양육, 자녀의 진로 및 향후 계획,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유형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집단 내에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하위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집단이 한국사회에 등장한 이후 오랜 동안 다문화 청소년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국내출생자’와 ‘중도입국자’라는 구분으로 현장의 인식은 있었으나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있어서는 이들 집단 내 다양성과 그에 따른 요구의 차별성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문화청소년을 부모의 출신과 자신의 출생지를 기준으로 네 가지로 구분한 범주 내에서도 발달 전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우리 사회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집단 내 다양한 특성과 그에 따른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히 한국국적이거나 한국어 소통능력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경우 한국국적이 있고 한국어 소통능력에서 문제가 가장 없는 집단이지만 여러 발달지표에서 가장 취약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오히려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이고 본인도 외국에서 출생한 청소년들의 적응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비해 더 나은 경향성이 있었고, 자녀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정도나 관심도 등에서도 더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었다.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다문화청소년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지역적으로나 가정의 환경적 요인에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취약하다는 것은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집단 중 다수가 발달에서 청소년 집단 일반과 격차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청소년 집단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정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내에서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다문화청소년들이 집단 내에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일반집단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교육비의 경우 전국 초등학교 4학년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전국 기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사교육비가 높다고 교육수준이 높고 청소년의 발달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교육비를 자녀에게 투입한다는 것은 교육비 뿐 아니라 가정의 자녀에 대한 태도, 기대, 관심, 경제적 수준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교육 수준은 청소년의 발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다문화청소년 집단 전체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향후 사회계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 정책에서도 이러한 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 X 장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별 분석 : 2기 패널 분석

- 1. 분석개요
- 2.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 3.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 4. 거주지 규모에 따른 차이
- 5. 요약 및 소결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별 분석 : 2기 패널 분석*

1. 분석개요

지금까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그러한 결과에 더하여 그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배경특성을 파악하고자 다문화청소년의 하위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 그리고 거주지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인 가정의 경제수준과 부모교육수준에 더하여 앞의 유형별 분석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던 거주지 규모별 분포를 포함하여 세 가지 특성별로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X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표 X-1.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별 비교분석 영역

주요 배경특성	발달특성	
1. 가정·경제적 수준 2. 부모교육수준 3. 거주지 규모	1) 학교 및 교육관련 요인	(1) 학교생활적응, (2) 지난학기 성적 (3) 성적에 대한 만족도 (4) 최종 희망교육수준
	2) 심리·사회적응 관련 요인	(1) 자아존중감 (2) 사회적 역량 (3) 삶의 만족도 (4) 일상생활스트레스 (5) 우울 (6) 현재 걱정거리 (7)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8)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
	3) 다문화요인	(1) 문화적응스트레스 (2)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4) 주관적 건강 및 신체발달 관련 요인	(1) 신체적 건강 (2) 정신적 건강 (3) 키 (4) 몸무게
	5) 부모관련 요인	(1) 부모양육태도 (2) 부모와의 활동정도

2.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1) 학교 및 교육관련 요인

우선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학교생활, 성적 등과 관련된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때 경제수준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2019년도 통계청 발표 기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이 경제값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1분위는 219만원 이하, 2분위는 220만원에서 356만원, 3분위는 357만원에서 482만원, 4분위는 483만원에서 676만원, 5분위는 676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5분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각 영역별 주요 변인들을 비교한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생활적응과 지난학기 성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적응 및 지난학기 성적의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성적에 대한 만족도 역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이후 어느 수준까지 학교교육을 받고 싶은지 최종 희망교육수준을 비교하였는데, 역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희망하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다만 사후검증에서 소득수준이 3분위인 집단과 5분위인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4분위의 평균값이 3분위의 평균값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최종희망교육수준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X-2.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교 및 교육관련 요인

요인	1분위 ^a	2분위 ^b	3분위 ^c	4분위 ^d	5분위 ^e	전체	F
학교생활적응	3.19 (0.53)	3.20 (0.51)	3.27 (0.47)	3.25 (0.50)	3.38 (0.49)	3.22 (0.51)	3.22*
지난학기 성적	3.37 (0.77)	3.37 (0.79)	3.39 (0.73)	3.54 (0.80)	3.67 (0.66)	3.40 (0.77)	4.14** d)a,b
성적에 대한 만족도	2.96 (0.68)	2.97 (0.68)	2.96 (0.70)	3.04 (0.64)	3.14 (0.65)	2.98 (0.68)	1.40
희망교육수준	3.80 (0.70)	3.89 (0.63)	3.93 (0.58)	3.91 (0.71)	4.16 (0.55)	3.88 (0.65)	5.73*** e,c)a,b

* $p < .05$, ** $p < .01$, *** $p < .001$

2) 심리·사회적응 관련 요인

두 번째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우선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 일상생활스트레스 및 우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경험하는 걱정의 수준과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는데, 소득수준 5분위인 집단이 1분위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평균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협력하는 능력의 개념인 사회적 역량의 경우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 역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삶의 만족도의 경우 소득수준 1분위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스트레스의 경우는 다소 특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소득수준 4분위인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소득수준 1분위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의 경우는 소득수준 1분위인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다음이 4분위인 집단, 그리고 나머지 집단들이 뒤를 따르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현재 걱정거리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경우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X-3.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응

요인	1분위 ^a	2분위 ^b	3분위 ^c	4분위 ^d	5분위 ^e	전체	F
자아존중감	3.23 (0.59)	3.29 (0.55)	3.34 (0.54)	3.34 (0.55)	3.44 (0.55)	3.29 (0.56)	4.08** d>a
사회적 역량	3.17 (0.60)	3.21 (0.59)	3.27 (0.56)	3.27 (0.62)	3.35 (0.61)	3.22 (0.59)	2.97*
삶의 만족도	3.27 (0.59)	3.36 (0.53)	3.40 (0.54)	3.40 (0.54)	3.46 (0.52)	3.35 (0.55)	5.33*** d,c,b>a
일상생활 스트레스	2.20 (0.94)	2.07 (0.92)	2.03 (0.92)	2.29 (0.97)	2.10 (1.03)	2.13 (0.94)	4.87*** a>c/ d>b,c
우울	1.49 (0.81)	1.35 (0.70)	1.37 (0.71)	1.42 (0.79)	1.35 (0.63)	1.40 (0.75)	3.68** a>b
현재 걱정거리	26.33 (8.33)	23.26 (9.31)	24.76 (8.16)	30.00 (12.14)	28.50 (0.71)	25.32 (9.35)	1.70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1.14 (0.37)	1.12 (0.34)	1.11 (0.33)	1.11 (0.30)	1.07 (0.14)	1.12 (0.34)	0.83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비교하였는데,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교사지 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지지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지지 역시 전체 적인 경향성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분 위 집단의 평균값이 3.86으로 3분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4.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요인	1분위 ^a	2분위 ^b	3분위 ^c	4분위 ^d	5분위 ^e	전체	F
부모지지	3.29 (0.54)	3.34 (0.54)	3.36 (0.54)	3.43 (0.56)	3.50 (0.57)	3.34 (0.54)	3.92** d)a
친구지지	3.79 (0.85)	3.84 (0.81)	3.93 (0.76)	3.86 (0.86)	4.05 (0.70)	3.85 (0.82)	2.80* c,e)a
교사지지	3.74 (0.84)	3.79 (0.80)	3.85 (0.79)	3.80 (0.83)	3.88 (0.75)	3.79 (0.81)	1.48

* $p < .05$, ** $p < .01$

3) 다문화요인

다음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요인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는데, <표 X-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X-5.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요인	1분위 ^a	2분위 ^b	3분위 ^c	4분위 ^d	5분위 ^e	전체	F
문화적응 스트레스	1.30 (0.42)	1.29 (0.42)	1.26 (0.39)	1.23 (0.36)	1.32 (0.51)	1.28 (0.41)	1.49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3.51 (0.72)	3.49 (0.72)	3.53 (0.75)	3.63 (0.73)	3.65 (0.70)	3.52 (0.72)	2.20

4) 주관적 건강 및 신체발달관련 요인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관적 건강 및 신체발달수준을 비교하였는데, <표 X-6>과 <표 X-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모두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키와 몸무게 역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X-6.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요인	1분위 ^a	2분위 ^b	3분위 ^c	4분위 ^d	5분위 ^e	전체	F
신체적 건강	3.47 (0.61)	3.45 (0.61)	3.53 (0.57)	3.47 (0.70)	3.55 (0.61)	3.48 (0.61)	1.60
정신적 건강	3.49 (0.58)	3.49 (0.58)	3.57 (0.53)	3.53 (0.63)	3.55 (0.61)	3.51 (0.58)	1.51
전반적 건강	3.48 (0.54)	3.47 (0.55)	3.55 (0.50)	3.50 (0.60)	3.55 (0.58)	3.49 (0.55)	1.79

표 X-7.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신체발달 수준

요인	1분위 ^a	2분위 ^b	3분위 ^c	4분위 ^d	5분위 ^e	전체	F
키	142.01 (8.01)	141.78 (6.99)	142.18 (7.26)	142.82 (7.33)	143.98 (6.44)	142.08 (7.38)	1.81
몸무게	39.58 (10.30)	39.37 (9.28)	39.45 (9.62)	39.53 (10.18)	38.84 (8.42)	39.45 (9.72)	0.09

5) 부모관련 요인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부모와 관련된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우선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학력을 비교하였는데, <표 X-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모두 높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표 X-8.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학력

요인	1분위 ^a	2분위 ^b	3분위 ^c	4분위 ^d	5분위 ^e	전체	F
어머니 학력	1.98 (1.03)	2.05 (0.96)	2.21 (0.99)	2.47 (1.21)	3.31 (1.34)	2.14 (1.05)	27.54*** e)d)c>a,b
아버지 학력	2.13 (0.96)	2.32 (0.98)	2.43 (0.97)	2.66 (1.07)	3.29 (1.34)	2.37 (1.02)	22.40*** e)d)c>b>a

*** $p < .001$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른지 하위요인인 감독과 방임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X-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X-9.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	1분위 ^a	2분위 ^b	3분위 ^c	4분위 ^d	5분위 ^e	전체	F
감독	3.29 (0.54)	3.33 (0.55)	3.38 (0.55)	3.38 (0.55)	3.41 (0.58)	3.34 (0.55)	2.25
방임	1.67 (0.65)	1.64 (0.65)	1.63 (0.66)	1.56 (0.62)	1.59 (0.64)	1.64 (0.65)	1.48

다음으로 부모와의 대화나 여가활동 등 활동정도를 비교하였는데, <표 X-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10.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와의 활동정도

요인	1분위 ^a	2분위 ^b	3분위 ^c	4분위 ^d	5분위 ^e	전체	F
부모와의 활동	2.59 (0.87)	2.71 (0.87)	2.83 (0.88)	2.77 (0.89)	3.06 (0.86)	2.71 (0.88)	7.56*** e,d,c>a

*** $p < .001$

3.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다음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주요 발달현황을 비교하고자 하였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각각 비교하였다. 조사에서는 중졸이하, 고졸,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등 총 6개 범주로 조사를 하였으나 대학교의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구분하거나 대학원 석사와 박사를 구분하게 될 경우 중졸과 고졸자 빈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비율이 낮은 관계로 중졸이하, 고졸, 대학졸(2년-4년제), 대학원졸(석사, 박사) 등 4개의 범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1) 학교생활 및 교육관련 요인

우선 학교생활 및 교육과 관련된 영역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관련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X-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교생활적응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어머니 교육수준이 대학졸업자인 집단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이 가장 낮았다. 지난학기의 성적도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집단의 평균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에 비하여 대학졸업 이상인 집단의 평균이 통계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성적만족도의 경우는 대학졸업인 집단의 평균이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뚜렷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에 비해 희망교육수준의 경우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내었고, 집단간 차이는 결국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집단과 대졸 이상인 집단의 차이인 것으로 보였다.

표 X-11.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 및 교육관련 요인

요인	중졸이하 ^a	고등학교 졸업 ^b	대학졸업 ^c	대학원 이상 ^d	전체	F
학교생활 적응	3.20 (.51)	3.19 (.49)	3.29 (.51)	3.40 (.55)	3.22 (.51)	6.57*** c>a,b, d>b
지난학기 성적	3.35 (.77)	3.37 (.76)	3.50 (.78)	3.52 (.77)	3.40 (.77)	4.58** c,d>a,b
성적 만족도	2.97 (.68)	2.94 (.69)	3.05 (.64)	2.94 (.76)	2.98 (.68)	3.04* c>b
희망교육 수준	3.78 (.69)	3.87 (.62)	3.98 (.63)	4.13 (.64)	3.88 (.65)	11.64*** c,d>a,b

* $p < .05$, ** $p < .01$, *** $p < .001$

(2) 심리·사회적응 관련 요인

다음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응 실태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일상생활스트레스, 우울, 현재 걱정거리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의 경우 어머니가 대학졸업자인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어머니가 대학원 이상 졸업한 집단의 평균값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변인들과 함께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어머니 교육수준이 대학원이상인 경우 그 수가 48명으로 지나치게 수가 적어 극단적 값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X-12.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응

요인	중졸이하 ^a	고등학교 졸업 ^b	대학졸업 ^c	대학원 이상 ^d	전체	F
자아존중감	3.26 (.56)	3.29 (.54)	3.32 (.56)	3.38 (.66)	3.29 (.56)	1.54
사회적역량	3.18 (.61)	3.23 (.58)	3.27 (.57)	3.15 (.74)	3.22 (.59)	2.68* c)a
삶의 만족도	3.31 (.58)	3.34 (.53)	3.42 (.54)	3.34 (.65)	3.35 (.55)	3.80** c)a
일상생활 스트레스	2.17 (.93)	2.11 (.94)	2.09 (.93)	2.19 (.98)	2.13 (.94)	0.96
우울	1.40 (.77)	1.39 (.73)	1.42 (.75)	1.40 (.82)	1.40 (.75)	0.20
현재 걱정거리	22.06 (7.43)	25.52 (8.63)	25.43 (10.29)	28.54 (10.21)	25.29 (9.32)	1.27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1.15 (.36)	1.11 (.32)	1.11 (.31)	1.26 (.67)	1.12 (.34)	4.53** d)b,c

* $p < .05$, ** $p < .01$

이에 비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지거나 교사지지의 경우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X-13.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요인	중졸이하 ^a	고등학교 졸업 ^b	대학졸업 ^c	대학원 이상 ^d	전체	F
부모지지	3.32 (.54)	3.32 (.54)	3.39 (.54)	3.45 (.54)	3.34 (.54)	3.02*
친구지지	3.81 (.83)	3.84 (.82)	3.90 (.80)	3.97 (.84)	3.85 (.82)	1.48
교사지지	3.78 (.83)	3.78 (.80)	3.82 (.82)	3.81 (.73)	3.79 (.81)	0.49

* $p < .05$

(3) 다문화요인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요인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경우는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태도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대학졸업자인 경우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14.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요인

요인	중졸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졸업	대학원 이상 ^b	전체	F
문화적응 스트레스	1.26 (.37)	1.29 (.43)	1.28 (.41)	1.36 (.43)	1.28 (.41)	1.48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대한 인식	3.50 (.69)	3.47 (.73)	3.63 (.73)	3.55 (.78)	3.52 (.72)	5.77*** c)a,b

*** $p < .001$

(4) 주관적 건강 및 신체발달관련 요인

다음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이 둘의 평균인 전반적 건강수준을 비교하였는데,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신체적 발달요인인 키와 몸무게 역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X-15.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요인	중졸이하 ^a	고등학교 졸업 ^b	대학졸업 ^c	대학원 이상 ^d	전체	F
신체적 건강	3.44 (.64)	3.47 (.61)	3.53 (.59)	3.52 (.68)	3.48 (.61)	2.11
정신적 건강	3.49 (.59)	3.51 (.58)	3.54 (.56)	3.52 (.68)	3.51 (.58)	0.74
전반적 건강	3.47 (.55)	3.49 (.55)	3.53 (.52)	3.52 (.65)	3.49 (.54)	1.62

표 X-16.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키와 몸무게

요인	중졸이하 ^a	고등학교 졸업 ^b	대학졸업 ^c	대학원 이상 ^d	전체	F
키	141.73 (7.36)	142.28 (7.30)	142.02 (7.43)	143.75 (8.81)	142.09 (7.39)	1.57
몸무게	39.56 (10.43)	39.72 (9.32)	38.95 (9.66)	38.25 (8.77)	39.46 (9.73)	0.99

(5) 부모관련 요인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비교 중 마지막 요인인 부모와 관련된 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하위요인인 감독과 방임 모두 유의미한 집단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X-17.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요인	중졸이하 ^a	고등학교 졸업 ^b	대학졸업 ^c	대학원 이상 ^d	전체	F
감독	3.32 (.55)	3.34 (.54)	3.35 (.57)	3.38 (.54)	3.34 (.55)	0.41
방임	1.63 (.61)	1.66 (.67)	1.62 (.66)	1.53 (.62)	1.64 (.65)	1.24

그에 비해 부모와의 활동수준, 즉, 부모와 함께 고민이나 학교생활, 각종 주제에 대한 대화를 하거나 여가활동, 저녁식사 등을 함께하는 수준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산출되었는데, <표 X-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활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18.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와의 활동수준

요인	중졸이하 ^a	고등학교 졸업	대학졸업	대학원 이상 ^b	전체	F
부모와의 활동수준	2.64 (.88)	2.68 (.84)	2.83 (.93)	2.99 (.95)	2.71 (.88)	6.59*** c>a, b, d>a

*** $p < .001$

2)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1) 학교 및 교육관련 요인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이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청소년의 발달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비교하였는데, 가장 먼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 및 교육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생활적응의 경우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대학졸업이상인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학기 성적과 희망교육수준의 경우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내었고, 성적에 대한 만족도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X-19.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 및 교육관련 요인

요인	중졸이하 ^a	고등학교 졸업 ^b	대학졸업 ^c	대학원 이상 ^d	전체	F
학교생활 적응	3.18 (0.56)	3.21 (0.49)	3.28 (0.52)	3.24 (0.62)	3.22 (0.51)	2.95*
지난학기 성적	3.36 (0.83)	3.37 (0.74)	3.47 (0.80)	3.65 (0.73)	3.40 (0.77)	4.22** d)b
성적 만족도	2.95 (0.74)	2.97 (0.67)	3.01 (0.68)	3.13 (0.58)	2.98 (0.68)	1.55
희망교육 수준	3.82 (0.72)	3.85 (0.64)	3.99 (0.62)	4.05 (0.62)	3.89 (0.65)	8.09*** c)a,b

* $p < .05$, ** $p < .01$, *** $p < .001$

(2) 심리·사회적응 관련 요인

두 번째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응관련 요인의 차이는 <표 X-20>과 같이 현재 걱정거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걱정거리의 경우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걱정거리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X-20.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응

요인	중졸이하 ^a	고등학교 졸업 ^b	대학졸업 ^c	대학원 이상 ^d	전체	F
자아존중감	3.25 (0.59)	3.30 (0.53)	3.31 (0.58)	3.35 (0.56)	3.30 (0.55)	0.90
사회적역량	3.19 (0.58)	3.22 (0.59)	3.26 (0.59)	3.22 (0.62)	3.22 (0.59)	1.08
삶의 만족도	3.31 (0.60)	3.36 (0.53)	3.39 (0.57)	3.32 (0.63)	3.36 (0.55)	1.23
일상생활 스트레스	2.19 (0.94)	2.11 (0.93)	2.15 (0.94)	2.13 (0.98)	2.13 (0.93)	0.58

요인	중졸이하 ^a	고등학교 졸업 ^a	대학졸업 ^a	대학원 이상 ^b	전체	F
우울	1.41 (0.73)	1.37 (0.72)	1.42 (0.79)	1.27 (0.49)	1.39 (0.73)	1.18
현재 걱정거리	21.00 (6.68)	23.60 (7.48)	28.13 (10.64)	29.40 (11.45)	25.33 (9.22)	3.14*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1.15 (0.36)	1.11 (0.32)	1.15 (0.41)	1.08 (0.23)	1.12 (0.35)	1.95

* $p < .05$

다음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모, 친구, 교사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다른지 비교하였는데,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X-21.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요인	중졸이하 ^a	고등학교 졸업 ^a	대학졸업 ^a	대학원 이상 ^b	전체	F
부모지지	3.33 (0.57)	3.33 (0.54)	3.38 (0.54)	3.46 (0.51)	3.35 (0.54)	1.82
친구지지	3.81 (0.85)	3.85 (0.81)	3.89 (0.80)	3.98 (0.80)	3.86 (0.81)	1.04
교사지지	3.75 (0.83)	3.78 (0.80)	3.85 (0.82)	3.85 (0.89)	3.79 (0.81)	1.23

(3) 다문화요인

세 번째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문화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는데, <표 X-22>와 같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졸업자이상인 집단과 고등학교 졸업자 이하 집단의 차이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아버지가 대학졸업 이상인 집단의 경우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X-22.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요인

요인	중졸이하 ^a	고등학교 졸업 ^b	대학졸업 ^c	대학원 이상 ^d	전체	F
문화적응 스트레스	1.29 (0.41)	1.27 (0.40)	1.29 (0.44)	1.24 (0.30)	1.28 (0.41)	0.5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대한 인식	3.50 (0.68)	3.50 (0.71)	3.62 (0.75)	3.60 (0.69)	3.53 (0.72)	3.38* c)b

* $p < .05$

(4) 주관적 건강 및 신체발달관련 요인

다음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키와 몸무게 등 신체발달상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X-23>과 <표 X-24>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X-23.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요인	중졸이하 ^a	고등학교 졸업 ^b	대학졸업 ^c	대학원 이상 ^d	전체	F
신체적 건강	3.48 (0.60)	3.47 (0.61)	3.48 (0.64)	3.58 (0.57)	3.48 (0.61)	0.54
정신적 건강	3.49 (0.60)	3.51 (0.57)	3.52 (0.60)	3.64 (0.52)	3.51 (0.58)	1.00
전반적 건강	3.48 (0.54)	3.49 (0.54)	3.50 (0.57)	3.61 (0.50)	3.49 (0.55)	0.86

표 X-24.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키와 몸무게

요인	중졸이하 ^a	고등학교 졸업 ^b	대학졸업 ^c	대학원 이상 ^d	전체	F
키	142.34 (7.57)	141.70 (7.36)	142.45 (7.10)	142.22 (8.00)	141.98 (7.35)	1.49
몸무게	40.40 (10.49)	39.37 (9.78)	38.79 (8.94)	37.45 (8.48)	39.31 (9.66)	2.30

(5) 부모관련 요인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를 감독과 방임에 따라 비교하였는데, <표 X-25>와 같이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X-25.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요인	중졸이하 ^a	고등학교 졸업 ^b	대학졸업 ^c	대학원 이상 ^d	전체	F
감독	3.32 (0.55)	3.33 (0.55)	3.36 (0.55)	3.34 (0.57)	3.34 (0.55)	0.49
방임	1.62 (0.62)	1.64 (0.65)	1.60 (0.65)	1.55 (0.58)	1.63 (0.64)	0.84

이에 비해 부모와의 활동수준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활동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표 X-26.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와의 활동수준

요인	중졸이하 ^a	고등학교 졸업 ^b	대학졸업 ^c	대학원 이상 ^d	전체	F
부모와의 활동수준	2.58 (0.87)	2.68 (0.87)	2.87 (0.90)	2.99 (0.87)	2.72 (0.88)	9.39*** c>a,b, d>a

*** $p < .001$

4. 거주지 규모에 따른 차이

1) 학교 및 교육관련 요인

다음으로 거주지 규모에 따라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비

교하고자 하였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학교 및 교육과 관련된 요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나 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희망교육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 지역의 희망교육수준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거주자들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27. 거주지 규모에 따른 학교 및 교육관련 요인

요인	대도시 ^a	중소도시 ^b	읍·면 ^c	전체	F
학교생활 적응	3.25 (0.51)	3.20 (0.50)	3.20 (0.51)	3.22 (0.51)	2.30
지난학기 성적	3.43 (0.76)	3.41 (0.79)	3.35 (0.75)	3.40 (0.77)	2.24
성적 만족도	3.02 (0.64)	2.95 (0.70)	2.96 (0.69)	2.98 (0.68)	1.85
희망교육 수준	3.95 (0.63)	3.86 (0.66)	3.82 (0.65)	3.88 (0.65)	7.59*** a)b,c

*** $p < .001$

2) 심리·사회적응 관련 요인

다음으로 심리·사회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이 다문화청소년들의 거주지 규모에 따라 다른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X-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 외 삶의 만족도, 일상생활스트레스, 우울, 현재 걱정거리,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읍·면지역 거주자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역량도 마찬가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읍·면지역의 거주자들에 비하여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28. 거주지 규모에 따른 심리사회적응

요인	대도시 ^a	중소도시 ^b	읍·면 ^c	전체	F
자아존중감	3.31 (0.56)	3.32 (0.54)	3.24 (0.58)	3.29 (0.56)	4.90** a,b)c
사회적 역량	3.29 (0.56)	3.20 (0.61)	3.17 (0.58)	3.22 (0.59)	7.08*** a,b)c
삶의 만족도	3.35 (0.56)	3.35 (0.55)	3.34 (0.54)	3.35 (0.55)	0.07
일상생활 스트레스	2.06 (0.94)	2.14 (0.93)	2.17 (0.93)	2.13 (0.94)	2.66
우울	1.40 (0.74)	1.37 (0.72)	1.44 (0.79)	1.40 (0.75)	1.30
현재 걱정거리	23.63 (9.80)	25.06 (8.36)	28.04 (10.02)	25.29 (9.32)	1.81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1.10 (0.29)	1.14 (0.38)	1.13 (0.35)	1.12 (0.34)	2.80

** $p < .01$, *** $p < .001$

다음으로 거주지 규모에 따라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의 지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하여 읍·면지역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부모지지와 마찬가지로 읍·면지역 청소년들의 평균값이 낮은 경향성을 보여 향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X-29. 거주지 규모에 따른 사회적 지지

요인	대도시 ^a	중소도시 ^b	읍·면 ^c	전체	F
부모지지	3.36 (0.55)	3.41 (0.52)	3.25 (0.55)	3.34 (0.54)	16.87*** a,b)c
친구지지	3.84 (0.77)	3.90 (0.84)	3.80 (0.83)	3.85 (0.82)	2.95
교사지지	3.83 (0.79)	3.80 (0.83)	3.74 (0.80)	3.79 (0.81)	2.35

*** $p < .001$

3) 다문화요인

다문화와 관련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다문화청소년 당사자의 인식도 지역의 규모에 따라 비교하였는데, <표 X-30>과 같이 두 변인 모두에서 지역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X-30. 거주지 규모에 따른 다문화요인

요인	대도시 ^a	중소도시 ^b	읍·면 ^c	전체	F
문화적응 스트레스	1.29 (0.43)	1.27 (0.40)	1.28 (0.40)	1.28 (0.41)	0.17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3.53 (0.71)	3.53 (0.75)	3.49 (0.71)	3.52 (0.72)	0.68

4) 주관적 건강 및 신체발달관련 요인

다음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신체발달 영역에서 거주지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는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에서 읍·면지역이 중소도시

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들을 합한 전반적 건강 역시 읍·면지역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키와 몸무게 등 신체발달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평균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X-31. 거주지 규모에 따른 주관적 건강

요인	대도시 ^a	중소도시 ^b	읍·면 ^c	전체	F
신체적 건강	3.49 (0.60)	3.51 (0.62)	3.42 (0.62)	3.48 (0.61)	4.29* b)c
정신적 건강	3.52 (0.57)	3.55 (0.59)	3.47 (0.57)	3.51 (0.58)	3.39* b)c
전반적 건강	3.50 (0.54)	3.53 (0.55)	3.44 (0.54)	3.49 (0.54)	4.50* b)c

* $p < .05$

표 X-32. 거주지 규모에 따른 신체발달

요인	대도시 ^a	중소도시 ^b	읍·면 ^c	전체	F
키	141.88 (7.25)	142.33 (7.75)	142.03 (7.09)	142.09 (7.39)	0.75
몸무게	39.25 (9.82)	39.50 (9.56)	39.62 (9.84)	39.46 (9.73)	0.27

5) 부모관련 요인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분석 중 마지막 요인으로 부모와 관련된 요인을 비교하였다. 부모의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 배경특성을 비교한 결과 <표 X-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 모두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우선 어머니의 연령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수준으로 평균값이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나 읍·면지역 어머니들의 연령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 연령의 경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하여 읍·면지역 아버지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의 경우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하여 읍·면지역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33.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

요인	대도시 ^a	중소도시 ^b	읍·면 ^c	전체	F
어머니 연령	38.49 (5.73)	37.78 (5.70)	36.55 (5.32)	37.63 (5.65)	21.85*** a)b>c
아버지 연령	48.08 (6.44)	47.87 (8.27)	49.26 (5.97)	48.38 (6.26)	9.46*** c>a,b
어머니 학력	2.28 (1.12)	2.19 (1.04)	1.91 (0.94)	2.13 (1.05)	24.29*** a,b>c
아버지 학력	2.49 (1.11)	2.44 (1.04)	2.15 (0.86)	2.37 (1.02)	21.28*** a,b>c

*** $p < .001$

이와 더불어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지역의 규모에 따라 다른지 확인한 결과 <표 X-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X-34. 거주지 규모에 따른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요인	대도시 ^a	중소도시 ^b	읍·면 ^c	전체	F
월평균 소득	313.98 (145.28)	320.98 (144.22)	309.22 (159.08)	315.05 (149.36)	1.19

다음으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거주지의 규모에 따라 다른지 살펴본 결과 읍·면지역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감독의 수준은 낮고 방임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취약함을 나타내었다.

표 X-35.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	대도시 ^a	중소도시 ^b	읍·면 ^c	전체	F
감독	3.39 (0.55)	3.35 (0.51)	3.27 (0.57)	3.34 (0.55)	9.86*** a,b)c
방임	1.64 (0.66)	1.56 (0.64)	1.73 (0.64)	1.64 (0.65)	12.78*** a,b)c

*** $p < .001$

이와 더불어 부모와 각종 주제에 대한 대화나 활동 등을 함께 하는 수준도 비교하였는데, <표 X-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하여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의 부모와의 활동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36.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모와의 활동정도

요인	대도시 ^a	중소도시 ^b	읍·면 ^c	전체	F
부모와의 활동정도	2.79 (0.90)	2.73 (0.84)	2.62 (0.89)	2.71 (0.88)	6.97*** a,b)c

*** $p < .001$

5. 요약 및 소결

본 장은 다문화청소년들의 배경특성에 따라 발달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평균차이를 비교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일반적인 배경특성인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고, 그 외 거주지 규모, 즉, 거주지가 대도시,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영역이나 지역의 차이가 나타날 경우 정책적 접근이 좀 더 용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먼저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표 X-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지난학기 성적, 희망교육수준 등 학교 및 교육관련 영역의 발달변인이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의 심리적 측면인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와 친구의지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하는 다양한 주제의 대화나 활동의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현황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각각 비교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발달관련 변인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경향성이 있으나 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집단과 나머지 집단의 차이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어머니 교육수준이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인 경우보다 학교생활적응, 지난학기성적, 희망교육수준, 삶의 만족도, 부모지지,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부모와의 활동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인 경우보다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지난 학기성적, 희망교육수준,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부모와의 활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현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걱정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대도시에 비하여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희망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읍·면지역 거주자들의 발달수준이 도시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읍·면지역 다문화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다문화청소년에 비하여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와 관련된 측면에서 평균값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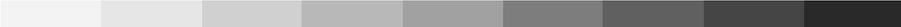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 부모와의 활동수준이 낮고, 자녀에 대한 방임 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관련된 배경특성을 분석한 결과 읍·면지역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어머니의 연령은 가장 낮고, 아버지의 연령은 가장 높으며, 부모 모두의 학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발달이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일반적인 결과에 더하여 읍·면지역 거주자들의 환경특성이 불리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앞 장의 분석에서 읍·면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집단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임을 생각해보면, 향후 정책의 방향이 다문화청소년 발달환경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X-37. 배경특성에 따른 차이

집단	집단간 차이가 산출된 변인
경제적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지난학기 성적, 희망교육수준 증가 • 월평균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가 증가 • 월평균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지지, 친구지지 증가 • 월평균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활동 수준 증가
부모 교육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교육수준이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인 경우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적응, 지난학기 성적, 희망교육수준 높음 - 삶의 만족도 높음, - 부모지지 높음 -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높음 - 부모와의 활동수준 높음 • 아버지 교육수준이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인 경우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적응, 지난학기 성적, 희망교육수준 높음 - 현재 걱정거리 높음 -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높음 - 부모와의 활동수준 높음

집단	집단간 차이가 산출된 변인
거주지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희망교육수준 낮음 • 읍·면지역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낮음 • 읍·면지역의 부모지지가 가장 낮음. • 읍·면지역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낮음 • 읍·면지역의 경우 부모양육태도 중 감독수준은 가장 낮고, 방임은 가장 높음. • 읍·면지역의 경우 부모와의 활동수준이 가장 낮음. • 읍·면지역의 경우 어머니 연령은 가장 낮고, 아버지 연령은 가장 높음. • 읍·면지역의 경우 부모 학력이 모두 낮음



제 4 부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성 모색

○———— 제Ⅺ장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 성과 및 한계

- 1.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
- 2.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추진된 10년 이상의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과 성과, 그리고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국내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통해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는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각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

본 연구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만큼(양계민 외, 2019: 5), 다문화청소년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주제별로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안해 왔다. 2020년은 지난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축적된 결과를 기초로 국내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큰 틀에서 분석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적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조사자료 분석을 통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내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의 변화와 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 XI장의 1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장윤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한다. 이 장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에 있어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 법무부의 외국인정책을 중심으로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과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1) 다문화가족정책의 변화과정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시작된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방안(여성가족부, 2006)’을 기반으로 수립·추진되었다. 이후 2010년부터 향후 3년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2010)’이 발표되었고, 2011년에 신설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 주기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을 비롯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 제도 개선,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수립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a: 3). 이에 따라 2012년 12월에 발표된 2차 기본계획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비전과 목표와 이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고, 2018년 3월에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8a)’이 발표되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제1~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제1~3차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기의 환경적 특징을 비교해보면, 제1차 기본계획이 발표된 2010년은 국제결혼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다른 다문화가족이 비율이 확대된 다문화사회의 ‘태동기’로 정의되는 시기였다(여성가족부, 2012a: 25).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2년은 국제 결혼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안정화되었고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다문화사회의 ‘성장기’로 이 시기 많은 다문화가족 자녀세대가 미취학에서 학령기로 성장하고, 동시에 중도입국청소년의 수가 증가되었다. 다문화사회의 태동기와 성장기를 거쳐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이 수행되고 있는 지금은 국제 결혼인구의 감소와 다문화가족 유형의 다양화가 특징인 다문화사회의 ‘정착기’로 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8a:11).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 목표와 중점 과제도 변화되었다. 먼저, ‘태동기’에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또한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 목표로 함께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세부 정책과제의 내용과 수를 살펴보면 61개 세부과제 중에서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에 관한 과제가 21개로 가장 많은 반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관련 세부과제는 12개에 불과하여 이 시기의 정책은 다문화청소년보다는 결혼이민자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성장기’에 접어든 시기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이 기본 목표로 제시되었다. 즉,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들의 초기 적응 보다는 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 방향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와 문화 적응을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결혼이민자의 문화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의 이해제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급속한 증대와 일부 부정적·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도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의 변화는 세부과제의 수와 내용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제2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총 86개의 세부 정책과제 중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관련된 과제가 21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관련 과제가 각각 16개로 제시되었다.

2018년에 발표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2018~2022년 사이에 추진되는 다문화가족정책이 제시되었다. 기본적으로 국제결혼 비율의 감소 추세와 다문화가족의 안정화에 따른 장기정착 비율이 증가가 이 시기의 특징이다.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의 기본목표로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와 같은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학령기 및 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진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여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제를 확대하였다. 세부과제의 수를 비교해볼 때,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과제의 수가 19개로 5개 정책과제 영역 가운데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즉,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지원에 주로 집중하던 과거의 다문화가족정책이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좀 더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정책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표 XI-1. 1~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변화과정

구분	1차 기본계획 (2010~2012년)	2차 기본계획 (2013~2017년)	3차 기본계획 (2018~2022년)
시대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동기 - 국제결혼 증가 - 다문화가족 지속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기 - 국제결혼 안정화 - 다문화가족 지속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기 - 국제결혼 감소추세 - 다문화가족의 안정화

구분	1차 기본계획 (2010~2012년)	2차 기본계획 (2013~2017년)	3차 기본계획 (2018~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 자녀출생 및 초기발달 시기(대부분 미취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 증가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 감소 및 사회진출 활성화 - 자녀세대 미취학에서 학령기로 성장 - 중도입국청소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및 장기정착 비율 증가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강화 - 학령기 및 후기청소년 자녀세대 비율 상승 - 한부모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
비전과 기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정책과제 (세부과제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1개 세부과제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9) -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10)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21)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12)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6개 세부과제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 구현(7)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5) -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16) -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16)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21) - 정책추진체계 정비(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0개 세부과제 -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16) -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15)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19) -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14) -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6)

(2) 시기별 다문화가족정책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과제

①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정책과제와 사업이 모두 제시되어 있으나, 이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로 추진된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교육부 및 법무부의 정책과제는 다음 부분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2010년에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다문화가족정책 가운데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핵심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기의 다문화가족 자녀 대부분은 영·유아기에 해당됨에 따라 유아대상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부모의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이들의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자녀양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에 전문지도사가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방문교육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만 3~12세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의 ‘자녀생활 서비스’를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 3년간 지속적으로 ‘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님 나라 언어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도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정지원 정책 초기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Rainbow School’ 프로그램을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였다.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된 시기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또 다른 정책과제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한 ‘무지개문화탐험대’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프로그램으로 2010년에 시작되어 2011년 까지 운영되었다. 그 밖에도 ‘다문화청소년 워크숍’이 2011년과 2013년에 운영되기도 하였다.

②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학령기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된 2013~2017년에는 다문화청소년관련 정책들의 대부분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는 다문화가족 취학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과 공교육 접근성 제고가 정책과제의 핵심 내용이었다. 교육부 소관으로 추진된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다문화교육정책’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부터 추진해온 이중언어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자녀생활서비스, 중도입국 청소년 초기적응 지원 프로그램 ‘Rainbow School’을 제2차 기본계획의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가운데 이중언어교육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은 2014년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으로 개편되어 가족 내에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중언어 사용을 일상화함으로써 글로벌 인재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추진된 다문화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과제로는 2013년부터 실시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인 CYS-Net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서비스가 있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진로·진학 지원 사업으로 2014년에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무지개를 잡(job)아라’라는 시작하였고, 이어서 2015년에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내일을 잡(job)아라’를 추가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일환으로 ‘2박 3일이주배경청소년 통합캠프’가 2014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회복, 사회성발달,

역량 강화 등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재다능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운영되었고, 2017년에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추진되었던 ‘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 취업훈련 프로그램인 ‘내일이룸학교’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③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2018년에 발표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들의 진로지원과 사회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한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핵심을 두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의 확대운영 및 체계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

표 XI-2. 시기별 다문화가족정책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구분	정책과제
1차 기본계획 (2010~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 확대 -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2차 기본계획 (2013~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 한국어능력 향상 -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3차 기본계획 (2018~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 출처: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2010: 7), 여성가족부(2012a: 26, 2018a: 10)

표 XI-3. 여성가족부 다문화청소년 관련 다문화가족정책 주요 사업 추진경과

사업명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이중언어교육 지원		언어영재교실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이중언어 인제 DB 시스템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자녀생활서비스(만 3~12세)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중도입국청소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 취업훈련 지원 '내일 이름학교'											
일반·다문화청소년 통합 프로그램		무지개문화탐험대							이주배경청소년 통합캠프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다세대농 프로그램											
CYS-Net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복지 서비스											

2)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1) 다문화교육정책 변화과정

교육부는 교육소외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들의 학교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하여 교육기회를 보장을 목표로 2006년 수립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다문화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은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추진되어온 다문화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학령기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다문화교육정책의 영향은 무엇보다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다문화교육의 정책명과 비전 및 목표를 중심으로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에 처음으로 발표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은 ‘2007년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2011년을 제외한 2015년까지 발표된 정책명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 맞춤형 사업 지원 계획’,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등으로 매년 조금씩 변경되었다. 그러다 2016년부터는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으로 정책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2014년을 제외한 2006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발표된 정책은 ‘다문화가정 자녀’ 또는 ‘다문화학생’과 같이 정책대상 중심으로 정책명을 발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으로 정책이 발표되었다. 정책명의 변화를 통해 다문화교육정책이 다문화학생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점차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상과 분야 등 전반적인 부분을 두루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시기별 다문화교육정책의 비전과 목표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정책수립 초기에는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점차 ‘다양성과 조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기본 방향이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2006년 다문화교육정책의 비전은 ‘문화 민주적 통합(Cultural Democratic Integration)으로 한국을 문화적 용해의 장(Cultural Melting Pot)으로 전환’으로 제시되었고, 이후 2007년에도 ‘언어 및 문화장벽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후 2008년의 정책비전은 ‘다원주의 가치·개성·창의 존중 인재 육성’으로 변경되어 초기 정책과 같이 ‘사회통합’을 전면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으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이 여전히 기본 목표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초기 다문화교육정책은 한국사회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응해야 하는 주류사회로 보는 인식이 반영되어, 다문화청소년이 주류사회인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9년 이후 발표된 다문화교육정책의 비전은 ‘배움과 이해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구현’,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 ‘함께 어울려 꿈과 끼를 키우는 다문화 친화적 학교 조성’,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 다문화시대 인재 육성’,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로 제시되었다. 이전 시기 정책 비전과 비교해 볼 때, 2009년 이후에 발표된 다문화교육정책에서는 다문화적 특성을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학교와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정책의 핵심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다문화 감수성 증대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이해 제고는 다문화교육정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 목표이지만, 정책 초기에는 ‘다문화 이해 및 수용’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면, 이후 정책에서는 ‘다문화 인정 및 공존’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표 XI-4. 다문화교육정책 변화과정

연도	정책명	정책비전 및 목표
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민주적 통합으로, 한국을 문화적 용해의 장으로 전환
2007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및 문화장벽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사회적 귀속감 및 다문화 감수성 증대
2008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원주의 가치·개성·창의 존중 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 - 일반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이해 제고 - 다문화가정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
2009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 맞춤형 사업 지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움과 이해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사회적 역량 강화 - 다문교육 기반 강화 및 다문화 이해 확산
2010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2011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2012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다문화 친화적 학교 육성
2013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계획	
2014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 어울려 '꿈과 끼'를 키우는 다문화 친화적 학교 조성
2015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통한 교육기회평등 실현 및 다문화 인재양성
2016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 다문화시대 인재 육성
2018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구축 -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2019		
2020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7); 교육과학기술부(2008~2013); 교육부(2014~2019, 2020c)

(2) 시기별 다문화교육정책 주요 추진과제

다문화교육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2006년 이후 매년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앞서 양계민, 김성식, 김재우(2017)는 2006~2015년 동안 발표되었던 다문화교육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를 면밀히 분석한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김한길, 소경희(2018)의 연구에서는 2016년까지의 정책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이 제안되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다문화교육정책의 추진경과를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한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양계민 외(2017)의 연구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정책의 세 단계인 ‘태동기(2006~2007년)’, ‘도입기(2008~2011년)’, ‘보완 및 지속 확대기(2012~2015년)’에 따라 단계별 다문화교육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를 분석하였다. 여기에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이라는 일관된 정책명에 따라 다문화교육정책이 수립·추진되어 온 2016~2020년을 다문화교육정책의 ‘체계화 및 정착기’로 정의하고 네 번째 시기로 추가하였다.

① 다문화교육정책의 태동기(2006~2007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을 최초로 수립한 2006년에는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운영하기에 앞서, 정책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로 인한 언어발달 지체 및 학교수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다문화청소년의 주요한 특징으로 보고 이를 위한 한국어 지도, 교과 지도 등의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요소를 반영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다문화교육 정책연구와 교원연수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담당할 중앙 기관인 ‘중앙다문화교육 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시작하였다.

② 다문화교육정책의 도입기(2008~2011년)

2008~2011년은 본격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도입기로 앞선 시기에 비해 다양한 영역에 대한 다문화교육정책이 수립·추진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 거점학교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10명 이상 재학하는 학교 중 일부를 다문화 거점학교로 선정하여 한국어 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 학교 중심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 45개교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80개교로 확대 운영되었다. 또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요소 반영뿐 아니라 2008년에는 다문화청소년이 재학하는 학교의 관리직과 일반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연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일반교원, 교장·교감 대상 직무연수 과정에 ‘다문화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된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교대 및 국립대학의 사범대학에서도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등 교원의 인식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는 이전 정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문화 유아교육 지원과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정책과제에 추가되었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의 공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의 경우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통해 입학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를 신설하였다. 더불어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취학 전 예비과정을 지원하거나, 일반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교육정책 도입기의 마지막 해인 2011년에는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

다. 이 사업의 경우, 기존에 추진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문화청소년의 결핍된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과 다르게 수학·과학 분야와 리더십 분야의 우수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다문화교육정책의 보완 및 지속 확대기(2012~2015년)

세 번째 시기인 다문화교육정책 보완 및 지속 확대기에 해당하는 2012~2015년 사이의 정책과제는 양적 및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에 추진된 정책과제들의 특징은 앞서 추진되었던 정책과제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영역으로 정책과제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정책의 보완 및 지속 확대기의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교육정책이 처음으로 수립된 2006년부터 정책과제로 추진되었던 ‘한국어(Korean Second Language, KSL) 과정’이 2012년을 기점으로 정규과정으로 개편되었다. 2012년 7월 9일 고시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재학 비율이 높은 대안학교 또는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주당 10시간 내외의 정규과목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위한 교원연수도 함께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에는 한국어 진단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기존의 ‘생활 한국어’ 외 ‘학습 한국어’를 추가하고 한국어 과정 운영에 필요한 표준교재를 개발·보급하는 등의 지속적인 정책과제 보완이 이루어졌다.

2008~2011년 동안 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던 ‘다문화 거점 학교 지원사업’은 2012년에 ‘글로벌 선도학교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2013년까지 확대 운영되다가, 2014년에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다문화 중점학교’로 개편 운영되었다. 비록 정책사

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방식에 있어 변화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다수의 다문화청소년이 재학하는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인적자원을 집중하여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지원한다는 정책과제의 기본방향은 유지되었다. 학교현장의 교원 및 예비교원의 인식전환과 다문화 이해도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에서도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다. 2012년 6월 15일에 고시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0호에 따르면, 교장·교감 및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다문화 유치원, 예비학교, 중점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심화연수 이수가 의무화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초·심화연수, 집합·원격교육 등 연수의 체계화 및 다양화를 통해 교원의 다문화교육 연수 이수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또한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해 운영하는 예비학교의 수는 2012년 26개교에서 2015년 100개교로 크게 증가하였고, 학력인정 대안학교도 추가 설립되어 2013년에는 4개교로 늘어났다. 또한, 201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2’ 개정을 통해 학력증빙이 어려운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제도적 차원에서도 보완되었다. 2011년에 처음 시작된 우수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인 ‘글로벌 브릿지 사업’ 역시 2012~201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이 시기에 교육부는 기존 정책과제들의 확대운영과 더불어 새로운 영역의 정책과 수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에 추진된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과 함께 다문화 인재양성을 일환으로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정책의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물론 이중언어교육은 초기 다문화교육정책에서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대상 이중언어교육 강사 양성 및 전담인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가 시행되어 실질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정책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2012년 다문화교육정책에서는 ‘이중언어교육 활성화

화'를 기본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별, 언어별 이중언어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다문화 학생이 중심이 되는 정책과제로 전환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직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이 수립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다문화 직업교육 대안학교인 다솜학교'를 확대·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학입학 시 사회배려자 전형의 지원 자격에 다문화학생을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여 2015년 기준 4년제 대학 66개교와 전문대 5개교에서 '다문화 특별전형'을 실시하게 되었다.

④ 다문화교육정책의 체계화 및 정착기(2016~2020년)

2016년 이후 최근 5년의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이라는 일관된 정책명을 유지하며 발표되었고, '다문화교육정책 보완 및 지속 확대기'에 추진되어온 대부분의 정책과제를 유지하며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체계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초기 정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교재 및 진단절차가 표준화되었고, 2017년 9월 29일에 한국어 교육과정 개정·고시(교육부 고시 제2017-131·132호)를 통해 교육대상의 명확화, 내용의 세분화를 통해 보다 체계화되었다. 아울러 2019년에는 다문화 유치원, 중점학교, 예비학교를 '다문화 중점학교'로 통합하고,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편하였다. 사업이 한차례 더 개편되었으나 '다문화 중점학교'사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병행하는 사업의 기초는 유지되었다.

이 시기 동안 기존 정책과정의 법적·제도적으로 강화된 정책과제로는 2017년 12월에 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5조 제6항'에 따른 교원의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 법제화와 2017년 1월 9일 개인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해 법무부의 중도입국 학생 정보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른 중도입국 학생의 공교육 접근성 제고, 2020년

7월 14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개정에 따른 학교장 입학 허가에서 지역 교육장의 학교 배정으로 중도입국 학생의 입학방식의 변화가 있다.

한편 다문화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 과제 가운데,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던 ‘글로벌 브릿지’ 사업은 2018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으나,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기존 시도 단위 대회에서 전국대회로 확대되어 2020년까지 계속 실시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직업교육과 관련된 정책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체계화되고 확대 운영되고 있다. 2016년에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이 개발·배포되었으며, 2017년에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에 다문화영역이 추가되어 운영되는 등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정책과제의 체계화 및 확대운영과 더불어 2016년 이후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교육부의 대표적인 정책적 노력으로는 다문화교육 자료의 공유 및 정책 홍보를 위한 ‘다문화교육 포털¹⁵⁾(edu4mc.or.kr)’의 운영과 정기적인 다문화교육 포럼 및 다문화교육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를 들 수 있다. 또한, 최근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서 상담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2017년 10개 지역에서 다문화거점 Wee 센터를 지정하여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서 상담지원 제공하는 시범사업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진단부터 보정·관리까지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개발 및 운영과 다문화청소년의 입학 전 학교생활 준비 및 조기적응 지원을 위한 ‘징검다리과정’이 2019년 새롭게 추진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5) 2016년 3월 개통당시 다문화교육 포털의 사이트는 nime.or.kr임.

표 XI-5. 시기별 다문화교육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시기	주요 정책과제
다문화교육정책 태동기 (2006~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정책 최초 수립 및 추진(2006) ▪ 학교중심 다문화교육 강화(2006~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KSL) 지도, 교과지도 등 - 시범학교 운영: 2006년 2개교, 2007년 12개교 -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보급(2006) ▪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2006~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교과(사회, 도덕 등) 및 개정 교육과정에 타문화 이해, 존중, 편견 극복 및 관용을 위한 성취목표 반영(2007, 2.) - 일반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국제이해교육 실시 ▪ 중앙 다문화교육 센터 지정 및 운영 시작(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정책연구, 교원연수 담당 전문 인력 양성
다문화교육정책 도입기 (2008~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및 16개 교육청 합동 중장기 지원방안 마련(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영역, 14개 정책과제 도출, 2009~2012년 약 700억 지원 ▪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위한 거점학교 지정 및 운영(2008~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가 10명 이상인 학교 중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지정 -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학부모 대상 교육·연수 지원 - 2008년 45개교, 2009년 46개교, 2010년 72개교, 2011년 80개교 ▪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지원(2009~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및 교육봉사활동 학점 연계 ▪ 다문화교육 관련 교원양성 및 교사연수 지원(2008~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학생 재학학교의 관리자·일반교원 연수실시(2008) - 일반교원, 교장·교감 대상 직무연수 과정 개설(2009) - 교대 및 국립대 사범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2009년 10개교, 2010년 20개교, 2011년 30개교) ▪ 다문화가정 유아 교육 지원(2010~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육 접근성 제고(취원 시 다문화가정 자녀 우선순위 권고) - 유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지원(2010~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 및 전학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교육 접근성 제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 2 개정 (2010.12.27.) - 중도입국 자녀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운영(2010~2011) -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2010년 2개교, 2011년 4개교) ▪ 다문화가정 학생 글로벌 인재 육성(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브릿지 사업: 수학·과학, 리더십 2개 분야 우수학생 발굴 및 지원)

시기	주요 정책과제
<p>다문화교육정책 보완 및 지속 확대기 (2012~2015)</p>	<p>◎ 보완 및 확대 운영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KSL) 교육과정 정규화 및 체계화(2012~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학교, 특별학급 운영교 KSL 정교과목 운영(2012.7.9. 고시) - KSL 진단평가도구 개발 및 주기적 평가실시(2014) - KSL 교육과정에 학습한국어 추가(2015) ▪ 글로벌 선도학교 운영(2012~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거점학교 지원사업을 글로벌 선도학교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학교 확대(2012년 150개교, 2013년 200개교) ▪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2014~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선도학교를 다문화 중점학교로 개편 ▪ 교원양성 및 교원연수 의무화 및 지원 강화(2012~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교감 및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내용 반영(2012.6.15.고시) - 다문화 유치원·예비학교·중점학교 근무 교원은 심화연수 이수 의무화(2015) ▪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기회평등을 위한 지원 강화(2012~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인정 대안학교 확대(2012년 3개교, 2013년 4개교) - 정규학교 배치 전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위한 예비학교 확대 (2012년 26개교, 2013년 50개교, 2014년 80개교, 2015년 100개교) - 학력증빙이 어려운 중도입국 학생의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2, 2013) ▪ 다문화가정 학생 글로벌 인재 육성(2012~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브릿지 사업 언어, 예체능 분야 추가(2012) <p>◎ 신규 운영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교육 활성화(2012~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언어별 이중언어교육 교재 개발(2012년 6종 개발) - 이중언어 강사 확대 및 양성 체계화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2013) ▪ 다문화학생 진로·직업 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직업교육 대안학교 다수학교 확대운영(2012년 서울 120명, 충북 135명, 2013년 인천 1개교 추가 설립) ▪ 다문화 유치원 시범사업 운영(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학생이 많은 5개 시·도의 30개원 선정 시범운영 ▪ 대입 사회배려자 전형 지원자격에 다문화 학생 포함(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 66개교, 전문대 5개교에서 다문화 특별전형 실시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2015년 5개 지역)

시기	주요 정책과제
다문화교육정책 체계화 및 정착기 (2016~2020)	<p>◎ 체계화 및 확대 운영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KSL) 맞춤형 교육 지원(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정(2019.9.39.) - 국립국어원 표준한국어 교재 개발(2017~2019) ▪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확대(2016~2018) 및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중점학교 사업을 정책학교로 개편 ▪ 예비교원 양성 및 교원 역량강화 지원(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 법제화(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6항, 2017.12. 개정) ▪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 강화(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멘토링 확대 및 모국어 멘토링 실시(2017) - 교과 보조교재 개발(2016년 6종, 2018년 15종) 및 보급 ▪ 중도입국학생의 공교육 지원 강화(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학교가 아닌 곳에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 학생이 입학한 경우를 위한 찾아가는 예비학교 운영(2016~) - 예비학교 확대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법무부 정보 연계(개인정보위원회 의결 2017.1.9.)에 따른 공교육 정보 안내 및 홍보 확대 - 학교장 입학 허가에서 지역교육장의 학교 배정 방식으로 개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개정, 2020.7.14.) ▪ 글로벌 브릿지 사업 확대 운영(2016~2018) ▪ 이중언어교육 활성화(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언어강사 보수연수 실시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시·도 대회에서 전국대회로 확대 개최 ▪ 다문화학생 진로·직업 교육 활성화(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개발(2016)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다문화영역 운영(2017~) ▪ 다문화 유치원 확대 운영(2016~)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확대(2016~) <p>◎ 신규 운영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자료 공유 및 정책 홍보(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포털(edu4mc.or.kr) 운영(2016.3. 개통) - 다문화교육 포럼 및 다문화교육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다문화학생 정서 상담 지원(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거점 Wee 센터 지정 및 운영(2017년 10개 지역 시범운영)

시기	주요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교사 대상 다문화 이해연수 실시 ▪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및 다문화교육지원단 구성(2018~) ▪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개발 및 운영(2019~) - 한국어학급(초등) 및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대상 시스템 개통(2019. 9.) - 시스템 중고등학교 대상 확대(2020.3.) ▪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준비 및 조기적응 지원(2019~) - 징검다리과정(2019년 초등학교 대상 시범운영, 2020년 중학교대상 시범운영 예정)

표 XI-6.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정책 주요 사업 추진경과

사업명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대학생 멘토링 사업														
모국어 멘토링 사업														
글로벌 인재양성(글로벌 브릿지 사업)														
한국어(KSL) 교육과정 정규화													교육과정 개정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초등	중등
교과보조교재 개발									6종			15종		
진검다리 과정(학교 조기적응 지원)													초등	중등
이중언어교재 개발 및 보급						6종				9종			전자교재 개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시도대회						전국대회
예비학교(중도입국 자녀 지원)													찾아가는 예비학교	
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 거점학교			글로벌 선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다문화 유치원 지정·운영														

3) 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법무부는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2008년에서 2012년 동안 추진될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 앞서 기술한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5년을 주기로 외국인정책에 관한 국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2018년에 발표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과제가 수립·추진되고 있다.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외국인정책이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다(법무부, 2008: 2). 따라서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이주 외국인과 그 자녀를 중심으로 이들의 체류 및 생활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에 대한 12개 중점과제가 제시되었다. 12개 중점과제 가운데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질 높은 사회통합’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며, 각 중점과제의 세부내용은 대부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교육정책 시행계획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따라서 법무부가 발표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추진되는 과제와 사업의 대부분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이고, 법무부가 소관부처로 추진되는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과제는 없었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과제의 핵심은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로 제1차 기본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소관으로 대부분의 세부 정책과제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법무부 소관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과제들도 추진되기 시작되었다. 2012년 법무부는

교육부와 '다문화가정 자녀 공교육 진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이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적을 취득할 때, 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입학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 진입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7년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만 7~17세 까지의 중도입국청소년의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국적, 체류지역, 주소, 연락처)를 교육부에 제공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였다(법무부, 2019: 261-262).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법무부 소관으로 시행되어 온 결혼이민자 대상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인 '해피스 타트 프로그램'을 2014년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에서 전체 외국인으로 확대함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까지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확대·운영하였다(법무부, 2017, 2019)

2018년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5대 정책목표와 이를 위한 18개 중점과제가 발표되었으며, 이 가운데 다문화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으로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와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가 제시되었다. 중점 과제명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1~2차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초기적응과 성장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다르게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에 핵심을 두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제시된 대부분의 정책과제가 교육부 소관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에 변화된 교육부 다문화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8~2022년 사이에 추진되는 외국인정책 가운데 다문화청소년과 관련 주요정책은 여전히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법무부 소관 과제는 중도입국자녀의 입국초기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 지원 확충에 관한 것으로 201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법무부-교육부 간 자료연계를 통한 공교육 진입 강화와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2018년 11월 19일에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4) -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해소(의안번호 제2018-440호)’에서는 부모와 동거비자(F-1)로 체류 중인 다문화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취업비자로 변경하거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을 때 취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2018). 이에 따라, 만 19세 성년이 되기 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중도입국자녀의 체류자격을 만 21세까지 연장하는 체류지원 강화 계획이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추가되었다(법무부, 2019:262)

표 XI-7. 1~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변화과정

구분	내용
<p>1차 기본계획 (2008~ 2012년)</p>	<p>◎ 비전 및 정책목표(4대 정책목표, 13개 중점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질 높은 사회통합 -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 외국인 인권 옹호 <p>◎ 다문화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이해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이해 관련 교재 개발·보급 - 유·초·중등 교사 등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다문화체험 학습장 운영 ▪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유아 교육지원, 한국어 및 기초학습 교재 개발·보급 - 다문화교육 담당 전문가 양성·배치 및 다문화정책연구학교 운영 - 이민자 자녀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 외국출생·성장 자녀의 초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 - 학교 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p>2차 기본계획 (2013~</p>	<p>◎ 비전 및 정책목표(5대 정책목표, 19개 중점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구분	내용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p>◎ 다문화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예비학교 운영 등 초기적응 지원 - 중도입국청소년 공교육 진입 지원 - 중도입국자녀의 국적취득과 한국어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Rainbow School, 한국폴리텍다솜학교 운영 등을 통한 진로·진학지도 강화 - 지역사회에서의 상담·복지 확대 - 맞춤형 교육지원,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등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p>■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학생·학부모 및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예비교원의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를 위한 강좌 개설 및 운영
3차 기본계획 (2018~ 2022년)	<p>◎ 비전 및 정책목표(5대 정책목표, 18개 중점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p>◎ 다문화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교육의 체계화 및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 - 성장주기별·대상특성별 지원정책 강화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및 관리자 대상 집합·원격 연수 강화 - 예비교원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모든 학생 대상 교과 및 비교과 연계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출처: 법무부(2008, 2012, 2018)

4)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지금까지 기술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계획, 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은 다문화청소년을 청소년 일반집단과는 다른 범주로 개념화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일반집단에 대한 기본계획인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다문화청소년 관련 계획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가 5년을 주기로 발표하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은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0)’에서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2007년 말에 수립된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2008~2012년의 청소년정책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에 대한 12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여성가족부, 2010:25). 이 중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는 두 번째 분야인 ‘가족기능 및 사회 안전망 강화’의 정책 중점과제인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강화’의 하위 세부과제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내용은 다문화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센터 간 연계강화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노력과 다문화가족 아동양육 지원대상 확대 및 언어, 문화이해,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정착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 및 지원프로그램 확대와 자녀대상 방문교육서비스 실시 등이 다문화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제시된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과제의 대부분은 앞서 살펴본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교육정책 시행계획에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들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 언급한 각 정책과제의 세부내용에 대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았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라는 비전에 따라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추진될 5대 영역의 15대 중점과제 및 75개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2b: 33). 제5차 기본계획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과제는 첫 번째 영역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세 번째 영역인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의 중점과제인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의 세부과제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와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문화 수용성 강화와 다문화청소년의 인적자원 활용에 관한 내용을 중점 내용으로 추진되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에서는 대부분 4차 기본계획에서 추진되었던 이중언어교육 지원, 방문교육서비스 확대, 학교 적응 및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전과 달리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관한 중점과제와 함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중점과제가 별도로 제시되었는데, 관련 세부 추진과제를 비교해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개념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의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다문화청소년의 제도교육 진입지원 강화와 비진학 및 탈학교 다문화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전문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2018~2022년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로 이를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2개 중점과제 및 144개 세부과제가 계획되었다(여성가족부, 2018b). 제5차 기본계획에서 혼용되던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이주배경 청소년’은 제6차 기본계획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통일되었고, 관련 주요 정책과제로는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실시 및 교원대상 다문화 역량 강화연수 확대를 통한 학교에서의 다문화청소년

년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인 ‘다재다능 프로그램’의 확대 및 다문화청소년 한국어 교육 및 학습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제 5~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담긴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또한 같은 시기에 발표된 제2~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교육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들과 동일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XI-8. 4~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변화과정

구분	내용
<p>4차 기본계획 (2008~ 2012년)</p>	<p>◎ 비전 및 기본목표(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 100대 세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 가족기능 및 사회 안정만 강화 -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p>◎ 다문화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강화를 통한 종합지원체계 확립 - 다문화청소년 재개념화를 통한 청소년복지지원 대상 확대 ▪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아동양육 지원대상 확대 -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이해 및 이중언어 교육 지원강화 -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적응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 및 지원프로그램 확대 ▪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대상 방문교육서비스 실시(2011년 하반기)
<p>5차 기본계획 (2013~ 2017년)</p>	<p>◎ 비전 및 기본목표(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75개 세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로 양성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p>◎ 다문화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위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이해 및 이중언어 교육 지원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대상 방문교육 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 청소년 학교적응 및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종합 지원체계 확립 - 다문화가정 학생 제도교육 진입지원 강화 - 비진학 및 탈학교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 이주배경 청소년 전문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6차 기본계획 (2018~ 2022년)	<p>◎ 비전 및 기본목표(4대 정책목표, 12개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 다문화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의 다문화청소년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실시 - 교원대상 다문화역량 강화연수 확대 ▪ 학령기 다문화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사업(다재다능 프로그램) 확대 ▪ 다문화청소년 한국어 교육 및 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발달, 한국어 교재 개발 및 보급 - 중도입국 등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 및 초기사회적응 지원 - 이주배경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직업체험 및 진로훈련 지원 - 중도입국청소년 직업훈련기간 체류 보장 비자 발급 등 제도개선 검토

* 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2b, 2018b)

5)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2018~2020)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 및 법무부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등에 나타난 국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교육부와 법무부의 계획은 별도의 부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실상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각 부처별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부과제별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은 명백하다. 그 중 ‘다문화자녀 성장’이라고 구분된 항목의 예산을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다문화가족정착지원의 45.3%와 결혼이민자 참여확대의 22.8%를 합한 총 68.1%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예산이고 전체의 22.3%만이 자녀성장을 위한 비율이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총 예산은 증가한 것에 비하여 다문화자녀 성장지원을 위한 항목의 예산은 오히려 13.7%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사업예산이 증가하였으나 18.1%에 불과하고 오히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항목의 예산이 64.5%로 대거 할당되었음을 볼 알 수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다문화가족관련 예산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을 위한 예산이 2018년 21.3%, 2019년 10.7%, 2020년 14.7%로 2019년 대폭 감소하였다가 2020년 약간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2018년 26.4%, 2019년 29.4%, 2020년 31.9%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3대 목표 중 하나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임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 대비 차지하는 예산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오히려 다문화자녀의 성장지원에 대한 예산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할당하고 있고 해마다 증가한

것에 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은 2018년 대비 2020년은 6.6%p 감소하였다.

또한 직접적으로 다문화자녀 성장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다문화수용성 제고의 경우 그 비율이 3%도 되지 않고, 매년 그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서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이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 점과는 다소 맞지 않으며, 여전히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XI-9. 2018~2020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세부과제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총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8	'19	'20	'18	'19	'20	'18	'19	'20
총계	383,778 (100)	468,863 (100)	562,929 (100)	311,586 (100)	389,272 (100)	451,804 (100)	72,192 (100)	79,591 (100)	111,125 (100)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173,930 (45.3)	315,155 (67.2)	363,002 (64.5)	153,885 (49.4)	294,627 (75.7)	332,823 (73.7)	20,045 (27.7)	20,528 (25.8)	30,179 (27.2)
결혼이민자 참여확대	87,505 (22.8)	53,086 (11.3)	54,556 (9.7)	72,666 (23.3)	38,951 (10.0)	38,379 (8.5)	14,839 (20.6)	14,135 (17.8)	16,177 (14.6)
다문화자녀 성장	85,519 (22.3)	64,233 (13.7)	102,020 (18.1)	66,432 (21.3)	41,616 (10.7)	66,565 (14.7)	19,087 (26.4)	22,617 (29.4)	35,455 (31.9)
수용성제고	23,358 (6.1)	15,650 (3.3)	15,649 (2.8)	14,863 (4.8)	6,664 (1.7)	6,876 (1.5)	8,495 (11.8)	8,986 (11.3)	8,773 (7.9)
정책추진 체계강화	13,466 (3.5)	16,452 (3.5)	23,420 (4.2)	3,740 (1.2)	3,127 (0.8)	2,879 (0.6)	9,726 (13.5)	1,332 (1.7)	20,541 (18.5)
귀환여성 지원	-	4,287 (0.9)	4,282 (0.8)	-	4,287 (1.1)	2,879 (0.6)	-	-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9:7-9), 여성가족부 (2020:18).

* 위 예산은 통합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분리할 수 없는 예산을 포함한 총액이며, 실제 다문화가족에 지원되는 예산은 1,293억 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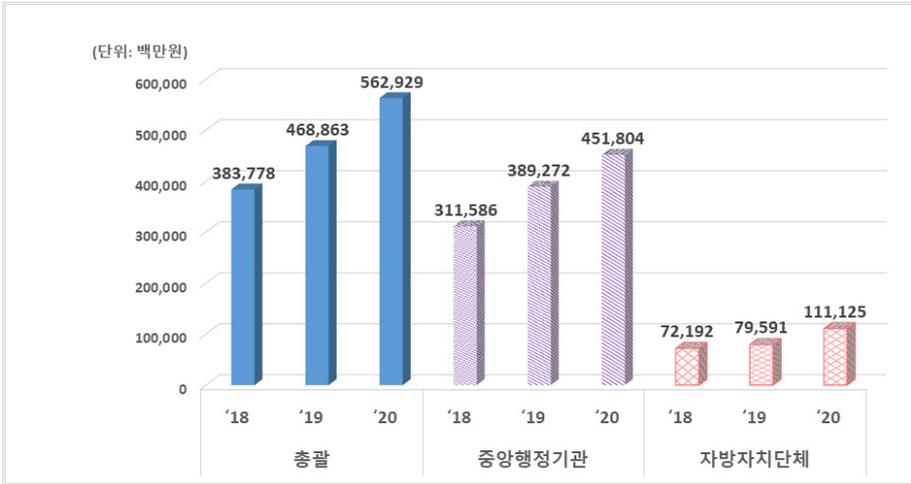


그림 XI-1. 2018~2020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예산: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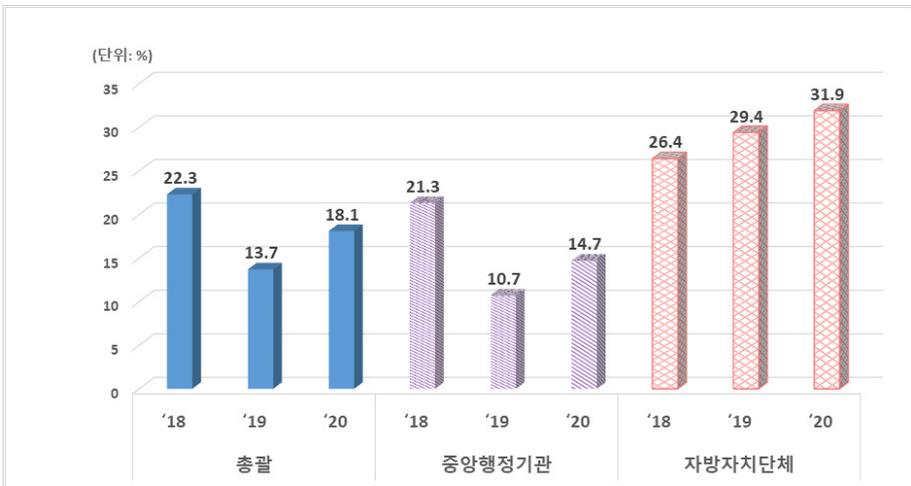


그림 XI-2. 2018~2020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예산: 자녀성장지원 영역

이에 비해 세부과제별 과제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는 없다.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과제의 수가 많다고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몇 개의 효율적 과제를 집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의 수가 감소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효율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한 결과인지 단순히 예산의 감소로 인한 과제수의 감소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XI-10. 2018~2020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세부과제별 과제수

(단위: 개(%))

구분	총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18	'19	'20	'18	'19	'20	'18	'19	'20
총계	984 (100)	1,214 (100)	1,210 (100)	117 (100)	127 (100)	124 (100)	867 (100)	1,087 (100)	1,086 (100)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248 (25.2)	306 (25.2)	313 (25.9)	25 (21.4)	26 (20.47)	25 (20.2)	223 (25.7)	280 (25.8)	288 (26.5)
결혼이민자 참여확대	235 (23.9)	256 (21.1)	269 (22.2)	26 (22.2)	24 (18.90)	24 (19.4)	210 (24.2)	232 (21.3)	245 (22.6)
다문화자녀 성장	222 (22.6)	295 (24.3)	276 (22.8)	31 (26.5)	29 (22.83)	27 (21.8)	191 (22.0)	266 (24.5)	249 (22.9)
수용성제고	212 (21.5)	248 (20.4)	252 (20.8)	27 (23.2)	28 (22.05)	28 (22.6)	185 (21.3)	220 (20.2)	224 (20.6)
정책추진 체계강화	67 (6.8)	98 (8.2)	89 (7.4)	9 (7.7)	9 (7.09)	9 (7.3)	58 (6.7)	89 (8.2)	80 (7.4)
귀환여성 지원	-	11 (0.91)	11 (0.9)	-	11 (8.66)	11 (8.9)	-	-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9:22-42, 2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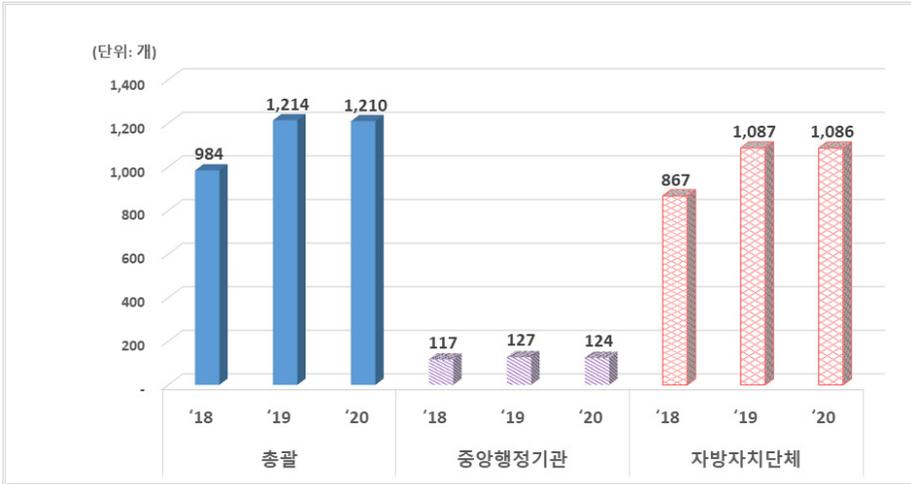


그림 XI-3. 2018~2020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과제수: 전체



그림 XI-4. 2018~2020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과제수: 자녀 성장지원 관련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에 할당된 예산을 부처별로 비교해보았다. 아래와 같이 전체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영역에 할당된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처는 교육부였다. 교육부의 경우 청소년이 정책의 대상인 만큼 80%내외의 예산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에 할당하고 있고 과제의 수는 10개 내외로 2020년 과제수는 9개이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예산 자체로 보자면 전체 부처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투입하는 다문화가족 전체 예산 중 자녀 성장지원 관련 예산은 그 비율이 5.63%에 불과하여 여성가족부 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의 경우 사업의 수가 1개 또는 2개이며 예산이 100% 또는 50%인 것은 그 세 부처에서의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부분만 해당됨을 의미하고 이것이 반드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비중을 크게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율과 과제로 해당부처의 다문화가족관련 정책 내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비중을 판단할 수는 없다.

표 XI-11. 2018~2020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부처	구분	'18	'19	'20
교육부	소요예산	14,229(82.40)	12,260(78.70)	14,650(81.23)
	과제 수	10(71.43)	10(71.43)	9(69.23)
외교부	소요예산	10,323(100)	8,576(100)	31,031(100)
	과제 수	2(100)	2(100)	3(100)
법무부	소요예산	-	-	-
	과제 수	1(11.11)	1(12.50)	-
산업통상자원부	소요예산	50(100)	50(100)	20(100)
	과제 수	1(100)	1(100)	1(100)
고용노동부	소요예산	1,900(18.04)	1,900(21.45)	1,900(19.86)
	과제 수	1(25.00)	1(25.00)	1(25.00)
여성가족부	소요예산	39,930(16.05)	18,830(5.63)	18,964(5.12)
	과제 수	15(25.00)	14(23.33)	13(22.03)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9:20-39).
-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 과제수 단위: 개
- * 소요예산의 괄호안: 부처별 다문화가족 전체 예산 중 비율, %
- * 과제수의 괄호안: 전체 과제 중 비율, %

다만, 위 <표 XI-11>에서는 각 부처별 다문화가족 자녀 즉,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을 각 부처에서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주로 다문화가족자녀 즉,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고,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한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외교부의 사업은 KOICA드림봉사단 선발시 다문화청소년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법무부의 경우는 사회통합교육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제공사업을,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취업성공패키지, 폴리텍 다솜학교 운영 등 사실상 해당부처의 고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려하는 수준이거나 특화사업 한 가지 정도를 할 뿐 적극적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 적극적 지원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의 부처에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내용이 전무한데, 사실상 모든 부처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대거 분포하고 있는 농촌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는 결혼이민여성 대상 영농후계인력 육성과 지역통합을 위한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와 다문화가족 농촌 정착지원과정 등을 운영할 뿐 농촌지역 자녀 성장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고, 보건복지부의 경우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정책이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려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6)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평가

(1) 전문가 자문회의 절차 및 방법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의 서론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두 차례의 의견수렴자리를 마련하였는데, 1차는 10월 16일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중 다문화청소년 사업을 다수 추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그 외 다문화청소년사업을 10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들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현황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2차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현재 정책의 한계와 향후 개선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내용은 첫째로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둘째로는 각자의 평가의견에 근거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표 XI-12.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현황

차수	일시	연번	참석자	소속	방법
1차	10. 16	1	강○○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면대면
		2	허○○	○○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3	정○○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4	도○○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5	이○○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차	12.3 ~ 12.7	1	정○○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면
		2	도○○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3	조○○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우선 첫 번째로 전문가들에게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과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년간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근거로 제시한 의견을 한계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학력제고와 관련해서 정책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기초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은 읍·면지역의 경우 매우 절실한 문제인데, 청소년 개인의 차이도 있지만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며, 결국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멘토링 사업은 추진했지만 사실상 큰 효과가 없거나 읍·면지역에서는 대학생멘토링사업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그 외 학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효과가 없다는 평가였다.

둘째, 한국어교육의 경우 역시 특별한 체계적 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교육부에 한국어학급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이 읍·면지역까지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다음 단계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셋째, 돌봄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에 비해 중등 이상의 방과후 돌봄시스템이 별로 없다보니 입소대기가 발생하는 등 다문화청소년이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읍·면지역의 방과후돌봄의 문제, 특히 중학교 연령층을 위한 방과후돌봄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재 방과후아카데미사업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문화청소년들은 그 사업의 주요 대상자이다. 그러나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춘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운영이 가능하

기 때문에 읍·면지역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돌봄과 관련하여 현장 전문가들은 외국출신어머니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가 달라 한국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방임으로 볼 수 있는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아버지는 아이의 돌봄을 신경쓸만하나 수준이 아닌 경우가 많다보니 어린 아이가 동생을 돌보는 등의 실태를 보고하였다.

넷째로 심리적응과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상담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지만 상담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이해로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원수로 실적을 평가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교사나 현장전문가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데 정작 당사자나 부모는 문제의식이 없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경우는 다문화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제기하였다.

다섯째,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이 집체교육과 방문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낮은 수요와 참여도로 계획대로 체계적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현재는 입학설명회나 자녀와의 의사소통교육, 성교육 등 제한된 주제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부모-자녀교육을 병행한 가족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마지막 기타 의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문제는 아이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의 복합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로 당사자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보다 종합적 시각에서 가족 전체의 문제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진로나 직업교육도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유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농어촌 지역의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림

축산식품부 차원에서 계획이 되고 움직여야 하는데, 가장 큰문제가 전달체계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 해당 부처의 전달체계가 없는데 예산을 다른 기관에 지원하게 되면 그것은 해당 부처 사업이 될 수 없고,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경우 예산사용의 어려움이 있는 등 사실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정책이 양적 확대 등 외형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그 정책들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들이 백화점 식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이 없이 명목뿐인 내용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표 XI-13. 다문화청소년정책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

주제	내용
기초학력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멘토에 대한 다문화감수성 교육, 자질 검증, 멘토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충분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임 ■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지역에서 체감도는 거의 없음. ■ 교육부에서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고 하기도 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Wee센터 상담 등과 같은 기존에 있는 사업과 다문화 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 등이 모두 다 들어가 있음 ■ 도시·농촌의 차이는 지역차이라기 보다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더 큰 영향이라고 생각함 ■ 시골지역 기초학력 문제는 개인차이, 열악한 환경, 학습언어 문제 ■ 학원비 지원 효과 떨어지는 이유는 지속성이 떨어지고 부모의 등원 관리 안 됨 ■ 기존의 학습지 선생님이 10~20분 수업하는 것으로는 효과 없음. 학습지만 쌓여가고 선생님이 성의가 없는 경우가 많음 ■ 읍·면지역 기초학력 제고방안이 너무 절실함.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어 교육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있지는 않아 보임 ■ 입학 시기와 연령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 체계 구축이 어렵고 연말 회계 연도를 하는 정부 보조금의 특성상 11월 이후 입국자들은

주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개월간 거의 한국어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함. ■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주민 자녀 대상 한국어교육은 일부만 지원됨 ■ 입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도 존재함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는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중등이상은 갈 곳이 없음 ■ 다양한 돌봄형태(지역아동센터, 공부방)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실인원 과부화로 입소 대기요청 빈번 ■ 외곽지역의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지원이 극소수 ■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 :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가정에서 다름 ■ 이주여성의 40%는 가출, 이혼 상태 : 가족보다 학교, 지역사회 지지 를 더 많이 받음 ■ 이주여성들이 취업할 시기가 되면 자녀양육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경향 있음 ■ 10살 때 밥하고 빨래하고 동생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 방임을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너무 어려움.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부분이 있음. 아버지는 이미 50세가 넘어서 현재의 교육체계에 대해 엄마보다 더 모름 ■ 아버지가 비주류계층인 경우가 더 많음 ■ 아이가 엄마를 보호하는 경우가 더 많음(통역 등) ■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아 과거 세대의 문화와 경험이 양육에 적용됨 ■ 폐쇄적이고 안주하는 농촌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함 ■ 부모는 경제활동을 하고 첫째가 동생들을 보호하는 경우 다수
심리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 상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 부족. ■ 상담에 대한 행정수준의 낮은 이해도로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천편 일률적 지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감수성이 높은 전문가의 부족 ■ 다문화청소년 당사자들은 본인이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며 부모도 마찬가지임 ■ 학교 교사는 다문화가정자녀보다 외국인자녀(영어권)에게 더 호의적 ■ 중도입국 청소년 중 초4 정도는 잘 적응 하지만 중고등학교 정도의 연령은 부적응정도가 높음.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집안 살림부터 동생보살핌까지 전혼 자녀에게 다 맡기는 경향이 있음. ■ 국제결혼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는 형편이 어려워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표시가 나는 것이 싫어서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

주제	내용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집체교육과 방문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부모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낮음. 낮은 수요와 참여도는 체계적인 교육 진행의 장애물이 되고 있음 ■ 현 부모교육은 입학설명, 자녀의사소통교육, 성교육 등 제한적 주제로 한시적 운영되는 현실임. ■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부모-자녀를 병행한 가족중심 교육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의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의 복합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진로나 직업도 촘촘하게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야하는데 중복·유사 효과성 없는 것들이 반복됨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전달체계가 없다는 것이 어려운 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인력 지원 없이 예산만 주는 것은 소용없음 - 인건비가 포함되어 예산이 내려와도 예산 성격, 부처가 서로 다르면 사용하기 어려움 ■ 외형적인 변화(양적확대)는 있으나 효과성은 의문 ■ 정책이 백화점식 종합선물세트와 같음. 원칙과 방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옴

이와 같은 한계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첫째로, 기초학력제고방안과 관련하여 대학생 멘토링과 관련해서는 멘토관리 및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고, 따라서 멘토 대상 역량강화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의 문제는 비대면 멘토링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방학기간 중 집중 학습캠프 운영, 입학 전 글로벌 예비교육이수의 의무화, 배움지도사 사업 대상에 다문화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한국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레벨테스트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사실상 교육부에서는 2019년 이미 한국어능력 진단·보정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20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현장에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 외에 방문교육

서비스 중 한국어교육을 중도입국청소년에게 확대하는 방안, 결혼이주여성 및 유학생을 이중언어강사로 양성하여 중도입국자녀나 분반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방안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셋째로 돌봄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외곽지역 돌봄에 대해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외곽지역 공동체 돌봄 활성화를 하는 방안, 청소년 시설을 활용하여 중등 이상 아이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로 심리적응과 관련해서는 전문 상담사 대상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상담시 통역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 정착초기 또는 입학초기 청소년 가족 대상 가족상담이나 가족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다섯째로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가족코칭, 생애주기별 발달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 온라인을 통한 부모교육 등을 제시하였고, 현재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그 외 농어촌 결혼이민자 상담코칭, 전문상담통역가 양성교육, 농촌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여섯째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의 기관들이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원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 내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및 문화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일률적 지역연계시스템이 아닌 도농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농촌의 경우는 결국 인력의 부재가 문제이므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표 XI-14.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개선방안 대한 전문가 의견

주제	내용
기초학력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멘토링이 효과가 있었으나 멘토들을 관리, 교육하는 부분이 매우 부족하였으므로 멘토 관리 강화를 통한 멘토링 수업 ■ 대학생들을 사전 교육으로 다문화감수성 교육, 읍·면 지역의 특성상 대학생들의 방문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대면 병행/ 중간관리 기관에서 멘토를 통해 교육 진행 정도 등 파악, 멘토 어려움 수렴 및 슈퍼비전 ■ 방학기간 중 집중 학습 캠프 : 멘토와 직접 만남 ■ 방과 후 활동(국어, 영어, 수학 등)으로 부족 부분을 보완 ■ 입학 전 글로벌 예비교육 이수 의무화 ■ 관내 학교 및 다문화센터 협업을 통한 중도입국자녀 기초학습 연계 ■ 배움지도사 사업(가족역량강화, 사례관리)의 대상 확대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어 레벨테스트지 개발 필요 (다양한 언어권) ■ 방문교육서비스 중 한국어교육을 중도입국 자녀 중심으로 지원하되, 방문교육과 집체 교육을 병행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결혼이주여성 및 유학생을 이중언어강사로 양성하여 중도입국자녀 전체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인원이 많을 경우 혹은 필요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분반 운영) ■ 지역 내 대안학교 및 위탁교육기관에 집중 한국어교육 요청 필요 ■ 학교 정규 수업 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말(토요일)에 교육청에서 중도 입국 자녀 한국생활적응반을 운영하여 주중에 학교 생활을 보완해주는 역할의 통역지원이 필요함.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활동시 외각/경계 지역 돌봄에 대한 교통비 차등지급 ■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외곽지역 공동체 돌봄 활성화 필요 ■ 청소년 시설을 활용하여 중등 이상 아이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함. ■ 학교에서 방과 후 동아리(예체능, 기초학력증진 등)를 활용하여 돌봄
심리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사 파견시 사전에 다문화감수성 교육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 전문상담사와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보조 상담사 양성 : 통역과 상담 청소년과 동행을 하면서 정서적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심리적 지원에는 반드시 등하원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집단상담, 개별상담 지원

주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초기 또는 입학초기 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및 가족프로그램 지원으로 가족 내 지지체계 형성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코칭 : 소규모 인원이어도 비슷한 문제를 호소하거나 비슷한 연령을 가진 가족들을 소규모로 집단 코칭과 개별 코칭 병행. 비대면으로도 가능 ■ 생애주기별 발달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발달과업 및 발달특징에 대한 이해교육 (미취학자녀: 언어발달촉진, 학령기: 사회성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 사춘기, 성교육 등) ■ 온라인학습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필요 ■ 방문교육에서는 자녀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의무화 ■ 교육기관에서 교육, 돌봄을 심리지원과 부모교육은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업무 분장 및 협업의 필요성 ■ 일반학생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다문화학생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부모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개별상담을 통한 병행교육이 필요 ■ 농어촌결혼이민자 상담코칭, 전문상담통역가 양성교육, 농촌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 필요 ■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담을 확대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
지역사회 중심 정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과 다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역할분담을 통한 지원 ■ 지역 내 교육청 및 청소년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문화 통합 시스템을 구축 ■ 일률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도·농 맞춤형으로 가야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및 직장교육 또는 직장 훈련교육 필요 ■ 상담이나 사례관리가 집중적으로 추진될 필요. ■ 결국 문제는 종합적임. 폭력, 방임, 경제 등 전체적으로 지역 내 모든 영역과 관련됨 ■ 농촌은 결국 인력문제를 해결 해야 함

2.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지난 10여 년간 다문화청소년정책은 꾸준히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규모 등 양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하였고, 질적으로도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초기 정책의 영역이 주로 다문화청소년의 부족함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한국어지원이나 한국역사체험, 일회적 행사성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비하여 한국어, 기초능력제고, 부모교육, 심리사회적응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책들이 영역별로 개발 및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초기 다문화청소년을 거의 '외국인'처럼 인식하여 다문화적 특성을 강조한 사업들을 추진하던 것에 비하여 점차 일반적인 청소년으로써의 삶과 적응, 청소년 일반집단과의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 노력의 성과분석 등 정책의 근거들이 많이 마련되면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초기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비하여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선별적 지원이 오히려 다문화청소년을 구분 짓고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차별감을, 청소년 일반 집단에게는 역차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를 제외한 다른 교육 및 지원의 경우는 통합적 교육 및 지원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다문화청소년 당사자의 역량개발에서 주변인의 태도와 역량이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이다. 2006년 당시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은 명칭 자

체가 「다문화학생지원계획」이었다. 이는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다문화 학생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었던 것이고 다문화청소년의 문제는 다문화청소년 당사자가 역량을 개발하면 되는 문제로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다문화청소년 당사자의 역량 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학교환경, 학급동료, 교사, 부모, 지역사회 등 주변인의 역량이 함께 제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계획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교육, 교사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특히 다문화이해교육 등 친 다문화적 학교환경조성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다문화이해교육 등 환경조성에 대한 계획이 후반부에 위치하였는데, 가장 최근인 2020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이주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방안」에서는 다문화이해교육 등이 첫 번째 정책과제로 위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보인다.

다섯째,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에 따른 집단 내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내출생자와 외국출생자의 발달특성이 다르기에 지원되어야 하는 정책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초기에는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어서 구분 없이 사업이 현장으로 내려가고, 그 결과 국내출생자가 한국어 교육 사업에 참가하는 등의 사례들이 보고되던 것에 비하여 최근 들어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내용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국내출생자들을 위한 교육은 한국어라기보다는 국어, 독해능력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에 비해 집단 내 다양성을 인식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섯째, 공교육 진입 및 학교적응을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서류미비 등으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것들을 거소증명만으로 학교 입학이 가능하게 하였고, 그 다음 단계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령기에 국내 이주한 대상자들의 공교육 진입을 제고하기 위하

여 법무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중도입국청소년의 공교육 진입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입학여부의 결정권을 주었던 것에 비하여 최근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가배정하고, 학교장은 학년 결정 등 편입학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등 다문화청소년의 공교육 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이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당시 연령이 어린 초등학생 중심의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비하여 최근 다문화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진로나 진학 등 청소년기 발달과업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교육부),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여성가족부) 등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점차 연령층이 높아지는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을 고려한 정책들이 개발되었다는 점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여덟째, 범부처 협업 및 지역 내 연계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갑작스러운 사회적 관심으로 인하여 각 부처에서 각각의 자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여 중복 및 사각지대의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다문화청소년 정책이 한 부처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앙부처의 주요 사업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당사자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의 현황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초기의 고정관념에 근거한 공급자 중심의 다문화청소년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한 과정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계

성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에 비하여 현재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력해야 할 부분은 남아있다.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한계와 개선의 방향을 한 마디로 하자면 첫째, 현재 존재하는 각종 정책과 제의 '내실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다문화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분명히 양적, 질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사실상 정책사업의 추진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실제 대상자의 수는 전체 모집단 대비하여 매우 미미하거나 내용 자체가 명목뿐인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좀 더 예산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낮은 경우는 과감히 일몰시키는 등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 다양성을 고려하게 되었지만,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요구에 부합하는 세밀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현재는 국내출생이나 국외출생이나 등으로 구분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실상 같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중에서도 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수준, 거주지역 등에 따라 매우 많은 발달 및 적응 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중앙차원의 각종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적극적 개선노력을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책이 대상의 배경특성별 욕구에 따라 좀 더 세밀한 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전히 수요자의 욕구보다는 공급자의 시각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즉, 다문화청소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현재 정책사업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등에 대한 고민 없이 공급자가 지닌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사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인 '이중언어'와 관련된 부분이다.

물론 다문화청소년이 유능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중언어 역량을 꼽은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중언어사업은 늘 글로벌역량강화와 연결된다. 이는 다문화 집단은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외국인은 ‘외국어’, 외국어는 ‘글로벌역량’으로 인식하는 것은 다문화청소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측면만을 보는 매우 이상적인 시각으로 생각된다. 다문화청소년이 이중언어를 잘 하게 하는 것은 이중언어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가정에서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중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발달 및 성장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자신과 부모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중언어교육은 부모나라 말이 아닌, 파견이 가능한 강사의 언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원래 의도한 정책의 효과는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초기에 추진되던 일회성 단발성 체험활동 지원사업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물론 일회성 단발성 캠프 등의 사업이 모두 의미없는 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일회성 사업이나 캠프도 특정한 목적을 지닌 일련의 프로그램 맥락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논리적 체계 속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다문화청소년들이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이라는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적 접근은 예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당사자들도 불쾌감을 느끼는 등 부정적 결과들을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제와 맥락 없는 시혜적 일회성 사업들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류집단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제고된 것에 비하여 실질적으로는 크게 전 국민 대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다문화이해교육은 교육부의 정책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이해교육은 이주배경청

소년지원재단에서 추진되고는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파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이해교육은 그야말로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의 교육일 뿐 공동체 내의 다문화집단에 대한 반편견, 반차별, 인권존중을 다루는 본격적인 교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있는 것처럼 공무원, 군인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전방위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고, 학교의 다문화교육 역시 그 내용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다문화청소년이 주체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다문화가족 내 자녀로써의 정책이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정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추진체계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의 경우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등 보다 넓은 의미의 다문화청소년 전체의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는 아직 없다. 향후 다문화청소년의 이슈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노동자 등 성인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우리사회의 문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주체적으로 전담하는 정책추진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요약

지금까지 기술한 그간 국내에서 추진해 온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XI-15>와 같다.

표 XI-15.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성과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양적확대 및 질적 발전 ■ 다문화청소년의 실제 요구 반영도 증가 ■ 선별이 아닌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 인식 ■ 다수자 역량개발의 필요성 인식 반영 ■ 집단의 다양성과 특성 반영 ■ 공교육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 ■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반영 ■ 범부처 협업 및 지역 내 연계협력 중요성 인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실화 필요성 ■ 집단 내 배경특성의 다양성을 좀 더 면밀히 반영할 필요 ■ 공급자 시각의 정책추진 여전히 존재 ■ 일회성, 단발성 사업 여전히 존재 ■ 주류집단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의 부족 ■ 다문화청소년이 아닌 다문화가족 자녀정책으로써의 정체성

○———— 제ⅩⅢ장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 1.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도출과정 및 절차
- 2.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현황
분석결과 요약 및 결론
- 3.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1.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도출과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에서 문헌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였고, 2단계에서는 패널조사에서 산출된 데이터를 1기패널과 2기패널에 따라 각각 별도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두 패널을 함께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다음 3단계에서는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현장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분석결과가 타당한지 현장타당도를 검증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때 도출된 결과를 현장의 맥락에서, 특히 시 단위와 읍·면 단위의 환경 맥락 속에서 청소년들의 발달실태와 정책의 추진실태 등에 따른 맥락 내에서 해석하는 작업을 함께 추진하였다. 다음 4단계로 기존의 국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10여년 간의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고, 어떤 방식으로 과제들이 세분화 정밀화 되어야 하는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5단계에서는 10년 이상 다문화청소년관련 사업과 정책을 수행한 전문가들과 함께 다문화청소년들의 배경특성이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좀 더 세밀화되고 요구부

* XII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합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회의 형태의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1차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 대상으로 정책의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 등을 검증받고자 서면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수정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단계	절차	대상	내용
근거 자료 준비 단계	1단계	문헌연구	선행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 논문 및 연구보고서 검토 ■ 기타 정부부처 자료 검토
	↓			
	2단계	설문조사 결과분석	패널조사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패널 분석 ■ 2기 패널 분석 ■ 1, 2기 패널 비교분석
	↓			
정책 제언 도출 단계	3단계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결과 타당성 검증 ■ 현재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한계 ■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정교화 방안
	↓			
	4단계	정책분석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의 현황, 성과 및 한계 분석
	↓			
정책 제언 도출 단계	5단계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	현장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제 논의
	↓			
	6단계	1차 정책제언(안) 도출		
	↓			
정책 제언 도출 단계	7단계	전문가 검토	학계, 현장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정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논의
	↓			
	8단계	최종 정책제언 도출		

* 출처: 양계민 외 (2014: 388) 그림 IX-1 수정

그림 XII-1. 본 연구의 정책제언 도출 절차

2.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현황 분석결과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수집된 1기 패널 데이터를 통하여 전반적인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1기 패널과 2기 패널을 비교함으로써 약 10년(실제로는 9년)간의 다문화지형의 변화를 파악하며, 2기 패널의 하위유형별 배경특성별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다문화지형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을 정부의 계획과 현장전문가의 평가의견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향후 국내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각 영역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그 결과가 가지는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1)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우선 설문조사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추진되었는데 첫 번째는 2011년부터 추진된 1기 패널의 9년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기 패널에 대한 9년간 종단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문화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3, 4분위에 속하는 경향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경제적 취약가구에 분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관련해서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마다, 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마다 학교공부에 대해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이 증가할수록 성취동기는 높아지는데 반대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초등학교 때에는 학업성취에 있어서 사교

육 등 환경적 요인의 덜 받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성취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혼자만의 노력으로 성적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는 학업성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도 올라가나 현실적으로는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산출함에 따라 만족도는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고, 사회적 위축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청소년기 성장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일 수도 있으나 2017년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연보라, 2017)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에 비하여 중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 감소경향성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함의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점차 발달하면서 취약성이 증가하며 이러한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다문화청소년집단이 점차 사회취약계층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견고화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고무적인 결과는 다문화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하여 ‘학교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한다’는 응답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이다.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은 대부분이 ‘담임교사’로, 이는 학교 내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결과로 해석된다. ‘학교 밖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한다’는 응답율도 학교 내에서의 지원율보다는 낮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지체계가 학교 안팎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특히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좀 더 적극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일반집단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들의 심리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	1기 패널: 9년간 종단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 속함. ■ 상급학교 진학시기마다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증가함 ■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성취동기는 높아지고,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고, 사회적 위축은 증가함.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학교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한다는 응답율이 증가함. ■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증가하긴 하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 전반적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은 사회적으로 낮은 수준에 위치함. ○ 이러한 경향성이 지속될 경우 학교졸업 후 취약한 진로발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지원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다문화청소년 집단이 대거 취약계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두 번째로, 1기와 2기의 동일학년 시기의 비교로, 2011년 1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당시와 2019년 2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당시의 비교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의 적응양상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2기 신규패널 참가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1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양육태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집단괴롭힘 피해경험도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9년 사이에 약 3배 정도가 높아지는 등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양상이 1기에 비해 더 나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그간 사회적으로

노력한 국내 다문화청소년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 정책추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1, 2기 패널: 초 4 시기의 비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기의 삶의 만족도와 성적 만족도가 1기에 비하여 높음 ▪ 1기에 비하여 2기의 경우 부모의 감독적 양육태도는 높고 방임적 양육태도는 낮음 ▪ 1, 2기 모두 읍·면지역거주자가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방임태도가 높음 ▪ 학교 안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9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높아짐 ▪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뚜렷하게 감소함 ▪ 1, 2기 모두 외국인출신부모의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지지 수준이 높음. ▪ 1, 2기 모두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희망교육수준 모두 높은 경향



합의 및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도에 비하여 2019년도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 집단이 성적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은 등 발달 지표에서 긍정적인. ○ 부모의 양육태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임. ○ 학교 내 지지체계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고, 집단괴롭힘 피해경험도 2011년에 비하여 현격히 감소됨. ○ 외국인출신 부모의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교사의 지지를 많이 느낀다는 것은 학교에서 초기적응자들에게 더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비해 한국사회가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에 좀 더 용이한 방향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그 간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보이고, 향후 좀 더 적극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세 번째로는 신규로 구축한 2기 패널을 하위 유형별로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분석결과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경우 한국국적이 있고, 한국어 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정책으로 통합해야 할 문제이지만, 정책추진의 큰 방향성과는 별개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정책적 지원은 세밀하고 요구부합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2011년 연구결과에서 저소득층의 다문화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집단보다 여러 가지 발달수준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연구결과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는 다문화청소년 집단의 다양한 유형 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이나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자녀들의 경우 발달적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 관련된 배경특성 요인에서도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가족관계, 즉, 어머니와의 관계, 또는 형제들과의 관계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좀 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 내에서도 부모 또는 자신의 배경에 따라 발달양상이 매우 다르며, 한국어소통능력만 된다고 한국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성장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10여년 간 다문화청소년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고 본다면 향후 10년간은 각 유형별 취약한 점, 도움이 필요한 점 등 각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의 촘촘하고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청소년 정책으로 더욱 발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2기 패널: 하위 유형별 특성 비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읍·면지역 거주비율이 높고, 부모간 연령차가 가장 크고(어머니 연령은 가장 낮고 아버지 연령은 가장 높음), 가구원수가 가장 많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적고, 부모지지가 가장 낮음.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학교적응 전반에서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성적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높음. 그러나, 방과후 학업관련 활동수준은 가장 낮으며, 최종 희망교육수준도 가장 낮음.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고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가장 높으며, 부모양육태도 중 감독이 가장 낮고 방임은 높음.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건강, 배우자와의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자녀의 최종 희망교육수준도 가장 낮음. ▪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일상생활스트레스 수준도 높고 어머니와의 갈등수준이 가장 높으며, 형제자매와의 갈등수준도 가장 높음. ▪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부모지지가 가장 높고, 감독수준이 가장 높으며, 교사지지도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수준도 높음, 또한 자신의 자아존중감은 가장 높고, 일상생활스트레스는 가장 낮으며, 어머니와의 갈등이 가장 낮음. ▪ 전체적으로 한국 장기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가 모든 집단에서 70%내외임. ▪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차별경험 시 '그냥 참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으며, 본국 정체성이 가장 높음. ▪ 부모 양육효능감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자녀 집단이 가장 낮음. ▪ 사교육비 수준을 전국 4학년 사교육비 평균과 비교해보면 모든 집단에서 교과목과 예체능 모두 전국기준보다 낮으며, 특히 예체능 사교육비는 더욱 낮음. ▪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은 모든 집단에서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것'.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거의 90%이며, 네 집단 모두 다문화인 것이 드러나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경우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음. 	



합의 및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 하위 유형별 발달특성은 매우 다양함. ○ 전반적으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이 가장 취약한 집단임. 본인의 발달 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정의 지지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함.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경우 한국국적을 지니고 있고, 한국어 소통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적응 상 문제가 덜하고 청소년 일반집단에 대한 정책으로 편입하

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반하여 실제로는 일반적인 지원 내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현재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지칭되는 집단으로,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달리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정의 소득수준도 높음, 그러나 그에 비해 가족 간의 갈등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보임.
-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부모지지가 가장 높고, 부모의 교육수준도 높고, 교사지지도 높으며 부모의 양육효능감도 높으며, 자신의 자아존중감도 가장 높고, 일상생활스트레스는 가장 낮은 등 발달지표 상에서 매우 긍정적임. 따라서 한국어소통과 학업성취 수준으로만 이들의 적응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한국어소통능력보다는 부모의지지 등 가정환경요인임을 시사하며 향후 정책방향에서 부모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사교육비의 수준이 모든 집단에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문화집단이 장기적으로 교육에서 점차 뒤떨어질 가능성을 나타냄. 따라서 향후 다문화청소년의 지원정책은 다문화집단의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생각됨.

마지막으로 2기패널을 배경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월평균 소득수준, 부모 교육수준 및 거주지 규모에 따라 전체 집단을 분석하였다. 이 중 월평균 소득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 및 적응이 달라진다는 것은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물론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여러 발달지표 및 환경요인에서 열악하다는 것도 놀랄만한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배경특성별 비교 결과는 많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즉,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돕고 청소년 일반집단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은 어떤 측면을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그 중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부모의 교육수준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그러나 부모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읍·면지역의 취약함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은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된다. 물론 지금까지 부모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학교나 교육청,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참여도가 저조한 등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부모교육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부모교육은 다문화청소년 당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부모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른 취약성은 정책적 접근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여러 가지 발달지표에서 취약하다는 점과, 중앙정책이 읍·면지역 거주자들에게 맞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개발하고 추진한 것에서 더 발전하여 보다 지역 사회 중심의 배경특성에 따른 요구부합적인 세밀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현재의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진되고 제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의 가족특성별, 거주지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2기 패널: 배경특성별 비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지남학기 성적, 희망교육수준,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 부모지지, 친구지지 부모와의 활동수준이 높음 ▪ 어머니 교육수준이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인 경우보다 학교생활적응, 지남학기 성적, 희망교육수준, 삶의 만족도, 부모지지,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부모와의 활동수준 높음 ▪ 아버지 교육수준이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인 경우보다 학교생활적응, 지남학기 성적, 희망교육수준,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부모와의 활동수준 높음. 반면, 현재 걱정거리도 높음 ▪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희망교육수준 낮음 ▪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부모지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부모의 감독수준, 부모와의 활동수준이 낮고, 부모 방임은 가장 높음. ▪ 읍·면지역의 경우 어머니 연령은 가장 낮고, 아버지 연령은 가장 높음.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침 ○ 부모의 교육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침 ○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다양한 발달관련 지표에서 취약함을 나타냄. 이는 읍·면지역에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이 대거 분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읍·면지역 등 정책소외지역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

2) 정책분석 주요 결과 요약

정책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그 간 다문화청소년정책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였고, 초기의 무분별한 선별적 지원에서 통합적 지원으로 접근을 바꾸었으며, 다문화청소년 당사자의 역량개발에서 나아가 그들을 둘러싼 주변 다수자들의 역량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공교육 진입이 훨씬 용이해졌으며, 초기에 비하여 다문화청소년 내의 집단 내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 다문화청소년 정책이 범부처의 협업 및 지역 내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성과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책사업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비하여 사업만 있을 뿐 실제로 추진되는 내용은 매우 협소한 수준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있고, 다문화청소년의 집단 내 다양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여전히 추진되어 실제 현장에서 각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없이 매년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업들도 있고, 주류집단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은 학교 이외의 지역에서는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닌다. 또한 가장 결정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정책이 '다문화가족 내 자녀'의 위치에서 이루어지다보니 다문화가족정책 내에서 예산 및 과제 수 측면에서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청소년의 정책은 다문화청소년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의 성과에 더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이며 실제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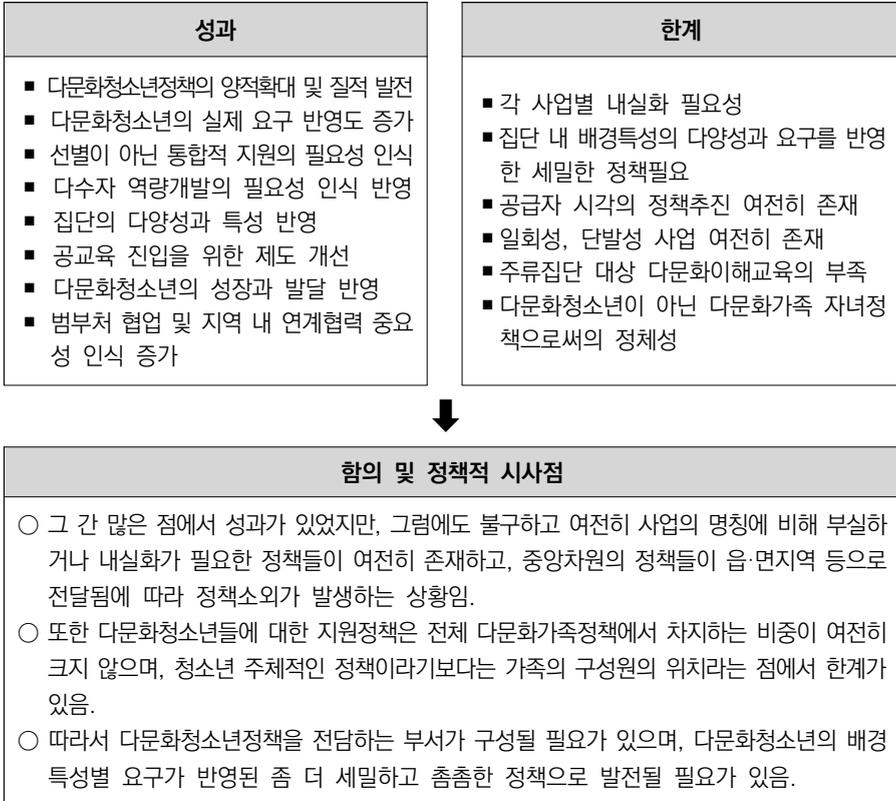


그림 XIII-2.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3.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1)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

지금까지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지난 10여년 간 추진된 정책 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현재 시점에서 향후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1) 정책의 정교화

첫째는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정교화이다. 지난 10여 년 간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은 더 이상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업들이 개발 및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현재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내실화·정교화 하여 실효성 없는 사업들은 일몰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들을 확장하며, 다양한 집단적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정책들을 정교화시킴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된 정책수립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정책사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모색 등 현 정책사업 전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다문화청소년들의 하위 집단유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부모 주도성 강화

둘째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주도성 강화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다문화청소년들의 부모가 한국어나 한국문화, 특히 한국교육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많은 부분을 학교 및 지역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공적기관의 지원보다 부모의 태도와 지원이 더 중요한 요인임을 부모들이 파악하고 스스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모역량강화 교육이 개발 및 추진될 필요가 있고, 자녀 지원에 있어서도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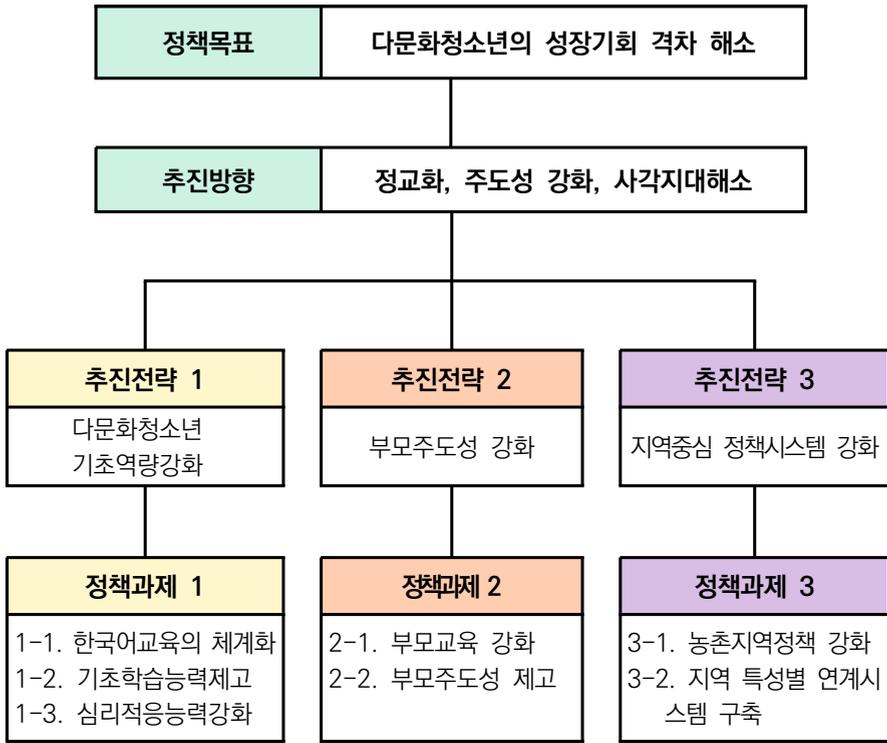
(3) 정책 사각지대 해소

셋째는 정책사각지대 해소이다. 이는 첫 번째로 제시한 정책의 정교화에도 관련 되는 문제로, 현재 중앙차원에서 개발된 정책들 중에서 현장에서 작동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존재한다. 이는 정책개발 당시 다양한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률적 적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도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특히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로 정책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사업이 대학생멘토링 사업이다. 대학이 없는 읍·면지역의 경우는 멘토링을 할 대학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학 중 캠프로 운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의 거주자들에 비하여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읍·면지역 다문화청소년들의 기초학력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정책의 방향을 근거로 향후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추진 방향과 기본원칙, 그리고 전략과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매년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진로 등 다양한 주제로 이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본 데이터 분석 및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중요하게 파악된 주요 주제로 다문화청소년의 기초학습능력, 심리적응, 학교적응 등을 주요 영역에 대하여 정교화 및 정책사각지대 해소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연구는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니는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더 하기 위하여 조사결과를 근거로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제안한 기본방향성을 근거로 추진과

제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다문화청소년정책수립 및 추진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출처: 양계민 외 (2016: 335) 그림 VI-2의 수정

그림 XII-3.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전략 1: 다문화청소년 기초역량강화

1-1.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관련부처
<p>■ 한국어교육의 대상특성별 체계적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을 '한국어소통능력 제고'를 위한 단계와 '학습한국어 또는 독해능력 제고'를 위한 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 - 외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자 또는 국내에서 출생했으나 한국어를 익히지 못하여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입학전 한국어교육, 학교의 한국어학급, 다문화가족센터의 방문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어를 우선적으로 교육함. - 한국어를 어느 정도 습득한 후에는 평가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는 독서지도의 단계까지 연결함.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수준별 독서지도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국내 출생자의 경우도 학습한국어능력 또는 독해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우 독서지도반으로 편입함. - 주중에는 학교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역 도서관, 또는 청소년시설의 독서반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함. - 지역 도서관과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또는 주민센터 등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공모사업을 추진함. - 독서지도프로그램은 한국어의 능력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고, 다문화청소년만을 선택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일반 청소년과의 통합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여 다문화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함.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 <p>■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확대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확대 추진함. - 학교와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 민간기관과도 연계하여 한국어교육이 가능하도록 운영함. - 입학 후에는 학교나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입학 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의 민간기관에서 교육을 하도록 연계함. 	<p>교육부 여성가족부 문체부 지자체</p>

○ 제안배경 및 실태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어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집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한국어소통능력 자체가 부재한 경우, 한국어소통은 되나 학습한국어수준이 낮거나 독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등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게 되었다. 한국어 능력의 문제는 반드시 외국출신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출생자의 경우도 가정환경에 따라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어머니 나라 언어만 소통이 가능한 극단적 사례도 일부 발견되고 있어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 당사자 입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한국어교육이 외국인으로써 한국어 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결국 도달해야 하는 수준은 학습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독해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한국어교육으로 접근하지만 어느 정도 한국어 소통 및 독해능력이 습득되었으면, 그 다음은 독서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발전될 수 있도록 큰 틀 내에서 조망되고 연계될 필요가 있다.

○ 과제 제안

첫째, 한국어 교육의 특성별 체계적 운영은 한국어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수준 높은 한국어 독해능력까지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국외에서 출생하여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경우와 국내에서 출생하여 한국어 소통능력은 되나 학습한국어 수준이 부족하거나 독해력이 부족한 경우를 고려하여 단계를 설정하고 지속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획안이다. 우선 외국출생자 또는 한국어소통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입국하면 입학전 한국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의 한국어학

급에서 수업을 듣는다. 이 경우 본인이 한국어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의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신청하거나 방문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교육이 끝난 후 한국어 능력을 평가한 이후에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지역사회 중심의 독서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공모사업을 추진하되, 청소년 독서클럽, 다문화청소년 독서클럽 등 지역사회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 내 국내출생자가 다수인 지역에서는 국내출생자가 포함된 통합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외국출생자가 다수인 지역에서는 외국인으로써 한국어가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수준별 독서지도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단계	내용	대상	실행
1단계	입학전 한국어교육	외국출생자, 한국어소통능력 부족자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단계	입학후 한국어교육	외국출생자, 한국어소통능력 부족자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한국어 능력 평가(선택) 및 지역연계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3단계	독서지도	국내출생자, 한국어소통능력 소지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도서관, 청소년시설

두 번째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교육부 계획에는

한국어가 필요한 중도입국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한 학교에 별도의 한국어학급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는 인근 학교의 한국어학급이나 지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다문화교육센터와 연계 및 협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입학 전 한국어교육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의 민간기관 내에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략 1: 다문화청소년 기초역량강화	
1-2. 기초학습능력 제고	관련부처
<p>■ 입학전 기초학습능력 준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세 대상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입학 전 기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개인의 수준에 맞춘 개별지도와 집단지도를 병행하도록 함. -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등 개인의 기초학습능력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 개별지도는 방문교육지도사 활용가능 - 집합교육의 경우 지역별로 지역다문화가족센터, 주민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현장상황에 맞는 장소에서 수행 <p>■ 배움지도사 지원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지도사 파견의 범위를 저소득 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함. - 읍·면지역 우선배정 - 온라인 운영방안 마련 및 추진 <p>■ 온라인 대학생 멘토링 사업 확대 및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에도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대상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사업을 확대하고, 읍·면지역 우선배정 - 사전교육 시 대학생 대상 학습코칭 교육 및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 - 국외출생자 또는 한국어소통능력이 낮은 대상자들의 경우 모국어가능 대학생과 연계 - 국외출생자 학습코칭을 위한 번역서 개발 및 보급 	<p>교육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지자체</p>

○ 제안배경 및 실태

다문화청소년들의 기초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들은 다문화학생멘토링사업으로 대표되고, 이 사업은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학생멘토링은 기본적으로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습지도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한계는 이 모델은 대학생이 있는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읍·면지역 등 소외지역을 위한 방안으로 교통비를 포함하여 수당 단가를 올리거나 방학 중 집중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의 정책이 읍·면지역까지 내려가지 못하여 정책소외가 발생하는 바에 대한 보다 적극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기초학습능력의 경우 단순히 학습능력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기초학습능력제고를 위한 방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 조치로 입학전 기초능력 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적응프로그램과는 별개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본적인 준비교육을 의미한다. 최근 한글을 읽지 못하고 학교에 입학하는 사례들은 매우 적은데, 그 적은 사례 중 다수는 다문화가정 자녀인 경우가 많다. 이는 학교에 입학 후 학습영역 뿐 아니라 심리적 위축감과 자아존중감 등 심리요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 과제 제안

첫째는 입학전 다문화청소년 기초능력 준비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으로, 만 6세 대상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기본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학전 기초능력 준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센터나 지역주민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장소에서 집단지도를 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수준에 따라 개별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도록 기획할 수 있다. 이 때 개별지도의 경우는 방문지도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는 배움지도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배움지도사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으로 경제·사회적 위기를 직면한 위기 가족(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0.12.10.)으로, 배움지도사가 파견되어 위기 가정 자녀의 학습과 정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학습부진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사업에 비하여 학습지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이 위기가정에 한정되어 있어서 해당 기준에 포함되면 다문화가정도 포함될 수 있으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이 질 높은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는 대학생멘토링사업 중 온라인 멘토링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대학생이 없는 읍·면단위 지역에서는 지원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온라인 학습멘토링을 확대하고, 이 때 읍·면단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계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국내출생자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한국어로 소통하면 되고, 국외출생자 또는 한국어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다문화청소년의 모국어가 가능한 대학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사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사전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사전교육을 통하여 학습코칭에 대한 교육,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멘토로서의 올바른

른 자세와 태도, 잘못된 멘토링의 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멘토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학습코칭을 위한 기본 매뉴얼을 작성하여 대학생들에게 배부 및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외국어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번역본을 제작하여 배부할 필요가 있다.

전략 1: 다문화청소년 기초역량강화	
1-3. 심리적응능력 강화	관련부처
<p>■ 온라인 다문화청소년 상담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 대상 온라인 화상 상담 사업 확장 - 다문화청소년 상담매뉴얼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상담전문가 대상 다문화청소년 이해교육 필수화 - 화상 상담 통역시스템 구축 및 운영 <p>■ 상담통역 전문인력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 상담을 위하여 통역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결혼이주여성, 외국어 가능한 한국인 대상 프로그램개발 <p>■ 인권침해 경험 대응 교육 및 매뉴얼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경험 시 올바른 대처방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 - 청소년 당사자의 행동, 교사의 행동, 학교의 대처방안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내용 구성 <p>■ 지역 내 심리사회적응 및 위기지원사례 지원 시스템 홍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소년 심리적응 및 위기지원 기관 등 지원시스템에 대한 홍보 - 홍보자료 제작 및 번역본 배부, 홍보자료 각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게재 	<p>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p>

○ 제안배경 및 실태

다문화청소년 개인의 역량강화에서 기초학습능력과 학교생활적응, 한국어능력 습득 외에도 중요한 요인이 심리적응 능력이다. 특히 본 연구에 따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은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경우는 어머니, 형제자매와의 갈등수준이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청소년시기에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이들의 발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습이나 가정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도 좀 더 요구에 부합하도록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위 심리적응 강화의 내용 중 일부는 2019년 보고서(양계민 외, 2019: 383-384)에도 유사하게 제시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다시 수정 제안하였다.

○ 과제 제안

첫째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응을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상담을 화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상담의 확대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면대면 활동이 어렵기도 하고, 최근 청소년들의 특성상 온라인 활동에 대해 심리적으로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화상 상담의 방식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도 인터넷 상담이 있었으나 이는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전문가가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상담은 실시간 화상상담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Wee센터, 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온라인 화상상담 시스템을 확대하고, 다문화청소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기초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초작업은 다문화청소년 상담매뉴얼을 개발하고 다문화청소년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보급하는 일이다. 현재 상담전문가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다문화전문가들은 상담의 전문가가 아니며, 외국출신인 경우는 언어소통의 문제로 전문적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상담전문가 교육 때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화상 상담시 통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상담통역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는 사실상 2019년에도 이미 제안한 바 있는데,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들 중 국외출생자 등 한국어 소통이 안되는 경우는 전문상담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상담통역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상담통역 전문인력 양성이다. 국내의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어가 가능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상담통역전문가의 정체성, 기본 태도, 아동청소년 특성에 대한 교육, 비밀보장 등 상담관련 인력의 기본소양교육 등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매뉴얼로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양계민 외, 2016: 384) 2019년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면대면 상황에서의 상담통역전문인력을 언급한 것인데, 이를 온라인 상담에도 적용하여 화상으로 상담을 할 경우 상담자와 내담자 이외의 통역사는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만 통역지원을 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문제, 즉, 인권침해시 어떻게 올바르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지침과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 및 학교차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행동 매뉴얼이 개발되고 보급될 필요가 있다. 즉,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것인지, 누구에게 알릴 것인지 등 다문화청소년 당사자의 입장에서의 대응방식과 함께 다문화청소년이 인권의 침해를 당했을 때 교사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교사의 미온적 태도가 다문화청소년 당사자 뿐 아니라 교실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는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 및 시스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실제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본인이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학교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지역사회에서는 어디를 찾아갈 수 있는지, 면대면이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트로 접근해야 하는지 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소개하는 홍보지를 작성하여 모든 청소년들에게 배부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청소년들의 지원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때 홍보자료는 한국어 뿐 아니라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여 게재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 중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도 상담 등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략 2: 부모주도성 강화	
2-1. 부모교육 강화	관련부처
<p>■ 법무부 국제결혼이민자 대상 교육에 부모교육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국제결혼 국민 소양교육, 결혼이민자 조기적응교육, 결혼이민자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내용에 부모교육을 포함하여,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개발하고 법무부가 추진함 <p>■ 여성가족부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 이용시 부모교육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도 부모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오리엔테이션 수준이므로 자녀교육 회기 내에 일정 시간 부모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부모교육컨텐츠를 개발하여 포함함. <p>■ 교육부 징검다리교육프로그램의 부모교육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검다리 교육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의 학부모는 자녀 뿐 아니라 부모도 일정 시간의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징검다리교육 참여자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초등용, 중등용). - 한국어이해가 부족한 경우 통역인력 지원 <p>■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과정 개발 및 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 취학전, 초등입학, 중학교입학, 고등학교 입학 등 발달주기별 주요 이슈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교육청,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p>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지자체</p>

○ 제안배경 및 실태

다문화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보다는 가정 내 부모의 역할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모교육의 중요성은 학교, 지역의 다문화청소년센터 등 대부분의 교사 및 현장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모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는 공적지원에 맡겨놓고 경제활동에만 초점을 두는 등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의지가 부족한 사례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수 지역에서 지적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공적지원이 아무리 투입되어도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교육 및 양육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에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라기 보다는 부모가 주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나 지역사회가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 과제 제안

첫째로,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제결혼이민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부모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국제결혼자에게 단계별로 국제결혼 국민 소양교육(입국 전), 결혼이민자 조기적응교육(입국 직후), 결혼이민자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입국 후)를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의 내용은 한국어, 취업정보, 가족관계법 등 모두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사회 적응교육이다. 이 때 대상자들은 모두 결혼이민자이므로 결국 부모가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모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교육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공동개발하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 이용 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현재에도 자녀생활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은 오리엔테이션 수준으로, 부모로써 갖추어야 하는 내용들을 모두 교육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자녀교육 80시간 내에 일정 시간은 부모교육에 할당함으로써 적어도 분기에 1회씩은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때 부모교육은 반드시 방문교육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다. 자녀는 방문교육이지만 부모교육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집합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교육부의 입학 전 적응프로그램인 징검다리교육프로그램에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징검다리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에서 입국하여 한국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학교생활적응이나 학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간 중 일정 시간을 부모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자녀도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보다 강력하게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징검다리교육 참여자 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징검다리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교용과 중학교용으로 나누어져 개발되어 있는데, 학부모대상 교육 프로그램 역시 학교급에 따라 각각 개발 및 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여러 언어로 자막을 제공하는 방식의 교육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동일언어 사용 부모끼리 집단으로 모여서 통역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로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방안인데, 위의 징검다리와는 약간 다르게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입학전, 중학교 입학 후, 고등학교 입학 전, 고등학교 입학 후, 대학입학 등 각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을

구축함을 의미한다. 이때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경우 한국의 학교시스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부모로서 어떤 부분을 챙겨주어야 하는지 아주 세세한 일상 관련 정보부터 진학정보까지도 포함한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주요 이슈가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교육프로그램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자료가 있긴 하지만 매우 간략한 교육제도 등에 대한 소개일 뿐 실제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다문화가정 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부모교육은 지역 내 교육청,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센터 등이 모두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략 2: 부모주도성 강화	
2-2. 부모 주도성 제고	관련부처
<p>■ 다문화여성대학 참여자 대상 부모교육 강사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후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여성대학' 참여자를 농촌지역 부모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거주지 주변의 다문화가정 부모대상 부모교육, 학교준비사항 등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강사로 양성 - 프로그램개발 및 양성교육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이 공동 추진하고 예산은 농협이 담당함. <p>■ 지역사회 공동육아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나눔터의 다문화가정 부모 품앗이리더 교육 활성화 및 지원강화 - 밀집지역 외국인가정 자녀 대상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모델 개발 및 보급 <p>■ 여성농업인센터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 방과후공부방 운영방안 모색 - 부모교육 활성화 	<p>교육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p>

○ 제안배경 및 실태

다문화가정의 경우 주로 어머니들이 외국출신이다보니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대해 한국의 어머니들과 달리 주도성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우며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계층에 속한 경우가 많아 자녀교육보다는 경제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며, 읍·면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시부모들과 함께 거주하는 과정에서 주도성을 발휘하기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주도성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성도 관련되지만 자녀교육 및 양육과 관련된 부모로서의 주도적 생활을 의미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는 자녀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교육 및 양육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자신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주도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공동육아에 참여하거나 다문화여성대학 졸업자를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좀 더 적극적인 위치에 서게 하는 등 주도성을 함양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과제 제안

첫째는 농협에서 후원하는 다문화여성대학의 졸업자들을 부모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자신의 출신국 어머니들에게 자녀교육의 경험이 있고 한국의 교육시스템이나 부모로서의 태도 등에 대하여 교육받은 결혼이주자가 경험이 없는 결혼이주자에게 모국어로 교육시키고 일종의 집단 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이주자들이 자녀교육에서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여성대학의 내용에 부모교육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위한 강사양성과정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다문화여성대학 내 교육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 양성과정 프로그램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등이 공동개발하고
강사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농협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는 다문화청소년들의 부모에게 지역사회 공동육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읍·면지역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특히
필요한 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의 부모 품앗이리더로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양
성하도록 지원하여 다문화가정 부모가 지역사회의 돌봄과 자녀교육의 리더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특히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많은 밀집지역의
경우 이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농촌의 경우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센터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39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보육 및 방과
후 공부방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바, 보육 및 방과후 공부방사업을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강화하
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여성농업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에 부모교육을 포함하고, 여성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또는 조부모
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하
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전략 3: 지역중심 정책시스템 강화	
3-1. 농촌지역정책 강화	관련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농촌다문화청소년 지원계획 포함 -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 있음. ■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농업인재양성방안으로 다문화청소년 인력 양성방안 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업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생애에 걸친 양성방안 마련. - 고등학생 대상 농업인 인재양성 진로프로그램 마련 ■ 농어촌지역형 다재다능 프로그램 구성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재다능사업을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기본사업+선택사업의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농어촌지역형 프로그램 개발 연구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국보급 ■ 농어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개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다문화청소년들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소외된 영역의 발달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특화사업을 개발 및 연구하여 보급함. - 특화사업 개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후 전국보급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제안배경 및 실태

다문화청소년정책은 중앙에서 추진되어 전국으로 전달되는데, 많은 경우 중앙 차원에서 개발되고 전달되기 때문에 읍·면단위에 많은 다문화청소년들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에서는 소외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이들이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에는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농촌지역에 청소년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농업인구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 때 농촌지역 거주

다문화청소년들을 농업인재로 양성하는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는 등 농촌지역의 다문화청소년들이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많은 사업이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모델개발이나 시범사업 등이 먼저 추진되고 실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정책사각지대는 농촌지역 이외에도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 과제 제안

첫째는 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에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다수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는 다문화청소년지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일부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와 다문화가정의 영농정책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멘토링을 매년 400명씩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다문화청소년들의 거주비율이 높고, 이들이 점차 성장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농촌지역 자체의 지원사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복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중앙의 정책들이 읍·면지역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한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이 중복사업으로 이해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읍·면지역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사업을 지역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만 볼 수 없고 농촌복지와 농촌지역 삶의 질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래 농업인재양성프로젝트에 다문화청소년을 인재로 양성

하기 위하여 전 생애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다문화청소년에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를 제시하고 실제 성공시키는 모델까지 구현한다면 농촌지역의 다문화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진로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재다능프로그램을 농촌형 모델로 개발하여 농촌지역에서 실행가능한 방식으로 시범운영 및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을 제안한다. 그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 기존의 다재다능프로그램 중 기초학력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 농촌특화형 프로그램을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에 필요한 내용으로 농촌특화형 다재다능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넷째는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개발하는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하여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지역사회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반영한 연구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연구가 추진되어야 하고, 연구결과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수정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전략 3: 지역중심 정책시스템 강화	
3-2. 지역특성별 연계시스템 구축	관련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형 다문화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교, Wee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시설, 도서관 . 지역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 등의 연계시스템 구축 ■ 농촌형 다문화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농촌진흥청,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협, 여성농업인센터, 농어촌 희망재단, 도서관 등의 연계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배경 및 실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은 결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중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본 연구의 2017년도 보고서(양계민, 2017: 128)에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원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에 제시했던 지역연계모형에 더하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계체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과제 제안

2017년 본 연구의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체계(안)와 기관별 주요 업무분장(안)은 다음과 같다. 즉, 부처로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지역민간단체 등이 각각의 업무를 분장하여 연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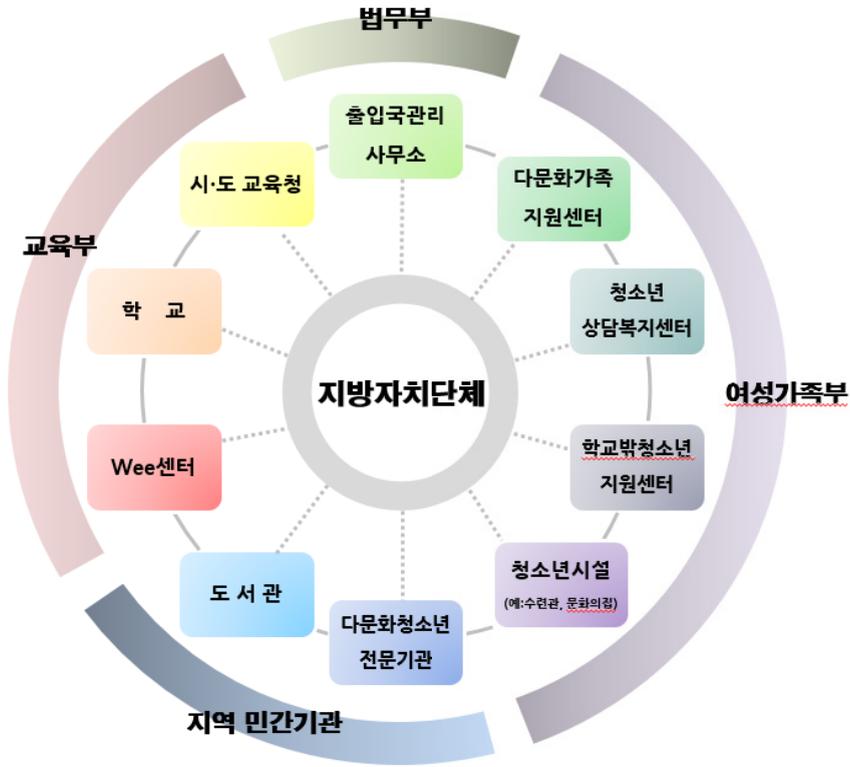


그림 XII-4.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체계(안): 일반형

* 출처: 양계민 (2017: 129) 그림 III-8

표 XII-1. 지역 주요 청소년관련 기관 및 주요 업무분장(안): 일반형

중앙	지역	주요 업무
행정 안전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사업 총괄 ■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 파악, 연계 및 분장 ■ 다문화청소년 현황 통계 파악(학교 내, 학교밖)
교육부	시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다문화연수 ■ 학교다문화교육 정책사업 ■ Wee 센터활용 다문화청소년 상담 지원 ■ 교사,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학부모 교육 주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 학부모 교육 홍보
여성 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협력 ■ 유아 및 아동 생활지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 발생시 지원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청소년 사례관리
	청소년수련관, 청 소년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청소년 진로체험활동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계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청소년 통계 파악 및 정보제공 ■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사업 홍보
지역 민간· 지자체 지원기관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독서지도 등 ■ 한국어글쓰기, 언어멘토링 등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 사례관리 ■ 학부모교육 ■ 학교밖 다문화청소년 지원

* 출처: 양계민 (2017: 130) 표 III-17

이번에 제안하는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체계(안)은 농촌형으로 [그림 XII-5]와 같은 기관들이 연계할 수 있으며, 각 추진기관별 주요 업무내용은 <표 XII-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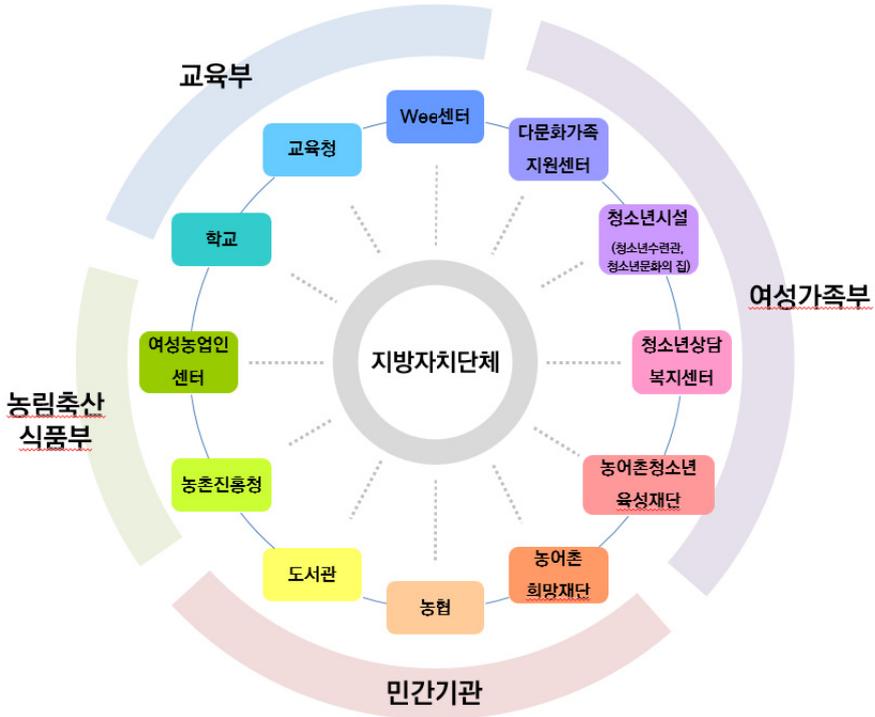


그림 XII-5.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 추진체계(안): 농어촌형

* 출처: 양계민 (2017: 129) 그림 III-8 수정

표 XII-2. 지역 주요 청소년관련 기관 및 주요 업무분장(안): 농촌형

중앙	지역	주요 업무
행정 안전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사업 총괄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 파악, 연계 및 업무분장
교육부	시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Wee 센터활용 다문화청소년 상담 지원 교사,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심리지원사업 홍보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교육 기초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입학전 적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부모 교육 홍보 심리지원사업 홍보
여성 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지원 입학전 기초능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농촌형 다재다능 사업 시범운영 배움지도사 파견 및 관리 방문교육서비스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청소년 활동지원 및 장학지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청소년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온오프) 상담통역 전문인력 양성 심리지원사업 홍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청소년활동 지원
농림축산식 품부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에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포함 농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인력양성사업
	여성농업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청소년 방과후공부방 운영사업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협력
지역 민간· 지자체 지원기관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청소년 독서지도
	농협, 농어촌희망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여성대학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교육강사 양성 지원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 출처: 양계민 (2017: 130) 표 III-17의 수정

3) 정책과제별 추진로드맵

지금까지 제안한 정책과제의 추진로드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XII-3. 정책과제별 추진로드맵

전략	정책과제	내용	2021	2022	2023	
1. 다문화 청소년 기초역량 강화	1-1. 한국어 교육 체계화	단계별 한국어교육 과정 구성	▶			
		단계별 독서지도프로그램 구성	▶			
		단계별 한국어교육 추진		▶	▶	
		단계별 독서지도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확대	▶	▶	▶	
	1-2. 기초 학습능력 제고	입학 전 기초학습능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	
		배움지도사 지원 대상 확대 및 운영	▶	▶	▶	
		대학생 대상 학습코칭 프로그램 개발	▶			
		국외출생자 학습코칭 번역서 개발 및 보급	▶	▶	▶	
	1-3. 심리 적응능력 강화	다문화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			
상담전문가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	▶		
온라인 상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인권침해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		▶	▶	▶		
		지역 심리지원기관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	▶	▶	
2. 부모 주도성 강화	2-1. 부모 교육 강화	법무부 국제결혼이민자 대상 교육의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	▶	
		방문 자녀교육서비스의 부모교육 추진	▶	▶	▶	
		징검다리 프로그램의 부모교육 추진	▶	▶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정 개발	▶			
			지역사회 부모교육 연계 및 추진		▶	▶
	2-2. 부모 주도성 제고	다문화여성대학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여성대학 부모교육 강사 양성 및 교육추진	▶	▶	▶	
		다문화가정 어머니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리더 교육	▶	▶	▶	
여성농업인센터 부모교육 연계 및 추진		▶	▶	▶		
3. 지역중심 정책 시스템 강화	3-1. 농촌지역 정책 강화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다문화청소년지원항목 계획 및 포함		▶	▶	
		미래농업인재양성방안 계획 및 추진	▶		▶	
		농어촌지역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개발 연구 및 추진	▶	▶	▶	
	3-2. 지역특성별 연계시스템 구축	지역특성별 다문화청소년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	▶	▶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내부자료.
-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NEET) (연구보고 18-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 16-R08-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명자, 손은령(2018).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9), 1-20.
- 김소영, 윤기봉 (2016).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271-296.
- 김순규 (2001).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2014).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행동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6(2), 163-182.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연구보고 06-R0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아영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111-134.

- 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남궁지영, 양수경, 이병식, 임후남, 최정운 (2011). **한국 교육종단연구 2005 VII** (연구보고 RR2011-2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혜, 김다경 (2016). **경기도 다문화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보고서 2016-30). 경기: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유빈, 이영민 (2018). **청년층 고용·노동통계 및 실태조사** (정책자료 2018-06).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빈, 이지은, 신선옥, 정현상, 권익성 (2019). **한국노동패널 1~21차년도 조사 자료: 통합설문지**.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은혜, 서지은, 노충래 (2019).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부모의 지도감독,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인과관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21(2), 97-121.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변금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방안** (연구보고 19-R0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이광호 (201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13-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혜, 김지림, 김철효, 김현미, 박영아, 이완, 허오영숙 (2020). **한국사회의 인종 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2019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김한길, 소경희 (2018).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성격의 변화 양상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1(2), 59-83.
- 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 19-R02-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 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박근영, 오지연, 장윤정, 이정환, 김은미, 설가인, 이상민, 이윤정 (2019). 201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통계자료 SM2019-09).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박미라, 양현주 (2018).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예술인문
 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0), 745-753.
- 박병선 (2019).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궤적 및 성별 간 차이분석. **인문사회
 21**, 10(1), 1121-1132.
- 박성준 (2018).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
 청소년연구**, 29(2), 241-269.
- 박영숙, 최효선, 민소영 (2017). 청소년의 지역사회환경 인식이 학교적응에 미치
 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2), 79-101.
- 박영신 (2016). 후기 청소년들의 부모-자녀갈등의 특징과 부모양육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2), 247-265.
- 박혜숙 (2020). 아동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변화양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
 체의식과 사회적 관계 변수의 효과. **교육문화연구**, 26(2), 651-673.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보고 20
 17-10).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성경주, 김재철 (2017).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회
 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4(8), 383-406.
-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5(3), 33-48.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계민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정책제언** (연구보고
 17-R12-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신규패널보고서** (연구보고 18-R14-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강경균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V: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7-R1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김성식, 김재우 (2017).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연구** (연구보고 17-R34). 세종: 교육부.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연구보고 11-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박주희 (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3-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 총괄 보고서** (연구보고 14-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20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6-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장운선, 정윤미 (2019).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9-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 (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8-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여성가족부 (2020).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연보라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연구보고 17-R12-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한구, 김영식, 류지영, 신동중, 이은혜 (2016).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기본사업 2016-10)**.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한구, 민숙원, 류지영, 신동준, 이은혜, 이의규, 정태화 (2017).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2017) (기본사업 2017-1).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혜준, 송창용, 황성수, 민숙원, 백원영, 이은혜, 이지은, 금예진, 김혜정, 박라인, 손희전, 윤종혁, 김영식 (2019).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2019) (기본사업 2019-09).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민희 (2018). **대학생의 부모애착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청소년의 행복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13-4383.
-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경 (2015).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에서 나타나는 종단변화와 그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2(10), 27-48.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해경,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이현정, 손수경, 홍세희 (2018).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 학습활동 및 교우관계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9(1), 209-238.
- 전현정, 정혜원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215-242.
- 정문경 (2020).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청소년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학교사회복지**, 49,

201-227.

- 정민희 (2020).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정서적 역량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2, 63-87.
- 조한익, 권혜연 (2010). 청소년의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1), 47-68.
- 조혜영, 김지경, 전상진 (2012).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12-R0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018).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11).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9-01). 서울: 여성가족부.
- 통계청 (2019.1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대전: 통계청 품질관리과.
- 하형석, 이종원, 정은진, 김성은, 한지형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IX: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8-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2019). **2019년 상반기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 (연구자료 CRM 2019-21).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진주 (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황광훈, 조민수, 박정아 (2018). **청년패널2007 11차(2017) 조사기초분석보고서** (기본사업 2018-107).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Abada, T., Hou, F., & Ram, B. (2009). Ethnic differences in educational attainment among the children of Canadian immigrants.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34(1), 1-28.
- Alba, R. (2005). Bright vs. blurred boundaries: Second-generation assimilation and exclusion i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Ethnic and Racial Studies*, 28(1), 20-49.
- Alba, R., & Waters, M. C. (2011). Dimensions of second-generation incorporation. In R. Alba, & M. C. Water(Eds.), *The next generation: immigrant youth in a comparative perspectives* (pp. 1-28).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Arbeit, C. A., Staklis, S., & Horn, L. (2016). *New American undergraduates: Enrollment trends and age at arrival of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students*. Stats in Brief(NCES 2017-414). U.S. Department of Education.
-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 Baum, S., & Flores, S. M. (2011). Higher education and children in immigrant families. *The future of children*, 21(1), 171-193.
- Blanchard, R. D., Bunker, J. B., & Wachs, M. (1977). Distinguishing aging, period, and cohort effects in longitudinal studies of elderly populations.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 11(3), 137-146.
- Brinbaum, Y. (2018). Incorporation of immigrants and second generation into the French labour market: Changes between generations and the role of human capital and origins. *Social Inclusion*, 6(3), 104-118.

- Chen, W. -H., & Hou, F. (2019). *Intergenerational educational mobility and labour market outcomes: Variation among the second generation of immigrant in Canada*. Analytical Studies Branch Research Paper Series(Catalogue no. 11F0019M-No.418). Statistics Canada.
- Eurofound (2019). *How your birthplace affects your workplace*. Policy Brief,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Fibbi, R., Wanner, P., Topgül, C., & Ugrina, D. (2015). *The new second generation in Switzerland*. Amsterdam University Press.
- Finnie, R., & Mueller, R. E. (2008). *Access to post-secondary education in Canada among first and second generation Canadian immigrants: Raw differences and some of the underlying factors*. Working Paper. Motreal: Canada Millennium Scholarship Foundation.
- Giancola, O., & Salmieri, L. (2018). Education and the inclusion of immigrants: A cross-national analysis among five European countries. *Scuola democratica*, 2, 311-334.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P. (1978, August).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John F. Kennedy center for research on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 Gomensoro, A., & Bolzman, C. (2019). When children of immigrants come of ag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labour market outcomes in Switzerland. *Transition from Education to Employment Working paper series No. 2*.

- Gracia, P., Vázquez-Quesada, L., & Van de Werfhorst, H. G. (2016). Ethnic penalties? The role of human capital and social origins in labour market outcomes of second-generation Moroccans and Turk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2(1), 69-87.
- Heath, A. F., & Cheung, S. Y. (2007). The comparative study of ethnic minority disadvantage. In A. F. Heath & S. Y. Cheung (Eds.), *Unequal chances: Ethnic minorities in Western labour markets* (pp. 1-44). UK: British Academy
- Heath, A. F., Rethon, C., & Kilpi, E. (2008). The second generation in western Europe: Education, unemployment, and occupational attainment. *The Annual Reviews of Sociology*, 34, 211-235.
- Holmberg, L., Kalalathi, M., Varjo, J., Kivirauma, J., Mäkelä, M. -L., Saarinen, M., Zacheus, T., & Jahnukainen, M. (2018). Educational trajectories of immigrant-origin youths in Finland: a mixed method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31(7-8), 563-578.
-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 Kalter, F. (2006). Auf der Suche nach einer Erklärung für die spezifischen Arbeitsmarktnachteile von Jugendlichen türkischer Herkunft/In Search of an Explanation for the Specific Labor Market Disadvantages of Second Generation Turkish Migrant Children: Zugleich eine Replik auf den Beitrag von Holger Seibert und Heike Solga: „Gleiche Chancen dank einer abgeschlossenen Ausbildung?“ (ZfS 5/2005)/Simultaneously

- a Comment on the Contribution of Holger Seibert and Heike Solga (ZfS 5/2005). *Zeitschrift für Soziologie*, 35(2), 144-160.
- Kim, U. (1988).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to Canada: Psychological, Demographic, and Behavioral Profiles of Emigrating Koreans, Non-Emigrating Koreans, and Korean-Canadian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Queen's University, Kingston, Canada.
- Kristen, C., Reimer, D., & Kogan, I. (2008). Higher education entry of Turkish immigrant youth in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49(2-3), 127-151.
- Lagana, F., Chevillard, J., & Gauthier, J. -A. (2014).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early post-compulsory education pathways: A comparison between natives and second-generation immigrants in Switzerlan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0(1), 18-34.
- Langevin, G., Masclet, D., Moizeau, F., & Peterle, E. (2013). *Educational attainment, wages and employment of second-generation immigrants in France*. Center for Research in Economics and Management, Working Paper 2013-27. University of Caen & University of Rennes1.
- Marina, F. -R., Jonas, R., & María, R. (2018). Employment outcomes of ethnic minorities in Spain: Towards increasing economic incorporation among immigrants and the second generation? *Social Inclusion*, 6(3), 48-63.
- Midtbøen, A. H. (2016). Discrimination of the second generation: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Norway.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17, 253-272.
- Portes, A., & Rumbaut, R. G. (2008). *Children of immigrants longitudinal study(CILS)*, 1991-2006.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 Rae, J. (2018). *Making the grade: Immigrant youth in post-secondary education*. Ottawa: Crime Prevention Ottawa.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hson, C. (2007). Can achievement differentials be explained by social class alone? An examination of minority ethnic educational performance in England and Wales at the end of compulsory schooling. *Ethnicities*, 7(3), 306-322.
- Støren, L. A. (2011). Pursuing educational ambitions? Higher education enrollment and the choice of study programmes among immigrant and non-immigrant youth in Norway. *Irish Educational Studies*, 30(2), 159-177.
- Sweet, R., Anisef, P., Brown, R., Walters, D., & Phythian K. (2010). *Post-high school pathways of immigrant youth*. Toronto: Higher Education Quality Council of Ontario.
- Vallet, L. -A., & Caille, J. -P. (1999, September). Migration and integration in France: Academic careers of immigrants' children in lower and upper secondary school.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 Science Foundation conference on Migrations and inter-ethnic relations in Europe, Obernai, France*.
- Waters, M. C., Heath, A., Tran, C. V., & Boliver, V. (2013). Second-generation attainment and inequality: Primary and secondary effects on educational outcomes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In R. Alba & J. Holdaway (Eds.) *The children of immigrants at school: A comparative look at integ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pp. 120-159).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인터넷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2020).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이상).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08&vw_cd=MT_ZTITLE&list_id=G_A_4_1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년 7월 6일 인출.

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6066&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

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교육과학기술부 (2009).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 맞춤형 사업

지원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6066&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교육과학기술부 (2010). `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6066&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

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교육과학기술부 (2011). `11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6067&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

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교육과학기술부 (2012).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6067&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

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 (2013). `13년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6067&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opType=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 교육부 (2014). 2014년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3451&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5&s=moe&m=0302&opType=N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 교육부 (2015).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3451&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5&s=moe&m=0302&opType=N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 교육부 (2016).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407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29&s=moe&m=0302&opType=N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 교육부 (2017).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224&lev=0&searchType=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 교육부 (2018).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3452&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5&s=moe&m=0302&opType=N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 교육부 (2019).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695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 교육부 (2020a).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31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0년 10월 12일 인출.
- 교육부 (2020b). 2020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68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0년 12월 18일 인출.
- 교육부 (2020c). 2020년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79898>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6066&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76066&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2012).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에서 2020년 2월 13일 인출.
- 국민권익위원회 (2018).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14):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해소.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4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77293&currPageNo=6&confId=1013&conConfId=1013&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

- +DESC%2C+BOARD_NUM+DESC에서 2020년 10월 29일 인출.
- 법무부 (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530-13). http://www.onnuri.org/wp-content/uploads/2013/08/2009_%EC%99%B8%EA%B5%AD%EC%9D%B8%EC%A0%95%EC%B1%85%EA%B8%B0%EB%B3%B8%EA%B3%84%ED%9A%8D.pdf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 법무부 (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468&group=/>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 법무부 (2017). 2017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http://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327289/artclView.do>에서 2020년 10월 29일 인출.
-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policy.nl.go.kr/cmmn/FileDown.do?atchFileId=220917&fileSn=62337>에서 2020년 2월 7일 인출.
- 법무부 (2019). 2019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http://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489265/artclView.do>에서 2020년 10월 29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06).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방안.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에서 2020년 2월 13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0).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0년 2월 11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2a).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3~2017).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에서 2020년 2월 13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2b).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3~2017).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N9W3PELI-tDgYm

- BmYxeAP00V.mogef21?mid=plc502&bbtSn=690117에서 2020년 2월 13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8a).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안) (2018~2022).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771에서 2020년 2월 13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8b).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8~2022).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JSESSIONID_KOREA=29ZnbW7QNYLLTBjdL0d13bnYvqLGMSg9b8wmBTVbxQC9Ldvs2nKQ!1185360679!-1623891846?docId=38064에서 2020년 2월 13일 인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0). 정책정보 > 가족 > 가족역량강화 지원.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4.do?mid=에서 2020.12.10.일 인출.
- 질병관리본부 (2019).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https://www.cdc.go.kr/yhs/yhshmpg/main.do#> 에서 2020년 7월 13일 인출.
- 통계청 (2016). 2016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통계표).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4/3/index.board?bmode=read&bSeq=&aSeq=354143&pageNo=3&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 통계청 (2017). 2017년 사회조사표(청소년). <http://kostat.go.kr>.에서 2018년 7월 27일 인출.
- 통계청 (2020).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통계표).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4/3/index.board?bmode=read&bSeq=&aSeq=38259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 행정안전부 (2011). 2011년 외국인주민 현황자료. https://www.mois.go.kr/fo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54&nttId=19652에서 2020년 2월 11일 인출.

- 행정안전부 (2012). 2012년 외국인주민 현황자료. 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4&nttId=19668에서 2020년 2월 11일 인출.
- 행정안전부 (2013). 2013년 외국인주민 현황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35602에서 2020년 2월 11일 인출.
- 행정안전부 (2014). 2014년 외국인주민 현황자료.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8&nttId=42487에서 2020년 2월 11일 인출.
- 행정안전부 (2016).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자료. 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56693에서 2020년 2월 11일 인출.
- 행정안전부 (2017). 2016년 외국인주민 현황자료. 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60528에서 2020년 2월 11일 인출.
- 행정안전부 (2018). 2017년 외국인주민 현황자료. 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66841에서 2020년 2월 11일 인출.
- 행정안전부 (2019). 2018년 외국인주민 현황자료. 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73857에서 2020년 2월 11일 인출.
- 행정안전부 (2020). 2019년 외국인주민 현황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0년 12월 18일 인출.

법령 참고자료

국적법 <http://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5%AD%EC%A0%81%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에서 2020년 2월 11일 인출.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에서 2020년 2월 11일 인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http://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9E%AC%ED%95%9C%EC%99%B8%EA%B5%AD%EC%9D%B8+%EC%B2%98%EC%9A%B0+%EA%B8%B0%EB%B3%B8%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에서 2020년 2월 11일 인출.

청소년 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24&efYd=20190619#0000>에서 2019년 10월 24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에서 2020년 2월 11일 인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언론자료

CTS (2019.05.16.). 2018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보고서 발표. “다문화 청소년 성장할수록 삶의 만족도 하락” <https://www.cts.tv/news/view?ncate=>

- THMNWS01&dpid=249216에서 12월 1일 인출.
- 국민일보 (2017.05.15.). “같은 말·같은 외모의 북한이탈주민, ‘이주자’ 명에 벗고 사회통합 일원 돼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47892&code=11131100&cp=nv>에서 12월 1일 인출.
- 국제뉴스 (2016.06.23.). 남북한 체제의 마음, '냉대와 환대' 어디쯤일까?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410>에서 12월 1일 인출.
- 국제신문 (2014.03.04.). "다문화 청소년, 저소득층일수록 학교 적응 어려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0304.99002152824>에서 12월 1일 인출.
- 국회 (2019.05.03.). 이주배경 아동 교육권 보장 국회 토론회... "제도-학교 연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9/05/03/bbdc3478-a02c-4b19-a2f6-df179f61a9a6.html>에서 12월 1일 인출.
- 내일신문 (2019.04.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 청소년 추적조사 결과] 자랄수록 '삶의 만족도' 떨어진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1197에서 12월 1일 인출.
- 내일신문 (2020.08.26.). 다문화청소년, 집단괴롭힘에도 '도움 요청할 어른 없다' 70.4%.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9992에서 12월 1일 인출.
- 농민신문 (2017.07.12.). 농촌 다문화정책, 2세에 초점을<하>대안은 없다. <https://www.nongmin.com/plan/PLN/SRS/246761/view>에서 12월 1일 인출.
- 농촌여성신문 (2014.11.07). FOCUS-사회통합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16>에서 12월 1일 인출.
- 뉴스1 (2014.11.04.).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 과제는? <https://>

www.news1.kr/articles/?1937048에서 12월 1일 인출.

뉴스시스 (2019.09.30.). 다문화 학생 47.5%는 진로 못 정해…정보력, 가정배경 요인.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930_0000784401&cID=10201&pID=10200에서 12월 1일 인출.

대전일보 (2019.04.21.). 공주시 다문화가족 정책 활성화 토론회 열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65881에서 12월 1일 인출.

동아일보 (2009.11.23.). 다문화 사회의 대응과 전망.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91123/24305296/1>에서 12월 1일 인출.

동아일보 (2012.08.07.). 다문화 어린이 73% “나는 100% 한국인”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807/48410137/1>에서 12월 1일 인출.

매일경제 (2009.02.18.). 청소년 56% "다문화가정 자녀와 친구 안 해"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09/02/104329/>에서 12월 1일 인출.

머니투데이 (2019.05.03.). [오늘의 국회토론회-3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50217527643129>에서 12월 1일 인출.

미디어오늘 (2019.05.04.).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8242>에서 12월 1일 인출.

서울경제 (2012.02.10.). 언어 장벽·차별적 시선에 가족 융화 힘들어 '삼중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216880>에서 12월 1일 인출.

서울경제 (2018.09.1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학계-활동가 모아 '다문화네트워크대회' 개최. <https://www.sedaily.com/NewsView/1S4KZ3LWXH>

- 서 12월 1일 인출.
- 서울경제 (2019.01.13.). "이민자 이웃 싫다"...순혈주의에 숨막힌 '또 하나의 한국인'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0TTI4SF>에서 12월 1일 인출.
- 서울경제 (2019.01.13.). "함께 공부 못해" 따돌림에...다문화 고교생 20% 학업 포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0TP1VUW>에서 12월 1일 인출.
- 서울경제 (2019.01.14.). 단순 적응 아닌 진로 교육 등 보다 현실적인 시스템 갖춰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0TJ7O9V>에서 12월 1일 인출.
- 서울신문 (2015.03.11.). 점점 더 어우러지는 다문화 청소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11009026>에서 12월 1일 인출.
- 세계일보 (2016.11.20.).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관심 밖... '있어도 없는' 존재. <http://www.segye.com/newsView/20161120001363?OutUrl=naver>에서 12월 1일 인출.
- 세계일보 (2016.12.04.). '같이'의 진정한 가치 교육 통해 차별·편견 극복 '한마음' <http://www.segye.com/newsView/20161204001075?OutUrl=naver>에서 12월 1일 인출.
- 신아일보 (2017.02.01.).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학년 올라갈수록 우울해진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145>에서 12월 1일 인출.
- 약업신문 (2010.08.11). 탈북·다문화 청소년 “우리 이야기 들어볼래?”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33408>에서 12월 1일 인출.
- 여성소비자신문 (2018.09.10.). 다문화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성장 지원방안 모색.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64817>

- 에서 12월 1일 인출.
- 연합뉴스 (2012.08.06.). 다문화 어린이 10명 중 7명 "난 100% 한국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740877>에서 12월 1일 인출.
- 연합뉴스 (2013.03.20.). "다문화 청소년 보편적 기준 적용, 지원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56647>에서 12월 1일 인출.
- 연합뉴스 (2013.12.13.). 중도입국청소년 상당수 1년 이상 '나홀로 집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49435>에서 12월 1일 인출.
- 연합뉴스 (2014.03.04.). "다문화 청소년, 저소득층일수록 학교 적응 어려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88553>에서 12월 1일 인출.
- 연합뉴스 (2017.02.01.). "다문화청소년, 고학년될수록 우울감 심해져" 1천300명 추적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70131162300371?input=1195m>에서 12월 1일 인출.
- 연합뉴스 (2018.06.25.). [다문화학생 10만명] ① 진학률 낮고 지원정책도 '부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2062200371?input=1195m>에서 12월 1일 인출.
- 연합뉴스 (2018.06.25.). [다문화학생 10만명] ③ "진로탐색 교육 가장 중요"...전문가 제언.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2062300371?input=1195m>에서 12월 1일 인출.
- 연합뉴스 (2018.09.10.). 제12회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 개막...각계서 300여명 참가. <https://www.yna.co.kr/view/AKR20180907123300371?input=1195m>에서 12월 1일 인출.
- 연합뉴스 (2018.12.12.). "다문화청소년 정책 추진 과정서 의도치않은 '낙인효과'

- 초래"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2123700371?input=1195m>에서 12월 1일 인출.
- 연합뉴스 (2019.04.23.). 다문화청소년 추적조사 결과 "성장하면서 삶의 만족도 떨어져"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3073200371?input=1195m>에서 12월 1일 인출.
- 연합뉴스 (2019.06.13.). "다문화학생도 이질적...문제·욕구 반영해 맞춤 지원 고민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3133500371?input=1195m>에서 12월 1일 인출.
- 연합뉴스 (2020.08.27.). 다문화 청소년, 집단 괴롭힘 당해도 도움 청할 곳 없어 '공공'.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164000371?input=1195m>에서 12월 1일 인출.
- 영남일보 (2014.03.06). "다문화 청소년, 저소득층일수록 학교적응 어려워"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40306.010180801050001>에서 12월 1일 인출.
- 이투데이 (2018.09.10.). "다문화청소년 꿈은 우리 미래"...제12회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 대회. <https://www.etoday.co.kr/news/view/1661313>에서 12월 1일 인출.
- 장애인신문 (2013.05.29.). '다문화', 그 속에 숨겨진 차별.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192>에서 12월 1일 인출.
- 정책브리핑 (2018.09.10.). 다문화, '새로운 세대'를 이야기한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490>에서 12월 1일 인출.
- 조선일보 (2012.09.18.).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1년 만에 69% 급증.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8/2012091800158.html에서 12월 1일 인출.
- 쿠키뉴스 (2017.02.01.).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년 오를수록 우울증 커져" <http://www.kukinews.com>

//www.kukinews.com/newsView/kuk201702010075에서 12월 1일 인출.
쿠키뉴스 (2020.06.26.). 정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공교육 진학 돕는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6260138>에서 12월 1
일 인출.
한국농어민신문 (2016.08.09). 다문화정책 10년 이제는 자녀교육에 달렸다 ⑥국
회 정책토론회.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
=147129](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129)에서 12월 1일 인출.
한국일보 (2012.08.06.).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한국인 정체성 낮아.
<https://news.v.daum.net/v/20120806195712487?f=0>에서 12월 1일 인출.
한국일보 (2017.02.01.). 나이 들수록 위축되는 다문화 청소년. [https://www.
hankookilbo.com/News/Read/201702011680068649](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2011680068649)에서 12월 1일 인출.
헤럴드POP (2013.12.12.). 중도입국청소년 10명 중 4명 “진로 계획 없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212000869&md=20
131215003642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212000869&md=20131215003642_BL)에서 12월 1일 인출.
헤럴드경제 (2019.03.22.). [우리 안의 인종차별] ‘동생 보느라…시선때문에…’
학교 밖 다문화 학생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
0322000090](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322000090)에서 12월 1일 인출.

○ — 부 록

부록

IRB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결과 통보서

과제관리번호	NYPFI-202008-HR-고후-019-01		심의심사일	2020. 6. 11.
연구과제명	2020 차분회계소년 상담연구			
연구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양계민	홍제대 법연수강	실업연구위원	
연구종류	<input type="checkbox"/> 설문조사	<input type="checkbox"/> 면접조사	<input type="checkbox"/> 관찰연구	
	<input type="checkbox"/> 실험연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심의종류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신규)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변경)	<input type="checkbox"/> 지속보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후보보고	<input type="checkbox"/> 최종 심의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귀하가 신청한 위 연구계획(보고)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심의일	2020. 6. 11.	승인번호	202008-HR-고후-011
심의항목	<input type="checkbox"/> 연구설계	<input type="checkbox"/> 연구설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승인	<input type="checkbox"/> 보완 후 재심
	<input type="checkbox"/> 반려	<input type="checkbox"/> 심의보류	<input type="checkbox"/> 연구중지
서면통지	<input type="checkbox"/> 연구대안(사정리)	<input type="checkbox"/> 방법론(연구절차)	<input type="checkbox"/> 방법론(연구절차)
	<input type="checkbox"/> 연구대안(연구절차)	<input type="checkbox"/> 방법론(연구절차)	<input type="checkbox"/> 기타 ()
승인기간	<input type="checkbox"/>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심의대상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서심리심사서	<input type="checkbox"/> 자수실시서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서
	<input type="checkbox"/> 서면통지면제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심의문 및 통지서	<input type="checkbox"/> 기타(연구계획서, 설문조사서, 면접대안, 관찰연구절차, 실험대안, 실험절차, 기타)

심의의견

- 본 연구는 연구계획서 상에 자수실시, 자수자의 및 보호자의 그리고 공무원에서의 승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보관 및 접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조사자의 및 조사자에게 있어서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와 설명문도 상세하고 규정 및 문항을 준비하여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승인 가능으로 판단함.
- 다만 연구 계획서 설명문과 동의서에 조사 참여 목적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할 것을 권고함 2기 추가 제출 대상 설명문에는 해당 1차임을 밝히고 있으나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비유 글이 2기 추가제출 시 고려가 제의되어 있음을 연구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다름가져도 기존 제출의 경우에도 한 집안에서의 제의사항이 적용될 것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본 심의결과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록관리과에 비치됩니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설명문 및 원본서 관련 별첨서류 관련 문서를 관리합니다.
 - 본 연구부위별 통지문은 위원은 원본을 검토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 본 심의결과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보관됩니다.
 - 심의결과에 동의가 불가한 경우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철회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연구자 준수사항

1.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승인된 동의서를 연구대상자의 모국어로 अनुदित 번역본을 사용할 것이며 이러한 동의서 번역본은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연구진행에 있어 연구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대상자와 관련된 모든 변경은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연구대상자들의 보호를 위해 취한 어떠한 대응상황에서의 변동도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6. 연구 수행 중 생중립 및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연구 또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즉각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8.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위원회가 심의한 과제에 대한 조사 및 각종 자료에서 현상만을 살펴서 시 현상만 점검할지 진행을 위해 연구자는 연구진행과 관련된 사유를 준비하고 검토하여야 합니다.
10.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를 사용할 시에는 사용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12. 위원회 심의결과 "승인" 판정을 받은 후부터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3. 승인기간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승인 안료 2개월 전까지 연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4.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5. 연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에 기점으로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16. 그 밖에 관련 사항은 위원회 기공은정시행에 따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020년 6월 23일

위원장 최인재 

심의결과 통보서

과제관리번호	NTPF-202008-HR-교육-020-05		심의심재일	2020. 8. 29
연구과제명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연구기간	2020 년 1 월 1 일 - 2020 년 12 월 31 일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양계민	동계-제일연구실	실업연구위원	
연구총류	[<input type="checkbox"/>] 설문조사	[<input type="checkbox"/>] 면접조사	[<input type="checkbox"/>] 관찰연구	
	[<input type="checkbox"/>] 실험연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심리총류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심구)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행동)	[<input type="checkbox"/>] 지수보고	
	[<input type="checkbox"/>] 후회보고	[<input type="checkbox"/>] 제과 심의	[<input type="checkbox"/>] 기타()	

귀하가 신청한 위 연구계획(보고)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심의일	2020. 7. 9.	승인번호	202008-HR-교육-011
심의형식	[<input type="checkbox"/>] 정규심의	[<input type="checkbox"/>] 신속심의	[<input type="checkbox"/>] 기타()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승인	[<input type="checkbox"/>] 보류 후 재심
	[<input type="checkbox"/>] 반려	[<input type="checkbox"/>] 심의보류	[<input type="checkbox"/>] 연구중지
서면통의	[<input type="checkbox"/>] 연구대상자-개인회	[<input type="checkbox"/>] 행태/상황통의	[<input type="checkbox"/>] 방법론적 개인회
	[<input type="checkbox"/>] 연구대상자-유아회	[<input type="checkbox"/>] 방법론적 유아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승인기간	[<input type="checkbox"/>]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심의대상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서심리심사	[<input type="checkbox"/>] 지수심리심사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서
	[<input type="checkbox"/>] 서면통의/연계심사	[<input type="checkbox"/>] 실험 및 후회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심의회견	- 행정 사무를 중심으로 볼 때 연구 수월성 확보가 적어, 설문 언어에 대한 상세 설명 등 유익한 가지 검토를 이의해 제의를 받고 보완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행정 사무에 대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사의 연구계획 변경심의를 승인 함.		

본 심의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사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록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본 연구와 이해충돌이 없는 위원 심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본 심의결과통보서의 사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심의결과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후회보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0 년 7 월 9 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심의결과 통보서

과제관리번호	NTPF-202007-HR-교육-025-05		심의심재일	2020. 7. 14
연구과제명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연구기간	2020 년 1 월 1 일 - 2020 년 12 월 31 일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양계민	동계-제일연구실	실업연구위원	
연구총류	[<input type="checkbox"/>] 설문조사	[<input type="checkbox"/>] 면접조사	[<input type="checkbox"/>] 관찰연구	
	[<input type="checkbox"/>] 실험연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심리총류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심구)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행동)	[<input type="checkbox"/>] 지수보고	
	[<input type="checkbox"/>] 후회보고	[<input type="checkbox"/>] 제과 심의	[<input type="checkbox"/>] 기타()	

귀하가 신청한 위 연구계획(보고)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심의일	2020. 7. 17.	승인번호	202008-HR-교육-011
심의형식	[<input type="checkbox"/>] 정규심의	[<input type="checkbox"/>] 신속심의	[<input type="checkbox"/>] 기타()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승인	[<input type="checkbox"/>] 보류 후 재심
	[<input type="checkbox"/>] 반려	[<input type="checkbox"/>] 심의보류	[<input type="checkbox"/>] 연구중지
서면통의	[<input type="checkbox"/>] 연구대상자-개인회	[<input type="checkbox"/>] 행태/상황통의	[<input type="checkbox"/>] 방법론적 개인회
	[<input type="checkbox"/>] 연구대상자-유아회	[<input type="checkbox"/>] 방법론적 유아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승인기간	[<input type="checkbox"/>]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심의대상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서심리심사	[<input type="checkbox"/>] 지수심리심사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서
	[<input type="checkbox"/>] 서면통의/연계심사	[<input type="checkbox"/>] 실험 및 후회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심의회견	-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는 통계적 승인문제에 통계학적 통계학적 변경심리과정에서 해당문제에 필요하고 유익한 재검토, 장단일문항이 두 문항 수의 권고를 받은 바 그 행정 사무가 타당함. 또한 기타 변경사항 역시 조사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일함수준으로 판단하여 변경심의를 승인함. 다만, 종단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 시 학제변경에 따른 연도 비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본 심의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사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록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본 연구와 이해충돌이 없는 위원 심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본 심의결과통보서의 사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심의결과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후회보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0 년 7 월 20 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연구자 준수사항

-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 합니다.
-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승인된 동의서를 연구대상자의 모국어로 인종간 번역본을 사용할 것이며 이러한 동의서 번역본은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구진행에 있어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대상자와 관련된 모든 변경은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어떠한 응급상황에서의 변경도 즉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연구 수행 중 생명유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연구 또는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대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즉각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가 심판과 회재에 대해 조사 및 검토 차원에서 현행상황을 살피고 시 필요한 정정/삭제/중단을 위해 연구자는 연구진행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를 사용할 시에는 사용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경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 상충이 발생한 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회 심의결과 '승인' 판정을 받은 후에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승인기간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승인 연도 2개월 전까지 연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관련 사항은 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020 년 7 월 9 일

위원장 최 인 재

연구자 준수사항

-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 합니다.
-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승인된 동의서를 연구대상자의 모국어로 인종간 번역본을 사용할 것이며 이러한 동의서 번역본은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구진행에 있어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대상자와 관련된 모든 변경은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어떠한 응급상황에서의 변경도 즉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 연구 수행 중 생명유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연구 또는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대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즉각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가 심판과 회재에 대해 조사 및 검토 차원에서 현행상황을 살피고 시 필요한 정정/삭제/중단을 위해 연구자는 연구진행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를 사용할 시에는 사용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경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 상충이 발생한 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회 심의결과 '승인' 판정을 받은 후에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승인기간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승인 연도 2개월 전까지 연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관련 사항은 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020 년 7 월 20 일

위원장 최 인 재

ABSTRACT

This study was accomplished to establish the basic data to identify the development of the multicultural youths in Korea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scientific evidence-based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to support the multicultural youths based on the analysis of development trends. For the purposes, this study conducted a tracing survey of two panel cohorts, and analyzed the panel data. Moreover, we analyzed the policies implemented for the last decade to support the multicultural youth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ervene in supporting multicultural youths because they are more likely to be vulnerable in learning and psychological aspects; Second, in comparison with the 1st cohort, the 2nd cohort showed more positive development outcomes, which indicate that Korean society is on the right track in addressing multicultural issues and further developing into a mature society thanks, in part, to government efforts. Nevertheless, the study has identified a considerable gap between groups characterized by family types or status of stay, and so on, suggesting a need to develop more tailor-made policies intended to meet different needs and requirem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hree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seven policy tasks to release the opportunity gap in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youths.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 20-R02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최정원·이수정·장혜림
-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문호영
-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성유리·박윤수·김보경
-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방안 연구 II :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이종원·남화성·정지희
- 20-R0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1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2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 김경준·김정숙·윤철경
-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송태민
-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민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호
-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승경·임세희·최은영
-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 김영자·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심화분석 보고서 / 박환보·주경필
-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자·황세영·최홍일

-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 최인재·강경균·송민경·조윤정·김가희
- 20-R12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황형석
-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 (자체번호 20-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장희영 (자체번호 20-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현·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신동훈·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 (자체번호 2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 (자체번호 2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임희진 (자체번호 2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생 / 배상률·이창호·이정림 (자체번호 2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생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심우민·윤지원·김광희·최원석 (자체번호 2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생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0-R17-2)

연구개발적립금

-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이정민
-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이정민·김수혜
-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수 시 과 제

-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이종원
-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김기현
-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김지연
-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이종원·박정배
-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백혜정

수 탁 과 제

-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안재영·황은희
-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양미석
-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양미석
-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양미석
-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이윤소
-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선보라·이혜옥·이윤소
-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배은정·이윤소
-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선보라·이윤소
-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이혜옥·이윤소
-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이윤소
-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영역 / 김형주·김혁진·김정주
-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40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남화성
-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 20-R41-1 꿈과 친구사이 :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문호영
-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백혜정·이상정
-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황세영·손진화·박명선·박종원·조기영
-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좌동훈
-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최홍일

-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남화성
-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좌동훈
-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 20-R56 복권기금 공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교·김영만·김용성
-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김병완 작가의 쿼텀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 (4.21)

-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 (7.17)
-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마켓을 중심으로(8.26)
-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안팎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0.5)
-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 20-S21 2020 유로펠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방향 모색)(12.18)
-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 20-S26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쓰다 -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 20-S32 진로위기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 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 학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연구보고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인 쇄 2020년 12월 23일

발 행 2020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87-2 94330

979-11-5654-286-5 (세트)



연구보고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2872
ISBN 979-11-5654-287-2 94330
ISBN 979-11-5654-286-5 (세트)